

최종연구보고서

국어학 고유어 용어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2004년 10월

국립국어연구원

제 출 문

국립국어연구원장 귀하

‘국어학 고유어 용어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 귀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4년 10월 1일

연구책임자 : 권 재 일

공동연구자 : 고 동 호

차 례

제1부 연구 개관 / 1

- 1.1. 연구 목적 / 3
- 1.2. 연구 대상 / 4
- 1.3. 연구 추진 방법 / 5

제2부 용어 수집 및 분석 / 7

- 2.1. 용어 수집 과정 / 9
- 2.2. 용어 정리 / 12

제3부 분류 체계의 수립 / 15

- 3.1. 국립국어연구원(2003년) 분류 체계의 검토 / 17
- 3.2. 분류 체계 방법 / 24
- 3.3. 분류 체계 / 25

제4부 분류의 실제와 용어 대조 / 31

제5부 주요 고유어 용어의 의미 기술 / 103

참고 문헌 / 187

제1부 연구 개관

- 1.1. 연구 목적
- 1.2. 연구 대상
- 1.3. 연구 추진 방법

1.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국어학 용어의 분류와 검색에 필요한 용어 분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어학의 고유어 용어를 수집하여 분류하고 이들의 의미를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국어학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과제이다.

국어학의 연구 영역은, 국어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음운, 의미, 문법 영역에서부터 다양한 응용 분야, 인접 학문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간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로 생성된 국어학 용어를 분류하고 체계를 세워 표준화하는 것은 국어학의 연구 성과를 전산화하여 논저의 제목, 주요어, 본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적인 도구로서 의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어학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고 평가하여 앞으로 국어학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현대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국어학 연구가 시작된 지 막 한 세기를 지나면서, 국어학 용어는 고유어를 바탕으로 생성되기도 하였으며, 한자어를 바탕으로 생성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두 계열의 국어학 용어는 그 동안 한편으로는 경쟁적인 관계에 있기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도 하였다.

그간 국어학의 연구 성과를 되돌아보는 연감 편찬이나 국어학 개설서에서 국어학 혹은 언어학의 연구 분야에 대한 개괄적인 분류 체계를 설정한 바는 있으나, 본격적인 분류 체계 수립을 시도한 바는 없었다. 아마 2003년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추진한 “국어학 용어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임홍빈)가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것은 한자어 용어를 중심으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오랜 역사를 지니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국어학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고유어 국어학 용어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어학의 고유어 용어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류 체계를 수립해 보는 것은 대단히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결과적으로는 국어학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에 기여할 것이다.

1.2. 연구 대상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1) 국어학 용어 분류 체계 재검토 및 수정 보완

국립국어연구원의 2003년도 보고서인 “국어학 용어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앞으로, “2003년-분류체계”로 줄임)에서 제시한 국어학 용어 분류 체계를 재검토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한다. 왜냐하면 이 분류 체계는 고유어 용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유어를 고려하면서, 국어학 용어를 효과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수정, 보완된 분류 체계를 제시한다.

(2) 국어학의 고유어 용어 수집 및 분류

고유어 용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어학 용어 분류 체계를 세운다. 일찍이 “주시경 문법”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고유어 용어가 국어학 연구에서 생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그간 학술 논저에 나타난 고유어 용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위에서 세운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배정한다.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고유어 용어는 시기적으로는 20세기 초기 국어학 저술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발간된 논저를 포함하고, 영역별로는 국어학의 기본 영역인 음운, 어휘, 문법, 의미를 비롯하여, 역사, 방언, 문자, 국어학사, 그리고 국어학과 언어학의 인접 및 응용 분야까지 포함한다.

(3) 국어학 고유어 용어의 의미 기술

수집 분류한 고유어 용어에 대한 의미 정보를 기술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자어 용어에 비해 다소 생소하다고 느끼는 고유어 용어의 의미를 기술하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어학 고유어 용어의 의미 기술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고유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에 대응하는 한자어, 혹은 다른 고유어, 서양 외래어를 제시하여 용어를 서로 대조한다.

둘째, 국어학의 연구사적인 관점으로나 현재 국어학 연구의 관점으로 볼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핵심 고유어 용어에 대해서 특별히 언어학사전 기술 방식에 따라 뜻풀이를 제시한다. 자료 검색이나 연구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고유어 용어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3. 연구 추진 방법

이 연구는 2004년도 국립국어연구원의 용역 연구 과제, “국어학 고유어 용어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사업(연구 담당: 학예연구관 최용기)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수행한 구체적인 추진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3.1. 연구 참여자와 연구 기간

연구 참여자

1. 책임 연구원

권재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2. 공동 연구원

고동호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3. 참여 연구원

신은경 (국립국어연구원 어문자료연구부 분석요원)

윤재연 (국립국어연구원 어문자료연구부 분석요원)

4. 연구 보조원

유현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언어학과)

이형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언어학과)

연구 기간

2004년 5월 1일 ~ 2004년 9월 30일 (5개월)

1.3.2. 분류 체계 수립

먼저 “2003년-분류체계”를 재검토하였다. 책임 연구원과 공동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국내외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분류 체계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완성된 분류 체계를 수립하였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1.3.3. 용어의 수집과 분류

고유어 용어 수집을 위한 문헌을 “기본 문헌”과 “확장 문헌”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경우, 참여 연구원과 연구 보조원이 참여하였다. 고유어 용어의 수집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제1단계: 기본 문헌 입력과 용어 가려내기

제2단계: 확장 문헌에서 용어 가려내기

제3단계: 보충 문헌에서 용어 가려내기

제4단계: 용어 정리 및 분류

1.3.4. 고유어 용어의 의미 기술

고유어 용어의 의미 기술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에 나누어 수행하였다.

제1단계: 고유어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에 대응하는 한자어, 혹은 고유어 및 서양 외래어를 대조하여 제시하였다.

제2단계: 핵심 용어로 판단한 경우에는 언어학사전 기술 방식에 따라 뜻풀이를 제시하였다.

제2부 용어 수집 및 분석

2.1. 용어 수집 과정

2.2. 용어 정리

2.1. 용어 수집 과정

국어학 고유어 용어를 수집하기 위하여,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수행 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1.1. 기본 문헌 입력과 용어 가려내기

고유어 용어를 수집하기 위한 기본 문헌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저서를 선택하였다. 첫째, 국어학 연구사적으로 국어 이론의 대표적인 저서일 것. 둘째, 이론 기술에 고유어 용어가 중심인 저서일 것. 이 기준에 따라 다음 두 저서를 선택하였다.

최현배 (1971), 우리 말본, 정음사.

허 용 (1983), 국어학, 샘문화사.

최현배(1971)은 1937년에 초판이 완간된 국어학의 대표적인 저서이다. 음운론을 포함하여 문법론 전반을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까지 다듬어진 고유어를 최대한으로 포함하고 있다. 허용(1983)은 국어학 전반에 대한 확고한 이론과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으며, 역시 고유어로서 기술한 저서이다.

이 두 저서 전체를 전산 입력하였다. 국어학 용어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문맥에 의해 용어의 사용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저서 전체를 입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본 문헌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문 입력을 원칙으로 하여, 고유어 분석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게 한다.
2. 괄호 안에 있는 한자와 외국글자도 그대로 입력한다.
3. 도표, 옛글 표기는 특정 표시를 붙이고 유보한다.
4. 각주도 본문 입력 방법에 따른다.

5. 두 어절 이상의 용어는 이어쓴다. (예) 두루_가리킴_대이름씨

입력한 파일을 대상으로 고유어 용어 추출 프로그램을 통해 고유어 용어를 가려 내었다.

2.1.2. 확장 문헌에서 용어 가려내기

다음 단계로는 고유어로 집필된 국어학의 대표적인 저서를 대상으로 고유어 용어의 수를 확장하였다. 우선 고유어 용어로 많은 저서를 집필한 허웅 선생의 저서에서 고유어 용어를 수집하였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허 웅 (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허 웅 (1985),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허 웅 (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허 웅 (1999),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문화사.

다음은 20세기 초기 및 중기에 발간된 국어학 저서 가운데, 고유어 용어로 쓰인 것을 대상으로 용어를 수집하였다. 주시경 선생의 저서를 비롯한 당대를 대표하는 저서를 대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역대한국문법대계”의 총색인에 실려 있는 고유어 용어를 모두 뽑았다. 대상으로 삼은 저서는 다음과 같다.

주시경 (1910), *국어문법*.

주시경 (1914), *말의 소리*.

김두봉 (1922), *김더조선말본*.

정열모 (1946), *신편고등국어문법*.

김윤경 (1948), *나라말본*.

정인승 (1956), *표준고등말본*.

역대한국문법대계 총색인 (1986), *탑출판사*.

다음은 20세기 후기에 발간된 국어학 저서 가운데, 고유어 용어로 쓰인 것을

대상으로 용어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한글학회에서 발간한 “국어학사전”에 실려 있는 고유어 용어를 모두 뽑았다. 대상으로 삼은 저서는 다음과 같다.

- 김계곤 (1996), 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김석득 (1994), 우리말 형태론 - 말본론, 정음문화사.
- 김승곤 (1991), 한국어 통어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 김승곤 (2003), 현대 표준말본 - 형태론, 한국문화사.
- 한글학회 (1995), 국어학사전, 한글학회.

2.1.3. 보충 문헌에서 용어 가려내기

기본 문헌과 확장 문헌을 통해 충분히 고유어 용어를 가려내었다고 판단하였지만, 혹시 있을 수 있는 용어가 빠졌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최근에 발간된 연구 논저를 살펴 용어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특히, 의미론, 국어학사, 방언학 분야의 논저를 포함하였다. 왜냐하면 용어의 상당수가 문법론과 음운론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다. 대상으로 삼은 논저는 다음과 같다.

- 강우원 (1994), 홀로말의 특성, 한글 225, 한글학회.
- 고창운 (1995), 예사낫춤 서술씨끝의 문법 특성과 의미, 한글 228, 한글학회.
- 권재선 (1988), 국어학 발전사, 우골탑.
- 김영희 (1995), 도움 풀이씨 설정론, 한힌샘주시경연구 7·8, 한글학회.
- 김용경 (1998), 상대높임씨끝 ‘-오/소’의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 한말연구 4, 한말연구학회.
- 김일웅 (1998), 씨끝의 통어적 기능, 국어국문학지 35, 문창어문학회,
- 김정수 (1984), 17세기 한국말의 높임법과 그 15세기로부터의 변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종도 (1996), 도움움직씨 ‘오다/가다’의 상적 의미, 한글 233, 한글학회.
- 김준희 (2003), ‘과’의 통사·의미 분석, 한말연구 12, 한말연구학회.
- 김차균 (1998), 음운론 강의, 태학사.
- 김형배 (2000), 겹홀소리 /ㄷ ㅅ/의 설정에 관하여, 한말연구 6, 한말연구학회.

- 남기심 (1968), 그림씨를 풀이말로 하는 문장의 몇 가지 특징, 한글 142, 한글학회.
- 리의도 (1989), 15세기 우리말의 이음씨끝, 한글 206, 한글학회.
- 박동근 (1995), 흉내말 체계의 “빈칸” 연구, 한말연구 1, 한말연구학회.
- 박선자 (1997), 지움어찌말의 통어이미적 범주, 한국어 의미학 1, 한국어의미학회.
- 배해수 (1990), 국어 내용 연구 - 성격그림씨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이기갑 (1998), 전남방언의 상대높임법, 한글 240-241, 한글학회.
- 이수련 (2000), 풀이소유월의 도식 연구, 한국어 의미학 7, 한국어의미학회.
- 임지룡 (1992), 국어의미론, 탐출판사.
- 정동환 (1999), ‘-하다’ 그림씨의 의미 분석, 한말연구 5, 한말연구학회.
- 조일규 (1995), 중세 국어의 추상화 뒷가지 연구, 한글 228, 한글학회.
- 하치근 (2000), 말본 형태소의 공형태소되기 연구, 한글 250, 한글학회.
- 허원욱 (1999), 임자말 이외의 월성분으로 기능하는 16세기 이름마디, 한말연구 5, 한말연구학회.
- 허재영 (2000), 풀이말 ‘두다’의 문법화, 겨레어문학 25, 겨레어문학회.

2.2. 용어 정리

이상과 같은 3단계를 거쳐 수집한 용어들을 정리하여, 이들 용어를 대상으로 국어학의 고유어 용어 목록을 확정짓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2.2.1. 고유어의 범위

먼저 고유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토박이말을 기본 대상으로 한다.

(예) 기난갈, 날말이음씨, 안웅근이름씨, 높임말, 때매김, 홀월

(2) 토박이말과 한자어가 합쳐서 된 용어 가운데 중심어가 토박이말인 경우

는 포함한다.

(예) 걸림대(代)이름씨, 근육(筋肉)켁김소리, 가로체계(體系), 합침법(法)

2.2.2. 용어의 선정 범위

한자어 용어보다 고유어로 된 용어 가운데는 아직 용어로 다듬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한 것 가운데 다음과 같은 예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지나치게 설명적인 것은 용어에서 제외하였다.

(예) 균소리가_덧들어가는_본없는_움직씨, 뜻_가진_말의_날덩이, 소리의
_완전_갈음에_의한_변화, 뜻_사이의_비슷함 ……

(2) 일상적인 용어는 제외하였다.

(예) 알갱이, 구실, 일, 피하려는_노력, 의지할_수_없는 ……

(3) 특정한 언어 현상이 포함된 것은 제외하였다.

(예) 거라-명령법, 하계-체, ㄱ없앰, 여-벗어난끝바꿈 ……

2.2.3. 용어의 표기

용어의 표기는 원칙적으로 원 자료에 있는 대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비록 같은 개념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표기가 있을 경우, 이것을 모두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즉, (예-1)처럼 같은 개념을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다라고 둘 모두 제시하였으며, (예-2)처럼 표기법의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제시하였다.

(예-1) 이음토, 이음토씨
매인풀이씨, 도움풀이씨
움, 움씨, 움직씨

(예-2) 가리침, 가르침
걸림씨, 걸힘씨
움직씨, 움죽씨
매인이름씨, 매임이름씨, 매힘이름씨

그리고 띄어쓰기와 관련해서는 원 자료의 표기와 관계없이 (예-1)처럼 원칙적으로 붙여쓰기로 하였다. 다만 보기 힘들 정도로 붙여쓰게 되는 경우는 (예-2)처럼 부분적으로 띄어쓰기를 하였다.

(예-1) 덧붙는요소, 갈무리된말, 으뜸기본홀소리, 꼴바뀌는말, 둘째가리
 김대이름씨, 안웅근이름씨 ……

(예-2) 입음의 입자, 낱말의 뜻바탕, 수의적인 빈칸, 같음될 수 없는 음성, 어찌씨같은 매인이름씨, 마음있는 이름씨 ……

2.2.4. 용어의 배정

최초 수집된 자료는 모두 11,038 용어였는데, 중복을 제외한 수는 9,094 용어였다. 이를 이상과 같이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분류의 대상으로 삼아 배정한 것은 모두 4,366 용어였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문법 분야(60.15%), 음성·음운 분야(21.80%)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분류 체계에 따라 배정한 내용은 제4부에 목록으로 제시하겠다.

국어 및 언어 일반	144 개 (3.30%)
음성 · 음운	952 개 (21.80%)
어휘 · 사전	390 개 (8.93%)
문법	2 626 개 (60.15%)
의미 · 화용	96 개 (2.20%)
역사 · 계통	27 개 (0.62%)
문자 · 표기법	116 개 (2.66%)
방언	3 개 (0.07%)
국어학사 · 서지	2 개 (0.04%)
응용 및 인접 분야	10 개 (0.23%)

제3부 분류 체계의 수립

3.1. 국립국어연구원(2003년) 분류 체계의 검토

3.2. 분류 체계 방법

3.3. 분류 체계

3.1. 국립국어연구원(2003년) 분류 체계의 검토

3.1.1. “2003년-분류체계”의 기본 원칙

국어학 용어의 분류 체계를 수립한 “2003년-분류체계”는 분류를 위한 기본 원칙을 세운 바 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33~37쪽).

(1) 분류 대상 원칙: 연구에 포함되는 용어는 국어학 관련 용어와 함께 일반 언어학 용어를 포함한다.

(2) 국어학 용어 우선의 원칙: 국어학 및 언어학 용어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국어학 용어를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진성 원칙: 가능한 한, 국어학 용어나 언어학 용어가 모두 소속될 수 있도록 분야를 설정한다.

(4) 분류의 전통성 원칙: 분류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국어학의 연구 분야에 대한 전통적인 분류를 존중한다.

(5) 분류의 규범성 원칙: 분류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국어학의 연구 분야에 대한 규범적인 분류를 존중한다.

(6) 분류의 계층성 원칙: 용어의 분류항들이 평면적으로 나열되기보다는 가능한 한 계층적인 층위를 이루어 제시되도록 구분항을 설정한다.

(7) 상위 범주 병치의 원칙: 엄격하게 나누어지기 어려운 분야는 분야명을 병치하여 나타내도록 한다.

(8) 소속의 전형성 원칙: 국어학 및 언어학 용어를 소속시킴에 있어서는 전형성을 중심으로 문제의 분류항에 대하여 전형적인 성격을 가지는 항목을 그에 귀속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9) 소거성 원칙: 전형성 원칙에 의하여 일단 이미 어떤 분류항에 속한 항목은 다른 분야에 귀속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중복 분류 허용 원칙: 두 분야에서 동등하게 중요성을 가지는 항목이나 선명하게 어느 한 분야에 소속되지 않는 항목은 중복 분류를 허용한다.

(11) 상위 범주 배당 원칙: 하위 범주를 가지는 상위 범주에도 해당 용어를 배당한다.

3.1.2. 국어학 용어 분류 체계 설정

“2003년-분류체계”에서는 국어학 용어를 우선 1차적으로 ‘대분류 A’, ‘대분류 B’, ‘대분류 C’로 나누고, ‘대분류 A’를 ‘A 내적 구조 영역’, ‘대분류 B’를 ‘B 종합 응용 영역’, ‘대분류 C’를 ‘C 언어 일반 영역’에 해당시켰다. 구체적인 세부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39~43쪽).

A1 음성·음운

A11 음성

A111 조음 기관 및 조음 위치

A112 조음 방식

A113 음성의 종류

A114 음성 분석 및 음성의 특징

A115 음성의 기타

A12 음운

A121 변별적 자질

A122 음운체계

A123 음운의 종류

A1231 분절적 음소

A1232 비분절적 음소

A124 음운 현상 및 규칙

A125 한자음 및 운학

A126 음절

A127 음운의 변화

A128 음운의 기타

A13 형태음소

- A2 문자·표기
 - A21 문자
 - A211 자모 및 문자명
 - A212 자모명
 - A22 표기
 - A221 정서법
 - A222 차자표기
 - A23 부호
- A3 어휘
 - A31 일반 어휘의 종류
 - A32 특수어 및 특수 표현
- A4 문법
 - A41 형태
 - A411 단어형성
 - A412 굴절
 - A413 형태의 변화
 - A414 형태의 기타
 - A42 품사
 - A421 체언
 - A4211 명사
 - A4212 대명사
 - A4213 수사
 - A422 용언
 - A4221 동사
 - A4222 형용사
 - A4223 용언의 기타
 - A423 관계언
 - A4231 조사
 - A42311 격조사
 - A42312 보조사

- A42313 조사의 기타
- A424 수식언
 - A4241 관형사
 - A4242 부사
- A425 독립언
 - A4251 감탄사
- A426 품사의 기타
- A43 통사
 - A431 통사 단위
 - A4311 단어
 - A4312 구
 - A4313 절
 - A4314 문장
 - A43141 문장 성분
 - A43142 문장의 종류
 - A432 구성 · 구조 · 위치
 - A433 통사 현상 및 규칙
 - A4331 태
 - A43311 피동태
 - A43312 사동태
 - A43313 중동태
 - A4332 시제와 상
 - A43321 시제
 - A43322 상
 - A4333 경어법
 - A43331 주체높임법
 - A43332 상대높임법
 - A43333 객체높임법
 - A4334 부정법
 - A4335 격 현상

- A4336 지시·대응 현상
 - A4337 일치·호응 현상
 - A4338 인용법
 - A4339 어순 현상
 - A434 통사의 기타
 - A44 문법의 변화
 - A45 문법의 기타
 - A5 의미·화용
 - A51 의미
 - A511 어휘 의미
 - A512 문장 의미
 - A513 의미의 변화
 - A52 화용
 - A521 화용적 의미
 - A522 수사·문체
 - A5221 수사
 - A5522 문체
 - A522 담화 및 대화
 - A53 의미·화용의 기타
- B1 국어·국어학
- B2 국어사
- B3 국어계통론
- B4 국어학사
 - B41 인명
 - B42 기관·단체·유파
- B5 국어 방언
 - B51 지역 방언
 - B52 사회 방언
- B6 국어 사전 및 사전 편찬

- B61 국어 사전
- B62 국어 사전 편찬
- B7 국어 서지
- B8 국어 교육
 - B81 국어 활동 및 활동 교육
 - B8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 B9 국어정책

- C1 언어
 - C11 언어 · 어파 · 어군 · 어족 이름
 - C12 특수언어
- C2 언어학
 - C21 역사-비교 언어학
 - C22 언어유형론-대조언어학
 - C23 인지언어학
 - C24 수리언어학
 - C25 언어철학
 - C26 텍스트언어학
 - C27 응용언어학 및 인접 분야
 - C271 언어습득론
 - C272 심리언어학
 - C273 사회언어학
 - C274 신경언어학-언어병리학-임상언어학
 - C275 전산언어학-언어공학
 - C276 인류언어학
 - C277 법정언어학
 - C278 번역학
- C3 언어 및 언어학의 기타

3.1.3. “2003년-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2003년-분류체계”은 국어학계 최초로,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 체계를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평가한다. 합리적이고 필요한 기본 원칙을 미리 마련하고, 그 원칙에 따라 국어학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분류 체계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국어학 용어를 우선 1차적으로 ‘대분류 A’, ‘대분류 B’, ‘대분류 C’로 나누고, ‘대분류 A’를 ‘A 내적 구조 영역’, ‘대분류 B’를 ‘B 종합 응용 영역’, ‘대분류 C’를 ‘C 언어 일반 영역’에 해당시켰는데, 이렇게 대분류로 나누어 설정할 필요성보다는 통합할 편의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2) 이와 관련하여, 분류 단계가 지나치게 다단계로 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분절적 음소’와 같은 경우, “A1 음성·음운→A12 음운→A123 음운의 종류→A1232 비분절적 음소”처럼 다섯 단계로 설정되어 있고, ‘격조사’는 “A4 문법→A42 품사→A423 관계언→A4231 조사→A42311 격조사”처럼 무려 여섯 단계로 설정되어 있다. 분류 대상의 양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세분된 분류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다섯 단계, 또는 여섯 단계로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류 체계를 보면, 여섯 단계까지 내려간 분류항은 전체에 걸쳐 몇몇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세부 분류 단계의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처리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가능한 한, 분류 단계가 적을수록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같은 층위라면 가치의 동등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세분된 분류는 그 가치의 동등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여섯 단계인 “A42311 격조사”가 국어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 단계인 “A23 부호”, 두 단계인 “B42 기관·단체·유파”와 비교될 수 있을까?

(3) 하나의 용어가 여러 영역에 걸쳐 있을 경우, 여러 분류항 모두에 배정한 것은 중복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처리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4) 분류 체계에 배정하다 보면, 어느 영역에도 포함하기 어려운 용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모두 각 항목마다 ‘기타’를 설정하여 배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 분류가 모호해 질 염려가 있다.

3.2. 분류 체계 방법

이 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2003년-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삼고,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분류 체계를 새롭게 수립하였다. 여기에서 고려한 주요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분류 체계의 세분화한 단계를 조정하여, 최대 3단계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2003년-분류체계”의 대분류 A, B, C를 나누지 않고, 통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묶었다. 다음은 최상위 분류 범주이다.

0. 일반
1. 음성 · 음운
2. 어휘 · 사전
3. 문법
4. 의미 · 화용
5. 역사 · 계통
6. 문자 · 표기법
7. 방언
8. 국어학사 · 서지
9. 응용 및 인접 분야

국어학 및 언어학 일반 용어를 묶어 0 범주에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든 분류에서 총류에 해당하는 0 범주가 있다.) 그리고 “2003년-분류체계”의 대분류 A, B 범주를 통합하여 2 ~ 8 범주에 설정하였다. “2003년-분류체계”의 B8, B9, 그리고 C의 대부분을 묶어 9 범주에 설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하나의 통합된 체계 안에서 용어 분류를 가능하게 하였다.

(2) 최대 여섯 단계로 설정되었던 “2003년-분류체계”의 단계를 최대 세 단계로 줄였다. 예를 들어 “2003년-분류체계”의 ‘비분절적 음소’(A1232), ‘격조사’

(A42311)를 모두 3단계급으로 ‘운소’(122), ‘조사’(315)와 같이 분류하였다. 이러한 단순화는 편의성과 가치의 동등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3) 하나의 용어가 여러 영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모두 상위 단계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국어학 전체에 걸치는 용어는 ‘국어 및 국어학 일반’(010)에 분류하고, 문법론 전체에 걸치는 용어는 ‘문법 일반’(300)에, 품사 전체에 걸치는 용어는 ‘품사 일반’(310)에 소속하여 배정하였다. 따라서 한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 분류항에만 배정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류 번호 끝 숫자 0 범주는 모두 ‘일반’으로 설정하였다.

(4) 새로운 영역이 생길 경우, 새로운 분류 단계를 신설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어 ‘급치는말, 덧붙는말’과 같은 언어 명칭을 현재 ‘언어 및 언어학 일반’(020)에 배정하였지만, 만약 앞으로 이러한 용어들이 늘어나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 명칭’(021)이라는 새로운 분류 범주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방적인 분류 체계 방식이 새로운 분류 체계의 특징이라 하겠다.

3.3. 분류 체계

위에서 설정한 방법에 따라 새로 세운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대분류는 국어학 전체 영역을 (총류에 해당하는 일반 범주 0 별도로 하고) 크게 9 영역으로 나누었다. 국어학의 기본 연구 분야인 음성·음운, 어휘(사전 포함), 문법, 의미(화용 포함)를 제1 ~ 4 범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역사(계통 포함), 문자·표기법, 방언, 국어학사(서지 포함)를 제5 ~ 8 범주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국어학의 응용 및 인접분야를 제9 범주로 설정하여 국어교육, 국어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응용 분야와 인접 분야를 소속시켰다. 아울러 대분류의 0 범주를 비롯하여, 각 영역 안의 모두에 걸치는 용어를 위해 0 범주, 즉 ‘일반’을 설정하였다. 각 분류의 끝 숫자 0은 각 영역의 ‘총류’인 셈이다.

0 일반

010 국어 및 국어학 일반

020 언어 및 언어학 일반

국어와 국어학 일반에 대한 용어와 언어와 언어학 일반에 대한 용어를 각각 010, 020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용어가 확보된다면, 제3단계까지(예를 들어, 011, 012, 013 등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1. 음성 · 음운

- 100 음성 · 음운 일반
- 110 음성 일반
 - 111 조음기관 및 조음방법
 - 112 음성자질
 - 113 음성분류
- 120 음운 일반
 - 121 음운체계
 - 122 운소
 - 123 음절
- 130 음운의 변이와 변동

말소리에 속하는 음성 · 음운은 크게 ‘일반’(10), ‘음성’(11), ‘음운’(12), ‘음운의 변이와 변동’(13)으로 분류하였다. 음성 영역에는 ‘조음기관 및 조음방법, 음성자질, 음성분류’를 포함하고, 음운 영역에는 ‘음운체계, 운소, 음절’을, 음운의 변이와 변동 영역에는 음운에서 음성으로 바뀌는 다양한 변이 현상과 음운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다양한 변동 현상 모두 포함한다. 이 모든 영역에 다 걸쳐 있는 용어는 ‘음성 · 음운 일반’(100)에 배정한다.

2. 어휘

- 200 어휘 일반
- 210 조어 일반
 - 211 파생어
 - 212 합성어
- 220 사전 일반

어휘는 ‘일반’(20), ‘조어’(21), ‘사전’(22)으로 나누어 분류하는데, 조어 영역은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로 세분하였다. 형태소와 관련한 용어도 ‘어휘’에 포함하였다. 한편 ‘특수어’를 201로 설정하려 했으나, 실제 해당하는 용어가 하나도 수집되지 않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3. 문법

300 문법 일반

310 품사 일반

- 311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 312 용언: 동사, 형용사, 지정사
- 313 수식언: 부사, 관형사
- 314 독립언: 감탄사
- 315 관계언: 조사
- 316 용언의 활용어미

320 문장 일반

- 321 문장단위
- 322 문장성분
- 323 접속문
- 324 내포문
- 325 어순 및 이동, 대치, 생략

330 문장기능 일반

- 331 문장종결
- 332 높임
- 333 시제와 상
- 334 사동
- 335 피동
- 336 부정
- 337 강조
- 338 인칭

문장은 ‘일반’(30), ‘품사’(31), ‘문장’(32), ‘문장기능’(33)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품사는 다시 ‘품사 일반’과,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그리고 용언의 활용어미’로 하위 분류하였으며, 문장은 다시 ‘문장 일반’과 ‘문장단위, 문장성분’, 복합문으로서 ‘접속문’과 ‘내포문’, 그리고 ‘문장성분의 어순 및 이동, 대치, 생략’으로 하위 분류하였다. 그리고 문장기능으로 ‘문종종결, 높임, 시제와 상, 사동, 피동, 부정, 강조, 인칭, 격’ 등으로 하위 분류하였다.

한편, 국어 문법 기술에서 접속사를 따로 기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품사 일반(310)에 배정하며, ‘이다’는 지정사로 보아 용언(312)에 배정하였다. 그리고 인용 구문은 내포문(324)에 배정하였다.

4. 의미 · 화용

- 400 의미 · 화용 일반
- 410 어휘의미 일반
 - 411 의미성분
 - 412 의미관계
- 420 문장의미 일반
- 430 화용의미 일반
 - 431 담화와 대화, 텍스트
 - 432 수사와 문체

의미 · 화용은 ‘일반’(40), ‘어휘의미’(41), ‘문장의미’(42), ‘화용의미’(43)로 분류하였는데, 실제 해당 용어가 많지 않아, 하위 분류는 대부분 유보하였다.

5. 역사 · 계통

- 500 국어사 일반
- 510 음운사 일반
- 520 어휘 및 의미사 일반
- 530 문법사 일반

540 국어계통론 일반

국어사와 국어계통론은 ‘일반’(50), ‘음운사’(51), ‘어휘 및 의미사’(52), ‘문법사’(53), 그리고 ‘국어계통론’(54)로 분류하였다. 이 분야에도 실제 용어가 많지 않아, 하위 분류는 유보하였다.

6. 문자 · 표기법

600 문자 일반

611 훈민정음

622 차자표기

620 표기법 일반

621 문장부호

문자와 표기법은 이곳에 배정한다. 실제 ‘훈민정음’(611)과 ‘차자표기’(622)로 세분했지만, 해당 용어는 없었다. 그러나 문장부호에 대한 고유어 용어는 상당히 많아 ‘문장부호’(621)을 따로 나누었다.

7. 방언

700 방언 일반

710 지역방언 일반

720 사회방언 일반

방언 관련 고유어 용어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지역방언’(71)과 ‘사회방언’(72)로 하위 분류하였지만, 실제 배정된 용어는 없었다.

8. 국어학사 · 서지

800 국어학사 · 서지 일반

810 국어학사 일반

820 서지 일반

국어학사와 서지에 대한 고유어 용어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크게 ‘일반’(80), ‘국어학사’(81)과 ‘서지’(82)로 나누어 두었다.

9. 응용 및 인접 분야

910 국어정책 일반

911 어문규범

920 국어교육 일반

921 국어활동 교육

922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930 언어유형론 및 대조언어학

990 그밖의 응용 및 인접 분야

991 번역학

992 인지언어학

993 심리언어학

994 수리언어학, 전산언어학 및 언어공학

995 언어철학

996 인류언어학

997 신경언어학-언어병리학-임상언어학

국어학의 응용 및 인접분야는 다양하다. 그 가운데 ‘국어정책’과 ‘국어교육’은 직접적인 응용 분야로 판단되어 각각 91, 92로 내세웠다. 언어유형론과 대조언어학은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가 활발한 편이어서 93으로 제시했는데, 그밖에 응용 및 인접 분야는 모두 99로 묶었다. 다만 99에 속한 분야 가운데 앞으로 용어가 풍부해져서 따로 내세울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94 ~ 98에 배정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산언어학의 발전으로 이 분야 용어가 다양해진다면 940 ‘전산언어학’으로 승격할 수 있을 것이다.

제4부 분류의 실제와 용어 대조

분류의 실제와 용어 대조

이제 제2부에서 제시한 과정을 통해 수집한 고유어 용어를 제3부에서 설정한 분류 체계에 따라 배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고유어 용어의 이해를 위하여 대응하는 한자어, 또는 다른 고유어나 서양 외래어로 된 용어를 대조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일러두기

- (1) 배열은 대분류별로 제시한다. 대분류 내에서 하위 분류별로 제시하되, 해당 하위범주에 배정된 용어가 없을 경우에는 그 하위범주명은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류번호의 빈칸이 있을 수 있다.
- (2) 하위범주 내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 (3) 왼쪽에 나열된 용어가 고유어 용어이며, 오른쪽에 나열된 용어가 대조어이다.
- (4) 대조어는 원칙적으로 모든 용어에 다 부여하되, 다음에 따른다.
 1. 가능하면, 원 자료에 나타난 대로 제시한다. 자료에 따라서는 해당 고유어 다음 괄호 속에 한자어를 병기해 둔 경우가 많다.
 2. 대조어는 한자어를 중심으로 하되, 국어학계에서 널리 쓰이는 고유어를 대조어로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서양 외래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3. 대조어가 여럿일 경우에는 모두 제시하였다.
 4. 고유어 용어가 더 일반적인 경우, 대조어 항을 빈칸(— 표시)으로 두었다. 특히 조음기관 이름, 문장부호 이름의 경우가 그러하다.
 5. 고유어 용어가 일반적인 경우라도 보편적으로 쓰이는 한자어가 있을 경우, < > 표 안에 한자어 용어를 넣어 두었다.
- (5) 고유어의 오른쪽 어깨에 * 표시가 있는 것은, 제5부 “주요 고유어 용어의 의미 기술”에서 뜻풀이가 되어 있는 용어를 가리킨다.

0. 일반

010 국어 및 국어학 일반

가로관계*	<통합관계>	구실	자격, 기능
가로체계*	<통합체계>	군더더기	잉여
간접쓰임	간접사용	굴려쓰임	전용
갈*	연구	글썩이	필자
갈결	논리	길*	정도
갈기	연구	나라말	국어
갈라떼기	분리하기	나라말갈	국어학
갈라짐	분리	난	분(分)
갈래	분류	넘나들	—
갈림	분화	넘침	—
갈림점	분기점	넛	대(代)
갈말	용어	노릇	기능
갈아넣기*	대치	대중	표준
갈아넣기원리	대치원리	더불가름	이중분류
갈음	대치	덧남	첨가
갈힘점	분기점	덧매임	첨가
감	재료	덧보탬	첨가
감목	자격	덧붙는요소	첨가요소
값	가치, 가	덩이	단체
거듭	중첩	동아리	부류
거리	재료	두값논리	이치논리, 이가논리
걸림	관계	뒤침	번역
걸침	관계	듣는이	청자
결	부(部)	들뜨기	추상
결갈	논리학	들어냄	표시
결에	부, 족, 류	들음이	청자
결합상의 빈칸	—	말거리	말의 주제
겹	중첩, 중복	말글살이	언문생활
겹가래	복합	말듣는이	청자
겹쳐짐	중첩, 중복	말살이	언어생활
겹침	중첩, 중복	말씨	—
		말하는이	화자

말할이	화자	옛말	고어
맞담	대조	우리말	한국어
맞선관계	대등관계, 대립관계	으뜸바탕	주요자질
맞섬	대등, 대립	으뜸부류	주요부류
맞섬관계	대등관계, 대립관계	이어남	연쇄
맞섬짜임새	대등구조, 대립구조	이젯말	현대어
밑	원(原), 본(本), 기저	읽을이	독자
바꿈	변화	있음	존재
바꿔쓰기	—	있음-없음	유무
바뀜	변화	잘못분석	오분석
바로	직접	잘못새김	오각, 오역
바탈	성질	잘못쪼갠*	오분석
바탕*	자질, 성질	조리갈	논리학
배달겨레	—	줄달이	계열
버금부류	제2차부류	직접쓰임	직접사용
버금요소	제2차요소	짜	—
보람*	표시	짬*	구성, 조직
부러쓰기	언어사용, 언어수행	쪼개기	분석
비두루자질	비보편자질	쪼갠	분석
세로관계*	<계열관계>	참값	진리치
세로체계	<계열체계>	참일	사실
소리말	음성언어	쳐들음	제시
소리맘표	심상	토박이	원어민
소리웁김	음역	토박이말	고유어
속바탈	성질	틀맞추기	—
수의적인 빈칸	—	틈	간격
쓰임새	용법	풀이	설명
아랫범주	하위범주	한나라말	한국어
얼안	공간	한말	한국어
없애기	생략, 탈락	홀진것	단순, 단일
없앰*	생략, 탈락		
영김	응결		

020 언어 및 언어학 일반

갈무리된말	랑그, 저장된언어
굽치는말*	굴곡어
격임	굴절
격임말	굴절어
꺾임질	굴절작용
누리말	세계어
덧보탬말	첨가어, 교착어
덧붙는말*	첨가어, 교착어
말*	언어

말갈	언어학
말겨래	어족
말모듬	말뭉치
말뭉치	—
말뭉치언어학	—
말쫓개기	언어분석
부려쓰인말	빠를
붙는말	첨가어, 교착어
생각말	개념어
참된있음	—

1. 음성 · 음운

100 음성 · 음운 일반

겹쳐진소리	중첩음
고름소리*	조성음
고름홀소리	조성모음
고름소리	조성음
나라말소리갈	국어음학
뒷소리	후행음
말소리갈	음학
말의 익음소리	습관음
무거운소리	중음(重音)
버릇닿소리	자음의 습관음
버릇소리*	습관음
버릇홀소리	모음의 습관음
본디소리	본래음
본소리	본래음
소리	음, 음성, 음운
소리갈*	음학
소리갈의 밋결	음학의 원리
소리값	음가
소리고루기	조성
소리꼴	음형

소리날꼴	음형
소리느낌	음감
소리버릇	음습관
소리없는셈	휴지
익은소리	습관음
익음	습관(음)
익음닿소리	자음의 습관음
익음소리	습관음
익음홀소리	모음의 습관음

110 음성 일반

같음될 수 없는 음성	대치될 수 없는 음성
같음될 수 있는 음성	대치될 수 있는 음성
같음할 수 없는 음성*	대치할 수 없는 음성
같음할 수 있는 음성*	대치할 수 있는 음성
낱소리*	음성
누리말소리갈모	국제음성학회
누리말의 표준소리	국제표준음
누리소리표	국제음성부호표

떨림의 셈	진동수
똑똑함	낭도
말소리	음성
변이음의 이웃돕기*	—
소리낫	음성
소리날덩이	음성
온누리소리표시	국제음성부호
으뜸변이음*	주요변이음
혀끝변이음	설단변이음
홀소리네모꼴	모음사각도
홀소리세모꼴	모음삼각도

111 조음기관 및 조음방법

가락지여린뼈	—
가운데안올림	중설무성
가운데올림	중설유성
가운데혓바닥	—
갈이	마찰
강한터짐	강한파열
거진달음	폐쇄
거짓목청	—
거짓소리청	—
고정자리*	고정위치
공기흐름	기류
공깃길*	간극
공깃길의 크기	—
과여린뼈소리문	—
귀청	—
근육캉김	근육긴장
나는자리	조음위치
날숨	호기
날숨의 힘	호기의 힘
낮은	저(모음)
내는힘*	조음의 세기

내틀	기관
내틀막음	기관폐쇄
내틀막음의 자리	기관폐쇄위치
넙적골	—
노	공기
노의 결	공깃결
높은	고(모음)
느린터뜨림	느린파열
다그기	접근
다막음	완전폐쇄
달음	폐쇄
달힘	폐쇄
닿기	접촉
닿는데	접촉위치
닿는모양	접촉모양
닿는상대	접촉상대
닿는자리	접촉위치
닿는점	접촉위치
닿음	접촉
덜막음	협착
두들기기	탄(설)
두들김	탄(설)
두입술	양순
둥굴음	원(순)
둥근	원(순)
둥근입술	원순
둥글음	원순
둥글	원순
뒤센입천장	—
뒤입천장	—
뒤혀	—
뒤혓바닥	—
뒤혓바닥여린입천장	—
뒤혓바닥올림	후설면유성

뒤엿바닥조음	후설면조음	방패여린뼈앞쪽	—
들숨	흡기	버금조음	제2차조음
떨어올기	(성대)진동	부분닿기	부분밀착
떨음	전(음)	붙같이	파찰
마늘모여린뼈	—	사이달침	—
막음*	장애, 접촉과 접근	센이봉	센입천장
막음없음	장애없음	센입웅	센입천장
막음있음	장애있음	센입천장	—
막음자리	장애위치	소곤소곤	—
막이	장애	소리결	음파
만든입천장	인공구개	소리고루는데	조음부
목	—	소리고름	조성음
목구녕꼴	—	소리나는 양	발음의 양
목구멍머리	—	소리나는자리	발음부
목안	—	소리나는틀	발음기관
목젖	—	소리나는힘	발음력
목청	—	소리남	발음
목청가장자리	—	소리내기	발음
목청달음	성대폐쇄	소리내는데	발음부
목청뿔	성대진동	소리내는방법	조음방법
목청막음	성대폐쇄	소리내는법	조음방법
목청울림	성대진동	소리내는본	조음방법
목청자리	—	소리내는틀*	조음기관
목청터뜨림	성대파열	소리내틀	조음기관
목청터짐	성대파열	소리냄	발음
바늘모여린뼈	—	소리문	<성문>
반낮은	반저(모음)	소리터짐	파열
반높은	반고(모음)	숨관	—
반달	반폐(모음)	숨그릇	—
반달은	반폐(모음)	숨길	—
반달은둥근	원순반폐(모음)	숨대	—
반달은-반연	반폐반개(모음)	숨대가지	—
반쯤달음	반폐(모음)	숨대머리	—
반쯤열음	반개(모음)	숨쉬는데	호흡부
방패여린뼈	—	스침	—

아래목젓	—
아래입술	—
아래턱	—
아랫니	—
아랫입술	—
아랫잇몸	—
아주닿기	완전접촉
아주열음	완전개방
안동굴	평순
안올림	무성
안올림의 휴식	성문단음
안캥김	비긴장. 이완
앞센입천장	—
앞여린입천장	—
앞혀	—
앞혓바닥	—
약한날숨	약한호기
엄니	—
여린뼈	—
여린뼈소리문	—
여린이붕	<여린입천장>
여린입웅	<여린입천장>
여린입천장	—
완전한안올림	완전무성
올대마개	—
올대머리여린뼈	—
올림	유성
올음	유성
웃입술	—
웃잇몸	—
윗니끝	—
윗니뒤쪽	—
윗입술	—
윗잇몸	—
이*	—

이붕	<입천장>
이붕꼭지	—
입길만닫기	구강폐쇄
입길콧길닫기	구강비강폐쇄
입술	—
입술등글음	원순
입술등굴	원순
입술벌림	개구
입술오므림	축(蹙)
입술펴임	평순
입안	—
입안터뜨림	구강파열
입웅	<입천장>
입천장	—
잇몸	—
잇사이	—
잔뜰뼈	—
잔뜰여린뼈	—
조금오그림	소축(小縮)
조금움츠림	소축(小縮)
조음자리	조음위치
캥김	긴장
캥김의 있음-없음	긴장유무
코	—
코안	—
코안터뜨림	비강파열
콧길	—
콧길닫음	비강폐쇄
터뜨림	파열, 외파
터짐	파열
펴짐	평순(모음)
헤침여린뼈	—
혀	—
혀끝	—
혀끝터뜨림	설단파열

혀끝터짐	설단파열
혀말이	권설
혀부리	—
혀뿌리	—
혀앞바닥	—
혀옆	—
혀옆열기	설측개방
혀오그림	축(縮)
혀움츠림	축(縮)
혀터뜨림	설측파열
혀뺨	불축(不縮)
혓바닥	—
후두켁김	후두긴장

112 음성자질

가윗	잉여(자질)
거센	기, 유기
거센바탕	유기자질
거셈	유기
나머지바탕*	잉여자질
넓은소리	—
닿소리바탕	자음자질
뜨내기	운율
뜨내기바탕	운율적 자질
뜨내기소리바탕*	운율적 음성자질
막음소리바탕	장애자질
밝은가지*	양성접사
밝은계열	양성계열
밝은도움줄기*	양성보조어간
밝은소리	양성음
밝은씨끝*	양성어미
밝은토씨	양성조사
밝은홀소리*	양성모음
밝음-어두움	양성-음성(음)
버금바탕	제2차자질

변별바탕*	변별자질
변별바탕의 묶음	변별자질속
변별자리*	변별위치
보편적소리바탕*	보편음성자질
본디소리바탕*	고유음성자질
소리바탕*	음성자질
어두운가지*	음성접사
어두운계열	음성계열
어두운도움줄기*	음성보조어간
어두운소리	음성음
어두운씨끝*	음성어미
어두운토씨	음성조사
어두운홀소리*	음성모음
오그리지않음	불축(不縮)
오그림	축(縮)
오름	축(蹙)
오름바탕	축(蹙)자질
운율바탕	운율자질
움츠림	축(縮)
자리바탕	조음위치자질
제침바탕*	잉여자질
제침자리	잉여위치
터짐바탕	파열자질
특수소리바탕*	특수음성자질
표현적 소리바탕*	표현적 음성자질
홀소리바탕	모음자질

113 음성분류

가-끝의 연결	중성-중성의 연결
가벼운소리	경음(輕音)
가벼운입술소리	순경음
가온갈	중성
가온갈결에	중성부
가운-가운	중설중(모음)
가운-높	중설고(모음)

가운데낮은홀소리	중설저모음
가운데높은홀소리	중설고모음
가운데달은홀소리	중설폐모음
가운데센입천장소리	중설경구개음
가운데여린입천장소리	중설연구개음
가운데줄소리	중설(모)음
가운데홀소리	중설모음
갈림소리	마찰음
같이된소리	마찰경음
같이소리	마찰음
같이없는소리	무마찰음
같이향음	마찰향음
갓갈소리	약마찰음
갓같이소리	약마찰음
같은자리콧소리	동일조음위치비음
거듭모음	중모음, 복모음
거듭자음	중자음, 복자음, 자음군
거듭닿소리	중자음, 복자음, 자음군
거듭소리	중첩음
거듭홀소리	중모음, 복모음
거센소리*	격음, 유기음
거센자음	격음, 유기자음
거진단음소리	폐쇄음
거침홀소리	경유모음
겹소리*	중첩음, 중첩자음
겹침닿소리*	중자음, 복자음, 자음군
겹침소리	중첩음
겹침홀소리*	(이)중모음
겹홀소리*	(이)중모음
굴림된소리	설전경음
굴림소리	설전음

기본홀소리	기본모음
긴닿소리	장(長)자음
긴장홀소리	긴장모음
긴홀소리	장(長)모음
날같이소리	치찰음
날숨목소리	후두호기음
날숨부아소리	폐호기음
날숨소리	호기음
날숨입안소리	구강호기음
낮-가운	저설중(모음)
낮은뒤홀소리	후설저모음
낮은앞홀소리	전설전모음
낮은홀소리	저모음
내림	하강
내림겹소리	하강적 (이)중음
내림겹홀소리*	하강적 (이)중모음
내림두겹홀소리	하강적 (이)중모음
넓은홀소리	넓은모음
넙적합소리	평순음
널어짚치는소리	개방음
높-가운	고설중(모음)
높고짜른소리	고조-단음(短音)
높은-안동근 앞홀소리	전설평순고모음
높은홀소리	고모음
다막음소리	폐쇄음
닫김가래	폐음계열
닫은소리	폐쇄음
닫은홀소리	폐모음
닫음소리*	내파음, 미파음, 불파음
닫침소리	내파음, 미파음, 불파음
닫홀소리	폐모음
닫힌홀소리	폐모음
닿소리*	자음

덜막음소리	협착음	들숨목소리	후두흡기음
덜거듭닿소리	혼성중자음	들숨부아소리	폐흡기음
덜겹닿소리	혼성중자음	들숨소리	흡기음
덜소리*	첩탁음, 중자음(겹 닿소리)	들숨입안소리	구강흡기음
덜하여거듭하는소 리	침가중첩음	떠들소리	조음(噪音)
된소리*	경음	떨소리	전음
된소리계열	경음계열	떨음소리*	전음
된흐린소리	유성경음	막음소리	장애음
두겹홀소리	이중모음	맑은닿소리	무성자음
두들김소리*	탄설음	맑은소리	무성음
두입술같이소리	양순마찰음	목같이소리	후두마찰음
두입술거센소리	양순격음	목구녕같이소리	후두마찰음
두입술거센터짐소 리	양순파열격음	목구멍소리	후두음
두입술소리	양순음	목소리	후두음
두입술콧소리	양순비음	목젓같이소리	목젓마찰음
두입술터짐소리	양순파열음	목청같이소리	성문마찰음
둥굴음소리	원순음	목청달음소리	성문폐쇄음
둥근뒤혀소리	후설원순음	목청막았다가 헤치 는소리	성문폐쇄파열음
둥근뒤홀소리	후설원순모음	목청막음소리	성문폐쇄음
둥근반홀소리	원순반모음	목청소리	성문음
둥근소리	원순음	목청울림없는소리	무성음
둥근앞홀소리	전설원순모음	목청울림있는소리	유성음
둥근홀소리	원순모음	목청터짐소리	성문파열음
뒤-낮은 홀소리	후설저모음	목청헤침소리	성문파열음
뒤여린입천장소리	후부연구개음	반낮은홀소리	반저모음
뒤혀가운데홀소리	후설중모음	반높은홀소리	반고모음
뒤혀계열	후설계열	반달은둥근소리	원순반폐모음
뒤혀높은홀소리	후설고모음	반달은반연홀소리	반폐반개모음
뒤혀둥근홀소리	후설원순모음	반달은소리	반폐모음
뒤혀소리	후설음	반달은앞소리	전설반폐모음
뒤혓바닥소리	후설음	반달은홀소리	반폐모음
뒤홀소리	후설모음	반달홀소리	반폐모음
뒤홀소리계열	후설모음계열	반당소리	반자음
		반연홀소리	반개모음

반열홀소리	반개모음
반잇소리	반치음
반쫄단음소리	반폐모음
반쫄열음소리	반개모음
반헛소리	반설음
반홀소리	반모음
버금기본홀소리	제2차기본모음
부아소리	폐(肺)음
불같이소리	파찰음
불음소리*	자음
사이달침소리	중간폐음
사이덧소리	중간첨가음
사이된소리	중간경음
사이받침소리	—
사이소리	—
사이시옷	—
사이홀소리	중간모음
사이홀홀소리	중간단모음
사잇소리	—
사잇시옷	—
섞김거듭닿소리	혼탁중자음
섞김겹닿소리	혼탁중자음
섞임거듭겹닿소리	혼탁자음
섞임소리*	혼합음
세겹홀소리*	삼중모음
센입천장소리	경구개음
센입천장소리된혀 옆소리	경구개음화설측음
센입천장앞혀바닥 소리	경구개전설음
소근거리는소리	—
소리고루는홀소리	조성모음
소리청소리	성문음
소리토막	분절음
쉬소리	—

스침소리*	—
시끄러운소리	소음
쌍닿소리	쌍자음
아주열음소리	완전개방음
안동근가운데반연 홀소리	중설평순반개모음
안동근홀소리	평순모음
안울림닿소리	무성자음
안울림떨음소리	무성전음
안울림소리*	무성음
안울림약한소리	무성약음
안울림의 짝	무성의 짝
안울림향음	무성향음
안켁김홀소리	이완모음
안켁김홀홀소리	이완단모음
앞높은안동근홀소 리	전설평순고모음
앞높은홀소리	전설고모음
앞닿소리	전설자음
앞뿔고뒤흐린소리	반유성음
앞센입천장소리	전부경구개음
앞여린입천장소리	전부연구개음
앞혀가운데홀소리	전설중모음
앞혀높은홀소리	전설고모음
앞혀동근홀소리	전설평순모음
앞혀바닥소리	전설음
앞홀소리	전설모음
약한소리*	—
어금닛소리	—
얼치기홀소리	반모음
여린입천장소리	연구개음
여린입천장콧소리	연구개비음
여린입천장터짐소 리	연구개파열음
연홀소리	개모음
옆같이소리	설측마찰음

예사맑은소리	평무성음	입술등근홀소리	원순모음
예사맑은터짐소리	평파열음	입술무거운소리	순중음
예사소리	평음, 연음	입술소리	순음
예사홀소리	예사모음	입술소리된닿소리	순음화자음
예사흐린소리	평유성음	입술펴인홀소리	평순모음
오름	상승적	입안소리	구강음
오름겹홀소리*	상승적 중모음	입옹소리	구개음
오름두겹홀소리	상승적 이중모음	입천장소리	구개음
완전한터짐소리	완전파열음	입천장소리된닿소리	구개화자음
울림같이소리	유성마찰음	잇몸소리	치조음
울림굴림소리	유성설전음	잇몸콧소리	치조비음
울림닿소리	유성자음	잇몸터짐소리	치조파열음
울림소리*	유성음	잇사이소리	치간음
울림없는같이소리	무성마찰음	잇소리	치음
울림없는소리	무성음	중얼거림	—
울림없는터짐소리	무성파열음	짜거듭소리	혼성중첩음
울림잇소리	유성치음	짜소리*	쌍탁음, 중첩음
울림있는소리	유성음	캐김반홀소리*	긴장반모음
울림콧소리	유성비음	캐김소리	긴장음
울림터짐같이소리	유성파찰음	캐김홀소리*	긴장모음
울림터짐소리	유성파열음	코홀소리	비모음
울림홀소리	유성모음	콧소리*	비음
울음소리	유성음	터뜨림소리	파열음
울음없는소리	무성음	터짐같이소리	파찰음
윗잇몸소리	치조음	터짐닿소리	파열자음
으뜸기본홀소리	제1차기본모음	터짐된소리	경파열음
으뜸조음	기본조음	터짐소리	파열음
웃듬소리*	모음	터짐장애음	파열장애음
이입술소리	순치음	터짐흐린소리	유성파열음
이틀소리	치조음	튀김소리	탄설음
인두소리	인두음	헤침소리	파열음
인후소리	인후음	혀굴림소리	전설음(顛舌音), 설 전음
입소리	구강음	혀끝같이소리	설단마찰음
입술가벼운소리*	순경음		
입술등근소리	원순음		

혀끝달음소리	설단폐쇄음
혀끝달침소리	설단폐쇄음
혀끝닿소리	설단자음
혀끝소리	설단음
혀끝터짐소리	설단파열음
혀끝흐름소리	설단유음
혀낮은홀소리	저모음
혀높은홀소리	고모음
혀뒤소리	후설음
혀말이소리	권설음
혀바닥소리	설면음
혀뿌리소리	설근음
혀옆소리*	설측음
혓바닥소리	설면음
혓소리	설음
홀-닿소리	자음-모음
홀소리*	모음
홀소리겹침	모음중첩
홑소리*	단음(單音), 단자음(單子音)
홀닿소리	단자음
홀소리	단순음
홀음소	단음소
홀홀소리*	단모음(單母音)
흐름소리*	유음
흐린소리	유성음, 탁음(濁音)

120 음운 일반

결음소의 가치	표면음소의 가치
겹음소	(이)중음소
고나	음소
끊어짐	절단
끊음	절단
닿소리가세법칙	자음가세법칙
닿소리대응	자음대응

닿소리세기법칙	자음가세법칙
닿소리힘줌	자음가세
닿소리힘줌법칙	자음가세법칙
대표소리	대표음
뭉음	<속(束)>
버금변이음*	제2변이음
소리덩이의 거둠	음운연쇄의 중첩
속음소	기저음소
홀소리대응	모음대응
홀소리맞부딪침	모음충돌
홀소리맞섬	모음대립
홀소리맞섬법칙	모음대립법칙
홀소리부딪음*	모음충돌
홀소리상대법칙*	모음상대법칙

121 음운 체계

가장작은 짝	준동음어, 최소대립쌍
갈음향	대치향
거센소리의 짝	유기음의 대응음
거센 짝	유기음의 대응음
겹상보배치*	이중상보배치
나는데	조음위치
빈자리	—
빈칸	—
상관뭉음*	상관속
세모조직	—
소리들의 줄	음운연쇄
소리맞섬	음운대립
소리체계	음운체계
오르림상관	축(蹙)상관
외돌토리	—
음소의 맞섬	음소대립
의심스런 짝	—
의심없는 짝	—

이웃소리	연접음소
작대립	양분대립
작소리말	첩음어(疊音語)
작없는	—
작없는음소	—
작있는	—
작있는음소	—
체계상의 빈칸	—
홀소리상관	모음상관
홀소리조직	모음조직
홀소리체계	모음체계

122 운소

가운데가락	중조
구절끝 높낮이	구역양
굴곡가락	굴곡조
긴소리	장음
길고자름	장단, 음장
길이	장단, 음장
길이언어*	음장언어
끝가락	어말음조
나란이가락	평탄조, 수평조
낮고긴소리	저조-장음
낮고짜른소리	저조-단음
낮은가락	저조
낮은소리	저음
날내악센트	음절악센트
내림가락	하강조
내림조	하강조
높고낮음	고저
높낮이	고저
높낮이형	고저형
높아가는가락	상승조
높아가는소리	상성
높은가락	고조

높은소리	고성
높이	고저
높이언어	고저언어
높이의 단계	—
높이의 운소	성조
따로길이	단독음장
말가락	어조
말높이	음의 고저
말세기	단어강세
맞낮은소리	평성(平聲)
맞높은소리	거성(去聲)
세고여림	강약
세기	강약
세기언어	강약언어
센소리*	강음
소리가락*	음조
소리길이	장단, 음장
소리김	장단, 음장
소리내는힘의 세 여림	강약
소리높고낮음	고저
소리높낮이	고저
소리높이	고저
소리높임	고저
소리세고여림	강약
소리세기	강약
소리의 길고짜름	장단, 음장
소리크기	음의 대소
소리힘*	음의 강도
소리힘의 세고여림	강약
수평가락	평탄조, 수평조
수평말끝높이	어말평탄조, 어말 수평조
쉽	휴지
씨가락	어조

씨울림	단어강세
엷힌음소	운소
엷힌음소	운소
오름가락	상승조
오름조	상승조
월가락	억양
짧은소리	단음(短音)
짧은음소	단음소(短音素)
짧은홀소리	단모음(短母音)
처음이 낮고 내중 이 높은 소리	상성
홀소리길이	모음의 장단
홀소리높이	모음의 고저
홀가락	단조(單調)
힘의 세기	강약

123 음절

가운뎃소리*	중성, 모음
개방이음새	개방연접
거듭끝소리	어말중첩음
겹닿소리*	자음군
겹받침의 끝소리	음절말자음군, 종 성자음
골짜기	비성절음
긴밀이음새	긴밀연접
꼭대기*	성절음
끝닿소리	음절말자음
끝닿소리떼	음절말자음군
끝소리*	음절중성
끝소리마디	어말음절
끝소리합용병서	중성합용병서
끝음	말음
끝음절	어말음절
끝홀소리	어말모음
낮내*	음절

날내*	음절
단긴음절	폐음절
단친날내	폐음절
단힌날내	폐음절
단힌음절	폐음절
단힘연접	폐쇄연접
닿소리떼	자음군
닿소리-홀소리 이 음	자음-모음 연결
딴이	음절부음
말꼬리	어말
말끝소리	어말음
말머리	어두
말머리닿소리떼	어두자음군
말머리울림소리	어두유성음
말첫머리	어두, 초성
말첫머리닿소리떼	어두자음군
맑은첫소리	어두무성음
맛높은점	최고점
머리소리	두음
받친날내	폐음절
받침날내	폐음절
받침소리	중성, 음절말음
받침없는날내	개음절
받침없는줄기	개음절어간
받침있는줄기	폐음절어간
받침날내	폐음절
센음절	강음절
셋닿소리떼	삼중자음군
소리날내	음절
소리덩이	음운연쇄
소리마디*	음절
소리이어남	연음
소리이음*	연음
소리이음규칙	연음규칙

열린날내	개음절
열음날내	개음절
음절끝닿소리	음절말자음
음절끝소리	음절말음
음절끝홀소리	음절말모음
음절짜임새	음절구조
음절첫소리	음절초성
이은소리*	연음
첫-가 연결	초성-중성 연결
첫-가운데 이음	초성-중성 연결
첫-가운데-끝소리 이음	초성-중성-중성 연 결
첫닿소리	초성자음
첫머리	(음절)어두
첫머리닿소리때	어두자음군
첫소리*	초성
첫소리글자	초음자
첫소리자리	초성위치
첫음	초성
홀소리이음	모음연결

130 음운의 변이와 변동

간극닿음	간극동화
갈음형태	대치형태
같이소리되기	마찰음화
같은모음연접법	동일모음연접법
같은소리되기	동음화
같은소리부딪침	동음충돌
같은소리없앰	동음생략
같은소리줄임	동일음운축약
같은자음연결법	동일자음연결법
같은조음자질되기	동일조음자질화
거센소리되기*	격음화, 유기음화
건너	간접
건너닿기*	간접동화, 간격동 화

겹닿음*	이중동화
겹받침줄이기*	자음군단순화
겹소리됨	중첩음화
겹소리없앰	중첩음생략
겹쳐진소리없앰*	중첩음생략, 동음 생략
겹친소리없앰	중첩음생략, 동음 생략
겹침소리없앰	중첩음생략, 동음 생략
겹침소리줄임	중첩음축약, 동음 축약
겹홀소리되기	이중모음화
고름소리없애기*	조성음생략
고름홀소리줄이기	조성모음축약
공깃길닿기	간극동화
공깃길닿음*	간극동화
공깃길좁히기*	간극좁히기
긴소리되기	장음화
길이바꾸기	음장교체
길이바뀜	음장교체
끊음소리	절음
끊음소리법칙*	절음법칙
끊임소리	절음
끝닿소리바뀜	음절말자음교체
끝닿소리줄임	음절말자음생략
끝소리자리옮기 기*	중성위치이동
끝소리줄임	중성생략
끝음절줄임	어말음절생략
끝홀소리바뀜	어말모음교체
끝홀소리줄임	어말모음생략
끼어들어감	삽입
나리닿음	순행동화
내리달라짐	순행이화
내리닿음*	순행동화

내리닿음소리	순행동화음	방법바뀔	방법이화
닿음소리되기*	내파음화, 미파음화, 불과음화	버릇소리바꾸임	습관음변동
달라붙음	융합	변이형태의 이웃돕기*	—
달라지기	이화	부분닿음*	부분동화
달라짐*	이화	붙어달라짐	인접이화
닿기	동화	붙어닿음*	인접동화
닿은바뀔	동화	붙어자리바꿈	인접전위
닿음*	동화	붙음소리이어서박금	자음접변
닿소리만나바꾸임	자음접변	붙음소리접변*	자음접변
닿소리맞대기	자음대응	사이끊음소리	—
닿소리변이규칙	자음변이규칙	사이소리되기*	—
닿소리없애기	자음생략	사잇소리앞닿소리 줄임	사잇소리앞자음생략
닿소리없앰	자음생략	서로닿음*	상호동화
닿소리이어바뀔*	자음접변	섞갈림	혼태
닿소리이어붙이기	자음연접	섞인바뀔	혼합접변
닿소리이음	자음연결	세기바꾸기	강세변동
덧나기	음운첨가	센입웅소리됨	경구개음화
된소리되기*	경음화	센입천장변이음	경구개변이음
두들김소리되기	탄설음화	센입천장소리되기	경구개음화
뒤여린입천장소리 되기	후부연구개음화	소리갈음	음성대치
떨어져달라짐	간격이화	소리값바꿈	음가변화
떨어져닿음*	간격동화	소리거듭	음의 중첩
떨어짐*	음운탈락, 음운생략	소리끊음	절음(絶音)
떨음소리되기*	설전음화	소리끊음현상	절음현상
머리소리규칙*	두음규칙	소리끼어듸	음소삽입
바꾸이는소리	변동대상음	소리달라짐*	이화
반듯이되는닿아짐	필연동화	소리닿음*	동화
반흔소리되기*	반모음화	소리덧붙임	첨가
반흔소리없애기*	반모음생략	소리동화	동화
반흔소리없앰	반모음생략	소리바꿈	변이/변동
받침규칙	중성규칙	소리바꾸는모습	변이/변동
받침법칙	중성법칙	소리바꾸는조건	변이/변동 조건
방법닿음	방법동화	소리바뀔	변이, 변동

소리변동	변동
소리보탬	음운첨가
소리부딪음	음운충돌
소리엮음	—
소리조화	조화
소리줄임*	생략, 축약
순환변동홀소리	순환변동모음
안닿기	비동화
안닿음	비동화
안올림소리되기	무성음화
앞소리끊기	—
앞여린입천장소리 되기	전부경구개음화
앞홀소리되기	전설음화
어우름	조화
어울림	조화
여린입천장소리되 기	연구개음화
완전닿음*	완전동화
올림닿기	유성동화
올림바꾸기	유성-무성 변이
올림바뀜	유성-무성 변이
올림소리되기*	유성음화
음절짜임새맞추기	음절구조조정
이봉소리되기*	구개음화
이어바꿈	접변
인두소리되기	인두음화
일곱끝소리되기	칠중성화
입술닿음	순동화

입술소리되기	순음화
입용소리되기	구개음화
입천장소리되기*	구개음화
자리닿음*	위치동화
자리옮김*	조음위치이동
짧은소리되기	단음화
첫소리법칙	두음법칙
치달라짐	역행이화
치닿기	역행동화
치닿음*	역행동화
콧소리되기	비음화
콧소리로바꾸임	비음화
혀말이소리되기	권설음화
홀소리갈음	모음교체
홀소리고름	모음조화
홀소리교체	모음교체
홀소리끼리닿음	모음동화
홀소리닿음	모음동화
홀소리바꿈	모음교체
홀소리부딪침	모음충돌
홀소리어울림*	모음조화
홀소리어울림규칙	모음조화규칙
홀소리없앰	모음생략
홀소리줄임	모음생략, 모음축 약
홀소리충돌	모음충돌
홀홀소리되기*	단모음화
후두소리되기	후두음화
흐린소리되기	유성음화

2. 어휘 · 사전

200 어휘 일반

가닥물골*	변이형태
감말	단어, 사(詞)

감말논	단어론, 사론
같은꼴	동형
거센말*	—

걸날뜻	형식사	말끝	어형
공형태소되기	공형태소화	말날덩이	단어
기결에의 난틀	단어류체계	말몸	단어
꿀말	형식어	말맞몸	기저어
꿀바꿈없는 유일형태소	형태변화없는 유일형태소	말사슬	어휘연쇄
꿀부딪음	형태충돌	말수	어휘
꿀없는 변이형태	무형의 변이형태	매인형태소	의존형태소
꿀없는 형태소	무형의 형태소, 영형태소	모양홍내말	의태어
꿀없는말	무형태어	모자란형태소*	불구형태소
꿀없음	무형태	물골	형태소
꿀있는말	유형태어	몸*	형태소, 단어
꿀있음	유형태	몸짓말	—
낫몸*	단순어	몸짓홍내말	의태어
날뜻*	단의, 단순의미	밋말	어원
날말*	단어	밑말	원형
날말덩이	단어군	바뀔말	변동형태
날말때	단어군	복잡한이은말	복잡한 연어
날말론	단어론, 어휘론	본디말	원형
날말무리	단어군	본딧말	—
날말범주	어휘범주	본말	본래단어
날말의 뉘뉘이	어휘구조	빛깔말	색채어
날몸	단순어	사람이름	인명
늘어난형태	확대형	삼가말	—
늦씨*	<형태소>	새말	신어
대표말	대표형태	센말	—
덧매김말	첨가어	소리시늉말	의성어
도움날뜻	보조단어	소리홍내말*	의성어
도움날말	보조단어	숨어있는형태소	숨어있는 형태소
들온말	차용어, 외래어	시간말	시간어휘
들옴말	차용어, 외래어	시늉말	상징어
딸림말	종속어	씨몸	품사
딸림몸	종속어	안매인것	자립형태소
땅이름	지명	안매인형태소	자립형태소
		약한말	—
		얕잡은말	<작은말>

엇꼴	변이형
으뜸꼴*	기본형
으뜸말	주요어
으뜸변이형태	주요변이형태
으뜸소	기본소
익은말	숙어
익은씨	관용어, 숙어
작은말	—
찾기	빈도수
제침공형태소	잉여공형태소
좁은말	—
준꼴	생략형태
준말	약어
줄기*	어간
줄기끝닿소리	어간말자음
줄기끝홀소리	어간말모음
줄달이말	계열어
줄어없어진말	생략어
줄어진꼴	생략형
줄어진말	생략어
줄인꼴	생략형
줄인말	생략어
줄임꼴	생략형
짓소리시늉말	의성의태어
짓시늉말	의태어
짓흙내말	의태어
짹씨	첩어
최소의 짹말	최소대립어
큰말	—
한소리	동음
한소리말	동음어
홀날말	단순어
홀씨*	단순어
흙내말	상징어
힘줌말	강세어

210 조어법 일반

가상적 가지	가상접사
가상적 뿌리*	가상어근
가상적 줄기	가상어간
가위질말*	절단형, 준말
같은되풀이법	동일반복법
거듭씨	복합어, 합성어
겹날말	복합어
구속뿌리	의존어근
기똥박꿈*	어의전성
날말만들기	조어법
날말짜임새	단어구성
단어만들기	조어법
단어만들기감	조어재료
덧감말	복합단어
덧붙임-되풀이법	첨가-반복법
덧붙임-되풀이-소리바꿈법	첨가-반복-음운변화법
덧붙임법	첨가법
덧붙임-소리바꿈법	첨가-음운변화법
덧붙임-줄임법	첨가-생략법
덧붙임-합침법	첨가-합성법
덧붙임-합침-소리바꿈법	첨가-합성-음운변화법
덧붙임-합침-줄임법	첨가-합성-생략법
도움뿌리*	보조어근
되풀이-소리바꿈법	반복-음운변화법
되풀이-줄임법	반복-생략법
되풀이짜임새	반복구조
되풀이-합침-덧붙임법	반복-합성-첨가법
둘배합법	—
뒤말뿌리	후행어근
마디줄임법	절생략법

말만들기	조어
말만들규칙	조어규칙
말만들법*	조어법
말밑스러운뿌리	어원적 어근
말밑스러운줄기	어원적 어간
말뿌리	어근
머리글자말	두음자
밑말*	어원
밑말가려잡기	기저형선택
밑말기본형태	기저형
밑말잡기	기저형선택
바꿈꼴말	전성어
바꿈법	변화법
바탕말	기본어
반모자란형태소	유사불구형태소
반복불구뿌리	반복불구어근
분리-덧붙임법	분리-첨가법
분리-덧붙임-소리 바꿈법	분리-첨가-음운변 화법
분리-합침법	분리-합성법
불구뿌리*	불구어근
뿌리*	어근
뿌리말	어근어
소리바꿈법	음운변화법
소리바꿈-줄임법	음운변화-축약법
씨뿌리*	어근
씨뿌리또몸	어구(語軀)
어찌씨다운뿌리	부사적 어근
영되기	영화(零化)
완전되풀이되기	완전반복화
원말	원어휘
임자씨-특수뿌리	명사-특수어근
자름법*	절단법
자립뿌리	자립어근
특수뿌리	특수어근

합침-소리바꿈법	합성-음운변화법
합침-줄임법	합성-생략법
합침-줄임-소리바 꿈법	합성-생략-음운변 화법
흥내뿌리	상징어어근

211 파생어

가지*	접사
가지갈아넣기법	접사대치법
가지덧보탬	접사첨가법
가지되기	접사화
가지법	파생법, 파생피동 법
가지붙이기	파생법
가지붙인말	파생어
가지붙임	접사파생
가지붙임말	접사파생어
가지붙임법	접사파생법
가지의 임자	접사의 주어
가지의 풀이	접사의 서술어
가지치기	파생법
가지친말	파생어
감목바꾸는 뒷가지	자격변화접미사
기몸박곰*	파생법
꼬리더음	접미사첨가
꼬리엄	접미사
꼴없는 가지*	무형의 접사
꼴없는 뒷가지	무형의 접미사
끝가지	접미사
날말만드는가지	파생접사
날말파생	단어파생
단순가지	단순접사
달힘가지	폐쇄접사
닿소리뒷가지	자음접미사
더음	접사파생

덧붙이	접사	소리고르는뒷가지	조성 접미사
덧붙임	첨가	속가지*	접요소, 접중사
뒤붙이말	접미파생어	씨가지*	접사
뒤붙임법	접미파생법	씨가지스런바탕	접사자질
뒤붙임성	접미파생성	씨뒷가지	접미사
뒷가지*	접미사	씨앞가지	접두사
뒷가지되기	접미사화	앞가지*	접두사
뒷가지법	접미(파생)법	앞가지되기	접두사화
뒷가지붙이기	접미파생	앞가지법	접두파생법
뒷가지파생법	접미파생법	앞가지붙이기	접두파생
뒷가지파생어*	접미파생어	앞가지파생법	접두파생법
덧붙이	접미사	앞가지파생어*	접두파생어
덧붙임법	접미(파생)법	앞뒤붙임법	접두-접미법
뜻더하는 꼬리더음	어휘적 접미파생	앞붙이	접두사
뜻더하는 머리더음	어휘적 접두파생	앞붙이말	접두파생어
뜻더하는 씨가지	어휘적 접사	앞붙임법	접두파생법
말가락고루는 뒷가 지	어조조성접사	억밋음	부사파생동사
말만드는가지	파생접사	억본음*	부사파생동사
말만드는뒷가지	파생접미사	엇본억*	형용사파생부사
말만드는씨가지	파생접사	엇본언*	형용사파생관형사
머리	접두어	엇본임	형용사파생명사
머리가지	접두사	엇억본음*	형용사파생부사의 파생동사
머리더음	접두사파생	열림가지	개방접사
머리엄	접두사	영파생가지	영(零)파생접사
못맺음뒷가지	비종결접사	움몬만	동사파생어
발가지	접사	움밋억	동사파생부사
변진말	파생어	움밋언	동사파생관형사
부정앞가지*	부정접두사	움밋임	동사파생명사
불구가지	불구어간	움본억*	동사파생부사
붙이법	접사법	움본언*	동사파생관형사
비슷한가지*	유사접사	움본임*	동사파생명사
소리고루는머리더 음	조성음접두사	움억밋음	동사파생부사의 파 생동사
소리고루는씨가지	조성음접사	움억본음	동사파생부사의 파 생동사

움언	동사파생관형사
움의 억씨	동사파생부사
움의 언씨	동사파생관형사
유사가지	유사접사
임밋언	명사파생관형사
임밋엇	명사파생형용사
임밋움	명사파생동사
임본언*	명사파생관형사
임본엇*	명사파생형용사
임본움*	명사파생동사
임언	명사파생관형사
임엇밋임	명사파생형용사의 파생명사
임엇본임*	명사파생형용사의 파생명사
임엇억밋움	명사파생형용사의 부사파생동사
임엇억본움*	명사파생형용사의 부사파생동사
임엇엇본움	명사파생형용사의 형용사파생동사
임엇움	명사파생형용사의 파생동사
임움밋임	명사파생동사의 파 생명사
임움본임*	명사파생동사의 파 생명사
임움억본움*	명사파생동사의 부 사파생동사
임움엇밋움	명사파생동사의 형 용사파생동사
파생가지*	파생접사
파생그림씨	파생형용사
파생느낌씨	파생감탄사
파생뒷가지	파생접미사
파생매김씨	파생관형사
파생밑	어근
파생씨가지	파생접사

파생앞가지	파생접두사
파생어찌씨	파생부사
파생움직씨	파생동사
파생이름씨	파생명사
파생이음씨	파생접속사
파생임자씨	파생명사
파생토씨	파생조사
파생풀이씨	파생용언
허리더움	접요파생
허릿가지	접요사, 접중사
홀소리가지	모음접사
홀소리뒷가지	모음접미사
힘들임도움줄기	강세보조어간, 강 세접미사
힘춤가지	강세접사
힘춤꼴*	강세형
힘춤도움줄기*	강세보조어간, 강 세접미사

212 합성어

가위질합성어	절단합성어
가진거듭씨	유속합성어
가진겹씨*	유속합성어
가진씨	유속합성어
겹씨*	합성어
겹씨만들기	합성어구성
겹이름씨	합성명사
겹쳐진말	합성어
겹친말	합성어
겹침말	합성어
겹합성어	이중합성어
겹형태	중첩형태
곳감겹말	장소재료합성어
기몸힘	합성법
녹아붙은것	융합

녹아붙은어찌씨	융합부사
녹아붙음	융합
녹은거듭씨	융합합성어
녹은겹씨*	융합합성어
녹은씨	융합합성어
녹은합친말	융합합성어
녹음	융합
녹음관계	융합관계
늘어붙음	융합
단순합침법	단순합성어
대등합성그림씨	대등합성형용사
대등합성셈씨	대등합성수사
대등합성어찌씨	대등합성부사
대등합성움직씨	대등합성동사
대등합성이름씨	대등합성명사
대등합성임자씨	대등합성체언
대등합성풀이씨	대등합성용언
되풀이합성어	반복합성어
되풀이합친말	반복합성어
뒷말	후행어
말린합친말	종속합성어
맞선합친말	대등합성어
모인몸	합성어
모힌몸*	합성어
몸씨합성	합성어
몽침	융합
반복합성꾸밈씨	반복합성수식사
반복합성느낌씨	반복합성감탄사
반복합성대이름씨	반복합성대명사
반복합성매김씨	반복합성관형사
반복합성셈씨	반복합성수사
반복합성엇	반복합성형용사
반복합성이름씨	반복합성명사
벌린거듭씨	나열합성어
벌린겹씨*	나열합성어

벌린씨	나열합성어
복합합침법	복합합성어
뿌리합치기	합성법
셈합성어	수합성어
씨어우름	품사합성
영긴이은말	융합연어
종속합성그림씨	종속합성형용사
종속합성대이름씨	종속합성대명사
종속합성셈씨	종속합성수사
종속합성어찌씨	종속합성부사
종속합성움직씨	종속합성동사
종속합성이름씨	종속합성명사
종속합성풀이씨	종속합성용언
지정합침법	지정합성어
통어적 합치기	통사적 합성
통어적 합친말	통사적 합성어
파생적 합성이름 씨*	파생적 합성명사
합성이름씨	합성명사
합성임자씨	합성명사
합성특수뿌리	합성특수어근
합성풀이씨	합성용언
합치기	합성법
합친말	합성어
합친뿌리	합성어근
합침	합성
합침법	합성법
확대합침법	확대합성법

220 사전 일반

뜻풀이	정의
말광	사전
말모이	사전
사전뜻	사전적 의미
올림말	표제어

3. 문법

300 문법 일반

가까운가리킴	근칭
가까움*	근칭
가르침	지시
가름	구분, 단정
가리킴	지시
가리켜잡음	지정
가리킴*	지시, 인칭
가림	선택
가지그림	수형도
가짐	소유
같은서열되기	동일서열화
같음견증	동등비교
거느림*	주종관계
거짓뜻함	가상, 추정
건너로이끌림	간접이끌림
결반이	조용
결구조	표면구조, 표층구조
결구조화	표면구조화, 표층구조화
결꼴	표면형
결모양	형식
결법칙	형식법칙
결짜임새	표면구조, 표층구조
견증	비교, 대비
곧금	장소한정
곳	처소
굴곡가지*	굴곡접사
굴너잇음	전접(轉接)
그리여김	시인
그림	형용, 성상
그림말	형상어

그림폴이	도해
글	문장
금	수식, 한정
기델성	의존성
기덤	의존
꾸밀말	피수식어
꾸밈	수식, 한정
꾸밈관계	수식관계
꾸밈을 받는말	피수식어
꾸밈의 서로맞음*	수식의 조용
꾸밈짜임새	수식구성
나라말본	국어문법
나라말본갈	국어문법론
나무꼴*	수형도
다스림	지배
다스림-뭉기 관계	지배-결속 관계
달힘굴곡가지	폐쇄굴곡접사
달힘굴곡뒋가지	폐쇄굴곡접미사
대상-폴이	대상-서술
대상-폴이의 짜임새	대상-서술 구조
되쓰기규칙	—
되폴이	반복
두갈	양성(兩性)
두기능법*	—
두루성	보편성
두루자질	보편자질
두자격법*	—
들어낼꼴	표시형
듬*	(문장)구성법
듬난*	문장구조분석
듬난틀	문장구조분석체계
딸림감	종속성분

딸림성	종속성	매임	의존, 한정
딸임	종속	매임성	의존성
떠나는데	출발점	매힘	의존, 한정
떠난데	출발점	먼가리킴	원칭
떠난자리	출발점	모른가리킴	부정칭(不定稱)
떠남	출발	모임	집합
떨어진가리킴	간격지시	목숨자질	유정성 자질
띄운가리킴	간접지시	못됨	불능
마디점	교점	못함	불능
마땅함	당위	못딸림	다중종속
마음가짐	의향	못매임	다중수식
말듬*	통사론	바람	희망, 원망
말본	문법	바로-건너	직접-간접
말본갈*	문법학	버금본드*	부차예문
말본뜻	문법적 의미	본풀	기본형
말본바탕	문법자질	본디짜임새	본래구성
말본범주	문법범주	비우기	—
말본스런	문법적	비쳐따름	조응
말본스런걸림	문법관계	서로맞음	호응
말본얼안	문법체계	셈	수량
말본의미	문법적 의미	셈금	수량한정
말본정보	문법정보	속구조	심층구조
말본짜임새	문법구조	속구조의 입자말	심층구조의 주어
말본체계	문법체계	속뜻*	<심층의미>
말본표지	문법표지	속엮이	심층구조
말본풀이	문법적 설명	속짜임새	심층구조
말본형태소	문법형태소	속형태	기저형
말본형태소되기	문법형태소화	손질	—
맞값기	조응	수갈	남성
맞값음	조응	수의적 가려잡기	수의적 선택제약
매김	한정, 관형, 수식	안잡음	부정(不定)
매김-받침 짜임새	수식어-피수식어 구조	암갈	여성
매김변형	관형변형	언불이	의존
매김짜임새	수식구조	용근	완전, 자립
		완전비우기	—

우리말본	국어문법
움직이논이	동작주
움직임	동작
움직임의 입자	동작주
월의 그림폴이	구문도해
월지우기	문장삭제
월쪼개기	문장분석
이끌림	통솔
이끌말	통솔어
이은말없이말본	구구조문법
일	사건
일문	사물
자리만듬법	논항증가
작은월	—
잘된월	문법적 문장
잘못된월	비문법적 문장
잡음	지정
준굴곡가지	준굴곡접사
줄어없어짐	생략
줄어짐	생략
줄여없앰	생략, 축약
줄임*	생략
지님	보유, 지속
짜이름	구성
짜임	구성
짜임새	구성
짜임새맞추기	구성조정
짜임새바뀜	구성변화
짤조각	구성
짹듬갈*	문장론, 통사론
통어짜임의 바꾸임	변형
판단맛깊음	판단조응
포갠	중첩
폴이성	서술성
폴이힘	서술력

310 품사 일반

갈음씨	대치사
기*	품사
기갈래의 난틀*	품사분류체계
기결에	품사류
기난*	품사분류
기난갈	품사론
기난틀	품사분류체계
펼바뀌는말	형태변화어, 활용어
펼바뀌지않는말	무형태변화어, 비활용어
펼씨	형식사
두레씨	범위사
모임씨	집합사
몸바꿈	품사전환
몸씨	품사, 단어
생각씨*	개념어
씨	품사
씨가름*	품사분류
씨가름갈	품사론
씨가름론	품사론
씨갈*	품사론
씨갈래	품사분류
씨갈음	품사분류
씨난	품사분류
씨난갈	품사분류론
씨날틀	품사분류체계
씨몸바꿈*	품사전성
씨몸바뀜	품사전성
씨바꿈*	품사전성
씨바뀜	품사전성
씨범주	품사범주
씨의 뜻바꿈*	품사의 전의

씨줄기	어간
씨짜힘	품사구성
으뜸씨*	기본사
이은씨	접속사, (접속조 사+연결어미)
이음씨*	접속사, (접속조 사+연결어미)
험*	수, 수량

311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가리침넋임	지시대명사
가리침대임	지시대명사
가리킴대이름씨	지시대명사
가산이름씨	가산명사
가진이대이름씨	물주대명사(物主代 名詞)
거듭셈	복수
걸림대이름씨	관계대명사
겹셈	복수
겹셈이름씨	복수명사
곳대이름씨	처소대명사
곳대임	처소대명사
굳은이름씨*	구체명사
그림씨성이름씨	성상명사
까닭대임	원인대명사
끝없는 이름	무형의 명사
끝없는 이름씨*	무형의 명사
끝없는 입	무형의 체언
끝없는 입자씨	무형의 체언
끝임자씨*	형식체언
끝있는 이름	유형의 명사
끝있는 이름씨*	유형의 명사
끝있는 입	유형의 체언
끝있는 입씨	유형의 체언
남대신이름	대명사
날님씨	개체명사

넋님	대명사
넋임	대명사
님씨	명사
대신이름	대명사
대신이름말	대명사
대신임*	대명사
대용대인이름씨	대용의존명사
대이름씨	대명사
대이름씨화	대명사화
대임*	대명사
대표이름*	대명사
덩이님씨	단체명사
도로가리킴	재귀
도로다른가리킴	재귀
도리켜가리킴	재귀
도움넋님	보조대명사
도튼이름	총칭
돌붙을꼴	재귀형
돌이켜가리킴	재귀
돌이킴대이름씨	재귀대명사
두로님	보통명사
두로임	보통명사
두루가리킴*	공통칭
두루대명사	보통대명사
두루이름	보통명사
두루이름씨*	보통명사
두루임*	보통명사
둘째가리킴대이름 씨*	제2인칭대명사
둘째같은형식명사	제2형식명사
둘째사람대임	제2인칭대명사
때대이름씨	시간대명사
마음없는 이름씨	무정물체명사
마음있는 생물	유정물
마음있는 이름씨	유정물명사

마음있음-없음	유정성	불구이름씨	불구명사
매인이름씨*	의존명사	불구임자씨	불구체언
매임넋임	의존대명사	불구적매인이름씨*	불구의존명사
매임대신이름	의존대명사	불완전이름씨	불완전명사, 의존명사
매임대임	의존대명사	빼낸이름씨	추상명사
매임이름씨	의존명사	사람넋임	인칭대명사
매히이름씨	의존명사	사람대명사	인칭대명사
명호언*	체언의 관형사 기능	사람대이름씨*	인칭대명사
모름	부정(不定)	사람대임	인칭대명사
모름대신이름	부정(不定)대명사	사람대표이름*	인칭대명사
모름대임	부정(不定)대명사	사물이름씨	사물대명사
모름사람대임	부정(不定)인칭대명사	셈날덩이매인이름씨	수량의존명사
모임이름씨	집합명사	셈날덩이안용근이름씨	수량불완전명사
목숨이름씨	유정명사	셈날씨	수량사
몬*	사물명사	셈넋임	수량대명사
몬대이름씨*	사물대명사	셈님	수명사
몬대임	사물대명사	셈대신이름	수량대명사
몬대표이름*	사물대명사	셈대이름씨	수량대명사
몬제이름	보통명사	셈대임	수량대명사
몸말	체언	셈덩이불완전이름씨	수단위불완전명사
몸말바꿈	체언곡용	셈말	수사
몸바뀌된대이름씨	전성대명사	셈수명사	수사
몸바뀌된이름씨	전성명사	셈술	수량
물건과일대신이름	대명사	셈술날덩이	수량의 단위
물건대이름씨	물건대명사	셈술이름씨	수량명사
물음넋임	의문대명사	셈씨*	수사
물음대이름씨	의문대명사	셈이름씨	수명사
물음명사	의문명사	셋째가리킴대이름씨*	제3인칭대명사
물질이름씨	물질명사	수단위매인이름씨*	수량단위의존명사
밑대임	기본대명사	숨은임	숨은 체언
바탕임자씨*	성질체언		
반복안용근이름씨	반복불완전명사(의존명사)		
버금대이름씨	제2차대명사		

실질임자씨	실질체언
씨가지스런이름씨	접사적 명사
안웅근이름씨*	불완전명사, 의존 명사
안잡힌가리킴	부정칭(不定稱)
안잡힌셈	부정수(不定數)
안잡힌셈씨	부정(不定)수사
안잡힘	부정칭(不定稱)
안잡힘대이름씨	부정(不定)대명사
안잡힘몬대이름씨	부정(不定)대명사
안잡힘사람대이름 씨	부정(不定)인칭대 명사
어찌씨같은 매인이 름씨*	부사적 의존명사
어찌씨같은 안웅근 이름씨	부사적 의존명사
어찌씨같은 이름씨	부사적 명사
어찌씨처럼 쓰이는 매인이름씨	부사적 의존명사
언불이임*	<의존체언, 의존명 사>
언불이임씨	<의존체언, 의존명 사>
언잇	의존명사
여느매인이름씨	보편적의존명사
여느안웅근이름씨	보편적불완전명사
여느안웅근이름 씨*	보편적불완전명사
여느이름씨	보통명사
역행대이름씨화	역행대명사화
예사이름씨	보통명사
웅근이름씨*	완전명사, 자립명 사
완전이름씨	완전명사, 자립명 사
움직씨성이름씨	동사성명사
위치말매인이름 씨*	위치의존명사

으뜸셈	기수사
으뜸셈씨*	기수사
으뜸셈이름씨	기수사
이름말	명사
이름씨*	명사
일대임	일대명사
일대표이름*	일대명사
일몬가리킴대이름 씨	사물지시대명사
일임*	보통명사
임*	체언, 명사
임기	체언, 명사
임기몸	체언, 명사
임몸	체언, 명사
임씨	체언, 명사
임씨몸	체언, 명사
임자씨*	체언, 명사
자리대명사	위치대명사, 처소 대명사
자립이름씨*	자립명사
자립임자씨	자립명사
잡힌셈	지정수사
잡힘	정칭, 지정칭
잡힘사람대이름씨	지정인칭대명사
저대신이름	재귀대명사
절임	불완전명사, 의존 명사
제님	원명사
제이름씨*	본래명사
제임	본래명사
준말이름씨	명사줄임형
차례셈	서수사
차례셈씨*	서수사
차례셈이름씨	서수사
첫째가리킴대이름 씨*	제1인칭대명사

첫째사람대임	제1인칭대명사
추상대인이름씨	추상의존명사
추상이름씨	추상명사
헤아림이름씨	추측명사
형식임자씨	형식명사
홀로님	고유명사
홀로이름씨*	고유명사
홀로임	고유명사
홀로임만*	단독보조사
홀로제임*	고유명사
홀이름씨	고유명사
홀셈	단수

312 용언: 동사, 형용사, 지정사

가량험엇*	수량형용사
가리침언	지시형용사
가리침언씨	지시형용사
가리킴그림씨*	지시형용사
가리킴어떻씨	지시형용사
가리킴움직임씨	지시동사
가림언	선택형용사
갈언	성질형용사
감각그림씨	감각형용사
값어치도움그림씨*	가치보조형용사
값어치도움어떻씨	가치보조형용사
값어치매인그림씨	가치의존형용사
갖은움직씨	완전동사
갖은풀이씨*	완전용언
거짓꾸밈도움그림씨	가식보조형용사
거짓부리도움움직씨*	가식보조동사
거짓부리매인움직씨	가식의존동사
건너남음	간접타동사

건느남음	간접타동사
견줌그림씨*	비교형용사
견줌어떻씨	비교형용사
견줌엇*	비교형용사
견줌풀이씨	비교용언
겹남움직씨*	이중타동사
경로풀이씨	경로용언
그리는씨	형용사
그리여김도움그림씨*	시인보조형용사
그리여김도움움직씨*	시인보조동사
그리여김도움풀이씨	시인보조용언
그리여김매인그림씨	시인보조형용사
그리여김매인움직씨	시인보조동사
그리여김잡음씨	시인지정사
그림동사	성상동사
그림씨*	형용사
그림어떤씨	성상형용사
그림어떻씨	성상형용사
긍정잡음씨	긍정지정사
기술그림씨	기술형용사
기울말잡음씨	보어지정사
기울성동사	보어성동사
검목줄기	자격어간
풀그림씨*	성상형용사
풀어떻씨	성상형용사
풀언	성상형용사
풀언씨	성상형용사
풀움직씨	형식동사
풀풀이씨*	형식용언
끝바꿈움직씨	활용동사
남음*	타동사

남움의 뜻바꿈	타동사의 의미교체	마땅함매인움직씨	당위의존동사
남움직성*	타동성	매인그림씨	보조형용사
남움직씨*	타동사	매인움직씨	보조동사
너김잡음씨	인정지정사	매인풀이말	보조용언
담화움직씨	담화동사	매인풀이씨*	보조용언
대그림씨	대형용사	매인풀이씨의 짜임 새	보조용언구성
대용그림씨	대형용사	매임움직씨	보조동사
대용움직씨	대동사	모름언	부지(不知)형용사
대움직씨	대동사	모름엇*	부지(不知)형용사
대풀이씨	대용언	모양도움그림씨*	상태보조형용사
더부사리형식동사	불구형식동사	모양도움어떻씨	상태보조형용사
더불성동사	공동성동사	모양도움풀이씨	상태보조동사
더불어남	공동타동사	모양매인그림씨	상태의존형용사
더불제움	공동자동사	모양움직임씨	상태동사
더불형식동사	공동형식동사	모엇*	상태형용사
도달점풀이씨	도달점용언	모자란그림씨	불구형용사
도로된본대움직씨	재귀대동사	모자란매인그림씨	불구의존형용사
도로된움직씨	재귀동사	모자란움직씨*	불구동사
도움그림씨*	보조형용사	모자란풀이씨	불구용언
도움어떻씨	보조형용사	몸같이없는동사	무활용동사
도움움즉씨	보조동사	몸바뀌된어떤씨	전성형용사
도움움직씨	보조동사	몸바뀌된움즉씨	전성동사
도움풀이씨	보조용언	못갓은풀이씨	불구용언
틀이킴남움직씨*	재귀타동사	물모엇*	성상형용사
동작성그림씨	동작성 형용사	물음언	의문형용사
동작움직씨	동작동사	물품엇	물질형용사
동작풀이씨	동작용언	뭇짜제움	다중자동사
된도움그림씨	전성보조형용사	미룸도움그림씨*	추정보조형용사
된도움어떻씨	전성보조용용사	미룸매인그림씨	추정의존형용사
된도움움직씨	전성보조동사	미룸보조형용사	추정보조형용사
두기도움움직씨	보유보조동사	바꾸임움직씨	전성동사
떠날성동사	출발동사	바람도움그림씨*	희망보조형용사
마디풀이몸	절용언	바람도움어떻씨	희망보조형용사
마땅함도움움직 씨*	당위보조동사	바람매인그림씨	희망의존형용사

바로남음	직접타동사	벗어난풀이씨	변칙용언
바로움*	주동사	보탤성동사	보어성동사
바로힘*	주동사, 직동사	본대도움그림씨	본래보조형용사
바른그림씨	규칙형용사	본대도움어떨씨	본래보조형용사
바른끝바꿈도움어 떨씨	규칙활용보조형용 사	본대도움움직씨*	본래보조동사
바른끝바꿈어떨씨	규칙활용형용사	본대움직씨*	본래동사
바른끝바꿈움즉씨	규칙활용동사	본바탕그림씨	성질형용사
바른끝바꿈움직입 씨	규칙활용동사	부정그림씨*	부정형용사
바른당소리움직입 씨	규칙자음동사	부정도움그림씨*	부정보조형용사
바른바꿈	규칙활용	부정도움움직씨*	부정보조동사
바른움즉씨	규칙동사	부정도움풀이씨	부정보조용언
바른움직씨	규칙동사	부정잡음씨*	부정지정사
바른풀이씨	규칙용언	부정풀이씨	부정용언
바른홀소리어떨씨	규칙모음형용사	부지엿*	부지(不知)형용사
바른홀소리움직입 씨	규칙모음동사	불구풀이씨*	불구용언
바탕그림씨*	성질형용사	불완전움직씨	불완전동사
바탕어떨씨	성질형용사	불완전제힘풀이씨	불완전능동사
바탕언	성질형용사	불완전풀이씨	불완전용언
바탕언씨	성질형용사	비상도움움직씨	비상보조동사
바탕풀이씨*	성질용언	비형용풀이씨	동사
반복풀이씨	반복동사	상도움움직씨	상보조동사
벗어난그림씨	변칙형용사	상태움직씨	상태동사
벗어난끝바꿈	변칙활용	상태풀이씨	상태용언
벗어난끝바꿈그림 씨*	변칙형용사	설비엿*	지시형용사
벗어난끝바꿈도움 움직씨	변칙보조동사	섬김도움움직씨*	봉사보조동사
벗어난끝바꿈어떨 씨	변칙형용사	섬김매인움직씨	봉사의존동사
벗어난끝바꿈움즉 씨	변칙동사	셈술그림씨*	수량형용사
벗어난끝바꿈움직 씨*	변칙동사	셈어떨씨	수량형용사
벗어난움직씨	변칙동사	셈언	수량형용사
		셈언씨	수량형용사
		소유풀이씨	소유용언
		속걸그림씨*	속걸형용사, 심리 형용사
		수량엿*	수량형용사
		수여움직씨	수여동사

수행움직씨	수행동사
순간움직씨	순간동사
스스로바탕그림씨	자립형용사
스스로움직씨*	자동사
시각그림씨	시각형용사
시간엇*	시간형용사
시인도움그림씨	시인보조형용사
실상그림씨	성상형용사
실질매인풀이씨	실질보조용언
실질풀이씨*	실질용언
쏟린동사	편성(偏性)동사
썸남음	타동사
썸말	서술어
썸씨	용언
안갓은그림씨	불구형용사
안갓은움직씨	불구동사
안여김잡음씨	부정(不定)지정사
안웅근그림씨	불완전형용사
안잡힌가리킴그림씨	부정(不定)지시형용사
안잡힌가리킴어떻씨	부정(不定)지시형용사
어떻씨	형용사
얻	형용사의 어간
얻씨	형용사의 어간
얻씨꾸밈것	형용사수식
엇*	형용사의 어간
엇기	형용사의 어간
엇씨	형용사의 어간
여김잡음씨	긍정지정사
예사남움직씨	보통 타동사
예사움씨	보통동사
예사제움직씨	보통자동사
옴김움직씨	인용동사
완성움직씨	완성동사

완전한풀이씨	완전용언
움*	동사의 어간
움기	동사의 어간
움기몸	동사의 어간
움말	동사의 어간
움씨	동사의 어간
움직씨*	동사
움직씨줄기	동사어간
움직임씨	동사
움직임씨껌목줄기	동사자격어간
으뜸그림씨	주형용사
으뜸어떻씨	주형용사
으뜸움직씨*	주동사
으뜸풀이씨*	주용언
이동움직씨	이동동사
이동풀이씨	이동용언
이은풀이씨	연쇄용언
이중풀이씨구조*	이중용언구조
인지움직씨	인지동사
일반남움직씨	일반타동사
입움움직씨	피동사
있음그림씨*	존재형용사
있음어떻씨	존재형용사
있음움	존재동사
자기판단풀이씨	주관동사
자동꿀	자동사형
자리만듬성움직씨	논항증가동사
작위움직씨	작위동사
잡음씨*	지정사
잡힌가리킴어떻씨	지정형용사
잡힘가리킴그림씨	지정형용사
저움즉임씨	자동사
절대도움풀이씨	절대보조용언
절대제움직씨	절대자동사
절얼씨	불구형용사

절음	불구동사
절음직씨	불구동사
절음도움어떨씨	불구보조형용사
절음움직씨	불구동사
절음풀이씨	불구용언
제남움직씨	자타동사
제대로동사	자동사
제몹*	자동사
제움*	자동사
제움몹*	자동사
제움씨	자동사
제움직씨*	자동사
준어떨씨	형용사축약형
준움직임씨	동사축약형
준풀이씨	용언축약형
중립움직씨	중립동사
지님도움움직씨*	보유보조동사
지님매인움직씨	보유의존동사
지속움직씨	지속동사
지움도움그림씨*	부정(否定)보조형용사
지움도움움직씨*	부정보조동사
지움매인그림씨	부정보조형용사
지움매인움직씨	부정보조동사
지움잡음씨	부정지정사
짓시늬반복엇	반복의태형용사
짓움직임씨	동작동사
파생남움직씨	파생타동사
풀이몹	용언
풀이씨*	용언
풀이씨즐기	용언어간
품엇*	성상형용사
해보기도움움직씨*	시도보조동사
해보기매인움직씨	시도의존동사

행모엇*	성상형용사
행품엇*	성상형용사
형식매인풀이씨	형식의존용언
형식풀이씨*	형식용언
홀로제움	자동사
환언-풀이씨	환언-용언
휘두를동사	타동사
희망도움그림씨	희망보조형용사
힘들임도움움직씨	강세보조동사
힘춤도움움직씨	강세보조동사
힘춤도움풀이씨	강세보조용언
힘춤매인움직씨	강세보조동사

313 수식언: 부사, 관형사

가르침언*	지시관형사
가름언	구분관형사
가리침억	지시부사
가리침언	지시관형사
가리킴매김씨*	지시관형사
가리킴어편씨	지시관형사
가리킴어찌씨	지시부사
가리킴얼씨	지시부사
강조단정어찌씨	강조단정부사
건너로모양어찌씨	간접성상부사
겉모양어찌씨	형식부사
견춤단정어찌씨	비교단정부사
견춤억*	비교부사
견춤언	비교관형사
겉말	부사
곳어찌씨*	처소부사
곳억*	처소부사
곳억씨	처소부사
그림억*	허락부사
그림매김씨*	성상관형사
길억	정도부사

꿀매김씨*	성상관형사
꿀억	성상부사
꾸밈씨*	수식사
녀김억	인정부사
단정말재어찌씨*	단정부사
대답억씨	대답부사
동안때어찌씨	기간시간부사
동작시늬어찌씨	의태부사어
마디꾸밈씨*	절수식사
막음억	부정(否定)부사
막이억*	부정(否定)부사
말법어찌씨	진술부사
말재어찌씨*	화식부사
매김씨*	관형사
모름억*	부지(不知)부사
모름언*	부지(不知)관형사
모습시늬어찌씨	의태부사
모양어찌씨*	상태부사
몬꿀억	성상부사
몸바꾼매김씨	전성관형사
몸바꿈억	전성부사
몸바꿈언	전성관형사
몸바꿔된어찌씨	전성부사
몸억	부사
물모언*	성상형용사의 관형사형
물음매김씨	의문관형사
물음어찌씨	의문부사
물음억	의문부사
물음언	의문관형사
물품언	물질형용사의 관형사형
밋언*	본래관형사
바꾸여된것말	전성부사
바꾸입어찌씨	전성부사

바뀔어찌씨	전성부사
바람어찌씨	희망부사
바로모양어찌씨	상태부사
바탈어찌씨*	성질부사
바탕매김씨*	성질관형사
바탕어찌씨	성질부사
바탕언	성질관형사
번억*	빈도부사
본디어찌씨	본래부사
본래겇말	본래부사
본래꿈임말	본래수식사
본바탕반복합성어 찌씨	성질반복합성부사
부정어찌씨*	부정부사
부지언*	부지형용사의 관형사형
불구어찌씨	불구부사
불음씨	부속어
빈도때어찌씨	빈도시간부사
빛갈억	색채부사
상징어찌씨	상징부사
설비언*	지시형용사의 관형사형
셈매김씨	수량관형사
셈술매김씨*	수량관형사
셈술어찌말	수량부사
셈어떤씨	수량관형사
셈억	수량부사
셈언	수량관형사
소리시늬반복엇	반복의성부사
소리시늬어찌씨	의성부사
소리억	의성부사
수량언*	수량관형사
시간언*	시간관형사
시늬어찌씨	상징부사
시점어찌씨	시점부사

시킴억	명령부사
실상때김씨	성상관형사
실상어찌씨	성상부사
씨꾸밈억	단어수식부사
아마억*	가상부사
앞뒤때어찌씨	전후시간부사
어떤꾸밈말	관형수식어
어떤씨	관형사
어찌꾸밈	부사적 수식
어찌씨*	부사
어찌씨스런이은 말*	부사적 연어
어찌씨의 몸바꿈	부사전성
어찌이은말*	부사연어
억*	부사+부사형
억씨	부사+부사형
억씨꾸밈억	부사수식부사
언*	관형사+관형사형
언몸	관형사+관형사형
언씨	관형사+관형사형
언씨꾸밈억	관형사수식부사
얼씨꾸밈억	형용사수식부사
엇덤억*	모양부사
여김억	인정부사
움꼴억	동작부사
움씨꾸밈억	동사수식부사
월꾸밈억	문장수식부사
으뜸급정도어찌씨	최상급정도부사
의혹어찌씨	의혹부사
이음어찌씨*	접속부사
이음억	접속부사
일꼴억	사태부사
임씨꾸밈억	명사수식부사
정도어찌씨*	정도부사
제때김씨	본래관형사

제어편씨	본래관형사
제어찌씨	본래부사
지목언	지목(指目)관형사, 지시관형사
지움단정어찌씨	부정 단정부사
지움어찌씨	부정부사
짓꼴억	동작부사
짓시늬어찌씨	의태부사
쪽어찌씨	방향부사
추측어찌씨	추측부사
함께어찌말*	공동부사어
행모언*	성상형용사의 관형 사형
행품언*	성상형용사의 관형 사형
험언*	수량관형사

314 독립언: 감탄사

감정느낌씨*	감정감탄사
감탄말	감탄사
걱정늑	걱정감탄사
깨달음늑	각오감탄사
놀*	감탄사
놀람	감탄사
놀람늑	감탄사
놀씨	감탄사
뉘우침늑	후회감탄사
느낌씨*	감탄사
늑	감탄사
늑씨	감탄사
대답늑	대답감탄사
마디바꿈씨	감탄사
막음늑	부정감탄사
말더듬느낌씨	말더듬감탄사
말림늑	금지감탄사
말버릇느낌씨	말버릇감탄사

몸바뀌된느낌씨	전성감탄사
부름늑	호칭감탄사
빈정거림늑	빈정거림감탄사
성남늑	분노감탄사
슬픔늑	애도감탄사
아양늑	아양감탄사
여김늑	인정감탄사
의지느낌씨	의지감탄사
지름씨	감호사(感號詞)
홀로씨*	독립사
힘씀늑	강세감탄사

315 관계언: 조사

가름말림것	구분조사
가름빚	구분조사
가름토	구분조사
가름토씨	구분조사
가림도움토*	선택보조사
가림도움토씨	선택보조사
가림맞섬토	선택대립조사
가림맞섬토씨	선택대립조사
가림이음토씨*	선택접속조사
가정도움토씨	가정보조사
가짐말린것	소유(종속)조사
각자도움토씨	각자보조사
감목자리토	자격격조사
감목자리토씨*	자격격조사
감의 토	문장성분조사
거리어찌자리토씨	재료부사격조사
건너따움토	간접인용조사
걸림씨	관계사
걸힘씨	관계사
격토	격조사
격토의 뺨과 줄임	격조사의 생략과 축약

격토줄임	격조사생략
견줄어찌자리토	비교부사격조사
견줄어찌자리토씨	비교부사격조사
견줄자리토*	비교격조사
견줄자리토씨*	비교격조사
견줄토	비교조사
견줄토씨	비교조사
결씨	조사
곁토씨	중첩조사
곁*	조사(접속조사제외)+어미
곁기	조사+어미
곁기의 난틀	조사+어미 체계
곁기의몸	조사+어미
곁말	조사+어미
곁씨	조사+어미
곁의 갈래	조사+어미 분류
결	조사+어미
결씨	조사+어미
고루도움토씨	분배보조사
고사도움토씨	고사보조사
곳어찌자리토씨	처소부사격조사
곳자리토*	처소격조사
곳자리토씨	처소격조사
그림곁	성상조사
그림말림것	성상종속조사
그림말림토	성상종속조사
그림토	성상조사
그만두기도움토*	고사보조사
금이결의 자리	부사격조사
금줄곳자리토*	한계처소격조사
금줄도움토	한계보조사
기움자리토*	보격조사
기움자리토씨	보격조사
기움토	보격조사

김음매임것	보격조사
까닭금*	이유조사
까닭도움토씨	원인보조사
깡그리도움토씨	균일도움토씨
꾸밀빚	수식사
꾸밈것	수식사
꾸밈매임것	수식조사
꾸밈매임토	수식조사
꾸밈빚	수식조사
꾸밈토	수식조사
끄어옴자리토	인용격조사
끌어오는법이음토	인용조사
끝남안맺음씨끝	완결비종결어미
나온곳어찌자리토 씨	출처부사격조사
낮가지만*	선택보조사
낮가지썸만*	선택보조사
낮가지임만*	선택보조사
낮됨만	단독보조사
낮됨썸만	단독보조사
낮됨임만	단독보조사
낮한금*	각동(各同)보조사
낮한만*	각동(各同)보조사
낮함만	각동(各同)보조사
날말연결토씨*	단어접속조사
날말이음씨	단어접속조사
날말이음토	단어접속조사
날임자것	개체주격조사
높이는토	높임조사
높임토	높임조사
높임특수토	높임특수조사
느낌토	감탄조사
느낌토씨*	감탄조사
늘임어찌자리토씨	연장부사격조사
늘잡음도움토씨	확대보조사

닛씨	접속사(접속조사+연결어미)
다른한금*	차동(差同)보조사
다름도움토*	차이보조사
다름만*	부동(不同)보조사
다름한금	차동(差同)보조사
다름한만*	차동(差同)보조사
다만도움낱뜻	단독보조사
다만임자것	단독주격조사
다만잇	단독접속조사
다만토	단독보조사
단결잇*	접속조사+연결어미
단순특수토씨	단순특수조사
닿소리토씨	자음조사
더없음도움토씨	불과도움토씨
더함도움토*	첨가보조사
덜참도움토*	불만보조사
덩이닛	접속조사
덩이매임것	단체격어조사
덩이몸임만*	단체주격조사
덩이임만	단체주격조사
덩이임자것	단체주격조사
덩이잇	접속조사
덩이토	단체조사
도움것	보조사
도움법토씨	보조사
도움토	보조사
도움토씨*	보조사
돕음것	보조사
동일도움토씨	동일보조사
되기어찌자리토씨	변화부사격조사
두로닛	보통접속조사
두로잇	보통접속조사
두로토	범용조사

두루곳어찌자리토 씨	범용처소부사격조 사
두루도움토씨	범용보조사
두루빚	범용조사
두루토	범용조사
두루토씨	범용조사
둘째자리토	제2격조사
둘째자리토씨	제2격조사
뒤토씨	후치사
따로도움토씨	단독도움조사
따름도움토씨	추종보조사
따옴어찌자리토	인용부사격조사
따옴자리토씨*	인용격조사
따옴토	인용조사
따옴특수토	인용조사
딸림것	종속조사
딸림토	종속조사
때금*	시간조사
떠난곳어찌자리토 씨	출발처소격조사
떠난데곳자리토	출발처소격조사
또한도움토씨	역시보조사
마디연결토씨*	절접속조사
마지막도움토씨	최종보조사
마찬가지도움토*	역동(亦同)보조사
마침도움토씨	종결보조사
마침특수토	종결특수조사
막	체언조사
만이*	체언조사
만이결*	관계부(조사+어 미)
만이껏기	관계사(조사+어 미)
만이빚	관계사(조사+어 미)
맛섬이음토	대등접속조사

맛섬이음토씨	대등접속조사
맛섬토	대등(연결)조사
맛섬토씨	대등(연결)조사
매김이음토	관형(연결)조사
매김이음토씨	관형(연결)조사
매김자리토*	관형격조사
매김자리토씨*	관형격조사
매김토	관형격조사
매김토씨	관형격조사
매임것	관형격조사
매임토	관형격조사
모든토	범용조사
목적격토	목적격조사
몬금*	처소격조사
몸바뀌된토씨	전성조사
물론도움토씨	물론보조사
물음범토씨	의문법조사
물음토씨*	의문조사
미침도움토*	도급보조사
바꾸임자리토*	전성격조사
바꾸임자리토씨	전성격조사
바꾸힘자리토씨	전성격조사
바꿈자리토	전성격조사
바꿈토	전성조사
바로따옴토	직접인용조사
반드시도움토씨	필연보조사
방편자리토	방편격조사
방편자리토씨*	방편격조사
방편토	방편조사
방향자리토씨	방향격조사
부름도움토씨	호격보조사
부름만*	호격조사
부름임자것	호격조사
부름임자토	호격조사
부름자리토*	호격조사

부름자리토씨	호격조사	어떤자리토	관형격조사
부름토	호격조사	어림도움토*	개산(概算)보조사
부름토씨	호격조사	어찌자리토*	부사격조사
부림금*	도구격조사	어찌자리토씨	부사격조사
부림자리토*	목적격조사	어찌토	부사격조사
부림자리토씨*	목적격조사	어찌특수토	부사격조사
부림토	목적격조사	없음것	관형격조사
부림토씨	목적격조사	없음토	관형격조사
부정이음토씨	부정연결조사	역시도움토	역시보조사
분간도움토씨	분간보조사	연결법토씨	접속조사
비교자리토씨	비교격조사	연결토씨*	접속조사
비롯도움토씨	시작보조사	연모자리토씨	방편격조사
비롯함도움토*	시작보조사	연유자리토씨	연유격조사
빋	(조사+어미, 격)	연장어찌자리토씨	도구부사격조사
빋	(조사+어미, 격)	연장자리토*	도구격조사
섞음도움토	혼동보조사	연장자리토씨	도구격조사
섞음도움토씨	혼동보조사	예사이음씨	보통접속조사
셋째자리토	제3격조사	움몬금*	처소격조사
시발도움토씨	시발보조사	원인자리토씨	원인격조사
시작도움토씨	시작보조사	월이음토씨	문장접속조사
씀다름만*	차동(差同)보조사	위치자리토*	위치격조사
씀이만	목적격조사	위치자리토씨*	위치격조사
씀이빋*	목적격조사	위치토	위치격조사
씀한만*	목적격조사	위치토씨	위치격조사
씀훗만*	목적격조사	유일도움토씨	유일보조사
씨이음토씨	단어접속조사	으뜸토	기본조사
씨잇	접속조사	이음자리토씨	접속격조사
아쉬움도움토씨	불만보조사	이음토	접속조사
아우름맞섬토	아우름대립보조사	이음토씨*	접속조사
아우름맞섬토씨	아우름대립보조사	이음특수토	접속특수조사
안가림도움토씨	분배보조사	일금*	처소격조사
안가림만*	선택보조사	일러춤어찌자리토	운위부사격조사
안가림씀만*	선택보조사	씨	
안가림임만*	선택보조사	임다른만*	차동(差同)보조사
안한쪽곳자리토	방향처소격	임다른한만*	부동(不同)보조사

임씨꾸밈겉	조사	주는곳어찌자리토 씨	부여부사격조사
임씨꾸밈빛	조사	지낸곳어찌자리토 씨	통과부사격조사
임이빋*	주격조사	지정도움토씨	지정보조사
임이빋자리	주격조사	첫째자리토	제1격조사
임이빋	주격조사	추종도움토씨	추종보조사
임자겉	주격조사	치기도움토	산입(算入)보조사
임자잇	체언접속조사	토	조사, 허사, 관계사
임자자리פל	주격형	토씨*	조사, 허사, 관계사
임자자리토*	주격조사	토씨겹침	조사중첩
임자자리토씨*	주격조사	특별한도움토	특수보조사
임자토	주격조사	특별한만	특유보조사
임한만*	동일보조사	특별한씀만*	특유보조사
임훗만*	주격조사	특별한임만*	특유보조사
잇*	접속사(접속조 사+연결어미)	특수토	특수조사
잇기	접속사(접속조 사+연결어미)	특수토씨*	특수조사
잇는토	접속조사	포괄빋	중첩조사
잇씨	접속사(접속조 사+연결어미)	포함도움토	포함보조사
잇음토	접속조사	풀이자리토	서술격조사
자격어찌자리토씨	위치부사격조사, 처소격조사	풀이자리토씨	서술조사
자격자리토	자격격조사	풀이토씨	동일보조사
자격토	자격조사	한가지도움토*	동일보조사
자리*	조사	한가지도움토씨	역시보조사
자리금*	처소격조사	한가지만*	일양보조사
자리법토씨	위치법조사	한결도움토*	일양보조사
자리토	격조사	한결도움토씨	함께보조사
자리토씨*	격조사	함께금*	공동부사격조사
전달토	인용조사	함께어찌자리토씨	공동격조사
접속토	접속조사	함께자리토*	행위자보조사
제각기도움토	각자보조사	행위자도움토씨	방향부사격조사
제모양어찌자리토 씨	현상부사격조사	향한곳어찌자리토 씨	수량조사
종속이음토씨	종속접속조사	험금*	호격조사
		호격토	단독보조사
		홀로도움토*	

홀로도움토씨	단독보조사
홀로만*	단독보조사
홀로씀만*	단독보조사
홀로도	독립조사
홀소리토	모음조사
홀소리토씨	모음조사
힘춤도움토씨	강세보조사

316 용언의 활용어미

가름도움줄기*	구분보조어간
가름씨끝*	구분어미
가리킴이름꼴*	지시명사형
가림꼴*	선택형
가림법씨끝	선택법어미
가림씨끝	선택어미
가정불구씨끝	가정불구어미
가정빛	가정어미
가정씨끝	가정어미
가짐꼴	소유형
감탄꼴	감탄형
감탄씨끝	감탄어미
값어치씨끝	가치어미
같은때별임씨끝	동시나열어미
거센자음활용	격음활용
거짓잇씨	가정접속어미
거짓잡기매는꼴	가정구속형
거짓잡기안매는꼴	가정방임형
거짓잡음법이음토	가정법연결어미
걸림꼴	관계형
견춤꼴*	비교형
고름소리씨끝	조성음어미
공간되풀이꼴	공간반복형
과거꼴	과거형
과거완료꼴	과거완료형
과거완료미연꼴	과거완료미연형

그런꼴	기연형(既然形)
그럴꼴	미연형(未然形)
그침꼴*	중단형
금이빛*	수식사
긋	종결어미
기델꼴	의존형
기델빛*	의존형
꼬리	어미
꼭소용매는꼴*	필요구속형
꼭쓰기매는꼴	필요구속형
꼴	형태, 형식
꼴바꿈	형태변화, 활용
꼴바뀜	형태변화, 활용
피임꼴*	청유형
꾸밈잇	관형어미
끝음빛*	청유형어미
끗*	종결어미
끗기	종결어미
끗의 갈래*	종결어미분류
끝	어미
끝맺는풀이토	종결어미
끝바꿈*	활용
끝바꿈가지	활용 접사
끝바꿈꼴	활용형
끝바꿈법	활용, 순수굴곡법
끝바뀜	활용
끝씨	종결어미
나란히꼴	대등형
나아감이름꼴*	진행명사형
남이빛*	어미
낮춤도움줄기*	낮춤보조어간
낮춤씨끝	낮춤어미
낮춤안맺음씨끝	낮춤비종결어미
넋째어찌꼴	제4부사형
녹아붙은씨끝	융합어미

높낮꿀	존비형	두루도움줄기*	범용보조어간
높임씨끝	높임어미	두루씨끝*	범용어미
놓는꿀*	방임형	두자격씨끝	두자격범어미
느낌꿀*	감탄형	둘째어찌꿀*	제2부사형
느낌씨끝	감탄어미	둘째이름꿀*	제2명사형
늘림꿀	연장형	뒤집음꿀	번복형
늘임꿀	연장형	뒤집잇씨	번복연결어미
니름맺	진술종결어미	뒤집힘꿀	번복형
다름때매김씨끝	차이시제어미	들음이높임맺음씨 끝	청자높임어미
다만씨잇	단독연결어미	들음이높임안맺음 씨끝	청자높임비종결어 미
다짐도움줄기*	다짐보조어간	딸리는이음씨	종속연결어미
단유잇*	오직연결어미	때도움줄기*	시간보조어간
단정꿀	단정형	때매김씨끝	시제어미
당소리가름씨끝*	자음구분어미	때매김안맺음씨끝	시제비종결어미
당소리도움줄기*	자음보조어간	때벌림꿀*	시간나열형
당소리씨끝	자음어미	때안맺음씨끝	시제선어말어미
대등씨끝	대등어미	뜻밖잇	의외연결어미
대등이음씨끝	대등연결어미	뜻함꿀*	의도형
대립꿀	대립형	뜻함씨끝	의도어미
대립이음씨	대립연결어미	마칠빛	종결어미
대상법 매김꿀	대상법 관형형	마침꿀	종결형
더보탬꿀*	첨가형	마침법씨끝	종결어미
더보탬꿀씨끝	첨가형어미	마침빛	종결어미
더보탬이음씨	첨가연결어미	마침씨끝	종결어미
더블꿀	동시형	마침토	종결어미
더해감꿀*	익심형	막을빛	종결어미
도로생각때도움줄 기	회상시제보조어간	말끝	어미
도로생각매김꿀	회상관형사형	매김꿀*	관형사형
도움줄기*	보조어간	매김꿀맺음씨끝	관형사형어미
돌이킴안맺음씨끝	회상비종결어미	매김꿀씨끝	관형사형어미
되풀이씨끝	반복어미	매김법씨끝	관형사형어미
되풀이이음씨	반복연결어미	매김씨끝	관형사형어미
될모양어찌꿀	장언부사형	매김자리꿀	관형사형
두갈래몸같이	두갈래활용		

매는법이음토	구속형연결어미	바른끝바꿈도움줄기	규칙활용보조어간
매는씨끝	구속형어미	바른몸같이	규칙활용
매인씨끝	관형사형어미	바른씨끝바꿈	규칙활용
매인이음씨끝	관형사형어미	바른홀소리도움줄기	규칙모음보조어간
맺	종결어미	바른활용	규칙활용
맺는맺	종결어미	반대씨끝	역접어미
맺씨	종결어미	반대이음씨	역접연결어미
맺음뒷가지	종결접사	반말씨끝	반말어미
맺음씨	종결어미	반말도	반말어미
맺음씨끝*	종결어미	배치끝	배치형
맺음토	종결어미	버릇도움줄기	습관보조어간
모름꼴	의문형	벌린꼴	나열형
목적꼴*	목적형	벌림꼴*	나열형
몸같이	활용	벌임법씨끝	나열형어미
몸같이말	활용어	벌임빛	나열형어미
못음두로토	비태형어미	벌임이음씨	나열연결어미
무름맺	의문어미	벌잇	나열연결어미
무름빛	의문어미	벗어난	변칙(활용)
무름토	의문어미	베품꼴*	서술형
물음꼴*	의문형	베품법씨끝	서술법어미
물음끗*	의문어미	베품씨끝	서술어미
물음맺	의문어미	보충이음씨	보충연결어미
물음빛	의문어미	복합때때김씨끝	복합시제어미
물음씨끝	의문어미	복합씨끝	복합어미
미래꼴	미래형	복합조건씨끝	복합조건어미
미름도움줄기*	추정보조어간	본디물음씨끝	본래의문어미
미름안맺음씨끝	추정비종결어미	불구씨끝	불구어미
미뤄잡기놓은꼴	추정방임형	불구적맺음씨끝*	불구종결어미
미뤄잡기안매는꼴	추정불구형	불구적씨끝	불구어미
미침꼴*	도급형	불완전마침빛	불완전종결어미, 불구어미
미침씨끝	도급형어미	상대높임씨끝	상대높임어미
바람꼴	희망형, 원망형	서술씨끝	서술어미
바로벌임꼴	직접나열형	선택씨끝	선택어미
바른끝바꿈	규칙활용		

선택이음씨	선택연결어미
셋째어찌끝*	제3부사형
습관씨끝	습관어미
시김곳*	명령어미
시인씨끝	시인어미
시킴끝*	명령형
시킴맺	명령어미
시킴법씨끝	명령법어미
시킴씨끝	명령어미
씨끝*	어미
씨끝바꿈*	활용
씨끝바꿈끝	어미활용형
씨끝바꿈법	활용법
아쉬움씨끝	아쉬움어미
아주높임씨끝	아주높임어미
안높임씨끝	안높임어미
안매는끝	불구형
안매는법*	방임법
안맺음	비종결어미
안맺음씨끝*	비종결어미, 선어 말어미
어떻씨홀로씨끝	형용사특유어미
어찌끝*	부사형
어찌법*	부사법
어찌씨끝	부사형
어찌씨끝	부사형어미
언씨맺	형용사종결어미
얼란벌림끝	공간나열형
연결법씨끝	연결법어미
연접씨끝	연접어미
올적끝남끝	미래완료형
올적나아가기끝남 끝	미래진행완료형
올적나아감끝	미래진행형
올적도움줄기	미래보조어간

올적매김끝	미래관형사형
올적어떤끝	미래관형사형
완료끝	완료형
움씨꾸밈것	동사수식어미
움씨의 맺	동사의 종결어미
움씨의 언씨꾸밈것	동사의 형용사수식 어미
움씨의 움씨꾸밈것	동사의 동사수식어 미
움씨의 임씨꾸밈것	동사의 명사수식어 미
움직씨끝바꿈	동사활용
움직씨도움줄기	동사보조어간
움직씨마침끝	동사종결형
움직씨어찌끝	동사부사형
움직임씨홀로씨끝	동사특유어미
원인씨끝	원인어미
월이음씨	문장연결어미
월이음토	문장접속어미
유사씨끝	유사어미
의문끝	의문형
의문씨끝	의문어미
의향씨끝	의향어미
이끄는끝	통솔형
이름*	서술어미
이름끝*	명사형
이름끝씨끝	명사형어미
이름곳	서술어미
이름맺	명사종결어미
이름법*	명사법
이름법씨끝	명사형어미
이름씨끝	명사형어미
이유씨끝	이유어미
이은씨끝	연결어미, 접속어 미
이음끝	연결법, 접속법

이음씨끝	연결어미, 접속어미
이음법씨끝	연결어미, 접속어미
이음씨끝	연결어미, 접속어미
이적꼴	현재형
이적끝남꼴	현재완료형
이적나아가기끝남꼴	현재완료진행형
이적나아감꼴	현재진행형
이제매김꼴	현재관형사형
이제어떤꼴	현재관형사형
일건잇*	연행(連行)연결어미
일인칭안맺음씨끝	제1인칭비종결어미
임씨꼴	명사형
임씨꾸밈것	명사수식어미
임씨맺	명사형
임자꼴	주격형
잇달음씨끝*	연발형
잡음씨끝바꿈	지정사활용
잡음씨홀로씨끝	지정사특유어미
전환씨끝	전환어미
절음도움줄기	불구보조어간
점진꼴	점진형
접어주기안매는꼴	양보불구형
정상적 맺음씨끝*	정상적 종결어미
제꼴	원형
계약법씨끝	계약법어미
계약씨끝	계약어미
조건씨끝	조건어미
조건이음씨	조건연결어미
주체높임안맺음씨끝	주체높임비종결어미
중간씨끝	선어말어미

즉시씨끝	즉시어미
지난덕어떤꼴	과거관형사형
지난적꼴	과거형
지난적나아감꼴	과거진행형
지난적매김꼴	과거관형사형
지음씨*	부정(否定)형
지움어찌꼴	부정(否定)부사형
짜벌린씨*	나열어미
차례때벌림씨끝	순차나열어미
차례벌림꼴	순차나열형
참일놓는꼴	사실방임형
참일매는꼴	사실구속형
참일안매는꼴	사실불구형
처지씨끝	처지어미
첨가씨끝	첨가어미
첫째꼴	제1형
첫째어찌꼴*	제1부사형
첫째이름꼴	제1명사형
추량씨끝	추량어미
추정씨끝	추정어미
추종이음씨	추종연결어미
통어적 씨끝	통사적 어미
풀이꼴*	서술형
풀이빚	서술어미
풀이씨끝바꿈	용언활용
풀이잇	서술연결어미
풀이잇씨	서술연결어미
풀이토	서술어미
한도이음씨	한도연결어미
한때벌림꼴	동시나열형
할수도움줄기*	가능보조어간
행위요구씨끝	행위요구어미
홀로긋*	(독백)종결어미
홀로맺	(독백)종결어미
홀로씨끝	특유어미

홀소리도움줄기	모음보조어간
홀소리씨끝	모음어미
확정꼴	확정형
환언이음씨	환언연결어미
활용꼴	활용형
활용씨끝	활용어미
휘두를꼴	타동사형

320 문장 일반

가르월	문장
가림에 따른 이음	선택에 따른 접속
같은월*	단어대치문
갓은월	갓춘문장
거느릴말	지배어
거듭거듭월	중첩복합문
거듭겹월	중첩복합문
거듭월	중첩문, 복합문
겉월	형식문
견준급	비교급
견준말	비교어, 대비어
견준법*	비교법
견준-풀이 짜임새	비교-서술 구성
겹가래월	복합문
겹가르월	복합문
겹거듭겹월	중첩복합문
겹거듭월	중첩복합문
겹겹월	중첩복문
겹부림말월	(이)중목적어문
겹월*	복합문
그림씨월	형용사문
글덩이	문장
글월	문장
글월갈	문장론
금이줄	—
기움걸림	보어관계

기움-풀이 짜임새	보어-서술 구성
꼴갓춘월	형태갓춘 문장
꾸밈맺음	수식관계
끝난월*	완결문
끝월	완결문
단순월	단순문
덧마디월	첨가문
덧월	첨가문
동일임자말 제약	동일명사구제약
두자리월*	2항술어문
뒤로꾸밈	역행수식
뒷말받기	후행어대용
드*	문장
듬이	문장
매김소유표현	관형소유표현
머리어	<피수식어, 핵어>
모월	혼문
모자라는월	불구문
못갓은월	불구문장
못맞은드	문장비종결
못남이드*	다중서술어문장
못씀이드*	다중목적어문장
못임이드*	다중주어문장
미*	문장
바깥형식	외부 형식
바로이끌리는관계	직접 지배관계
바로이끌림	직접 지배
바탈로 본 월의 가 름	성질로 본 문장 유 형
바탕월	기본문
받침말	<피수식어>
방편말매김	방편어수식
방편짜임새	방편어구성
방편-풀이 짜임새	방편-서술어 구성
벌린겹월	나열복합문

별린월*	나열복합문	움씨와 임씨의 어 우름	동사와 명사의 호 응
별림월	나열복합문	움직씨월	동사문
별임월	나열복합문	월*	문, 문장
보기드	예문	월갈*	문장론
보기월	예문	월손질	문장손질
복잡한 겹월*	복잡한 복합문	월짜임	문장구조
복잡한월	복합문	월짜임새	문장구조
복합월	복합문	위치-풀이 짜임새	위치어-서술어 구 성
복합임자말제약	복합주어제약	으뜸급	최상(비교)급
본드*	예문	으뜸-매인의 짜임 새	수식-피수식어 구 성
부림짜임새	목적어 구성	으뜸월	기본문, 기저문
부림-풀이 짜임새	목적어-서술어 구 조	의도월	의도문
불구월	불구문	이름월	명사문
비김	비교	임씨와 언씨의 어 우름	명사-부사 조응
상황짜임새	상황어 구성	임씨와 움씨의 어 우름	명사-동사 조응
섞임월	혼문	임씨풀이월	명사서술문
세겹월	삼중복합문	임자-견중 짜임새	주어-비교어 구성
세자리월	3항술어문	임자-기움-풀이의 짜임새	주어-보어-서술어 구성
썸이급*	목적어수식어	임자말없는월	주어없는 문장
안끝난월	비종결문장	임자말-풀이말의 짜임새	주어-서술어 구성, 주술구성
알몸으로 맺어지는 관계	—	임자-매김 걸침	주어-관형어 관계
어찌마디안은 겹월	부사절안은 복합문	임자-방편 짜임새	주어-방편어 구성
어찌-풀이 짜임새	부사어-서술어 구 성	임자-부림 짜임새	주어-목적어 구성
역씨와 것씨의 어 우름	부사와 조사의 조 응	임자-어찌 걸침	주어-부사어 관계
역씨와 언씨의 어 우름	부사와 형용사의 조응	임자-위치 짜임새	주어-위치어 구성
역씨와 움씨의 어 우름	부사와 조사의 조 응	임자-풀이 걸침	주어-서술어 관계
역씨와 임씨의 어 우름	부사와 명사의 조 응	임자-풀이 짜임새*	주술구성
온월	완전문장	임자-풀이 짜임새*	주어-서술어 구성
옹근월	완전문장	잡음씨월	지정사문
완전한월	완전문장	조각겹월	성분복합문

조각의 비쳐따름	성분조응
주체-풀이의 짜임새	주체-서술 구성
주체-환언의 짜임새	주체-환언 구성
짜임으로 본 월의 갈래	구조로 본 문장유형
통어이음새	통사적 연결
통어적 짜임새*	통사적 구성
통어짜임	통사적 구성
한기능법*	—
한자리월*	1항술어문
한정-꾸밈 짜임새	한정-수식어 구성
형태적 짜임새	형태적 구성
홀월*	단순문
홀진짜임새	단순문구성
힘춤짜임새	강세구성

321 문장단위

가능매인법	가능법
가름법	구분법
가지결*	(어미+조사+수식사)
간접부림말구	간접목적어구
값어치매인법	가치법
같은마디	동등절
거듭마디	중첩절
거짓으로꾸밈법	가식수식법
결이결*	가지결-줄기결-붙이결
겹마디	중첩절
그리여김매인법	시인법
금이드*	수식절
기잇*	단어접속
날덩이	단위
날말이음	단어연결

다*	문장단위
다된마디*	완전절
다못일운마디*	불완전절
단편적마디	단편절
달림꾸	절
덧마디	첨가절
도막	어절
도막말	어절
되풀이매인법	반복법
될뻔함매인법	장언법
두기매인법	보유법
드잇*	절접속
마디*	절
마디만들기	절형성
마땅매인법	당위법
말도막	어절
말마디	어절
매김이은말*	관형구
모*	구
모잇*	구접속
뭉	절
바람매인법	원망법
붙이*	부(部)
붙이결	조사+어미+수식사
섬김매인법	봉사법
속마디	심층절
실*	조직어(組織語)
월마디	절
월밀감	문장재료
웃듬몸*	원체부, 어간부
의도매인법	의도법
이어진말	구
이은말*	연어
임자말없는마디	주어없는절

임자이은말*	체언구
자리바꿈가림법	전위선택법
자립적이은말	자립연어
조각마디	성분절
즐기결*	원체부, 어간부
짚말*	구성어
최소낱덩이	최소자립형식
해냄매인법	시도법
해보기매인법	시도법
힘로마디	독립절
힘춤매인법	강세법
힘춤법*	강세법

322 문장성분

가짐의 임자말	소유주어
간접부름말	간접호칭어
간접부림말	간접목적어
간접임자말	간접주어, 대주어
감알	문장성분
감의 갈래	문장성분의 갈래
감의 말제	문장성분의 재료
감의 벌임	문장성분의 나열
갖은기움말*	갖춘 보어
갖은부림말*	갖춘 목적어
갖은월조각*	갖춘 문장성분
갖은임자말*	갖춘 주어
갖은풀이말*	갖춘 서술어
같은말밑부림말	동족목적어
같은임자	동일주어
같은자리기움말	동격보어
같은자리매김말	동격관형어
같은자리부림말	동격목적어
같은자리어찌말	동격부사어
같은자리임자말	동격주어
같은자리홀로말	동격독립어

같은풀이말	동일서술어
거듭부림말	(이)중목적어
거듭주어	(이)중주어
견주는말	비교어, 대비어
견줄어찌말*	비교부사어
겹부림말	(이)중목적어
겹주어	(이)중주어
공간말	공간어, 처소어
글월성분	문장성분
금이*	수식어
금이결*	수식어성분
금이듬*	수식어
기움말*	보어
기움말되기	보어화
기움말조각	보어성분
기움어찌말	보어부사어
꿀그림말	성상관형어
꾸밈감	수식어
꾸밈말*	수식어
꾸밈이은말	수식접속어
꾸밈조각	수식어성분
끼어움어찌말	인용부사어
끼움말	삽입어
남이*	서술어
남이금*	부사어
남이듬*	서술어
남이붙이*	서술어성분, 서술어
남이조각	서술어성분
논리적 임자말	논리적 주어
느낌말*	감탄어
단순보텔말	단순보어
대등보텔말	대등보어
덩이매임	단체수식
도튼임자말	제1주어

동족부림말	동족목적어	밑말의 임자	기저형의 주어
따로선월조각	독립어성분	방편말*	방편어
따로섬	독립어	방편조각	방편어성분
따옴어찌말	인용부사어	방향말	방향어
딸림조각*	종속어성분	보임말*	지시어
때곳어찌말*	시간부사어	보탬말	보어
떨어진말	독립어	보탬말	보어
떨어짐말	독립어	부름말*	호격어
마디임자	절주어	부림말*	목적어
마디풀이	절서술어	부림말매김	목적어수식
말범어찌말	진술부사어	부림말조각	목적어성분
말본조각	문법성분	부림조각	복적어성분
말채어찌말	화식부사어	붙음감	부속성분
맞은말	종결어	붙음조각	종속어성분, 종속 부
맞은조각	종결어성분	붙이말	부속어
매김꾸밈말	관형어	비동일임자말제약	비동일주어제약
매김말*	관형어	세겘부림말	삼중목적어
매김말되기	관형화	셈어찌말	수량부사어
매김말조각	관형어성분	손말	객어
매김조각	관형어성분	숨어있는월조각	숨어있는 문장성분
매임말	수식어	숨어있는임자말	숨어있는 주어
메꾸는말	보어	숨은숨이	숨어있는 목적어
모양어찌말*	상태부사어	숨은임이	숨어있는 주어
몬억*	부사어	쓰임말	목적어
뭇금이	다중수식어	숨이*	목적어
뭇금이남이*	다중수식어서술어	숨이듬*	목적어구성
뭇금이드*	다중수식어서술어 문장	숨이붙이*	목적어구성
뭇금이임*	다중수식어주어	숨이조각	목적어성분
뭇꾸밈	다중수식어	어찌꾸밈말	부사적 수식어
뭇남이*	다중서술어	어찌말*	부사어
뭇숨이*	다중목적어	어찌씨스런꾸밈말	부사적 수식어
뭇임이*	다중주어	어찌조각	부사어성분
뭇임자	다중주어	억기	부사어
뭇풀이	다중서술어	억기뭉	부사어

억음	부사어	임이*	주어
언기	관형어	임이금*	주어수식어(관형어)
엮음딸림	관형종속어	임이듬*	주어
엮침	관형어	임이붙이*	주어성분, 주어부
엮침말	관형어	임이조각	주어성분
연장어찌말*	도구부사어	임자	주어
월감	문장성분의 재료	임자감	주어
월성분*	문장성분	임자말*	주어
월임자	주어	임자말없는풀이말	주어없는 서술어
월임자말제약	문장주어제약	임자말조각	주어성분, 주어부
월조각*	문장성분	임자붙이	주어성분
월조각가려잡기	문장성분선택제한	임자조각*	주어성분, 주어부
월조각걸림풀	문장성분관계형식	잇이*	연결어
월조각맛깊음	문장성분조응	자리말	위치어
월조각벌림	문장성분배열	자리억*	처소부사어
월조각서로맞음	문장성분조응	작은임자말	소주어
월조각이어주는방법	문장성분통합방법	작은풀이말	소서술어
월짚조각	문장성분	정도어찌말*	정도부사어
위치말*	위치어	조각	성분
위치이은말	위치접속어	주요조각	주성분
위치자리적 부림말	위치격의 목적어	직접부름말	직접호격어
위치조각	위치어성분	직접부림말	직접목적어
으뜸감	주성분	직접임자말	직접주어
으뜸성분*	주성분	처들딸림말	제시어
으뜸임자	주-주어	큰임자	대주어
으뜸조각*	주요성분	큰임자말	대주어
으뜸풀이말	주-서술어	큰풀이말	대서술어
의미상의 임자말	의미상의 주어	풀이감	서술어
이*	문장성분	풀이기움	서술보어
이은풀이말	연쇄서술어	풀이말*	서술어
이음어찌말	접속부사어	풀이말조각	서술어성분, 서술부
이중부림말	이중목적어	풀이붙이	서술어성분, 서술부
이중임자말	이중주어	풀이이은말	연쇄서술어
일억*	일부사어		

풀이조각*	서술어성분
필수적 어찌말	필수적 부사어
형식적 풀이말	형식적 서술어
홀로말*	독립어
홀로조각*	독립어성분

323 접속문

가림법*	선택법
가림풀이법	선택설명법
가상잇*	가상접속
가정적 안매는법*	가정적불구법
각건잇*	각건(各件)접속
감목법*	자격법
같은때별임법	동시나열법
거스른풀이*	역설(逆說)
거짓잡기법	가정법
거짓잡음법	가정법
겸행잇*	겸행(兼行)접속
계기적이음	계기적연결
공간별임법	공간나열법
구속이음	구속법
까닭법*	원인법
까닭이음	원인접속
까닭잇기	원인접속
껌목법	자격법
피임조건	청유조건
꾸밈이음법	수식접속법
나란히마디	대등절
나란히문장	대등문
나란히법	대등법
나란히월	대등문
날잇음	개체접속
놓음월	방임문
다른되풀이법	반복법
다만잇음	단독접속

대등월	대등문
대등이음	대등접속
더보탐법*	첨가법
도움이음법	보조접속법
되풀이꼴*	반복형
되풀이법*	반복법
뒤집음법	번복법
뒤집힘법	번복법
뒷마디	후행절
뒷마디 어찌씨계약	후행절 부사계약
뒷선마디	후행절
뒷선택지	후선택항
따음이음법	인용접속법
딸린이은마디	중속접속절
딸림관계	중속관계
딸림마디*	중속절
때별림법	시간나열법
뜻함법*	의도법
뜻함조건	의도조건
마디이음	절접속
마디잇	절접속
마땅함법	당위법
마주이음법	대등접속법
맞선마디*	대등절
맞선이은마디	대등접속절
맞은드잇*	문장종결접속
매는꼴*	구속형
매는법*	구속법
몬저마디*	선행절
못맞은드잇*	문장비종결접속
미침법*	도급법
바른풀이*	순설(順說)
반순잇*	번복접속
별임마디	나열절
별임법*	나열법

복잡한이음월	복잡한 접속문
아쉬움법	아쉬움법
앞마디	선행절
앞마디의 풀이조각	선행절의 서술어성 분
앞선마디	선행절
앞조각	선행절
연유잇*	연유접속
연행잇*	연행(連行)접속
을일거짓잡기법	미래가정법
월이음	문장접속
으뜸마디*	주절
이어합법	계기법
이은겹월	접속복합문
이은마디	접속절
이은월*	접속문
이음	접속, 연결
이음겹월	접속문
이음마디	접속절
이음법*	접속법
이음새*	접속, 연결
이음월	접속문
잇달음법*	연발법
조건월	조건문
조건이음	조건접속
중지잇*	중지접속
지난일거짓잡기법	과거가정법
차례별림법	순차나열법
차례이음지속법	순차지속법
판단잇달음법	판단연발법
한때별림법	동시나열법
행위잇달음법	행위연발법

324 내포문

가진겹월	포유복문, 내포문
------	-----------

가진월*	포유문, 내포문
간접인용마디	간접인용절
간접적따옴월	간접인용문
건너따옴	간접인용
건너따옴마디	간접인용절
건너따옴말	간접인용어
건너따옴법	간접인용법
건너따옴월	간접인용문
겹따옴월	이중인용문
그림마디	관형절
기움마디	보어절
꾸밈마디	수식절
끝어음	인용
끝음	인용
끝음끝	인용형
끝음월	인용문
따온	인용
따온거리	인용
따온대문	인용
따옴	인용
따옴마디	인용절
따옴말	인용어
따옴매김법	인용법
따옴월	인용문
따옴짜임새	인용 구성
따옴형식	인용형식
따옴형식의 짜임새	인용형식구성
마침마디	서술절
매김마디*	관형절
매김법*	관형법
매임마디	관형절
맺음마디	서술절
못갓은매김마디	불구관형절
못갓은어찌마디	불구부사절
물음마디	의문절

바로끌어옴	직접인용
바로따옴	직접인용
바로따옴마디	직접인용절
바로따옴말	직접인용어
바로따옴법	직접인용법
바로따옴월	직접인용문
베꼴마디	서술절
복잡한 가진월	복잡한 내포문
부림마디	목적절
부림이름마디	목적절
붙음마디	부속절
붙임마디	부속절
안긴	내포된
안긴접월	내포문
안긴따옴말	내포인용어
안긴마디*	내포절
안긴월	내포문
안긴이름마디	내포된 명사절
안긴임자마디	내포된 주어절
안긴풀이마디	내포된 서술절
안김	내포
안김마디	내포절
안김마디의 풀이말	내포절의 서술어
안김-안은	내포문구성
안옹근마디	불완전절
안옹근어찌마디	불완전부사절
안옹근이름마디	불완전명사절
안은접월*	내포문
안은마디*	모문
안은월	모문
안음*	내포
안음과 이음의 소 용돌이	내포와 접속의 겹 침
안음마디	모문
안음마디 풀이말	모문의 서술어

안음-안음의 겹월	겹내포의 복합문
안음-이음의 겹월	내포-접속의 복합 문
어떤마디	관형절
어찌마디*	부사절
억드*	부사절
언드*	관형절
옴김	인용
옴김법	인용법
완전한마디	완전절
의도따옴월	의도인용문
이름마디	명사절
이름마디만들기	명사화
인용마디*	인용절
인용말*	인용어
인용짜임새	인용어구성
임씨꾸밈마디	명사수식절
임이드	주어절
임자마디*	주어절
임자마디되기	명사절되기, 체언 화
임자말마디	명사절
직접인용마디	직접인용절
직접인용말	직접인용어
풀이마디*	서술절
형식적 따옴	형식적 인용
홀로따옴말	독립적 인용어

325 어순 및 이동, 대치, 생략

감의 줄임	문장성분의 생략
거꾸로된위치	도치위치
거꾸른자리*	도치위치
거꿀벌임	역순나열
거꿀얹침	역순배열
거꿀흐름	역순
꺼꿀얹침	역순배열

꾸밈감줄임	수식성분생략
날말빠져나감	—
마침마디줄임	서술절생략
말차례	어순
바꾸기	변형
바꿔놓기	대치
바로앞침	정치
바로앞힘	정치
바른자리*	정상어순
바른자리법	정상어순
빠져나간 견줄말	빠져나간 비교어
빠져나간 매김마디	빠져나간 관형어
빠져나간 받침말	빠져나간 핵심어
빠져나간 방편말	빠져나간 방편어
빠져나간 부림말	빠져나간 목적어
빠져나간 위치말	빠져나간 위치어
빠져나간 짜임새	빠져나간 구성
빠져나간말	빠져나간 성분(단어)
빠져나감	—
앞말받기	대용
월구조자리바꿈	성분이동
월성분없앰	문장성분생략
월성분줄여없앰	문장성분생략
월조각갈음	문장성분대치
월조각줄임	문장성분생략
이름꼴갈음	명사형대치
이름마디 빠져나감	명사절 빠져나감
이은말 빠져나감	연어 빠져나감
임자말줄임	주어생략
제움직임변형	자동사변형
조각의 줄임	성분생략

331 문장종결

가부-물음월	가부-의문문
--------	--------

간접물음	간접의문
건너로나타낸물음	간접의문
결의향법*	—
긍정물음월	긍정의문문
긍정베품월	긍정서술문
피임	청유
피임법*	청유법
피임월*	청유문
끝맺음	종결
끝맺음법	종결법
낮춤-일러듣김	낮춤서술문
느낌	감탄
느낌법	감탄법
느낌베품	감탄서술
느낌베품월	감탄서술문
느낌월*	감탄문
다짐법	—
달램	권유
대등물음월	대등의문문
덧물음월	부가의문문
되묻는물음월	반문의문문
되물음	반문
둘째가리킴행위요구월	제2인칭 행위요구문장
뒤집는물음	번복의문, 반어의문
뒤집는물음월	번복의문문, 반어의문문
마침법*	종결법
막긋임	종결, 종지
말법	진술
말할이의 의도	화자의도
맺은드	종결문
맺음	종결, 종지
맺음법	문장종결법
맺음월	문장종결문

묻는말	의문어
물음	의문
물음말	의문어
물음말물음월	의문어있는 의문문
물음법*	의문법
물음월	의문문
베푼물음월	서술의문문
베푼법	서술법
베푼월*	서술문
부가물음월	부가의문문
부정물음	부정의문
부정물음월	부정의문문
부정베푼월	부정서술문
비인칭물음법	비인칭의문법
생각베푼	생각서술
생각베푼월	생각서술문
서술월	서술문
선택물음월	선택물음월
속의향법	—
시킴	명령
시킴법*	명령법
시킴월*	명령문
시킴-함께함월	명령-청유문
아름	진술
약속월	약속문
예-아니오 물음월	예-아니오 의문문
움씨풀이월	동사서술문
이끓법	청유법
인칭물음법	인칭의문문
일러듣김	서술법
지시물음월	지시의문문
지시월	지시문
특수물음월	특수의문문
풀이법	서술법
함께법	청유법

함께월	청유문
함께함법	청유법
함께함월	청유문
행위요구월	행위요구문

332 높임

가짐높임	소유높임
간접높임	—
간접높임법	—
같음*	높임등분의 하나
객체높임	—
객체높임가지	객체높임접사
객체높임법	<객체존대법>
객체-상대높임의 접침	객체-상대높임의 중첩
건너높임	간접높임
건너로높임	간접높임
기껏낮춤	극비칭
기껏높임	극존칭
낮은말	—
낮음*	높임등분의 하나
낮춤	—
낮춤말	—
낮춤법	—
낮춤움직씨	낮춤동사
높낮	높고낮음
높낮의 비쳐따름	존비의 호응
높은말	—
높음*	높임등분의 하나
높임	<존대>
높임가지	높임접사
높임꼴	높임형태
높임도움줄기*	높임보조어간
높임말	—
높임말법	높임법

높임법*	<존대법>
높임법접침	높임법중첩
높임법서로맞음	높임법호응
높임법일치	높임법일치
높임앞가지	높임접두사
높임옴직씨	높임동사
높임의 같은주고받음	—
높임의 다른주고받음	—
높임의 등분	—
높임이름씨	높임명사
높임임씨	높임명사
높임형태소	—
단순한낮춤	—
더낮춤법*	—
더높임법*	—
덜높임	—
들음이낮춤	청자낮춤
들음이높임*	청자높임
들음이높임법	청자높임법
들음이말대접법	청자높임법
들음이아주높임	청자아주높임
들음이안높임	청자안높임
들음이예사높임	청자예사높임
말대접법	높임법
말할이낮춤	화자낮춤
말할이낮춤법	화자낮춤법
맺씨의 높낮이	종결어미의 높임법
목적어높임말법	목적어높임법
바로높임	직접높임
반말	—
반말법	—
반말체	—
삼가말법	—

삼가말체	—
상대높임	—
상대높임말법	상대높임법
상대높임법	—
상대안높임	—
상말	—
아주낮춤	—
아주높임*	—
아주높임*	—
안높임	—
예사낮춤	—
예사높임	—
옴씨의 높낮이	동사의 높임법
의도높임법	—
임자높임	주체높임
임자높임법	주체높임법
잇기의 서분*	연결어미의 높임등분
주체-객체높임의 접침	주체-객체높임의 중첩
주체-객체-상대높임의 접침	주체-객체-상대높임의 중첩
주체높임	—
주체높임법*	<주체존대법>
주체-상대높임의 접침	주체-상대높임의 중첩
직접높임	—
직접높임법*	—

333 시제와 상

간때*	과거시제
간때맞음*	과거완료
간때보임	과거시제표시
간때표	과거시제표시
간올때*	미래완료
같은때	동시

객관적올적	객관적 미래	단순때매김법	기본때매김법
거짓때매김*	가상시제	도로생각	회상
거짓뜻하는때*	가상(추정)시	도로생각때	회상시
거짓맞은때*	가상(추정)과거	도로생각때매김	회상시제
겹쳐진때매김법	중첩시제법	도로생각때매김법	회상시제법
경험때	경험시	도로생각때매김법	회상관형법
계속해나감	진행	도로생각법	회상법
관련때	관련시	되는데*	현재진행
곳씨의 때	종결어미의 시제	되어나감	진행
끝난때	완결시	되풀이상	반복상
끝난상태	완결상	되풀이지속	반복지속
끝남	완결	되풀이지속상	반복지속상
끝남도움움직씨*	완결보조동사	때	시간
끝남도움토*	완결보조사	때금이	시간
끝남돌이킴법	완결회상법	때꼬리	시간표시어미
끝남때*	완결시	때꿀	시제형
끝남때도움줄기	완결보조어간	때꿀의 포괸	시제형중첩
끝남매인법	완결법	때말	시간어
끝남매인움직씨	완결의존동사	때매김	시제
끝남미름돌이킴법	완결추정회상법	때매김법*	시제법
끝남미름법*	완결추정법	때매김의 대종움김	시제의 표준이동
끝남법	완결법	때매김점	시점
끝남적	완결시	때법*	시제법
끝남	완결	때어찌씨	시간부사
나아가기끝남	진행완결	때억*	시간부사
나아가기끝남때*	진행완결시	때언*	시간관형사
나아감	진행	때언	시간형용사
나아감꿀	진행형	때언씨	시간형용사
나아감도움움직씨*	진행보조동사	때엇*	시간형용사
나아감때*	진행시	때이름씨	시간명사
나아감매인그림씨	진행의존형용사	때잇기	시간접속사
나아감매인법	진행법	마침때	완료시
나아감매인움직씨	진행의존동사	만남	현재
다이름	완결	만남빛	현재시제어미
		말하는때	발화시

말할때	발화시	올적끝남	미래완료
맞아잇는때	현재완료시	올적나아가기끝남	미래진행완료
맞아잇음*	현재완료	올적나아감	미래진행
맞아지난때	과거완료시	올적때	미래시
맞아지난*	과거완료	올적때매김법	미래시제
매김끝의 때매김	관형사형의 시제	올적마침	미래완료
매김법의 때매김법	관형절의 시제법	올적매김법	미래법
맺씨의 때	종결어미의 시제	올적이음	미래계속
맺씨의 때매김	종결어미의 시제	올적이음마침	미래계속완료
모습	상, 양상	올적이제법	미래현실법
못음	미래	움씨의 때	동사의 시제
못음때	미래시	움직씨때매김	동사시제
못음의 못음	미래의 미래	으뜸때*	기본시
못음의 잇어지난	미래의 과거진행	의지올적	의지미래
못음의 지난	미래과거	이때*	현재
못음의 지난때	미래과거시	이때맞음*	현재완료
미루어헤아림	추정	이미지난때	과거시
미룸	추정	이야기때	발화시
미룸도로생각때	추정회상시	이음의 마침때	계속완료시
미룸들이김법	추정회상법	이적	현재
미룸때	추정시	이적끝남	현재완료
미룸매인법	추정법	이적나아가기끝남	현재완료진행
미뤄보기	추정	이적나아감	현재진행
바로때매김	직접시제	이적나아감도로생각때	현재진행회상시
바로때매김법	직접시제법	이적나아감도움줄기	현재진행보조어간
베품끝의 때매김	서술형의 시제	이적나아감때	현재진행시
복합때	복합시	이적나아감미룸	현재진행추정
복합때매김법	복합시제법	이적나아감미룸도로생각	현재진행추정회상
볼자리	시점	이적나아감미룸때	추정 현재진행시
사건때	사건시	이적때매김	현재시제
시간적되풀이	반복	이제	현재
언씨의 때	관형사의 시제	이제나아감	현재진행
여늬올적	보통미래	이제마침	현재완료
올때*	미래		
올적	미래		

잇기의 때*	연결어미의 시제
잇달음상	연발상
잇어지남	과거진행
잡음씨의 때매김	지정사의 시제
지나간기회도움움 직씨	과거기회보조동사
지나간기회매인움 직씨	과거기회의존동사
지난기회도움그림 씨	과거기회보조형용 사
지난때	과거시
지난적	과거
지난적끝남	과거완료
지난적나아가기 끝 남	과거진행완료
지난적나아감	과거진행
지난적나아감도로 생각	과거진행회상
지난적나아감도로 생각때	과거진행회상시
지난적나아감미름	과거진행추정
지난적나아감미름 도로생각	과거진행추정회상
지난적나아감미름 때	과거진행추정시
지난적도로생각때	과거회상시
지난적때	과거시
지난적때도움줄기	과거시보조어간
지난적때어찌씨	과거시부사
지난적마침	과거완료
지난적매김법	과거법
지난적미름	과거추정
지난적미름도로생 각	과거추정회상
지난적이제법	역사적 현실법
지난적회상	과거회상
지남	과거
지남의 못음	과거미래

지남의 지남	완전과거
지남의 지남의 못 음	완전과거미래
지녀나감	완결지속
지속되풀이	지속반복
회상안맺음씨끝	회상비종결어미
회상의 못음	회상미래
회상의 못음때	회상미래시
회상의 못음의 지 남	회상의 미래과거
회상의 이제	회상현재
회상의 지남	회상과거
회상의 지남의 못 음	회상의 과거미래
회상의 지남의 지 남	회상의 완전과거

334 사동

간접시킴	간접사동
간접하임	간접사동
겹하임말	이중사동
구속하임말	명령적 사동
긴사동법	장형사동법
둘째하임법*	제2사동법
명령적 하임말	명령적 사동법
부림	사동
부림법	사동법
셋째하임법*	제3사동법
시김*	사동사
시킴	사동
시킴도움움직씨	사동보조동사
시킴도움줄기	사동보조어간
시킴움	사동사
시킴움직씨	사동사
제움직씨의 셋째하 임법	자동사의 셋째사동 법

직접시킴	직접사동
직접하임	직접사동
짧은사동법	단형사동법
첫째하임법*	제1사동법
통사적 하임법	통사적 사동법
파생적 하임법	파생적 사동법
하임	사동
하임가지	사동접사
하임끝	사동형
하임남움직씨	사동타동사
하임도움움직씨*	사동보조동사
하임도움줄기*	사동보조어간
하임되기	사동화
하임뒷가지	사동접사
하임말*	사동어
하임매인움직씨	사동의존동사
하임법*	사동법
하임-어찌마디	사동부사절
하임움	사동사
하임움직씨	사동사
하임월	사동문
하임월되기	사동화
허용적 하임말*	허용적 사동

335 피동

겹입음끝	이중피동형
겹입음말	이중피동
둘째입음법*	제2피동법
바로입음*	직접피동
바로입음힘	직접피동사
받음	피동사
받음끝	피동형
셋째입음법*	제3피동법
입음	피동
입음가지	피동접사

입음끝	피동형
입음도움움직씨*	피동보조동사
입음도움줄기*	피동보조어간
입음말	피동어
입음매인움직씨	피동의존동사
입음법*	피동법
입음움	피동사
입음움직씨*	피동사
입음움직임*	피동
입음월	피동문
입음의 입자	피동주
입음제움	피동자동사
입음제움직씨	피동자동사
절로되는입음	자연적 피동
제힘	능동
제힘남움직씨	능동타동사
제힘움직씨*	능동사
제힘월	능동문
제힘의 대상	객체
첫째입음법*	제1피동법
통사적 입음법	통사적 피동법
파생적 입음법	파생적 피동법
할수있는입음	가능적 피동

336 부정

긍정끝	긍정형
긴끝지움월	장형부정문
막음월	부정문
말림	금지
바뀌말함의 부정	부정-환언
아니함	부정
아님	부정
안박인법	부정법
여김월	긍정문
여김지움	긍정부정

지움	부정
지움매인법	부정법
지움법	부정법
지움월	부정문
짧은끝지움	단형부정
짧은끝지움월	단형부정문
통어적지움	통사적부정

338 인칭

둘째가리킴	제2인칭
둘째가리킴월*	제2인칭문장
셋째가리킴	제3인칭
셋째가리킴월*	제3인칭문장
이인칭물음법	제2인칭의문법
일인칭서술씨끝	제1인칭서술어미
임자말인칭제약	주어인칭제약
첫째가리킴	제1인칭
첫째가리킴월*	제1인칭문장
첫째사람월	제1인칭문

339 격

가짐자리	소유격, 관형격
감말의 빛	단어의 격
감목자리	자격격
감의 빛	문장성분의 격
감의 자리	문장성분의 격
같은매김자리	동일관형격
같은어찌자리	동일부사격
같은자리	동격
같은자리말*	동격어
같은자리잡기	동격설정
견중자리	비교격
곳자리	처소격
기울빛*	보격
기움자리	보격

꾸밈자리	수식격
남이자리	서술격
님자감	주격
다를빛	단독격
다만님자격	단독주격
더블빛	공동격
둘째자리법	제2격
따옴자리	인용격
떠날빛	탈격
매김자리	관형격
방편자리	방편격
부름자리	호격
부림자리	목적격
블음	호격
블임감	부속격
빛바꿈	격교체
숨은숨이빛	숨어있는 목적격
숨은임이빛	숨어있는 주격
씀이자리	목적격
어떤자리	관형격
어찌자리	부사격
언침빛	관형격
엷칠빛	관형격
엷침빛	관형격
위치자리	위치격, 처소격
으뜸감빛	주성분의 격
이름빛	주격
임이자리	주격
임자빛	주격
임자자리*	주격
자리매김	격배당
자리매김법	격배당법
첫째자리	제1격
홀로자리	독립격
확정빛	확정격

4. 의미 · 화용

400 의미 · 화용 일반

값치기	가치부여
겹뜻	복의
굳어진표현	고정표현
뜻	의미
뜻가짐	의미
뜻값의 범주	의미범주
뜻같음	동의
뜻더보탬	의미첨가
뜻뒤바뀜	의미전위
뜻매김	의미해석
뜻부	의미부
뜻새김	의미해석
뜻없음	무의미
뜻있음	유의미
뜻조각	의미부
말느낌	어감
말뜻	의미
말맛	어감
말줄기	문맥
숨은뜻	—
알음	인식

410 어휘의미 일반

갈림뜻	변이의미
개념말	개념어
개념발	개념장
객관말	객관어
겉뜻	형식의미
겹뜻감말	복의어
겹뜻말	복의어
낱말뜻	어휘의미

녹은뜻	융합의미
담뜻	제2의 의미
닿소리바꾼뜻바꿈	자음교체의미변화
더하여 뜻바꿈	첨가적 전의
덧난뜻	파생의미
덧날뜻	파생의미
덧뜻	파생의미
뒤집음말*	번복어
뜻빛깔	—
뜻자리	—
밑뜻	기저의미
바탕뜻	기본의미
변두리뜻	주변적 의미
본디뜻	본래의미
본뜻	본래의미
으뜸뜻	기본의미
중심뜻	중심의미

411 의미성분

같은의미값	등가의미
낱말의 뜻바탕	어휘의 의미자질
뜻바탕*	의미자질
뜻바탕의 묶음	의미자질의 묶음
의미바탕	의미자질

412 의미관계

같은값말	등가어
관련말	관련어
낱말발	<어휘장>
뜻같은말계열	동의어계열
뜻다른말	동음이의어
뜻맞섬	의미대립
뜻발	의미장

뜻비슷한말	유의어
맞선뜻	대립의미, 반대의미
맞선말	대립어, 반의어
맞섬말	대립어, 반의어
뜻* 뭉뚱그려진뜻	다의 포괄적 의미
반대말	반대어, 반의어
번져나간뜻	과생의미
비슷한뜻가진말	유의어
비슷한말	유의어
서로뜻머금관계	상호함의관계
소리같고뜻다른말	동음이의어
소리같고뜻다름	동음이의
소리같은말	동음어
어긋맞서는 말	교차대립어
어긋맞섬	교차대립
짝말	대립어, 반의어
한꼴말	동형어
한뜻	동의
한뜻말	동의어
홀날뜻	단의
홀뜻	단의

홀뜻말	단의어
420 문장의미 일반	
가려잡기	공기관계, 선택제한
날말가려잡기	선택제한, 공기 제약
말뜻의 비쳐따름	의미조음
바꿔말함	환언

430 화용의미 일반

상황말	상황어
쓰는뜻	발화의미
쓰인월	발화
이야기	담화

432 수사와 문체

글말	문어
글말체	문어체
글씨말	문어
글체	문어체
사람삼기	의인법
입말	구어
입말체	구어체

5. 역사 · 계통

510 음운사

같은소리끌기	민간어원, 동음견인
더덜	음소증감
더하기	음소증가
더함	음소증가
덜기	음소감소
덜함	음소감소

뒤섞임*	혼태
바른돌이킴	바른회귀
붙어갈라짐	인접분화
서로통함	상통
소리바꾼뜻바꿈	의미변화에 의한 음운변화
소리법칙	음법칙
소리변화	음변화
소리상통	음운상통

옹게돌이킴	바른회귀
자리바꿈*	음운전위
잘못돌이킴*	부정회귀
한데모인 소리변화	합류적 음운변화

520 어휘 및 의미사

뜻넓힘	의미확장
뜻바뀜	의미변화

뜻분화	의미분화
뜻좁힘	의미축소
말뜻가르기	의미분화
말뜻분화	의미분화
말맛바꿈	어감변화
말밑	어원
말밑밝히기	어원탐구

6. 문자 · 표기법

600 문자 일반

가로글씨	횡서
그림글	상형문자
글씨	—
글씨갈	문자학
글씨꼴	자형
글씨뜻	자의
글씨의 흘림	초서
글자	문자
글자갈	문자학
글자꼴	자형
글틀	문자체계
낱글씨	문자
낱자	자모
내리글씨	종서
당글씨	자음자
뜻글	표의문자
뜻글씨	표의문자
뜻글자	표의문자
말보글씨	신화문자
사잇글자*	—
새김	훈, 석
소리글	표음문자, 음소문자

소리글씨	표음문자, 음소문자
소리글자	표음문자, 음소문자
소리바뀐글자*	변음자
소리없는글자	무음가자
소리잃은글자*	실음자
췌기글자	설형문자
암글	한글
음절글자	음절문자
한글	—
한글갈	—
흘림글씨	초서

620 표기법 일반

가운뎃소리글자	중성자
갈서	병서
곁받침	—
덧받침	—
되인시옷	된시옷
된바침	—
된소리글자	경음표기자
된소리표기법	경음표기법
둘받침	—

뒷받침	—
띄어쓰기	—
띄어쓰는자리	—
맞춤법	—
받침	종성
붙여쓰기	—
소리대로쓰기	—
쌍받침	—
적기법	표기법
첫소리병서	초성병서
풀어가로쓰기	—
한글가로글씨	—

621 문장부호

가운뎃점	—
가지런표	—
갈거듭표	—
갈음표	—
거침표	—
겹낫표	—
고로표	—
고리점	—
고리줄	—
곱슬줄	—
굽금	—
귀줄	—
그침표	—
긴소리표	—
까닭표	—
꺾쇠표	—
꼬리점	—
끄어음표	<따옴표>
끼음표	—
낫표	—
날값표	—

느낌표	—
더하기표	—
도로셈표	—
도림	<괄호>
드러냄표	—
따옴표	—
떼냄표	—
마침표	—
말바꿈표	—
말없음표	—
머무름표	—
모점	—
묶은표	—
물결표	—
물음표	—
바로따옴표	—
반점	—
붙임표	—
빗금	—
빠짐표	—
숨김표	—
쉬는표	—
쉼표	—
쌍따옴표	—
쌍반점	—
쌍점	—
안드러냄표	—
온점	—
월점	<구두점>
월점치기	구두점사용법
이음표	—
작은따옴표	—
작은말표	—
줄인표	—
줄표	—

지움표	—	풀이표	—
큰따옴표	—	홀점	—
큰말표	—	홀따옴표	—

7. 방언

	700 방언 일반	남은꿀	잔존형
나눔선	등어선	사투리	—

8. 국어학사 · 서지

	800 국어학사	한글학회	—
가까날	—		

9. 응용 및 인접 분야

	910 국어정책 일반	한글맞춤법	—
다듬은말	순화어	한글맞춤법통일안	—
	911 어문규범		920 국어교육
대중말	표준어	듣기	—
들은말적는법	외래어표기법	말하기	—
한글로마자표기법	—	쓰기	—
		읽기	—

제5부 주요 고유어 용어의 의미 기술

주요 고유어 용어의 의미 기술

앞에서 제시한 고유어 용어 가운데 주요 용어에 대하여 언어학사전 기술 방식으로 뜻풀이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뜻풀이를 집필한 것이 아니고, 제2부에서 제시한 바 있는 “기본 문헌”과 “확장 문헌”에서 해당 용어를 풀이한 부분을 그대로 옮겨 와서 간추린 것이다. 따라서 용어별로 서술 방식과 형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뜻풀이의 내용과 거기에 쓰인 용어는 가능하면 참조한 문헌에 따르며, 뜻풀이 맨뒤에 문헌 이름과 해당 쪽수를 밝혀 두었다. 특별히 주시경 선생의 용어는 구분하여 <주시경-용어>라 붙여 두었다.

여기에 인용하는 문헌은 다음과 같다.

- 주시경 (1910), 국어문법.
- 주시경 (1914), 말의 소리.
- 정열모 (1946), 신편고등국어문법.
- 정인승 (1956), 표준고등말본.
- 최현배 (1937/1971), 우리 말본, 정음사.
- 최현배 (1940/1976), 고친 한글갈, 정음사.
- 허 응 (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 응 (1983), 국어학, 샘문화사.
- 허 응 (1985),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 김석득 (1994), 우리말 형태론 - 말본론, 정음문화사.

다음 두 문헌은 뜻풀이에 참조한 저서이다.

- 한글학회 (1995), 국어학사전, 한글학회.
- 최낙복 (2003), 주시경 문법의 연구 (2), 도서출판 역락.

가까움 말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 일문(사물), 곳, 쪽이 말들음이에게보다 말할이에게 공간적으로 가깝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친한 것을 나타내는, 셋째가리킴 대이름씨의 한 가지. 사람대이름씨에는 ‘이분, 이이, 이에’가 있고, 문대이름씨에는 ‘이, 이것, 여기, 이리’ 등이 있다. (우리말본 231~232, 240)

가닥몰골 한 꼴이 한 가지 뜻을 나타내는 하나의 몰골(morpheme)로서, 다만 그 다른 소리와의 어울림을 취하기 위하여 소리를 바꾸는 형식이 가닥몰골이다. 다음 토씨의 보기는 홀소리어울림에 따라, ㄴ 소리 혹은 ㄹ 소리를 취한 가닥몰골이다: ‘-은/은, -을/을’. (한글갈 426, 472, 476~477)

가량험엇 어림잡은 수량을 나타내는, 즉 수량이 어떠한을 어림잡아 나타내는 엇(형용사). 가량험은 “국어문법”(1910)에서는 험으로 바뀌었다. 험의 하위분류에는 어림과 모름이 있다. <주시경-용어>

가로관계 소리들이 이어나서 형태소나 낱말이나 말도막을 짜이룰 때에 그 소리들이 앞뒤로 이어나는 관계를 말한다. 소리가 이어나갈 때에는, 한 소리가 어떠한 자리에서나 아무런 제약 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 그 제약은 말에 따라 특색있는 체계를 만드는데, 이것이 가로체계이다. (국어음운학 86, 229~243)

가로체계 소리와 소리가 이어나서 소리마디(음절)를 만들고, 그 소리마디가 이어나서 여러가지 말의 낱덩이를 만들 때에, 그 말에 쓰이는 음소가 이어나는 것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어서, 말은 소리가음에서도 어떠한 체계를 만들고 있다. 이것이 가로체계이다. ‘가로’란, ‘세로’란 말과 대립되는 말로서, 말의 낱덩이들이 말을 짜이룰 적에 맺는 앞뒤 관계를 말한다. (국어음운학 264)

가르침언 언의 한 갈래. 지목(指目)언. <주시경-용어>

가름도움줄기 도움줄기 가운데 앞의 줄기의 끝소리에 따라 그 꼴이 바뀌는 것. 홀소리 뒤에 쓰이는 것(‘보시다’)을 홀소리도움줄기라 하고, 닿소리 뒤에 쓰이는 것(‘입으시다’)을 닿소리도움줄기라 한다. 이에 대해 그 꼴이 바뀌지 않는 것, ‘먹이다’ ‘먹히다’, ‘가겠다’, ‘보더라’ 따위를 두루도움줄기라 한다. (우리말본 165~166)

가름씨끝 앞의 줄기 끝소리에 따라서 그 꼴이 바뀌는 씨끝. 줄기 끝소리가 홀소리일 때에 쓰이는 것을 홀소리씨끝이라 하고, 줄기의 끝소리가 닿소리일 때에 쓰이는 것을 닿소리씨끝이라 한다. (우리말본 165~167, 332, 521)

가리킴 대이름씨에는, 말할이가 자기자신을 가리키는 것과, 말들음이를 가리키는 것과, 그 밖의 다른 사람이나 물건이나 일을 가리키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각각, 첫째가리킴(제1인칭), 둘째가리킴(제2인칭), 셋째가리킴(제3인칭)이라 한다. 첫째가리킴과 둘째가리킴은 원칙적으로 사람에게 쓰이며, 셋째가리킴은 사람이나 일이나 물건이나 곳이나 쪽에 두루 쓰인다. ‘자기’나 ‘저’는 첫째나 둘째나 셋째 가리킴에 두루 쓰인다.

이것을 두루가리킴이라 한다. (우리말본 229~243)

가리킴그림씨 그림씨는 뜻에 따라 다섯 갈래로 나뉘는데, 가리킴그림씨는 그 중의 한 가지로서, 일과 몬의 바탈과 있음과 관계와 셈술(수량)이 어떠함을 형식적으로 가리키는 그림씨를 말한다: 이러하다(가까움), 그러하다(가운데), 저러하다(뵈), 아무러하다(똑똑하지 않음), 어떠하다(모름) 등. (우리말본 482~483, 487~488, 490)

가리킴매김씨 매김씨를 그 뜻에 의해 나눈 세 갈래 가운데 하나로서, 말할이가 가리켜매기는 매김씨를 말함이다: <잡힘> 이(일), 그(문제), 저(집), 요(놈), 고(못된 놈), 조(취새끼). <안잡힘> 아무(곳), 어느(때), 무슨(소리), 웬(일), 모(회사). <한자말보기> 해(사무소), 귀(서한), 본(연구소), 현(장관), 타(민족), 폐(상점). (우리말본 584~585, 579, 586)

가리킴이름꼴 움직임을 관념적으로 가리키는 이름꼴로서, ‘-음/口’을 말한다: 나는 담배 먹음을 싫어하오. 가랑잎에 불붙음을 뉘라서 안 무서워하리오? 누워 잠은 좋지만, 앉아 잠은 나쁘다. (우리말본 288~289)

가림꼴 풀이씨 이름법의 끝바꿈꼴(활용형)의 하나. 둘 이상의 움직임이나 상태 가운데 어느 쪽을 가리거나 (어느쪽이라도) 상관 없음을 나타낸다: 남이야 잠을 자거나 일을 하거나 당신이 무슨 상관에 있소? (우리말본 319, 511, 565)

가림도움토 두 가지 넘어되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를 가리는 뜻을 나타내는 도움토의 한 가지: 배나 감이나 잠수시오. (우리말본 642~643)

가림법 이음법의 하나로, 두 가지 현상 가운데에서 하나의 가림(선택)을 보이는 법. 이 법을 보이는 이음씨끝에는 ‘-거나, -든지, -(으)나’ 따위가 있다. 그러나 가림이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사실에서 가리는 것이므로 이 씨끝은 각각 선택 대상이 되는 필수적 씨끝의 거듭형 ‘-거나 ~ -거나, -든지 ~ -든지, -으나 ~ -(으)나’의 각각을 이끈다. (우리말형태론 428~429)

가림이음토씨 가림성(선택성)을 나타내는 이음토씨로, ‘-(이)나 ~ -(이)나’가 있다. (우리말형태론 376~377)

가상잇 잇의 한 갈래로 저 일이 이렇게 되면 이 일이 어떻게 되리라고 가상(假想)하는 것으로, 아직 들어나지 아니한 것을 거짓으로 드러나리라고 가정함을 보이는 잇. <주시경-용어>

가상적 뿌리 홀로는 분석되기 어려우나 동형성으로 보아 뿌리로 분석해 낼 수 밖에 없는 불구형태소를 가상적 뿌리라 한다. 가령, ‘아름답다’에서 ‘아름-’은 ‘-답-’과만 결합하는 불구성을 띤다. (우리말형태론 179, 577)

가운뎃소리 훈민정음에서 우리말의 홀소리를 일컫던 용어. 세종임금과 집현전 학자들은 사람의 말소리를 반드시 첫소리, 가운뎃소리, 끝소리의 셋이 어울려야 웅근소리(=소리마디)가 되어 실제로 소리가 되어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마디의 가운데에 놓여 있는 날소리를 가운데에 있다고 하여 가운뎃소리라 이름했는데, 이는 오늘날 홀소리에 해당한다. (국어음운학 171~172, 331~334)

가위질말 말만듬법의 하나로, 이은말이나 합성어에서 첫부분이나 끝부분을 잘라내어 말을 만드는 법. 가위질말은 이른바 ‘준말’의 하나다: (1) 첫부분 가위질: 판 - 놀음판,

별이 - 돈별이, (2) 끝부분 가위질: 전 - 전화, 주 - 주식(회사). (우리말형태론 315)

가정적 안매는법 위 월의 뜻을 가정적으로 긍정하면서 아래 월에 부정적 사실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이음씨끝. ‘-더라도, -을지라도, -어든, -은들’ (우리말형태론 417)

가지 ‘불휘 깊-은 낚-은 뽕-애 아니 뭐-르썩 곳 뚱-고 열-음 하-느-니’에서, ‘깊-, 남-고-, 뽕-, 뭐-, 뚱-, 하-’는 뿌리라 하고, 이에 연결되어 있는 의존형태소 ‘-은, -르썩, -고, -느-, -니’는 한 자립형식과 다른 자립형식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월 전체의 판단 내용에 관여하는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데, 이를 가지라 한다. (우리말본 30)

가지 토씨(조사)와 씨끝(어미)과 꾸밈말 모두. <주시경-용어>

가지결 토씨와 씨끝과 꾸밈씨를 합한 모두. 결이결, 붙이결. <주시경-용어>

가진겹씨 두 씨 가운데 하나는 주장이 되고 다른 하나는 딸림이 되어서, 딸림은 주장을 돕고 주장은 딸림을 가진 관계에 있는 겹씨. (우리말본 686~701)

가진월 마디를 월조각(문장성분)의 하나로 가진 겹월. 가진월의 한 조각(성분)으로서의 마디는 네 가지이니, 어찌마디, 매김마디, 이름마디, 풀이마디가 그것인데, 어찌마디는 어찌말의 구실을 하고, 매김마디는 매김말의 구실을 하고, 이름마디는 임자씨와 같이 여러가지 월조각의 구실을 하고, 풀이마디는 풀이말의 구실을 한다. (우리말본 827, 829~832)

각건잇 잇의 한 갈래로 두 가지 또는 두 가지 더되는 움직임이 각각 다른 임자 또는 한 임자로 말미암아 차례가 드러남을 보이는 잇. <주시경-용어>

간때 쫓기나 잇기의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건시가 발화시에 선행하는 시간, 즉 과거. ‘-았-, -었-, -였-’ 등으로 실현한다. <주시경-용어>

간때맞음 쫓기 때의 하나로 지난때에 움직임이 막 끝나고 그 결과가 그때에 드러나 있었음을 보이는 때매김. 과거완료. <주시경-용어>

간올때 쫓기 때의 하나로 장래에 움직임이 막 끝나고 그 결과가 드러나 있겠음을 보이는 때매김. 미래완료. <주시경-용어>

갈 른, 학, 연구. ‘갈다’(磨)에서 만든 말. <주시경-용어>

갈아넣기 일반적으로 직접구성요소를 식별하는 방법의 하나. 가령 ‘아이가 좁은 길을 달리오’에서, ‘좁은 길을’은 ‘길을’로 갈아 넣어도 구조에 상처를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좁은 길을’은 하나의 통합소를 이루는 연속 요소의 묶음이 되어 한 단위로 분석되는 직접구성요소의 한 부분이 된다. (우리말형태론 211~212)

갈음월 월 짜임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을 표현의 경제성을 위하여, 월 대신 낱말로 나타내는 형식. 우리말의 ‘예/아니오’ 대답 형식은 갈음월의 보기이다. (우리말형태론 736)

갈음할 수 없는 음성 같은 음성적 환경에서 서로 갈음될 수 없는 소리. 국어의 울림없는 [p]와 울림있는 [b]는 서로 그 배치가 상보적이어서, 같은 음성적 환경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 곧 [p]는 말의 첫머리나 울림없는 소리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b]는 울림소리 사이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두 소리는 같은 환경에서 갈음될 수 없는 소리(음성)이다. 이러한 소리는 음운론적으로 대립할 수 없어서 두 음소로 갈라서지 못

한다. [t]와 [d], [k]와 [g]도 모두 그러하다. (국어음운학 141)

같음할 수 있는 음성 같은 음성적 환경에서 같음될 수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말의 뜻을 분화할 수 있는 둘 이상의 음성. 국어 [p]와 [ph]는 [-ul]과 같은 음성적 환경에서 다 같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뜻이 다른 두 낱말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다. 곧 [pul]은 ‘불’이고, [phul]은 ‘풀’이다. 그리고 된소리를 이 자리에 같음하면 ‘뿔’이 된다. 우리말의 ‘ㄷ-ㄷ-ㅌ’, ‘ㄱ-ㄱ-ㅋ’, ‘ㅈ-ㅈ-ㅊ’도 다 그러하며, ‘말’과 ‘날’에 있어서는 ㅁ과 ㄴ도 그러하다. (국어음운학 141)

감목법 풀이씨의 세 가지 끝바꿈법 가운데 하나. 풀이씨가 월의 풀이 구실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씨갈래처럼 기능하는 끝바꿈법. 감목법에는 임자씨 구실하는 이름 풀(명사형), 매김씨 구실하는 매김풀(관형사형), 어찌씨 구실하는 어찌풀(부사형)이 있다. (우리말본 281~290, 370~371, 501~504, 558~559)

감목자리토씨 어찌자리토(부사격조사) 가운데 한 가지. 임자씨 뒤에 붙어서 그것이 움직임의 감목(자격)됨을 인정하는 뜻을 나타낸다. (우리말본 626~627, 652)

감정느낌씨 놀람, 기쁨과 같은 감정을 드러내는 느낌씨의 한 갈래. 이것은 다시 여러 가지 작은 갈래로 나뉜다: 기쁨, 성냄, 한숨, 놀람, 두려움, 여김(인정), 지움(부인), 낙망, 뜻같음(특의), 즐거움, 놀림 등. (우리말본 607~609)

값어치도움그림씨 으뜸 움직임씨의 뒤에 쓰여서 그 움직임을 하기에 가당한 값어치가 있음을 나타내는 도움그림씨의 한 가지: 그 떡이 먹을 만하다. 놀랄 만한 소식. 그 구경이 봄 직하다. 믿음직한 사람. (우리말본 536)

갖은기움말 꾸밈말을 갖춘 기움말. ‘저것은 아름다운 모란꽃이다.’의 ‘모란꽃’이 기움말인데, 그 앞에 ‘아름다움’이 갖추어져 갖은기움말이 되어 있다. (우리말본 759~760)

갖은부림말 꾸밈말을 갖춘 부림말. ‘약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에서 ‘짐’은 ‘지’의 부림말인데, 이것이 앞에 꾸밈말 ‘무거운’을 갖추고서, 갖은꾸밈말이 되어 있다. (우리말본 759~760)

갖은월조각 월은, 그 구실로 보아서, 몇 조각으로 나눌 수 있으니, 그 나뉜 조각을 ‘월조각’이라 한다. 월조각은 월을 만드는 직접 구성요소인데, 풀이말, 임자말, 부림말, 기움말, 꾸밈말 따위가 그것이다. 이러한 월조각들이 각각 꾸밈말을 갖추고서 길어진 것을 갖은월조각이라 한다. (우리말본 759~760, 747)

갖은임자말 꾸밈말을 갖춘 임자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에서 ‘꽃이’가 임자말인데, 이 말이 꾸밈말 ‘아름다운’을 갖추어 갖은임자말이 되었다. (우리말본 759~760)

갖은풀이말 꾸밈말을 갖춘 풀이말. ‘그는 빨리 걸어간다.’에서 ‘걸어간다’가 풀이말인데, 그 앞에 꾸밈말 ‘빨리’를 갖추어 갖은풀이말이 되었다. (우리말본 759~760)

갖은풀이씨 풀이씨의 줄기는 원칙적으로 모든 씨끝과 다 연결될 수 있어서 완전한 끝바꿈표가 만들어진다. 즉 A, B, C.....로 줄기를 a, b, c.....로 씨끝을 표시하면, Aa, Ab, Ac, Ad, Ae, Af..... Ba, Bb, Bc, Bd, Be, Bf..... Ca, Cb, Cc, Cd, Ce, Cf.....와 같은 균형잡힌 끝바꿈의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어떠한 풀이씨는 극히 국한된 씨끝(때로는 오직 하나의 씨끝)만을 취할 수 있어서, 이러한 끝바꿈표에 많은 빈칸을 남기는 일이 있으니, 이러한 풀이씨를 ‘불구풀이씨’라 하고, 이에 비해서, 모

든(거의 모든) 씨끝을 취할 수 있는 풀이씨를 ‘갓은풀이씨’라 한다. (우리옛말본 440)
같은자리말 같은자리를 잡은 둘 이상의 말. 같은자리 입자말, 같은자리 부림말, 같은 자리 풀이말, 같은자리 기움말, 같은자리 매김말, 같은자리 어찌말, 같은자리 홀로말, 등이 있다. (우리말본 790~797)

같은 곳기나 잇기의 높임의 요소가 들어 있지 않는 서분. <주시경-용어>

거꾸른자리 모든 월조각은 월에서 차지하는 몇몇한 차례가 있으니, 이것을 바른자리라 한다. 그러나 월의 힘을 올리고, 또는 가락을 고루기 위하여 제 본자리를 버리고, 임시로 다른 자리로 옮긴 것을 거꾸른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우리말본 785, 788~790)

거느림 둘 이상의 것이 한 덩이가 됨에는, 별림, 어우름, 거느림의 세 가지 양상이 있는데, 이 중의 거느림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가지고, 또는 거느리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가진월은 마디를 낱말과 같은자리에 거느리고(가지고) 있는 겹월의 한 가지이다. (우리말본 827~832)

거센말 여린 닿소리로 된 말 가운데는, 그 여린소리를 거센소리로 바꾸어서, 그 본뜻에 변질을 일으키지 않고, 그 말맛(어감)만 바꾸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말들을 그 밑말에 대해서 거센말이라 한다: 달금하다-달끔하다, 덜걱덜걱-덜컹덜컹, 땡땡-탱탱, 반들반들-판들판들, 절벽절벽-철벽철벽. (우리말본 727~728)

거센소리 [ㅋ, ㅌ, ㅍ, ㅊ]과 같이, 약한 터짐소리에 ‘기’(ㅎ소리)가 이어나서 매우 거세어진 소리. (국어음운학 107, 181~203, 399)

거센소리되기 음운 변동규칙의 한 가지. ‘떡히다, 급하다, 좁히다, 맑히다’ 따위 말은, 두 형태소의 경계에 /ㄱ, ㅂ/과 /ㅎ/이 이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두 음소는 반드시 거센소리인 /ㅋ, ㅌ/의 한 음소로 줄어진다. (국어음운학 280, 296, 429)

거스른풀이 풀이씨의 풀이끝은 그 뒤에 다시 풀이가 이어지는 것인데, 이 이음 양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앞의 풀이의 내용이 뒤에도 그대로 순조롭게 이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뒤의 풀이가 앞의 풀이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되어 나가는 것이다. 앞의 경우를 바른풀이, 뒤의 경우를 거스른풀이라 한다: 비가 오는데, 어디 가시오? 아이는 작은데, 옷은 퍽도 크다. 키는 작되, 간은 크다. (우리말본 313~318, 509~510, 563~565)

거짓꾸밈도움그림씨 ‘듯하다’의 뜻은, 미룸(추측), 비김(비유), 거짓꾸밈의 세 가지인데, 그중 거짓꾸밈은 사실이 아니면서 사실인 척 꾸미는 것을 말한다: 제가 아주 본듯하게 말하더라. (우리말본 533)

거짓때매김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때매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적이거나 올적으로 심리전환을 일으켜, 그때(지난적, 올적)를 기준으로 하여 때매김법을 쓰는 방법. 지난때로 옮긴 것을 ‘지난적의 이적삼기’, 올적으로 옮긴 것을 ‘올적의 이적삼기’라 한다. (우리말본 478~479)

거짓뜻하는때 곳기 때의 하나인 가상시. <주시경-용어>

거짓맞은때 곳기 때의 하나인 과거가상시. <주시경-용어>

거짓부리도움움직씨 사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데, 거짓으로 겉으로만 그러한 것처럼

하는 뜻을 나타내는 도움움직씨의 한 갈래. ‘채하다, 척하다, 양하다’가 이에 속한다. 이 말들은 으뜸움직씨와 으뜸그림씨와 잡음씨의 매김꼴에 붙는 것이 특색이다. (우리말본 393, 396, 405)

건너담기 홀소리가 닿소리를 사이에 두고, 그 다음에 오는 홀소리를 닮는 것. 보기를 들면, /먹이/→[메기], /납이/→[내비], /잡하다/→[재피다], /뿔이/→[뿔비]에서 /ㄱ/, /ㅌ/, /ㄴ/ 따위가 닿소리를 사이에 두고, 그 다음에 오는 /ㅣ/를 닮아서, 각각 /ㄱㅣ/, /ㅌㅣ/, /ㄴㅣ/로 되는 것과 같다. (우리말본 108)

결의항법 의항법에는 속체계와 겹체계가 있다. 의항법의 속체계 곧 속의항법은 추상화된 의항법 체계이니, ‘물음법, 시킴법, 권유법, 서술법’이 그것이다. 그런데, ‘서술법’은 너무 추상성을 띤다. ‘서술’은 말할이의 감정, 곧 감동적인 것을 서술하는 경우와 비감동적인 것을 서술하는 것으로 다시 양분된다. 감동적인 것을 주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느낌법’이다. 비감동적인 서술은 다시 절대적 상대에 대한 객관적 서술과 수의적 상대에 대한 객관적 서술로 나뉜다. 앞것이 ‘약속법’, 뒷것이 ‘풀이법’이다. 결과적으로 유도된 ‘물음법, 시킴법, 권유법, 느낌법, 약속법, 풀이법’은 속의항법에서 유도된 ‘결의항법’이다. (우리말형태론 395)

견중그림씨 일이나 물건을, 두 가지 이상을 서로 견주어 보고서, 그것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이는 그림씨의 한 갈래: 희기가 눈과 같다. 이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의 말과 다르다. (우리말본 482~483, 486~487)

견중꼴 한 가지 사실을 다른 것에 견주는 뜻을 나타내는, 풀이씨 이음법의 끝바꿈꼴. ‘-거든, -어든’이 있다: 자네가 그리하거든 하물며 남이야 말할 것 있나? 이것도 크거든, 더구나 그것이야 말해 무엇해? 그 사람이 두째이거든, 네야 말해 무엇해? (우리말본 318~319, 510~511, 565)

견중법 한 가지의 사실을 다른 것에 견주는 뜻을 보이는 법. 씨끝 ‘-거든’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때로는 ‘-거늘’과 바뀌는 경우도 있다: 자네가 그리하거든/거늘 남이야 말해 무엇해. (우리말형태론 427)

견중어찌말 견중의 대종(표준)을 나타내는, 월조각으로서의 어찌말의 한 가지인데, 입자씨에 견중(어찌)자리토를 더하여 만든다. (1) 같고 다름의 견중을 보임: 말발은 소발과 다르오. (2) 우열을 나타냄: 오월의 신록이 꽃보다 낫다. (우리말본 780)

견중억 억의 한 갈래. 풀이말이 어떠함을 견주어 말하는 어찌씨. <주시경-용어>

견중엇 엇의 한 갈래. 이것과 저것을 견주어 말하는 그림씨. <주시경-용어>

견중자리토 입자씨 위에 붙어서, 그것과 다른 것과는 서로 견주는 뜻을 나타내는 자리토씨. 그 모양의 같고 다름을 나타내는 것과, 그 정도의 비등하고 차등이 남을 견주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 (1) 모양의 같고 다름을 견주는 데 쓰이는 것에는 두 가지 다름이 있으니, 하나는 같음과 다름에 두루 쓰이는 것(‘-과/와, -하고’)과 다른 하나는 같음에만 쓰이는 것(‘-처럼, -같이, -대로’)이다. (2) 정도를 견주는 데 쓰이는 것도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비등함에만 쓰이는 것(‘-만큼, -만치, -만’)이며, 다른 하나는 차등이 나는 데에만 쓰이는 것(‘-보다, -에서’)이다. 마디에 붙어 쓰이는 ‘-시피’도 견중토의 한 가지이다. (우리말본 627~629)

견중자리토씨 견중말(대비어)을 표시하는 문법적 방법을 견중법이라 하고, 견중법을 나타내어 주는 토씨를 견중자리토씨라 한다. (우리옛말본 349)

결, 결에 ‘겨레’라는 뜻, 족(族). <주시경-용어>

결이결 빗과 금을 말함. 또는 가지결, 줄기결, 붙이결. <주시경-용어>

겸행잇 잇의 한 갈래로 한 입자 또는 두 입자가 두 가지의 움직임을 동시에 하는 것을 보이는 것. <주시경-용어>

접남움직씨 제움직씨나 그림씨에 하임도움줄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움직임은 단순한 남움직씨가 된다. ‘비행기가 난다.비행기를 날린다.’ ‘아기가 운다.아기를 울린다’. 이 경우에 제움직씨의 입자말은 부림말로 바뀐다. 그러므로 본디부터 남움직씨인 것이 하임도움줄기를 가지게 되면, 본디부터의 부림말과, 입자말이 부림말로 바뀐 것, 두 부림말을 가지게 되므로 이것을 접남움직씨라 한다. (우리말본 350~352, 420)

겹닿음 한 소리가 그 앞에 있는 소리를 닮음과 동시에 그 뒤에 있는 소리를 아울러 닮는 경우. 이것은 ‘내리닿음’과 ‘치닿음’이 동시에 일어난 현상이다. 훈민정음을 만들던 때의 /빙/은 /히/이 그 앞뒤의 공깃길 3도 이상의 울림소리를 닮아서 공깃길 1도의 울림소리인 /빙/으로 바뀐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앞뒤 소리를 동시에 닮은 겹닿음이다. 곧 공깃길 3도 이상의 소리를 닮아서 1도가 되고, 그리고 앞뒤의 울림소리를 닮아서 울림소리가 된 것이다: 늑+은→누븐, 늑+어→누버. (국어음운학 516, 522, 314~316)

겹닿소리 15세기 우리말에 있어서는 한 소리마디(음절)의 첫소리 자리에 둘이나 셋의 닿소리가 놓이는 일이 있어서 이것을 ‘겹닿소리’라 이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ㅅㅅ, ㅅㅅ, ㅅㅅ, ㅅㅅ, ㅅㅅ, ㅅㅅ, ㅅㅅ, ㅅㅅ, ㅅㅅ, ㅅㅅ. 이 글자들의 소리에 대해서는 그것이 된소리라느니, ㅅ-계만 된소리라느니 하는 말이 있으나, 이것은 그 글자대로의 소리를 가졌던 것이 거의 분명하다. (국어음운학 345~356, 400)

겹받침줄이기 그 원형이 닿소리 둘로 끝나 있는 형태소 다음에 휴식이 오거나 다시 닿소리가 이어나게 되면, 그 형태소의 끝닿소리 둘 가운데 하나가 줄어지는, 음운 변동규칙의 하나. ‘값#(#는 휴식의 표시), 값-도, 값-과’의 ‘값’은 /ㅅ/이 줄어들어서 /갑/이 되고, ‘없다, 없고’의 줄기 「없-」은 「-다. 고」와 같은 닿소리 씨끝이 이어나게 되면 /업-/으로 바뀐다. 이 변동의 규칙은 우리말에 있어서는 보편적이오, 필연적이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이런 조건 밑에 있는 모든 말은 다 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필연적이라는 것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임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국어음운학 255~267, 294, 419)

겹상보배치 둘 이상의 음성이 서로 비슷하면서 그 배치(놓이는 자리)가 서로 배타적이면 이 둘 이상의 음성은 한 음소로 묶여서 그 음소의 변이음이 된다. 그런데 어떠한 음성은, 그 소리의 비슷한 점으로나, 그 배치가 배타적인 점으로나, 그와 한 음소로 묶일만 한 음성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한 음성이, 다른 어느 한 음성과만 서로 배타적 배치를 이루지 않고, 둘 이상의 음성과 그 배치가 배타적일 때에 이러한 음성을 ‘겹상보배치’를 가진 음성이라 한다. (국어음운학 93~94, 168~170)

겹소리 둘 이상으로 쪼갤 수 있는 소리를 말하며, 여기에는 웃음소리의 겹소리, 불음

소리의 겹소리가 있고, 붙음겹소리에는 다시 섞임소리, 짝소리, 덧소리가 있다. <주시경-용어>

겹소리 소리는 그 한 덩이를 이룬 소리의 수에 따라 홀소리(단음)와 겹소리(복음)로 갈라진다. 홀소리라는 것은 그 소리남이 앞뒤를 따라 달라짐이 없이 꼭 한 가지로만 나는 것이요, 겹소리라는 것은 둘 또는 둘 더 되는 소리가 모여서 한 낱의 소리로 된 것이니, 그 소리남이 때의 앞뒤를 따라 다름이 있다. 보기를 들어 풀이하면, ㅏ는 홀소리이니, 아무리 길게 내어도 꼭 한 가지로만 나지만, 이에 대하여 ㅑ는 겹소리이니, 만약 길게 내면, ㅑ는 그대로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ㅏ만이 길어진다. 이는 ㅑ의 소리남이 앞뒤를 따라 다름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곧 ㅏ 가운데서 먼저 나는 소리와 나중 나는 소리가 따로 들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니, 곧 겹소리임을 보이는 것이 된다. (우리말본 53~54)

겹씨 뜻과 풀이 둘 더 되는 낱말이 서로 겹해서, 말본에서 한 낱말로서 다름을 받는 한 덩어리의 말. 겹씨는 낱말과 낱말과의 겹한 것이므로 낱말의 감목을 가지지 못한 씨가지와 어우른 것은 겹씨가 아니고 홀씨(단사)이다. 겹씨에는 세 가지 다름이 있다. 겹씨에는 둘이나 둘 더 되는 씨가 서로 겹하되, 그 각각의 본디의 뜻을 잃어버리고 한 덩어리의 새 뜻을 나타내는 것과 두 씨 가운데 하나는 주장이 되고 하나는 딸림이 되는 관계를 가진 것과 두 씨가 각각 제 독립의 뜻을 가지면서 형식상으로 겹쳐서 된 것에 따라 녹음겹씨(녹음씨, 융합복사) 가진겹씨(가진씨, 유속복사), 벌린 겹씨(벌린씨, 병렬복사)의 세 가지의 다름이 있다. (우리말본 686~688, 705~725)

겹월 입자말과 풀이말과의 걸림(관계)이 단 한 번만 성립되는 월을 홑월(단문)이라고 하고, 둘 이상의 홑월이 그 끝에서 서로 엮히어서 한 덩이가 된 월을 겹월이라 하는데, 이 경우 겹월로 엮힌 홑월은 마디가 된다. 겹월은 그 마디의 어우름의 모양에 따라, 가진월, 벌린월, 이은월의 세 가지로 가르친다. 가짐과 벌림과 이음의 세 가지 월들이 다시 서로 엮혀서 ‘복잡한 겹월’을 만들기도 한다. (우리말본 817, 823~853)

겹음소 순수한 음성학적인 각도로 보면, ‘샤, 셔, 쇼, 슈’는 [ʃja, ʃjə, ʃjo, ʃju]로 적을 수 있지만, [ʃa, ʃə, ʃo, ʃu]로도 적을 수 있다. 그리고 ‘냐, 녀, 뇨, 뉴’는 [nja, njə, njo, nju]로 적을 수 있지만 [na, nə, no, nu]로도 적을 수 있다. 그런데 기호의 경제를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그 기호의 수를 줄이는 것이 좋음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 소리들은 [ʃa, ʃə, ʃo, ʃu], [na, nə, no, nu]로 적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음운학적인 모로 보면, [ʃa, ʃə, ʃo, ʃu]는 /sja, sjə, sjo, sju/로 분석하고, [na, nə, no, nu]는 /nja, njə, njo, nju/로 분석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우리말의 음절 짜임새의 균형을 위해서다. 이렇게 분석하면, 음성학적인 모로는 [ʃ, ɲ] 한 소리인 것이, 음운학적으로는 /sj, nj/ 두 음소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곧 한 음성이 두 음소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것을 겹음소의 가치라 한다. (국어음운학 172~179)

겹쳐진소리없앰 한 말 안에 같은 음소가 이웃해 있거나, 또는 다른 음소를 사이에 두고 있을 때에, 같은 음소를 두 번 되풀이하지 않고, 한 번만 해서, 한 음소를 없애 버리는 것을 말한다. (국어음운학 528, 530)

겹침닿소리 ‘홀로, 만나다’의 /ㅈ/, /ㄴ/은 그 사이에 소리마디(음절)의 경계가 있어서

앞은 점약음, 뒤는 점강음으로 발음되는데, 이와 같이, 같은 닿소리 둘이 겹쳐진 소리를 말한다. (국어음운학 124)

겹침홀소리 홀소리 둘이 그 가운데 소리마디(음절)의 경계를 두고 이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지금말의 ‘투우사’, ‘보온병’의 /T-T/의 연결이나, /ㄱ-ㄱ/의 연결 같은 것을 말한다. (국어음운학 125)

겹홀소리 |, ㄱ, T, - 네 홀소리가 다른 홀소리의 앞에서 그 뒤의 홀소리와 겹쳐서 한 덩이로 된 소리. 이때에 앞에 가는 |, ㄱ, T, - 네 소리는 닿소리의 꺾목(자격)으로 닿소리 노릇을 한다. (우리말본 63~66)

겹홀소리 홀소리는,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에서 단음이나 터뜨림이나 같이와 같은 ‘막음’을 입지 않는 울림소리인데, 이러한 방법으로 내는 소리가 한 음절 안에 들이상이 있는 소리를 말한다. 이 경우에 그 중의 하나는 그 음절의 중심이 되는 ‘성절음’이 되고, 다른 것은 그에 딸리는 ‘비성절음’이 된다. 비성절음은 성절음에 비해 약하다. (국어음운학 53, 183~184, 403)

곁 입자말이나 부림말 밑에 붙는 모든 토씨와 격을 표시하는 모든 토씨를 가리키는 것으로써 이음토씨 ‘-과/와’를 제외한 모든 토씨를 포함한다. <주시경-용어>

고름소리 줄기에 씨끝, 도움줄기, 그리고 입자씨에 토씨가 연결될 때, 발음이 미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끼우는 홀소리. 옛날에는 줄기 뒤에는 홀소리어울림에 따라 ‘으, 으’를 썼으나 지금은 ‘으’ 하나뿐이다.

고름소리없애기 우리말 형태소의 변동규칙의 하나. 토씨의 ‘-으로’나, 풀이씨 씨끝의 ‘-으니, -으며, -으면서’ 따위는 닿소리 뒤에서는 이 소리가 그대로 유지되나, 홀소리 뒤에서는 ‘으’가 줄어 없어진다. 이 ‘으’를 ‘고름소리’라 하고, 홀소리 뒤에서 이 소리가 줄어 없어지는 변동규칙이 ‘고름소리없애기’이다. (국어음운학 282, 2789)

고정자리 홀소리는 어느 순간 일정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어느 자리에 어느 순간 머무르는 것은 ‘홀홀소리’이고, 그렇지 않은 소리는 ‘반홀소리’이다. 이 머무르는 자리를 ‘고정자리’라 한다. 닿소리 음소는 대개 일정한 자리가 있지만은 /ㅎ/은 그 나는 자리가 매우 유동적이다. (국어음운학 209~210)

곳어찌씨 뜻에 의한, 어찌씨의 한 갈래. 곳, 쪽, 거리를 나타낸다. 곳: 여기, 저기, 거기, 곳곳이, 집집이 쪽: 이리, 저리, 그리. 쪽: 멀리, 가까이. (우리말본 594-596)

곳역 장소를 나타내는 어찌씨. <주시경-용어>

곳자리토 움직임이 되는 곳을 나타내는 어찌자리토의 한 가지. 이에, 닿는데, 움직임을 이 되는 데, 떠난 데, 향한 쪽, 금줄을 나타내는 다섯 가지가 있다. (1) 닿는 데: 진흙이 옷에 묻었다. (2) 움직임을 이 되는 데: 학교에서 놀았다. (3) 떠난 데: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4) 향한 쪽: 자네는 어디로 가는가? (5) 금줄: 방안으로 들어오시오. (우리말본 620~625)

공깃길 폐에서 나오는 공기는 목안을 지나 입안이나 코안을 거쳐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입안이나 코안의 공기통로는 소리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다. 이 공기 통로의 크기를 ‘공깃길’이라 한다. 소쉬르는 이 공깃길의 도수를 여덟으로 나누었다. 0도: 터짐소리 1도: 같이소리 2도: 콧소리 3도: 흐름소리 4도: 닫은소리 5도: 반닫은홀소리 6

도:반연홀소리 7도:연홀소리. 소리 내는 다른 조건이 같으면 공깃길이 크면 클수록 그 소리의 청취효과는 커진다. (국어음운학 36)

공깃길닦음 소리닦음(동화)의 한 가지로서, 공깃길이 다른 두 소리가 이어날 때에, 그 한편의 공깃길이 다른 편의 공깃길을 닦아, 공깃길이 다른 소리의 공깃길과 같아 지거나 비슷해지는 소리변화를 말한다. 지금말의 ‘먹어’의 /ㄱ/이 본디는 공깃길 0도의 [k] 소리가이었을 것이나, 이것이 울림소리 사이에서 울림소리인 [g] 소리로 바뀌고 다시 그 앞뒤소리의 공깃길을 닦아 같이소리인 [γ]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국어음운학 516, 525)

공깃길좁히기 지금 우리말의 음운규칙의 한 가지. /어/는 두 가지의 변이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변이의 조건은 그 위에 놓이는 소리의 길이에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곧 짧은 소리인 ‘어머니, 먹어, (아기를 등에) 업다’ 따위에 있어서는 공깃길이 큰 [ɿ] 소리를 으뜸소리로 잡으면, 공깃길이 작은 [ɐ]는, 그 위에 놓인 소리의 길이에 따라 공깃길이 작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어음운학 206)

구속적 하임말 ‘하임말’의 하나. ‘하임’이란, 하임의 주체가 어떤 다른 사람을 시켜,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글자 그대로의 하임말에 있어서는, 하임의 주체는 실지 행동은 하지 않고, 실지의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은 시킴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임말이라 불러온 것은, 하임말의 주체가 실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는 시킴 받는 사람이 하고 싶거나 하기 싫거나를 묻지 않고, 시켜서 하게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하임의 주체가, 시킴 받는 사람에 대해서 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많게 된다. 즉 명령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것을 ‘구속적(명령적) 하임말’이라 한다. 구속적 하임말은 구속의 주체가 단순히 시키기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때로는 자신이 행동을 하는 일도 있다. 이를테면, 하임의 주체가 명령만 하는 데 그치는 일도 있겠으나, 실지로 남의 몸을 씻기고, 남의 구두를 벗기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옛말본 169)

굳은이름씨 감각에 의해 지각할 수 있는 이름씨: 집, 산, 책상, 의자, 자동차 따위. (우리말본 216)

굴꼭가지 뿌리에 달려 있는 형태소 중, 한 자립형식과 다른 자립형식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율 전체의 판단 내용에 관여하는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굴꼭가지’라 한다. 이는 씨끝(어미)와 토씨(걸림씨)를 아울러 부를 때 쓰이는 용어이다. (우리옛말본 31)

굽치는말 말본상의 뜻을 나타내는 말본형태소가, 어휘적인 뜻을 나타내는 형태소에 긴밀하게 녹아 붙거나, 어휘형태소의 내부 변경에 의해서 말본상의 뜻을 나타낸 말. 굴절어. (우리말본 145~146, 196, 200)

그럼역 역의 한 갈래로 허락의 뜻을 나타내는 어찌씨. <주시경-용어>

그리여김도움그림씨 으뜸그림씨와 잡음씨에 ‘-기’ 이름꼴에 붙어서 그 뜻을 시인하는 뜻을 나타내는 도움그림씨의 한 가지로 ‘하다’이다. ‘-기’ 다음에는 도움토씨 ‘-도, -는, -야’ 따위가 덧붙는다: 그 집이 크기는 하다. (우리말본 534~546)

그리여김도움움직씨 풀이말의 성립함을 그리여기는(시인하는) 도움움직씨이니, ‘하

다'가 그것이다. 이 말은 으뜸풀이씨의 '-기' 이름꼴에 도움토씨 '-도, -는' 따위가 붙는다: 나도 가기는 한다. (우리말본 404~405)

그림매김씨 일이나 문의 결과 속의 어떠함을 그리는 매김씨의 한 갈래. 이에는 성질·상태에 관한 것, 시간·공간에 관한 것이 있다. (우리말본 579~581)

그림씨 풀이씨의 한 갈래. 그림씨는 그 뜻으로 보아 '속걸그림씨', '있음그림씨', '건춤그림씨', '셈술그림씨', '가리킴그림씨'로 나뉜다. (우리말본 182~183, 187, 480, 722)

그만두기도움토 어떤 것이 다른 것과 비겨 보아서, 그 결과의 어찌 될 것이 너무도 환하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그만둔다는 뜻을 나타내는 도움토씨의 한 가지. '-커녕' 하나가 있다. (우리말본 646~647)

그침꼴 풀이씨 이음법의 씨끝바꿈꼴의 한 가지. 여태까지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그치고, 다른 움직임이나 상태로 바뀔을 나타내는 뜻을 가지는데, 움직임씨, 그림씨, 잡음씨에 두루 쓰이며, 그 씨끝은 '-다가'이다. (우리말본 320, 511, 565)

금이 꾸미는 말의 줄기. 즉 임이(임자말), 씬이(부림말), 남이(풀이말)에는 각각 꾸밈말이 붙어 있는데 이것을 금이(꾸밈말)라 한다. 임이를 꾸미는 말이 임이금, 씬이를 꾸미는 말이 씬이금, 남이를 꾸미는 말이 남이금이다. <주시경-용어>

금이결 임이(임자말)와 씬이(부림말)와 남이(풀이말)를 꾸미는 말. <주시경-용어>

금이드 꾸밈월(수식절). 임자말을 꾸미는 매김월(언드, 관형절)과 풀이말을 꾸미는 어찌월(억드, 부사절)이 있다. <주시경-용어>

금이듬 월의 꾸밈성분(수식)으로서, 임이(임자말)와 씬이(부림말)를 꾸미는 매김말과 남이(풀이말)을 꾸미는 어찌말. 금이듬은 금이와 금이빳을 합한 것이다. <주시경-용어>

금이빳 금이(꾸밈말)를 만들어 주는 토씨 또는 씨끝. <주시경-용어>

금줄긱자리토 유형무형의 금줄을 쳐서, 더러는 그 밖에 나감을 보이고, 더러는 그 안에 들을 보이는 '긱자리토'의 한 가지: 방안으로 들어오시오. 그는 돈밖에 모른다. (우리말본 623~625)

기 씨, 품사, 낱말. <주시경-용어>

기갈래의 난틀 기(품사)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써 '갈래'는 종류를 뜻하고, '난틀'은 나누는 틀. 즉 품사분류체계. <주시경-용어>

기난 '기'는 씨(품사)에 해당하고, '난'은 분류라는 뜻. 품사분류. <주시경-용어>

기난갈=씨난갈 씨를 나누는 학문, 품사분류론. <주시경-용어>

기난틀=씨난틀 '기(씨)'는 품사이고, '난틀'은 분류체계, 즉 품사분류체계. <주시경-용어>

기델빳 명사의 표현법인 표시태의 빳 중 하나로 일의 기땀을 받는 객체를 나타내는 빳. 의존적인 의미를 가지는 성분들의 운용에 종속하여 그 의미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는 데 쓰인다. '-에'는 기델빳의 대표이고 '-게'는 동물인 객체에, '-께'는 높은 자리인 객체에 붙는다. (정열모: 신편고등국어문법 135~137)

기뜻박곰 기(씨, 품사)는 바꾸지 않고 뜻만을 바꾸는 조어법인 어의전성. <주시경-용어>

어>

기뭍박굽 기(씨, 품사)가 다른 기로 꼴을 바꾸는 것으로, 파생법에 의한 품사전성을 말한다. <주시경-용어>

기뭍험=씨뭍셈 기(씨, 품사)의 수를 이르는 것, 즉 뿌리의 어우름인 합성법을 말한다. <주시경-용어>

기울빚 명사 표현법인 표시태의 빚 중 하나로, 다른 말의 운용에 있어 결합된 뜻을 기워 주는 뜻을 나타내는 빚이다: ‘얼음이 물이 된다’, ‘그것은 붓이 아니다.’, ‘나른다고 새가 아니다.’에서 ‘물이’, ‘붓이’, ‘새가’가 기울빚이다. (정열모: 신편고등국어문법 138~139)

기움말 잡음씨 ‘-이다’와 ‘아니다’ 앞에 놓이는 임자씨와 임자씨 노릇을 하는 말로 된 월조각(문장성분)의 한 가지: 그는 축구선수이다. 그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말본 768~770)

기움자리토 임자씨 뒤에 붙어서, 그것이 잡음씨 ‘아니다’의 기움말이 되게 하는 자리 토씨인데, 임자자리토와 같다: 저 물새는 비오리갠 아니오? (우리말본 635, 651~652)

기잇 잇기의 마디. 잇기가 붙어 두 낱말로 짜인 것으로 이어지는 말의 종류에 의한 분류로 낱말과 낱말을 잇는 것. <주시경-용어>

길 정도(程度). <주시경-용어>

길이언어 홀소리의 길이가 낱말의 뜻을 달리하는 데 봉사하는 언어. 이를테면 우리 말의, 사람의 얼굴에 있는 ‘눈’과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그 닿소리와 홀소리의 이음은 같은데, 다만 그 홀소리의 길이의 다름으로 뜻이 달라진다. 곧 얼굴의 ‘눈’은 짧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다: 말-말: 손-손: 굴-굴: 밤-밤: 술-술: 줄-줄: (국어음운학 125~126)

까닭금 것의 한 갈래. 임자씨 뒤에 붙어서 그것이 움직임의 까닭(이유, 연유)이 되는 것임을 보이는 토씨. <주시경-용어>

까닭법 이음법에서, 아래 월에 대한 까닭의 근거가 위 월에 제시되는 것으로, 매는법의 한 가지. 까닭법 씨끝에는 ‘-으므로, -으니(까), -어(서), -은즉, -기에, -으매, -거늘’ 등이 있다. (우리말형태론 410~412)

꼭대기 말은, 크고 작은 소리가 같음으로 이어나는 것이 그 특색의 하나이다. 곧 사람이 말을 할 때에는 입의 공깃길의 크고-작음이 같음되어 되풀이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소리도 크고-작음이 같음되어 되풀이된다. 그것은 다른 조건이 같을 때에는 소리의 크기는 입안의 공깃길 크기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에서 소리가 큰 것은 꼭대기가 되고 작은 것은 골짜기가 되는데, 꼭대기를 이루는 소리를 ‘성절음’이라 한다. (국어음운학 110)

꼭소용매는꼴 풀이씨 이음법의 매는꼴의 세 가지 끝바꿈꼴 중의 하나로서, 반드시 드러내야 할 얽매음을 보이는 뜻을 나타낸다. 풀이씨에 두루 쓰인다: ‘-어야/아야, -어야만/아야만, -라야(만)’. (우리말본 302~303, 506~507, 561)

꼴그림씨 그림씨는 그 임자(주제)가 어떠함을 실질적으로 그려내는 ‘바탕그림씨’와,

그것을 형식적으로 그려내는 ‘꼴그림씨’의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꼴그림씨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으로 다시 나뉜다. 객관적-셈술그림씨: <셈>적다, 많다. <술>작다, 크다. 주관적-가리킴그림씨: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어떠하다, 아무러하다, 어떠하다. (우리말본 482~483, 487~488)

꼴매김씨 매김씨는 그 뜻으로 보아 ‘그림매김씨’, ‘셈술매김씨’, ‘가리킴매김씨’로 나뉘는데, ‘그림매김씨’는 실질적인 뜻이 있으므로 ‘바탕매김씨’라 하는 데 대해, ‘셈술’과 ‘가리킴’의 매김씨는 그런 뜻이 없이, 그 존재의 형식을 간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므로 ‘꼴매김씨’라 한다. (우리말본 579, 581~586)

꼴없는가지 ‘느외다’(反復), ‘고초다’(拱), ‘모도다’(集)에서 파생된 어찌씨에 ‘느외, 고초, 모도’가 있다. 이 파생어찌씨의 파생법의 설명 중 가지가 있다고 보는 방법에는 두 설명 방법이 있다. 첫째 방법은, 어찌씨 만드는 뒷가지 ‘-이’나 ‘-오’가 연결되어 있는데, 뿌리의 끝소리가 /i/, /o/이기 때문에, 그 가지가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이고, 둘째 방법은, ‘-이’나 ‘-오’와는 다른 ‘꼴없는 가지’가 있다고 보는 방법이다. 둘째 설명 방법이 좋다는 것은, ‘바르, 비릇’과 같은 어찌씨에서 알 수 있다. 이 파생어찌씨는, ‘꼴없는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 수 밖에 없다. ‘느외’의 경우처럼, 뒷가지 ‘-이’가 연결되어 있는데, 뿌리의 끝소리가 /i/이기 때문에, 그 가지가 줄어들었다는 식의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느외’의 경우나 ‘바르’의 경우, 모두 ‘꼴없는가지’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다. (우리말본 37~38)

꼴없는이름씨 구체적인 형체를 갖추지 않은 일을 나타내는 이름씨: 마음, 힘, 뜻, 웃음, 울음, 잠, 꿈, 모내기. (우리말본 216, 290)

꼴임자씨 일정한 바탕이 없이 형식적으로 개념을 드러내는 임자씨. 이에 대해 일정한 바탕이 있어, 구체적으로 개념을 드러내는 임자씨를 ‘바탕임자씨’(실질체언)라 한다. 꼴임자씨에는 주관성을 띠는 ‘대이름씨’와 객관성을 띠는 ‘셈씨’가 있다. (우리말본 158~160, 226~227, 244)

꼴있는이름씨 구체적인 형체를 갖춘 물체를 나타내는 이름씨: 사람, 들, 나무, 물, 소, 무덤. (우리말본 216, 290)

꼴풀이씨 풀이씨 가운데는, 그림씨, 움직임씨와 같은, 속성 관념을 드러내는, 곧 그 말들이 드러내는 실질의 바탕이 있는 ‘바탕풀이씨’가 있고, 한편에서는 그와 반대로 다만 풀이하는 힘만 있을 뿐, 아무런 실질의 관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꼴풀이씨’라 한다. 꼴풀이씨에는 ‘잡음씨’ 하나가 있다. (우리말본 182, 188)

피임꼴 움직임씨 마침법의 끝바꿈꼴의 하나. 말하는이가 듣는이에게 무슨 일을 함께 하기를 요구하면서 월을 끝맺는 끝바꿈꼴인데, 이에겐 말하는이의, 듣는이에 대한 다섯 가지의 높임 관계가 표시된다. 아주낮춤, 예사낮춤, 예사높임, 아주높임, 반말. 피임꼴은 풀이씨의 다른 갈래, 곧 그림씨와 잡음씨에는 없으니, 그것은 피임은 유의적 동작에만 쓰이는 것인데, 그림씨나 잡음씨는 뜻있는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말본 265, 278~279, 491~492, 550)

피임법 마침법(의향법)의 하위 범주의 하나로서, 들을이와 서로 함께 하기를 재촉하는 뜻을 나타내는 문법적 방법이다. (우리말본 519)

피임월 들을이를 피여서 저와 함께 어떤 움직임의 하자는 뜻을 나타내는 월. 바탈로 본 월 갈래의 한 가지. 피임월의 풀이말은 움직임의 피임말로 끝맺는다. (우리말본 757~758, 771~783)

꾸밈씨 제스스로 월의 빠다귀가 되지 못하고, 항상 월의 빠다귀가 되는 으뜸씨(임자씨, 풀이씨)나 월을 꾸미는 낱말. 꾸밈씨에는 토씨가 더러 붙는 일도 있으나, 그 자체로서는 풀바꿈(굴곡)을 하지 않으며, 그 바탈(성질)과 구실(기능)로 보아, 매김씨(관형사), 어찌씨(부사), 느낌씨(감동사)로 나뉜다. 매김씨와 어찌씨는 낱말을 꾸미는데, 매김씨는 임자씨를 꾸미고, 어찌씨는 풀이씨를 꾸민다. 그리고 느낌씨는 마디(월)를 꾸민다. (우리말본 156, 192~193)

꾸밈의 서로맞음 말재어찌씨(화식부사, 전술부사)는 말하는이의 뜻을 비추는 태도에 관한 어찌씨이니, 풀이말의 배품(진술) 방법을 꾸며서, 그 풀이말의 나타남에 일정한 말재(방식)가 있기를 요구하는 것. 서로맞음(상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풀이말에 긍정을 요구함. (2) 부정, 금지를 요구함. (3) 풀이말에 물음꼴을 요구함. (4) 추측, 의혹의 말을 요구함. (5) 가정, 양보를 요구함. (6) 시킴꼴, 거짓잡기 매는꼴을 요구함. (우리말본 599~601, 815~816)

끊음소리법칙 닿소리로 끝난 소리마디 아래에 홀소리가 올 때, (1) 그 닿소리가 아래 홀소리에 이어져서 완전한 소릿값으로 나는 경우, (2) 단독 소리마디의 경우와 같이 소리 끝이 끊어져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아래 홀소리가 예사로 나는 경우와 다름이 있으니, 곧 앞 소리마디의 받침이 뒷 소리마디에 미치는 경우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앞의 경우를 '이음소리'(연음)라 하고, 뒤의 경우를 '끊음소리'(절음)라 한다. (정인승: 표준고등말본)

끝음빋 동사의 마침빋(마침꼴)의 하나로, 상대자를 끌어들이 자기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을 바라는 뜻을 나타내는 쓰임. 동작동사에만 있다. 청유형. (정열모: 신편고등국어 문법 152~153)

끗 기(품사)의 하나로 마침법의 각종 씨끝(語尾). <주시경-용어>

끗기의 때 때(時制)를 나타내는 끝기. 때를 나타내는 형태소는 끝기의 한 부분으로 보기도 하고, 잇기의 한 부분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끝기와 결합하면 끝기가 되고, 잇기와 결합하면 잇기가 된다. 이 끝기의 때는 이때, 간때, 올때의 세 가지이다. <주시경-용어>

끗의 갈래 끝은 풀이씨의 마침법(의향법) 씨끝에 해당하는 것으로 말할이와 들을이 사이에 주고 받는 관계와 말할이의 생각의 태도에 따라 '이름, 물음, 시김, 홀로'의 네 갈래가 있다. <주시경-용어>

끝난월 풀이씨의 마침법으로 끝맺어진 월: 아이가 노래한다. 그 꽃이 매우 아름답다. 환산 이윤재 선생은 '성웅 이순신'을 지으신 분이다. 너도 거기 가느냐? 그 곳 날씨가 따뜻하더냐? 저것이 네 사진이냐? 빨리 걸어 가거라. 빨리 걸어 가자. (우리말본 262)

끝남도움움직씨 움직임의 끝남을 보이는 도움움직씨로서 이에는 '나다, 내다, 버리다'가 있는데, 모두 으뜸움직씨의 '-어/아' 씨끝에 붙는다. (우리말본 401~402)

끝남도움토 일이나 문이 끝남을 보이는 토씨. ‘-마저’ 하나가 있다. 하나마저 잡수시오. 나마저 데려가시오. (우리말본 644~645)

끝남때 이제, 지난적 또는 올적의 어느 때에, 어떠한 움직임이 이제 막 끝났음, 끝나 있었음, 또는 끝나 있을 것임을 보이는 때매김. (1) 이적끝남: 움직임이 이제 막 끝났음을 보이는데, ‘-있/왔/였-’으로 나타낸다. (2) 지난적끝남: 지난 어느 때에 어떠한 움직임이 막 끝나 있었음을 보이는데 도움줄기 ‘-였-’을 겹쳐 나타낸다. (3) 올적끝남: 올적 어느 때에, 어떤 움직임이 끝나 있을 것임을 보임인데, 도움줄기 ‘-있겠-’으로 나타낸다. 이상은 배품꼴의 끝남때인데, 매김꼴에도 이 세 가지 끝남때가 표시된다. 때매김은 바로때매김과 도로생각때매김의 두 가지가 있는데, 위의 풀이는 바로때매김의 배품꼴과 매김꼴의 경우이고, 도로생각에도 이와 같은 여섯 가지 끝남때가 있다. (우리말본 450~451, 458~461, 465~467, 472~473)

끝남미룸법 올적 어느 때에 어떤 움직임이 끝나 있을 것임을 보이는 매김꼴의 ‘-있겠는’, ‘-있을’은, 그 본대의 뜻으로 쓰이기보다 차라리 끝났으리라 미루어 보는 뜻으로 쓰이는 일이 많으니, 이것을 ‘끝남미룸’이라 한다. (우리말본 466~467)

끝바꿈 풀이씨가 풀이말이 되어서 그 입자말에 대한 풀이를 할 때에는, 여러가지의 말본 정보를 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꼴을 바꾸어야 한다. 이를테면, ‘가다’란 말은 그 쓰이는 경우에 따라, ‘가다, 가네, 가오, 갑니다’와 같이 여러가지로 풀이 바뀐다. 이 경우에, 이 말들의 앞 부분에 그 꼴이 바뀌지 아니하는 ‘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줄기’라 하고, 그 뒤에서, 여러가지의 말본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부분인 ‘-다, -네, -오, -느냐’ 등과 같은 줄기에 여러가지 씨끝이 붙어서 여러가지의 말본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법을 ‘끝바꿈’, 또는 ‘씨끝바꿈’이라 한다. (우리말본 162 -)

끝소리 우리말의 한 소리마디(음절)의 짜임새는 다음의 네 가지이다. 1. 홀소리 하나 (홀소리는 겹홀소리를 포함), V 2. 닿소리 하나와 홀소리 하나, CV 3. 홀소리 하나와 닿소리 하나, VC 4. 닿소리 하나와 홀소리 하나와 닿소리 하나, CVC. 이러한 소리마디의 끝에 놓이는 닿소리를 ‘끝소리’라 한다. ‘중, 말, 음, 는’ 따위 소리마디의 끝에 놓여 있는 /o, ㄹ, ㅁ, ㄴ/ 소리가 끝소리이다. (국어음운학 165, 228, 415)

끝소리자리옮기기 변동규칙의 한 가지. ‘혀끝(ㄷ, ㄴ)-입술(ㅂ, ㅁ)-뒤혀(ㄱ)’의 닿소리가 이 차례로 ‘끝소리-첫소리’로 이어나게 되면, 앞소리는 그 자리를 뒷소리의 자리로 옮기는 일이 있는데, 이 변동규칙을 ‘끝소리자리옮기기’라 한다: 돋보다→뚝보다, 신발→심발, 받고→박고, 손가락→송가락. 이 규칙은 임의적이다. 곧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표준발음으로는 바뀌지 않은 쪽을 표준으로 정하고 있다. (국어음운학 276~277)

끝소리합용병서 우리 글자 쓰는 방법은 한 소리마디(음절)를 첫닿소리-가운데홀소리-끝닿소리를 적는 글자를 묶음으로 하여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끝닿소리를 ‘끝소리’라 하고, 그것을 적은 글자를 ‘끝소리글자’라 한다. 그리고 ‘합용병서’란 이 세 자리에서 두 세 소리가 날 때에는 그 소리를 적는 글자를 왼쪽-오른쪽으로 나란히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끝소리합용병서’란, 소리마디의 끝소리 자리에서 두세 소리가 날 때에 그 소리를 적는 글자를 나란히 적는 것을 말함이니, 정확하게

말하려면, ‘끝소리글자의 합용병서’라 해야 할 것이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ㅎ, ㅎ, ㅎ(가락), ㄴ, ㄴ, ㄴ. (국어음운학 345, 348)

L

나머지바탕 소리바탕 가운데는 말의 뜻을 분화하는 데 봉사하는 ‘변별바탕’이 있고, 말의 감정적 표현을 돕는 ‘표현적 소리바탕’이 있는데, 이러한 어느 방면으로도 봉사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나머지바탕’이라 한다. 우리말의 ‘부부’의 두 /ㅍ/ 음소의 앞의 것은 안올림소리이고, 뒤의 것은 올림소리이다. 그런데 이 ‘올림’의 소리바탕은 우리말에 있어서는 말의 뜻을 분화하는 구실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두 음소의 놓이는 자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른 소리바탕에 딸리거나 안 딸리거나 할 따름이다. 곧 /ㅍ/ 음소가 올림소리 사이에 놓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올림소리가 되고,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는 역시 자동적으로 안올림소리가 된다. 이것이 ‘나머지바탕’이다. (국어음운학 136)

나무꼴 직접구성요소 분석의 결과 나타나는 나무꼴 모양의 층위구조. (우리말형태론 212~213)

나아가기끝남때 나아가던 움직임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때때김법. (우리말본 453~454, 461~462, 473~474)

나아감도움움직씨 으뜸움직씨 뒤에서 그 움직임의 나아감을 보이는 도움움직씨. ‘지난적나아감’(오다)과 ‘올적나아감’(가다)의 두 가지가 있다. (우리말본 400~401)

나아감때 움직임이 바야흐로 되어 가는 중에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서 바로때때김과 도로생각때때김에 각각 세 가지씩의 때때김법이 있다. (우리말본 460~461, 473)

나아감이름꼴 움직임 이름꼴 가운데, 나아감 또는 과정을 가리키는 뜻을 가진 이름꼴로서 ‘-기’ 하나가 있다. (우리말본 289)

남움 움의 한 갈래. 남움직씨(타동사)의 줄기에 해당함. 남움(남움직씨, 타동사)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뉘는데, 제홀로 충분히 풀이가 되는 씀남움(으뜸움직씨, 주동)과 월의 임자가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움직임을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그 움직임을 하게 하는 형식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시김남움(사동동사, 하임움직씨)이 있다. <주시경-용어>

남움직성 하임월되기에서, 한자리월의 제움직씨는 하임월되기에서 하임가지를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남움직씨로 바뀐다. ‘연이 날다→(人) 연을 날리다.’ 이와 같이 한자리월의 제움직씨가 하임을 전제할 때 남움직씨가 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질 때 이 제움직씨가 ‘남움직성’을 가졌다고 한다. 또한 하임되기 과정에서 제움직씨는 새로운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러한 제움직씨를 ‘자리만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말형태론 497~498)

남움직씨 다른 것(남)을 제움직임 안에 잡아다가, 그것을 부리는(지배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움직임. 여기에 말한 ‘지배’란, 객관적인 지배 관계를 말함이 아니라 주관적인 지배 관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같은 뜻을 가진 움직임이 두 언어에 따라 한편에서

는 남음직씨가 되기도 하고, 다른 편에서는 제음직씨가 되는 일도 있다. 통사적으로는 부림말(목적어, 토씨 '-을/를'을 가진 월조각)을 앞세움이 남음직씨의 필수 조건이다. (우리말본 256~262)

남이 짬뽀(월갈) 용어로 풀이말(설명어)의 줄기에 해당한다. <주시경-용어>

남이금 짬뽀(월갈) 용어로 월에서 풀이말을 꾸미는 것, 즉 어찌말(부사어)이다. <주시경-용어>

남이듬 짬뽀(월갈) 용어로 풀이말 줄기(남이)와 그 씨끝(남이빚)을 아우르는 것, 즉 풀이말(서술어). <주시경-용어>

남이붙이 짬뽀(월갈) 용어로 풀이말 줄기(남이)와 그 씨끝(남이빚)과 그 꾸밈말(남이금)을 합한 것, 즉 풀이조각(서술부). <주시경-용어>

남이빚 풀이말을 만들어 주는 형태소, 즉 풀이말의 씨끝. <주시경-용어>

낮가지만 것의 한 갈래. 입자말이나 부림말이 될 만한 여럿 중에서 반드시 한가지만이 선택된다는 뜻으로 쓰이는 토씨, 즉 가림도움토씨이다. 이는 낮가지임만과 낮가지쌈만으로 다시 나뉜다. <주시경-용어>

낮가지쌈만 낮가지만의 하위분류. 부림말이 될 만한 여럿 중에서 반드시 한가지만 선택된다는 뜻으로 쓰이는 토. <주시경-용어>

낮가지임만 낮가지만의 하위분류. 입자말이 될 만한 여럿 중에서 반드시 한가지만 선택된다는 뜻으로 쓰이는 토. <주시경-용어>

낮내 날내, 음절, <주시경-용어>

낮몸 한 기(날말)가 하나의 기로 된 것, 즉 단순어. 여기에는 임기의 낮몸, 엇기의 낮몸, 겹기의 낮몸이 있다. <주시경-용어>

낮한금 것의 한 갈래. 하나도 빠지 않고 한결로, 또는 하나도 차등없이 골고루함의 뜻을 나타내는 토씨로 자리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금이가 되게 하는 토씨: '-마다'. <주시경-용어>

낮한만 것의 한 갈래. 날날이 한가지란 뜻으로 쓰인 토: '-마다'. <주시경-용어>

낮음 곳기나 잇기의 서분. 말할이가 듣는이를 낮추어 말하는 것. <주시경-용어>

낮춤도움줄기 풀이씨 줄기에 붙어서, 말하는이 스스로를 낮추는 동시에, 그 말을 받는 사람을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도움줄기로서, 꽤 많은 형태가 분화되어 있다: '-옴/으옴-, -오/으오-, -자옴-, -자오-, -사옴-, -사오-, -삼-, -습-' 등. (우리말본 355~357, 525, 568)

날내 날내란 것은 한 숨에 한번에 내는 한덩이의 소리를 이룸이니, 한 똑똑한 소리가 주장이 되고, 다른 덜 똑똑한 소리들이 그것을 중심삼아, 서로 엮혀서 한 덩이가 된 소리이다. 음절. (우리말본 104~106)

날뜻 날말의 소리와 뜻의 관계는 아주 간단한 것이 있는 반면, 매우 복잡한 것이 있다. 간단한 것이란, 하나의 뜻에 오직 하나의 소리가 맞붙고, 하나의 소리에 오직 하나의 뜻이 맞붙어 있는 것을 말함인데, 이것을 '날뜻'이라 한다. 대체로 물건에 대한 이름은 그 뜻이 단순한 것이 많다: 논, 미꾸라지, 아가미, 미나리, 코끼리, 씬바귀, 아

들, 딸 따위. (국어학 153)

날말 날말은 말의 날덩이니, 따로따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말함과 글월을 이루는, 직접 재료가 되는 것. 단어. (우리말본 144~148)

날말연결토씨 연결토씨에는 ‘날말연결토씨’와 ‘마디연결토씨’가 있는데, 날말과 날말을 연결해 주는 토씨를 ‘날말연결토씨’라 한다: ‘-과/와, -하고, -이며, -이여’. (우리말본 361)

날소리 말소리의 실질적 내용을 크게 두 가름으로 가르는데, 하나는 날소리(개음)요, 또 하나는 이음소리(연음)이다. 날소리란 아직 말을 이루지 아니한 낱말의 소리인데, 곧 실지의 말과 따로 떼어서, 다만 소리로만 보고서, 그 낱말의 소리를 연구하는 조각이다. (우리말본 45)

내는힘 우리말의 닿소리는, ‘약한소리’(연한소리, 또는 예사소리)와 ‘센소리’로 나뉘고, 센소리는 다시 ‘된소리’와 ‘거센소리’로 나뉘는데, 이러한 세 갈래의 소리의 묶음을 분화해 주는 소리바탕은 소리를 내는 숨의 힘에 있다. 곧 ‘ㄱ-ㄱ-ㄱ, ㄷ-ㄷ-ㄷ, ㅂ-ㅂ-ㅂ, ㅈ-ㅈ-ㅈ’의 소리들을 분화하는 것은 소리를 내는 힘의 다름에 있는 것이다. (국어음운학 39)

내리닿음 한 말 안에서 뒤 소리가 그 앞 소리를 닮아, 그와 같아지거나, 그와 비슷해지거나 하는 현상이다. 이것은 앞 소리를 낼 때에 이미 뒤 소리의 영상이 머리 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국어음운학 517~519)

내림겹홀소리 한 소리마디(음절) 안에 홀소리적인 특색을 가진 소리가 둘 이상이 있는 일이 있는데, 이 경우, 한 소리는 다른 소리보다 크게 들려서 그 소리마디의 중심을 이루고, 다른 소리(들)는 작게 들려서 그에 딸려 있는, 홀소리들의 묶음을 겹홀소리라 한다. 크게 들려서 중심이 되어 있는 소리가 ‘성절음’이고, 그에 딸려 있는 소리는 ‘비성절음’이다. 한 소리마디가 성절음 하나와 비성절음 하나로 되어 있을 때에는, 성절음과 비성절음의 차례가 서로 바뀔 수도 있는데, 성절음이 앞에 있는 겹홀소리를 ‘내림겹홀소리’라 한다. (국어음운학 222, 392)

녹은겹씨 둘이나 둘 더 되는 씨가 서로 겹치되, 아주 녹아 어울리어서 그 각각의 본디의 뜻을 잃어버리고, 한 덩어리의 새 뜻을 나타내는 겹씨이다. (우리말본 688~691)

놀 기(씨)의 하나. 느낌이나 놀람을 나타내는, 느낌씨(감탄사). <주시경-용어>

높음 꺾기나 잇기의 서분. 잇기의 서분에서 높음은 주체높임 등분이며, 꺾기의 서분에서 높음은 청자높임 등분. <주시경-용어>

높임도움줄기 움직씨의 몸에 붙어서 그 움직임을 하는 사람을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도움줄기. ‘-으시-’가 있다. (우리말본 357~358, 525, 568)

높임법 높임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말할이가 들을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들을이를 높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말에 등장된 사람(또는 그 사람에 관한 일이나 물건)을 높이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등장된 사람(또는 사물)이 말의 어떠한 문장성분으로 나타나는가에 따라, 다시 말의 ‘주체’(주로 임자말로 등장된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높임과 말의 ‘객체’(주로 부림말, 위치말 따위로 등장된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높임으로 나뉜다. 들을이에 대한 높임을 ‘상대

높임, 청자높임' 또는 '들음이높임'이라 하고, 주체와 객체에 대한 높임은 각각 '주체 높임', '객체높임'이라 한다. 높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관한 일이나 물건이 주체나 객체로 등장될 때에 표면상으로 그 일이나 물건을 높여 표현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높임법을 '간접높임법'이라 하고, 높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바로 높이는 방법을 '직접높임법'이라 한다. (우리말본 655)

놓는꼴 풀이씨의 이음법 끝바꿈꼴의 하나. 풀이씨가 그 앞 임자말에 대하여 풀이말이 되어 끝맺지 아니하고, 뒤에 다른 말을 잇게 하되, 그 뒤에 이어나는 말의 내용, 사건이 들어남에는 상관 없음을 보이는 꼴이니, 매는꼴과 대립되는 꼴이다. (우리말본 303~306, 507~508, 561~563)

느낌꼴 느낌을 나타내는, 풀이씨 끝바꿈꼴의 하나. '봄이 오는구나, 아름다운 꽃이 피었구나, 오도다, 오도다, 봄이 오도다.'에서, '오-는구나, 피었-구나, 오-도다' 따위 끝바꿈꼴이 느낌꼴인데, 느낌의 뜻은 꼭 이러한 말로만 나타내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배품꼴(서술형)으로도 나타나는 것이므로 느낌꼴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배품꼴에 넣어 풀이하는 것이 좋다. (우리말본 265~266, 268)

느낌말 월 가운데서 다른 말들과 아무 형식상의 연락이 없이, 홀로서는 조각인 '홀로말(독립어)'의 한 가지. '아, 허허, 후유, 예' 따위가 느낌말이다. (우리말본 758~759, 785, 877)

느낌씨 월 안의 다른 조각(성분)을 꾸미는 꾸밈씨의 한 가지로서, 마디나 월의 앞에서 그것을 꾸미는 씨를 이룸인데, 이에는 '감정적느낌씨'와 '의지적느낌씨'의 두 갈래가 있다. 1) 감정적느낌씨: '허허, 하하, 히히(기쁨)', '예, 예익(성냄)', '애고, 어이(슬픔), 하, 허(걱정), 후, 후유(한숨), 참, 그렇지(여김), 웬걸, 천만에(지움), 아뿔사(넉떨어짐), 아따, 애그, 좋다, 잘한다' 2) 의지적느낌씨: '에라, 아사라(단념), 쉬쉬, 췌(주의), 자, 위여(추어줌), 자(찌임), 응, 그래(재촉), 이놈, 요놈(어름), 이여차, 어기여차(힘쌈), 여보, 이애, 구구, 워리(부름), 예, 아니요, 글세요, 응, 아니, 오냐(대답)' (우리말본 151, 193, 605~610)

느낌월 느낌을 나타내는 데에만 쓰이는 월의 한 가지. 풀이말은 느낌꼴로 되는 것이 특색이다. '날이 덥구나! 참, 반가운 소식이로다! 봄이 왔도다!' 그러나 느낌은 일반적인 배품꼴로도 나타나므로 굳이 느낌월을 세울 것이 아니라, 배품월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우리말본 859~961)

느낌토씨 월의 가락에 느낌을 더하는 토씨의 한 갈래. 이에는 다음의 네 갈래가 있다. (1) 임자씨 뒤에 붙는 것, '-도': 사람도 많다. 달도 밝다. '-(이)나': 벌써 두 시나 되었네. (2) 풀이씨 뒤에 붙는 것, '-그려': 비가 옵니다그려! (3) 낱말이나 이은말이나 월 끝에 자유로이 붙어 쓰이는 것, '-요': 나는요 옛 먹었다. '-말이야': 나는 말이야 벌써 보았다. (우리말본 612~613, 650~651)

늦씨 주시경은 "말의 소리"의 '씨난의 틀'에서 늦씨를 처음 말했다. 늦씨란 거의 형태소에 가까운 개념을 가진 용어이다. 가령, '해[^]바라[^]기'에서 [^]은 별잇이라 하고, '이는 늦씨와 늦씨와를 가르는 보이'라고 했다. 따라서 '해', '바라-', '-기'는 각각 늦씨인 셈이다. 여기 늦씨란 형태소에 해당한다. '별잇'은 곧 형태소의 경계 표지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말의 형태소 분석은 이미 주시경 선생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우리말형태론 38)

ㄷ

다 들 이상의 낱말이 모여 짜여진 말로 이은말, 마디, 율들이 다 포함된다. <주시경-용어>

다된마디 마디 중에서 끝기가 있어서 완전히 끝맺은 마디. <주시경-용어>

다른한금 것의 한 갈래. 역시 마찬가지로임을 보이는 토씨에 해당함: ‘-에+ㄴ들’. <주시경-용어>

다름도움토 어떤 것이 다른 것하고 서로 다름을 보이는 도움토씨의 한 가지. 이에 붙는 것은 ‘-은’, ‘-는’이 있는데, ‘-은’은 닿소리 뒤에 ‘-는’은 홀소리 뒤에 쓰인다. 이 토씨는 ‘다름’을 보이는 것이 그 본뜻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무엇과 다름을 보임이 아니요, 다만 어떠한 사물을 논술의 제목으로 삼음을 보이기에 쓰이는 일이다. (우리말본 638-639)

다름만 것의 한 갈래. 어떤 것이 다른 것하고 서로 다름을 보이는 토. 임다름만과 씸다름만이 있다. <주시경-용어>

다름한만 것의 한 갈래. 다르기는 하지마는 끝에 가서는 역시 같은 결과가 되고 마는 토. <주시경-용어>

다못일운마디 마디 중에서 끝기가 없어서 완전히 끝맺지 못하는 마디. <주시경-용어>

다짐도움줄기 풀이씨가 나타내는 뜻을 다져서 말하는 뜻을 보이는 ‘도움줄기’의 한 가지. 이에 ‘-것-’이 있다: 너는 가것다. 너 그리 했것다. 이 도움줄기는 그림씨나 잡음씨에도 붙는다. (우리말본 361, 525, 568)

단결잇 잇의 한 갈래. 여러가지 임자씨와 임자씨를 이어서, 그것이 한 덩이가 되어서 한낱의 월성분이 되게 하는 토씨(예 : -와, -과)와 풀이씨가 그 앞 임자말의 풀이가 되어 끝맺지 아니하고, 다른 말을 잇게 하는 씨끝(예 : -고). <주시경-용어>

단유잇 잇의 한 갈래. ‘오직, 유독’의 뜻을 나타내는 이음씨끝(연결어미). <주시경-용어>

단정말재어씨씨 이 어씨씨에 대한 풀이말이, 의심스러운 점이 없이, 순연히 단정의 형식을 취하게 되기를 요구하는 말재어씨씨. (1) 세계 하는 것: 과연, 과시, 판은, 진실로, 실로, 마땅히, 모름지기, 물론, 의례히, 확실히, 정말, 참말, 응당. (2) 틀림없다는 것: 단연코, 꼭 반드시, 기필코, 기어히. (3) 비기는 것: 마치, 천연, 천성, 똑. (4) 지우는 것: 결코, 조금도, 털끝만큼도. (우리말본 600~601)

단음소리 우리말의 소리마디의 끝에서 나는 /ㄱ, ㄷ, ㅂ/은 입안의 닫힌 자리가 터져 열리지 않는다. 곧 ‘달, 굴, 발’의 첫소리 자리에서 나는 /ㄷ, ㄱ, ㅂ/은 혀끝, 여린입천장, 입술이 터져 열리지마는, ‘복#, 믿고, 밥#’의 끝소리 자리에서 나는 /ㄱ, ㄷ, ㅂ/은

- 대신임 임의 한 갈래. 대이름씨, 대표이름, 대임, 닛임, 즉 대명사. <주시경-용어>
- 대임 대신임, 대이름씨, 대표이름, 닛임, 즉 대명사. <주시경-용어>
- 대표이름 임의 한 갈래. 대신임, 대이름씨, 대임, 닛임, 즉 대명사. <주시경-용어>
- 더낮춤법 말할이와 들을이 사이에 제3자가 끼어 들면, 제3자와의 관계 인식의 변동이 일어나서 본래의 제3자의 높임의 등분을 더 낮추거나 더 높이는 현상이 일어난다. 더 낮추는 현상이 더낮춤법이다. (우리말형태론 586)
- 더높임법 말할이와 말들을이 사이에 제3자가 끼어 들면 제3자와의 관계 인식의 변동이 일어나서 본래의 제3자의 등분을 더 낮추거나 더 높이는 현상이 일어난다. 더 높이는 현상이 더높임법이다. (우리말형태론 586)
- 더보탬꼴 움직임이나 상태로 그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일이 더 일어남을 보이는, 풀이씨 이음법의 끝바꿈꼴의 하나: '-을뿐더러'. (우리말본 320~321, 511~512, 565)
- 더보탬법 이는 이미 있었던 일에 다른 일을 더 보태는 법: '-을뿐더러'. (우리말형태론 433~434)
- 더함도움토 무엇에다가 또 무엇을 더함을 뜻하는 도움토씨의 한 가지: '-조차'. (우리말본 644)
- 더해감꼴 움직임이나 상태가 더해감에 따라, 다른 움직임이나 상태도 그에 따라 더해감을 나타내는, 풀이씨 이음법의 끝바꿈꼴의 한 가지: '-을수록'. (우리말본 321, 512, 566)
- 덜참도움토 마음에 차지 못함을 나타내는 도움토씨: '-이나마'. (우리말본 645~646)
- 덧붙는말 세계 언어를 그 형태적인 특질로 보아 나눈 갈래 중의 하나. 하나의 뿌리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앞이나 뒤에 가지(접사)를 붙여, 더러는 낱말을 만들고, 더러는 말본 뜻이나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 첨가어. (우리말본 145, 196, 198~199, 614)
- 덧소리 겹닿소리의 한 종류. 첩합음(疊合音). <주시경-용어>
- 덩이몸입만 것의 한 갈래. 덩이로 된 입자씨 뒤에 쓰이는 입자자리토씨. <주시경-용어>
- 도움그림씨 으뜸되는 풀이씨의 뒤에서 그 풀이씨의 뜻을 돕는 그림씨의 한 가지. 보는 각도를 따라 여러가지 갈래로 나뉜다. <도움을 받는 풀이씨의 갈래에 따라> (1) 으뜸그림씨를 돕기만 하는 것 (2) 으뜸움직씨를 돕기만 하는 것 (3) 으뜸움직씨와 으뜸그림씨에 두루 쓰이는 것 (4) 세 갈래의 풀이씨에 두루 쓰이는 것. <도우는 풀이씨 끝바꿈꼴에 따라> (1)어찌꼴에 붙는 것 (2) 이름꼴에 붙는 것 (3) 매김꼴에 붙는 것 (4) 물음꼴에 붙는 것. <뜻으로 보아> (1) 바람 (2) 지움(3) 미룸 (4) 그리여김 (5) 잡어치 (6) 모양. <유래로 보아> (1) 본대도움그림씨 (2) 된도움그림씨. (우리말본 526~538)
- 도움뿌리 풀이씨를 이루기에 최고 한도의 중심 관념을 대표하는 줄기를 '씨몸'이라 하며, 씨몸 가운데서 다시 그 맨 으뜸뜻을 보이는 조각을 '씨뿌리' 또는 '뿌리'라 하며, 그 다음에 돕는 조각을 '도움뿌리'라 한다. '사람답다, 가난하다'의 '사람답-'과 '가난하-'가 씨몸인데, '사람, 가난-'은 뿌리이고, '-답-'과 '-하-'는 도움뿌리이다. (우리말본 164)

도움줄기 풀이씨의 줄기와 씨끝 사이에 들어가서, ‘하임(사역)’, ‘입음(피동)’, ‘낮춤’, ‘높임’, ‘때’ 따위 뜻을 나타내는 형태소. (우리말본 349~390, 524~525, 568)

도움토씨 생각씨 뒤에 붙어서, 그것들에 월조각(문장성분)으로의 일정한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 조각의 뜻을 여러가지로 돕는 구실을 하는 토. 도움토씨는 여러가지 월조각에 붙을 수 있는 것이 특색이다. (우리말본 636~647)

도움풀이씨 한 월에서 이어나오는 두 개의 풀이씨에서 앞풀이씨는 으뜸풀이씨로, 뒤 풀이씨는 도움풀이씨로 된 구조를 도움풀이씨 구조라 한다. 도움풀이씨 구조는 ‘이중 풀이씨 구조’ 및 ‘합성풀이씨 구조’와 함께 겹구조로는 모두 같은 두 개의 풀이씨가 이어진 형식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의 변별 기준이 문제가 된다. (우리말형태론 666~679)

돌이킴남움직씨 남움직씨의 노릇을 하는 말 가운데는 ‘추다, 자다, 뛰다’와 같이 이 말에서 파생된 말을 부림말로 하는 일이 있으니, 이러한 남움직씨를 돌이킴남움직씨라 한다: 너도 춤을 추니? 간난이가 잠을 잔다. 아이가 뛴을 뛰다. (우리말본 260~261)

되는데 곳기의 때. 현재진행. <주시경-용어>

되풀이꼴 움직임이나 상태를 여러번 되풀이함으로 보이는 이음법 끝바꿈꼴의 하나: ‘-으락 ~ -으락’. (우리말본 323, 512)

되풀이법 되풀이되는 일을 나타내는 이음법: 이 아기롤 아나다가 므레 브리꼴 호미 두 번이러니. (우리말본 620~621)

된소리 우리말의 /ㄱ, ㄷ, ㅌ, ㅊ, ㅍ/ 소리들은 입안과 목의 근육을 썩겨서 내는 소리들이다. 이러한 소리를 ‘된소리’라 한다. 된소리는 때로는, 그 근육을 썩기기도 하면서 동시에 목청 터뜨림을 함께 하여 내기도 한다. 이러한 때는 그 소리가 매우 세게 들리게 된다. (국어음운학 27)

된소리되기 변동규칙의 한 가지. 된소리의 짝이 있는 약한소리가 겹쳐지거나, 같은 서열의 약한소리가 겹쳐지거나, 같은 서열의 약한소리와 된소리가 겹쳐지면 두 소리는 한 된소리가 된다. (국어음운학 280~281, 430)

두기능법 맺음씨끝은 그 기능으로 보아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도훈 法 닷고물 몰 하야’(석보 9:14)에서 ‘도훈’은, 겹으로는 이름씨 ‘法’을 한정하는 매김말의 구실을 하고 있으나, 그 속뜻으로는 ‘法’을 임자말로 하는 풀이말의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훈’은 한편으로는 풀이말로 기능하면서, 한편으로는 매김말로 기능하고 있다. 즉 그 기능은 이중적이다. ‘도훈’의 ‘-은’은 맺음씨끝인데, 앞의 활용형은 이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법범주를 ‘두기능법’이라 한다. (우리말본 477~478)

두들김소리 우리말의 ‘우리, 다리, 노래’와 같은 말의, 홀소리 사이에서 홀으로 나는 ‘ㄹ’소리는, 혀끝을 단 한 번 잇몸에 대고 두들기 듯하여 내는 소리이므로, 이러한 소리를 ‘두들김소리’라 한다. (국어음운학 34)

두루가리킴 말하는 사람이 저를 대중삼지 아니하고, 말 가운데에 들어온 실체 그것을 대중삼아서 가리키는 것을 ‘두루가리킴’이라 하는데, 이것이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두루가리킴사람대이름씨’라 한다: 나도 제(내) 허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제(그 사람의) 속은 따로 있어요. 네가 왜 남(나)의 책을 가져 가느냐? 나도 자

기(나)의 조처를 좀 해야 하겠다. (우리말본 229, 231, 233~235)

두루도움줄기 도움줄기 가운데는 닿소리 줄기에 붙는 것이 있고, 홀소리 줄기에 붙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닿소리 홀소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있으니, 이것들을 각각 ‘닿소리도움줄기’, ‘홀소리도움줄기’, ‘두루도움줄기’라 한다. (우리말본 165, 349-)

두루씨끝 홀소리 줄기나 닿소리 줄기를 가리지 아니하고 두루 붙는 씨끝. (우리말본 166~167, 323~326)

두루이름씨 어떠한 특징을 일과 문에만 홀로 쓰이는 ‘홀로이름씨’에 대하여, 어떤 한 가지의 일과 문에 두루 쓰이는 이름씨: 사람, 개, 나무, 돌. (우리말본 212)

두루임 제이름의 한 갈래. 일과 문에 두루 쓰이는 이름씨인 두루이름씨. <주시경-용어>

두자격법 ‘그 사람이 우는 까닭이 무엇이오?’에서 ‘그 사람이 우는’은 ‘까닭’이란 이름씨를 매기고 있는 조각이다. 이 마디를 ‘매김마디’라 한다. 그런데 매김마디는 본디 ‘그 사람이(임자말) 운다(풀이말)’의 끝 ‘-니다’를 ‘-는’으로 바꾸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는’이란 말은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를 임자말로 하는 풀이말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뒤의 ‘까닭’이라는 이름씨를 꾸미는 매김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의, 이 월 안에 있어서 차지하는 자격은 이중적이다. 풀이씨에 이러한 이중적 자격을 가지게 하는 것은 ‘-는’이란 씨끝이다. 그러므로 이 씨끝으로 만들어지는 말본범주를 ‘두자격법’이라 한다. 앞의 두자격법은 매김말을 만드는 방법이므로 이것을 ‘매김법’이라 하는데, 두 자격법에는 ‘이름법’과 ‘어찌법’도 있다. (국어학 224, 234~239)

두자리월 자리토씨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임자자리와 부림자리의 두 자리로 이루어지는 월을 두자리월이라 한다. 따라서 두자리월은 풀이말이 남음직씨로 된 ‘남음직씨월’이 된다. (우리말형태론 482)

둘째가리킴대이름씨 둘째가리킴은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이름씨이다. 이에 말하는 사람을 높이는 정도에 따라 여러 등분이 있다. (우리말본 229~231, 233, 236~237)

둘째가리킴월 월의 풀이가 말하는 사람을 주체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어르신네는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은 거기에 계십시오. 자네는 어려운 일을 해내었네 그러. 너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말본 804, 807, 809, 855)

둘째어찌꼴 움직씨와 그림씨의, ‘-계, -이’로 만들어지는 어찌꼴. 그 뜻은 항상 장차 어떻게 될 모양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것을 또 ‘될모양어찌꼴’이라고도 한다. (우리말본 281, 284, 501~502)

둘째이름꼴 풀이씨 이름꼴인 ‘-기’. (우리말본 288~289, 503~504, 559)

둘째입음법 움직씨의 입음법을 만드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다’ 따위 움직씨로 만드는 입음법을 말한다. (우리말본 429~431)

둘째하임법 움직씨의 하임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다’ 따위 움직씨의 ‘하다’ 대신에 하임의 뜻을 나타내는 움직씨 ‘시키다’를 갈아 넣어서 만드는 하임법을 말한다.

(우리말본 425~418)

뒤섞임 뜻이 똑같거나 비슷한 두 말의 소리를 뒤섞어서 한 낱말을 만드는 일인데, 이 현상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이를테면 다시 시집가는 뜻의 ‘개가’와 ‘후살이’는 비슷한 말이므로 이 두 말을 뒤섞어서 ‘개가’의 ‘개’와 ‘후살이’의 ‘살이’를 뒤섞어서 ‘개살이’란 말을 만들어 낸 것은 그 예이다. (국어음운학 574)

뒤집음말 남의 뜻을 묻기보다 제 생각을 더세게 세우기(주장하기) 위하여, 곧 베품의 뜻을 더 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베품꼴 대신에 물음꼴을 쓰는 일: 그의 신세가 어찌 가련하지 아니하라?(매우 가련하다) 사람의 자신이 그럴소냐?(그럴 수가 없다) (우리말본 280, 866)

뒷가지 뒷가지는, 이름씨, 움직임씨, 그림씨, 어찌씨 뒤에 붙어서 더러는 그 뜻을 더하는 뒷가지, 더러는 그 감목(자격)을 바꾸는 뒷가지, 더러는 말가락(어조)을 고루는 뒷가지, 세 갈래로 나눈다. (우리말본 671~681)

뒷가지파생어 뒷가지에 의한 파생어. 앞가지에 비하면 뒷가지는 낱말만드는 힘이 매우 왕성하며, 앞가지와는 달리 밑말의 씨범주를 바꾸는 일도 있다. (국어학 135~143)

드 입자말(임이)와 풀이말(남이)의 결합에서 이루어진 언어형식인, 마디 또는 월. <주시경-용어>

드잇 잇기의 마디. 이어지는 말의 종류에 따른 분류로 마디를 잇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덜마친 마디를 잇는 ‘못맞은드잇’이고 다른 하나는 끝난 월을 잇는 ‘맞은드잇’이다. <주시경-용어>

들율이높임 들율이높임법은 마침법의 경우에만 나타나고, 이음법이나 두기능법인 이음법, 매김법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이 주체높임법, 객체높임법과는 다른 들율이높임법의 특색이다. (우리말본 656~668)

듬 말이 꾸며지는 여러가지 방법 즉 문장구성법, 또는 격. <주시경-용어>

듬난 짬듬갈, 즉 통사론. <주시경-용어>

따옴자리토씨 남의 말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따옴을 보이는 자리토씨의 한 가지: 저 것은 무어라(고) 하는 나무이오? 그 사람이 오라고 합니다. 그대도 가오?라고 물어 보았다. (우리말본 631~632)

딸림마디 마디가 씨와 마찬가지로 자리를 차지하여서 월의 한 조각을 이룬 것을 그 속에 가진 월을 ‘가진월’이라 하고, 그 씨처럼 쓰인 마디를 ‘딸림마디’라 하며, 그 딸림마디를 가진 마디를 ‘으뜸마디’라 한다. 딸림마디에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 (1) 어찌마디: 모래벌이, 눈부시게, 희다. (2) 매김마디: 향기가 좋은 꽃이 피었다. (3) 이름마디: 달이 밝기가 낮과 같다. (4) 풀이마디: 후덕한 사람은 인품이 높다. (우리말본 829~832)

딸림조각 월을 이루는 월조각(문장성분)은 크게 ‘으뜸조각’(주요성분)과, ‘딸림조각’과, ‘홀로조각’(독립성분)의 세 가지로 가르치고 그중 딸림조각은 다시 ‘매김말’과 ‘어찌말’로 가르친다. (1) 매김말: 누른 개가 까만 고양이를 쫓는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은 착하지 않을 수가 없다. (2) 어찌말: 세월이 살같이 빨리 간다. 물이 매우 맑

다.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우리말본 748, 757~758)

때곳어찌말 때와 곳을 보이는 어찌말의 한가지. 그 됴됨이는 다음과 같다. (1) 때어찌씨로 된 것: 오늘은 일찍 갔어요. (2) 곳어찌씨로 된 것: 그는 멀리 떠났소. (3) 임자씨에 자리토씨를 더하여 된 것: 그이가 학교에 갑니다. 그것을 선생님께 드려라. (4) 이때에 어찌자리토가 줄어지기도 한다: 당신은 어디(로) 가오? (우리말본 776~777)

때금 것의 한 갈래. 풀이씨 내용이 드러나는 것이 때임을 가리키는 토씨로 때를 나타내는 임자씨 뒤에 결합되는 곳자리토씨(처소격조사)의 한 부분이다. <주시경-용어>

때도움줄기 풀이씨의 씨몸 뒤에 붙어서, 움직임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때를 보이는 도움줄기의 한 가지. (1) -는/ㄴ- (이적나아감), (2) -겠-, -으리- (올적), (3) -었/았-(지난적), (4) -더- (도로생각). (우리말본 358~361, 525, 568)

때때김법 풀이씨의 끝바꿈이나, 도움풀이씨로써 때를 매겨서 쓰는 법. 15세기 국어의 때때김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말하고 있는 현재를 토대로 하여 시간 관념을 표시하는 것과, 지난 어떤 때를 기준으로 하여, 말할이가 그때를 지금으로 생각하고서 시간관념을 표시하거나, 경험한 일을 기술하는 방법이다. 현재를 토대로 하는 시간 표시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방금 눈앞에 되어나가는 일이나, 방금 눈앞에 되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술하는 방법(현실법). 둘째, 이미 일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술하는 방법(확정법, 기정법). 셋째,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 또는 추측적인 일을 기술하는 방법(추정법, 미정법). 또, 지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시간관념을 표시하거나 경험을 기술하는 방법(회상법, 경험법). 때때김법은 풀이씨의 씨끝으로 표시된다. (우리말본 877~922)

때벌림꼴 ‘벌림꼴’의 한 가지.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 한 때, 또는 차례로 벌려짐을 나타내는 활용형이다: 저 사람이 일하면서 노래하오. 어떤 애가 노래하며 갑니다. (우리말본 306~307, 509)

때법 매는법의 하나로, 위 아래 율의 통사적 관계에 따라 때를 뜻하는 것. (우리말형태론 413~415)

때억 억의 갈래. 때를 나타내는 어찌씨와 때를 나타내는 어찌말. <주시경-용어>

때언 시간을 나타내는 때김씨(관형사). <주시경-용어>

때엇 엇의 갈래. 때가 어떠하다고 이르는 그림씨의 줄기. <주시경-용어>

떨어져닭음 한 소리가 다른 소리를 닭아 그와 같아지든지, 그와 비슷해 지는 현상을 ‘닭음’이라 하는데, 닭음은 대개 서로 앞뒤로 붙어 있는 소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소리를 사이에 둔, 두 소리 사이에서도 닭음이 일어나는 일이 있으니, 이 현상을 ‘떨어져닭음’(간접동화, 간격동화)이라 한다. (국어음운학 516, 521)

떨어짐 말을 주고 받음이 있어서 말하는이나 말받는이가 아닌,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키는 대이름씨의 제삼인칭 중,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우리말본 231, 240~241)

떨음소리 ‘우리, 노래’와 같은 말을 힘주어 발음하게 되면, ‘ㄹ’의 혀끝두들김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되는데, 이 소리를 ‘떨음소리’라 한다. 이 소리는 우리말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발음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고, 특별히 힘주어 말을 할 때에만 나타나는 소리이다. IPA [r]. (국어음운학 34)

떨음소리되기 홀소리 사이에서 단독으로 나는 /ㄹ/은 두들김소리의 [r]로 내는 것이 보통인데, 이 말을 힘주어 말할 경우에는 두들김소리를 떨음소리 [r]로 바꾸는 일이 있으니, 이것을 ‘떨음소리되기’라 한다. (국어음운학 206)

뜨내기소리바탕 홀소리 닿소리에 본디부터 갖추어져 있는 소리바탕은, 그것을 바꾸면 그 음소를 다른 음소로 바꾸게 되므로, 이것을 ‘본디바탕’이라 한다. 이에 대해, 소리의 높이, 길이, 세기는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우리’의 /우/를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약하게 하든지 /우/라는 음소임에는 다름이 없다. 이러한 소리바탕을 ‘뜨내기소리바탕’이라 한다. (국어음운학 119~120).

뜻바탕 ‘아버지’란 말을 낱말밭의 이론으로 본다면, ‘어머니, 할머니, 조카’들과 한 ‘친족말의 낱말밭’을 이루어, 그 밭 안의 자리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어 있다고 설명될 수 있다. 이 밭의 안팎에 있는 모든 다른 말들과의 대립의 특질을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사람’을 가리키는 ‘어른, 백성, 어린이’와의 대조에서 ‘존속’이란 뜻을 특질을 가려낼 수 있고, 존속을 가리키는 다른 낱말들과의 대조에서 ‘직계’란 특질을, 직계를 가리키는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대조에서 ‘일대’라는 특질을, 그리고 일대에 속하는 ‘어머니’와의 대립에서 ‘남성’이란 특질을 가려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버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낱말들과의 대조에서, ‘아버지’를 다른 말들과 구별해주는 <사람, 친족, 존속, 직계, 일대, 남성>이라는 뜻의 특질을 ‘뜻바탕’이라 하고, 아버지를 다른 말들과 구별해 주는 여러 뜻바탕들의 묶음을 ‘변별적 뜻바탕’이라 한다. (국어학 178~179)

뜻함꼐 움직씨 이음법의 활용형의 한 갈래. 어떠한 움직임을 하려 하는 뜻을 나타낸다: 떠나려(고) 하였더니, 뜻밖의 일이 생겨 떠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년에 서양으로 가고자 한다. (준말): 죽자 하니 청춘이오, 살자하니 고생이다. (우리말본 321~322, 496, 552)

뜻함법 어떠한 움직임에 대하여 임자(주체)의 뜻함(의도함)을 나타내는 법. 뜻함에는 심리적인 것과 행위적인 것이 있다. 행위적인 것은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법’이 된다. 심리적인 것은 마음먹음(속셈, 속계획)과 바람(희망)으로 나뉘며, 마음먹음은 ‘의도법’, 바람은 ‘희망법’이 된다: 그는 이웃사람에게 친절하려고 애쓴다. 제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는 잃을 것이요. 그는 아이를 찾으러 나섰다. (우리말형태론 436~439)



마디 끝나기만 하면, 또는 따로 서기만 하면, 율이 될 만한 짜임을 가진 말이, 완전

히 끝나지 아니하고, 또는 따로 서지 아니하고, 다만 월의 한 조각이 됨에 그치는 것을 ‘마디’라 한다. 마디는 임자와 풀이가 갖추어져 있기는 하나, 그것이 따로 설 힘이 없음이 마디의 특색이다. 마디에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있다. (1) 임자마디, (2) 풀이마디, (3) 매김마디, (4) 어찌마디, (5) 맞선마디. (우리말본 740~744)

마디 절(節). <주시경-용어>

마디꾸밈씨 느낌씨는, 임자씨와 풀이씨가 아울러서 된 마디나 월의 전체를 꾸미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느낌씨를 ‘마디꾸밈씨’라고도 한다: 안! 밝은 달이 떴구나! 아차! 잘못 되었군! (우리말본 193~194)

마디연결토씨 연결토씨에는 ‘낱말연결토씨’와 ‘마디연결토씨’가 있다. 하나의 완결된 월에 붙어서 두 월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별 다른 뜻 없이 마디를 연결해 주는 토씨를 ‘마디연결토씨’라 한다: ‘-마론, -컨마론’. (우리말본 365~366)

마땅함도움움직씨 그리함이 마땅함을 보이는 도움움직씨. ‘하다’가 그것인데, 이 말은 이음법의 꼭쓰기매는꼴 ‘-어야/아야’ 뒤에 쓰인다. (우리말본 403~404)

마찬가지도움토 두 가지 넘어 되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를 가리는 뜻을 보이는 도움토: ‘-인들’. (우리말본 642)

마침법 풀이씨가 월의 풀이가 되어서 그 월을 끝맺는 끝바꿈법. 마침법에는, 말하는 이와 듣는이와의 사이의 주고 받는 관계로 보아, ‘베품꼴’, ‘물음꼴’, ‘시킴꼴’, ‘피임꼴’의 가름이 있고, 각 끝바꿈꼴에는 듣는이를 높이는 정도에 따라, ‘아주낮춤’, ‘예사낮춤’, ‘예사높임’, ‘아주높임’, ‘반말’의 다섯 등분이 있다. (우리말본 176, 262~279, 497~501, 553~558)

막음 말소리를 낼 때에, 입안의 어떠한 자리에서 능동부가 고정부에 가 닿거나, 아니면 아주 고정부에 가까이 다가서 같이소리가 들릴 정도가 되는 현상. 막음은 홀소리와 닿소리를 구별해 주는 가장 중요한 소리바탕이 되어서, 일반적으로는 닿소리는 입안의 막음이 있는 소리이고, 홀소리는 그것이 없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국어음운학 34, 81, 209)

막이억 억의 한 갈래. 거절 또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어찌씨. <주시경-용어>

만이 것의 큰 갈래로 이것은 다시 12갈래로 하위분류된다. 줄기가 되는 월성분인 줄기 성분에 붙는 것으로 월에서 임자말이나 부림말의 뒤에 붙어서 앞 말이 임자말이나 부림말임을 나타내는 토이다. <주시경-용어>

만이결 토씨와 씨끝. 임이빰(임자자리토씨), 쏘이빰(부림자리토씨), 남이빰(풀이말 씨끝)이 여기에 속한다. <주시경-용어>

말 ‘기’(낱말)와 ‘다’를 합해서 ‘말’이라 한다. 즉 ‘말’은 일정한 소리에 일정한 뜻이 뒷받침하고 있는 말의 단위인 언어형식에 해당된다. 말은 ‘기’와 ‘다’로 나뉘는데, ‘다’는 다시 ‘모, 드, 미’로 나뉜다. <주시경-용어>

말듬 ‘말’은 언어형식이고, ‘듬’은 성분 또는 월 구성법으로 ‘말듬’은 언어형식이 이어지는 여러가지 법, 즉 통사법을 말한다. <주시경-용어>

말만듬법 이미 있는 말을 이용하여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내는 법. 말을 만들어내는

법에는 형식과 뜻의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뜻의 질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있다. 뜻의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는 파생법과 합성법이 있으며, 뜻의 질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에는 줄임법과 자름법이 있다. (우리말형태론 308~310)

말본갈 어느 나라의 말이든지 그 말에는 일정한 본(법)이 있으니, 그 본을 ‘말본’이라 하고, 그 말본을 닮는 학문을 ‘말본갈’, 또는 줄여 ‘말본’이라 한다. 그러므로 말본이란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우리말본 36~39)

말재어찌씨 말하는 사람의 뜻을 베푸는 태도에 관한 어찌씨이나, 그 풀이말의 베풀는 방법을 꾸미어서, 그 풀이말의 나타남에 일정한 재(식, 방식, 양식)가 있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말재어찌씨는 다음의 세 가지로 나뉜다. (1) 풀이말에 단정을 요구함, (2) 의혹이나 가설을 요구하는 것, (3) 바람을 보임. (우리말본 600~601)

맞선마디 이음법의 여러 끝바꿈꼴로 끝난 마디에 다시 다른 마디가 이어진 경우에, 이 둘 이상의 마디를 ‘맞선마디’라 한다. 이 맞선마디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이니, 하나는 앞의 마디의 풀이씨가 별림꼴로 되어서 그 마주섬의 동등성이 똑똑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앞의 마디의 풀이씨가 별림꼴 밖의 이음법의 여러 꼴로 되어 있어서 그 마주섬의 동등성이 비교적 박약한 것이다. (우리말본 742~745, 833~835)

맞아잇음=이때맞음 꽃기의 때로, 움직임이 이제 막 끝나서, 그 결과가 방금 들어나 있음을 보이는 때매김인 현재완료. ‘-았-, -엇-’. <주시경-용어>

맞아지남=간때맞음 꽃기의 때로, 과거완료. <주시경-용어>

맞은드잇 잇기의 마디. 끝난 월을 잇는 것. <주시경-용어>

매김꼴 풀이씨가 그 감목(자격)을 잃지 않으면서, 임시로 매김의 감목을 아울러 가지게 되는 끝바꿈꼴. 그 씨끝으로는 ‘-을-, -는-, -은-’이 있는데, 이 씨끝들은 모두 때매김의 뜻을 아울러 가진다. (우리말본 295~287, 503, 448~559)

매김마디 매김씨 같이 쓰이는 마디: 기러기는 꽃이 피는 봄을 버리고 돌아간다. 겉치가 좋은 데는 금강산이 첫째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을 요구한다. 해가 떨어지는 서천을 바라보고 서어 있다. (우리말본 742)

매김마디 한 월의 꼴이 바뀌어(변형하여) 매김말이 되어, 큰 월 안에 안기게 된 것을 ‘매김마디’라 하는데, 매김마디를 만드는 씨끝이 매김꼴씨끝이다. (국어학 273)

매김말 입자씨의 앞에서 그 뜻을 가늘게 꾸미는 월조각의 하나. ‘매김꾸밈말’이라고도 하는데, 매김말은 다음과 같은 말들로 이루어진다: (1) 매김씨로, (2) 입자씨+(-의), (3) 풀이씨의 매김꼴, 또는 이름꼴로, (4) 매김 마디로, (5) 입자마디에 ‘-의’가 붙어서. (우리말본 757, 717~714)

매김법 매김마디를 만드는 방법. 매김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어제 먹은 사과 는 맛이 좋더라.’의 매김마디인 ‘어제 먹은’은, ‘어제 사과를 먹었다’의 부림말인 ‘사과’를 뒤로 옮겨, 매김마디의 받침말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매김마디를 ‘빠져나간 매김마디’라 하고, 이러한 매김마디 만드는 방법을 ‘빠져나간 매김마디만들기’라 한다. 이와는 달리, ‘어제 네가 웃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의 ‘어제 네가 웃은’은 ‘어제 네가 웃었다’의 변형으로 된 말인데, 이 말은 빠져나간 월성분이 없는 완전한 매김마디이다. 이러한 매김마디 만드는 방법을 ‘완전한 매김마디만들기’라 한다. (국어학 224,

매김씨 임자씨의 앞에 서서 그 뒤의 임자씨가 어떠한 것임을 매기는 꾸밈씨의 한 가지이다. 매김씨는 그 자체의 끝바꿈이 없으며, 토씨를 붙이지도 않고, 그대로 월 안에서는 매김말 구실을 한다. 매김씨는 그 뜻으로 보아, 일문의 겉모양과 속바탈을 실질적으로 그리는 ‘바탕매김씨’와, 일이나 문 자체에 소속한 바탈과 모양을 직접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오, 다만 그 존재의 형식을 간접적으로 가리키는 ‘풀매김씨’의 두 가지로 크게 나뉘고, 풀매김씨는 다시 객관성을 띠는 ‘셈술매김씨’와 주관성을 띠는 ‘가리킴매김씨’의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말본 193, 575~586)

매김이은말 이은말로써 매김씨처럼 쓰인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그의 어머니인 사람은 나의 숙모이다. 백두산에 오르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 간다. (우리말본 745)

매김자리토 임자씨 뒤에 붙어서, 그로 하여금 그 뒤 임자씨를 꾸미는 매김씨 같은 노릇을 하게 하는 자리토씨의 하나: ‘-의’. (우리말본 618~619)

매김자리토씨=매김자리토

매는풀 풀이씨가 임자말의 풀이말이 되어서 그만 끝맺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월인 것이 원칙)을 잇게 하여, 그 잇는 말의 내용의 들어남을 매는(구속하는) 조건이 되는 씨끝바꿈풀. 이에 세 갈래가 있다. (1) 거짓잡기(가정): ‘-으면’. (2) 참일(사실): ‘-으니, -으니까, -어(서)/아서, -나니, -매, -는지라, -거늘, -기에, -길래, -거든, -거니, -건대, -관대’. (3) 꼭소용(필요): ‘-어야(만)/아야(만)’. (우리말본 295~303, 504~507, 559~561)

매는법 위 월이 아래 월에 잇되 아래 월의 내용을 잡아매는(구속, 제약) 힘을 가지는 것. (우리말형태론 406~416)

매인이름씨 이름씨를 자립이름씨(자립명사)와 매인이름씨(구속명사, 불완전명사, 안용근이름씨)로 나누는 것은 말본 설명에 필요한데, 매인이름씨는 이름씨 같으면서, 그 내용으로나 그 용법으로나 다른 임자씨와 다른 점이 있다. 매인이름씨의 특색은, 그것이 그 앞에 매김말의 구실을 하는, 풀이씨의 매김풀, 매김씨, 임자씨(토씨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가 와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말본 274~275)

매인풀이씨 대부분의 풀이씨는 그 움직임이나 모양이나 바뀌말함(환원)의 뜻이 뚜렷해서, 단독으로 풀이말이 될 수 있는 ‘으뜸풀이씨’이다. 그런데 어떤 말은 그 끝바꿈의 모습이 이러한 풀이씨와 같으면서, 풀이씨가 가진 이러한 뜻을 가지지 않고, 반드시 다른 말에 붙어 쓰이는 것이 있으니, 이러한 풀이씨를 ‘도움풀이씨’(보조용언), 또는 ‘매인풀이씨’라 한다. (우리말본 416~438)

맺음씨끝 한 말마디를 끝맺을 수 있는 씨끝. 이를테면 ‘가-다, 오-니, 먹-으며’ 등에서 ‘-다, -니, -으며’ 따위를 말한다. 맺음씨끝은 그 기능으로 보아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속구조의 풀이말은 겉구조에서는 다른 성분으로 가능하게 하는, 이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문법범주를 ‘두자격법’이라 하고, 속구조의 풀이말을 겉구조에서도 그 기능을 바꾸지 않는 범주를 ‘한자격법’이라 한다. 두자격법에는 세 가지의 하위범주가 있다. ‘꽃이 피는 나무’에서의 ‘-는’과 같이 겉구조에서 매김말로 쓰이게 하는 ‘매

김법'과, '죽을 먹기도 어려운 사람이 많다'서의 '-기'와 같이 겹구조에서 입자씨처럼 여러가지 문장성분으로 가능하게 하는 '이름법', '물을 깊게 파라.'에서의 '-게'와 같이 어찌씨처럼 가능하게 하는 어찌법이 있다. 한자격법은 '마침법'과 '이음법'이 있다. '이 우물은 깊다'에서의 '-다'와 같이 월을 끝맺는 '마침법'과, '이 우물은 깊고 저 우물은 깊지 않다.'에서의 '-고'와 같이 한 월을 다른 월과 이어 주는 '이음법'이 있다. (국어학 222~224)

머리소리규칙 변동규칙의 한 가지. 우리말에서는 말의 첫머리에는 /ㄹ/ 소리가 올 수 없다. 그리고 말의 첫머리에서 /ㄴ/은 /이/와 반홀소리의 /ㅣ/(야, 여, 요, 유) 앞에는 올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에 놓여 있는 형태소의 머리소리인 /ㄹ/은 /ㄴ/으로 바뀌고, /ㄴ/은 없어진다. 이것이 'ㄹ 머리소리 규칙'이고, 'ㄴ 머리소리 규칙'이다. (국어 음운학 268)

명호언 언의 한 갈래. 월에서 이름씨가 두 개 나란히 쓰여서 앞의 이름씨가 뒤의 이름씨를 한정할 때 앞의 이름씨를 매김씨로 본 것. <주시경-용어>

모 풀이말이 없는 이은말: '흰 조히, 검은 떡' 따위. <주시경-용어>

모름억 억의 한 갈래. 말할이의 태도를 표시하여 풀이말에 의문을 요구하는 어찌씨. 말재어찌씨(화식부사, 진술부사)의 한 갈래. <주시경-용어>

모름언 언의 한 갈래. 말하는이가 발화현상이나 월 밖에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분명히 잡히지 않음을 보이는 매김씨. <주시경-용어>

모름엇 엇의 한 갈래. 안잡힌가리킴그림씨(형용사). <주시경-용어>

모양도움그림씨 으뜸움직씨와 으뜸그림씨의 뒤에 쓰이어 그 있는 모양을 나타내며, 또 으뜸움직씨 뒤에 쓰이어서 그 움직임의 나아감을 나타내는 도움그림씨를 말한다. 이에 '있다'가 있다. (우리말본 536~537)

모양어찌말 모양을 나타내는 어찌말의 한 가지인데, 그 짜임새는 다음과 같다. (1) 모양 어찌씨로: 강물이 광광 흐른다. (2) 그림씨의 어찌꼴로: 꽃이 벌겉게 피었다. (3) 입자씨+토씨: 꽃이 오색으로 피어 있더라. 흰 눈이 나비처럼 펄펄 날리오. (우리말본 778)

모양어찌씨 그 뒤의 풀이씨의 속(내용)이 되는 일의 들어나는 모양을 꾸미는 어찌씨. 이에 바로 그 내용을 보이는 것과 건너로(간접으로) 그 형식만을 보이는 것의 두 가지가 있으며, 또 바로에는 다시 속모양(곧 방법)과 겉모양(외모)의 가름이 있으며, 또 겉모양에는 다시 일의 겉꼴과 몬의 겉꼴의 두 가지가 있다. (우리말본 596~598)

모엇 엇의 한 갈래. 모양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그림씨의 줄기. <주시경-용어>

모잇 잇기의 마디. 이은말과 이은말을 잇는 것. <주시경-용어>

모자란움직씨 움직씨 가운데에, 으뜸되는 끝바꿈법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끝바꿈의 모든 풀이 갖추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몇 가지의 풀만이 쓰이는 움직씨를 말한다. 이를테면, '*달다'는 시킴의 '달라, 다오'만 쓰이고, 다른 끝바꿈꼴은 쓰이지 아니하고, '*닥다'는 '닥아라, 닥으로, 닥으십시오, 닥아'만 쓰인다. '*더블다, *가로다'들도 '더블어, 가로되' 이외의 끝바꿈꼴은 쓰이지 않는다. (우리말본 348~349)

- 모자란형태소 형태소가 하나의 다른 형태소와만 연결될 수 있거나 그 나타남의 분포가 극히 제한될 때, 이를 ‘모자란형태소’라 한다. (우리말형태론 42~43)
- 모힌몸 한 기(날말)가 들의 기로 되어 있는 것. 즉 벌인겹씨, 합성어. <주시경-용어>
- 목적꼴 행동의 직접 목적을 보이는 움직임 이음법의 끝바꿈꼴이다: 나는 꽃 구경하러 갑니다. (우리말본 322, 496, 552)
- 몬 제임의 한 갈래. 몬(物)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름씨로 한 가지 몬에 두루쓰이는 두루이름씨(보통명사). <주시경-용어>
- 몬금 것의 한 갈래. 풀이씨의 내용이 드러나는 것이 물건임을 나타내는 토. 곳자리 토, 처소격조사. <주시경-용어>
- 몬대이름씨 사람밖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데에 쓰이는 대이름씨인데, 말하는이에게 가까운 ‘가까움’과, 말듣는이에게 가까운 ‘떨어짐’과, 두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멀음’과, 어디에 있는지 똑똑하지 아니한 ‘안잡힘’의 네 갈래가 있고, 이 네 갈래에 두루 쓰일 수 있는 ‘두루가리킴’이 있다. (우리말본 227~228, 240~243)
- 몬대표이름 대이름씨의 한 갈래. 사람밖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 대이름씨. <주시경-용어>
- 몬억 억의 한 갈래. 대체로 물건 이름을 나타내는 이름씨에 토씨가 결합하여 월에서 어찌말 구실을 하는 월성분. <주시경-용어>
- 몬저마디 먼저마디, 앞마디, <주시경-용어>
- 몸 형태소, 혹은 단어. <주시경-용어>
- 못맞은드잇 잇기의 마디로, 덜마친 마디를 잇는 것. <주시경-용어>
- 물모언 언의 한 갈래. 일과 몬의 모양이 어떠함을 그리어 내는 그림씨(속걸그림씨, 상상형용사)의 매김꼴(관형사형). <주시경-용어>
- 물모엇 엇의 한 갈래. 몬의 모양을 그리는 그림씨의 줄기. <주시경-용어>
- 물음꼴 맞은편에서 묻는 뜻으로 월을 끝맺는 마침법의 끝바꿈꼴. 이에는 맞은편을 대우하는 정도에 따라 다섯 가지 등분이 있다. (우리말본 265, 271~275, 499~501, 556~558)
- 물음곳 곳기의 한 갈래. 의항법에 따른 곳기의 분류 중의 하나로 상대방에게 묻는 뜻으로 월을 끝맺는 물음꼴(의문형). <주시경-용어>
- 물음법 맺음씨끝 중 마침법의 하위범주.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대답을 요구하거나, 자기 마음속에 의문을 품어 보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적 방법. (우리말본 495~515)
- 물음토씨 의문의 뜻을 나타내면서 월을 끝맺어 주는 토씨. 이 토씨는 풀이말로 기능하는 말에 붙는다. 물음법에는 두 가지 하위범주가 있다. 하나는, 분명히 물음임을 나타내는 말(물음말)을 포함한 월에 쓰이는 것(고-물음토씨)과, 다른 하나는, 물음말을 포함하지 않는 월에 쓰이는 것(가-물음토씨)이다. (1) 고-물음토씨: 어니 이 붉고 (2) 가-물음토씨: 이 두 사르미 眞實로 네 항것가 (우리말본 369~370)
- 물품 언의 한 갈래. 일과 몬의 성질이 어떠함을 그리어 내는 그림씨의 매김꼴(관형사형). <주시경-용어>

물품 엇의 한 갈래. 물건의 품질(성질)이 어떠하다고 이르는 그림씨의 줄기. <주시경-용어>

못금이남이 풀이씨를 꾸미는 역기의 겹침. 남이(설명어)가 두 개의 금이(한정어)로 금함이 된 월. 즉 풀이말이 두 개의 한정어에 의하여 수식된 월. <주시경-용어>

못금이드 꾸밈말의 겹침. 꾸밈말이 겹쳐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못금이임으로 입자씨를 꾸미는 언기의 겹침이고, 또 하나는 못금이남으로 풀이씨를 꾸미는 역기의 겹침이다. <주시경-용어>

못금이임 입자씨를 꾸미는 언기의 겹침으로 임이가 두 개의 금이로 금함이 된 월. <주시경-용어>

못남이 한 월 속에 들어 있는 둘 이상의 풀이말. <주시경-용어>

못남이드 한 월에서 풀이말이 둘 이상 있는 월. <주시경-용어>

못뜻 한 소리에, 분명히 다르면서, 그러나 분명히 관련이 있는 둘 이상의 뜻이 맞붙어 있는 것을 ‘못뜻’이라 한다. (허 응: 국어학 153, 161, 201, 386, 387)

못씀이 한 월 속에 들어 있는 둘 이상의 부림말. <주시경-용어>

못씀이드 부림말의 겹침. <주시경-용어>

못임이 한 월 속에 들어 있는 둘 이상의 입자말. <주시경-용어>

못임이드 한 월에서 입자말이 둘 이상 있는 월. <주시경-용어>

미 한 월을 일컫는 말로 속뜻을 전혀 가지지 않는 ‘다’. <주시경-용어>

미름도움그림씨 풀이씨의 뒤에 붙어 그 뜻을 미루어잡는 뜻을 더하는 도움그림씨의 한 가지. 움직씨, 그림씨, 잡음씨에 두루 붙는다: ‘듯하다’, ‘듯싶다’, ‘법하다’, ‘보다’, ‘싶다’. (우리말본 532-534)

미름도움줄기 움직임이나 상태가 그리됨을 다른 이유를 가지고 미뤄보는 뜻을 보이는 도움줄기의 한 가지: ‘-겠-’. (우리말본 361, 525)

미뤄잡기놓는꼴 풀이씨 이음법의 놓는꼴의 한 가닥. 일이 그러하겠음을 미뤄잡되, 그것이 그 다음의 말의 내용의 들어남에 상관이 없음을 보이는 끝바꿈꼴이다: 그것은 모란이려니와, 저것은 또 무엇인가? 너도 좋고 나도 좋으려만(만) 사도 분부 이려하니 그 아니 난처한가? (우리말본 305~306, 508, 563)

미침꼴 풀이씨 씨끝바꿈의 이음법의 한 가지. 그 움직임이나 상태가 실지에 일어나기까지, 그 다음 움직임을 보이는 꼴을 말한: 밤 한시가 되도록 공부를 하였습니다. 옷이 보얌도록 잘 빨아라. (우리말본 322~323, 512)

미침도움토 어디에서 어디까지 미침을 보이는 도움토의 한 가지: 여기서 거기까지가 몇 마장이나 될까요? 아침 아홉시부터 오후 세시 반까지 공부합니다. (우리말본 641)

미침법 어떠한 상황(경지)에 미침(이름)을 나타내는 이음법. (우리옛말본 601~605)

밋언 본래매김씨. <주시경-용어>

밑말 파생의 밑바닥이 되는 말. ‘올벼’는 ‘벼’에서 파생된 낱말이므로, 여기에서 밑말은 ‘벼’가 된다. (우리옛말본 135)

ㄴ

바꾸임어찌말 움직임의 귀착점, 또는 바뀔의 결과를 나타내는 어찌말. 입자씨에 바 꾸임어찌자리토를 더하여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토를 덜어 버리기도 한다: 구름 이 비가 된다. 미꾸라지가 웁이 되었다. 아이가 어른이 된다오. 구름이 비 된다. 미꾸라지가 웁 되었다. 아이가 어른 된다오. (우리말본 780~781)

바꾸임자리토 입자씨 뒤에 붙어서, 무엇이 그것으로 바뀌는 것을 보이는 어찌자리토 의 한 가지. (우리말본 630~631)

바람도움그림씨 으뜸움직씨에 붙어서 바람을 나타내는 도움그림씨: ‘싶다’. (우리말 본 530~531)

바로움 움의 한 갈래. 움직씨의 주체가 제 스스로 움직이는 움직씨. <주시경-용어>

바로입음 움의 한 갈래. 움직임의 주체가 남의 움직임을 받아 움직이는 움직씨. <주 시경-용어>

바로힘 움의 한 갈래. 움직임의 주체가 제움직임을 하는 움직씨. <주시경-용어>

바른자리 모든 월조각은 월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뚜렷한 차례가 있으니, 이 뚜렷한 월조각의 차례를 ‘바른자리’라 한다. 이에 대해 혹은 월의 힘을 올리며, 또는 가락을 고루기 위하여 제 본자리를 버리고 임시로 다른 자리로 옮긴 것을 ‘거꾸른자리’를 잡 았다 한다. (우리말본 785~788)

바른풀이 풀이씨 끝바꿈법의 이음법에 속하는 ‘풀이풀’은 그 뒤에 다시 그 일을 더 풀이하는 말이 오게 하는 것인데, 그 아래에 그 일이 순하게 더 되어 가는 모양을 더 달아서 풀이하는 것을 ‘바른풀이’라 한다. (우리말본 314, 509)

바탈어찌씨 일의 속성을 꾸미는 어찌씨의 한 갈래. 이에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 (1) 때어찌씨: 일찍, 이미, 내일, 다음, 먼저, 나중, 가끔, 매일. (2) 곳어찌씨: 여기, 저 기, 이리, 저리, 멀리, 가까이. (3) 모양어찌씨: 잘, 못, 천천히, 울퉁불퉁, 불긋 불긋. (4) 정도어찌씨: 매우, 꺾, 대단히, 조금, 약간, 거의. (우리말본 594~599)

바탕 성질. <주시경-용어>

바탕그림씨 풀이의 대상인 입자씨가 어떠함을 실질적으로 그리어 내는 그림씨를 이 름인데, 풀그림씨에 대립한다. 이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1) 속곶그림씨: 검다, 희다, 시끄럽다, 답답하다, 멀다, 크다, 높다, 기쁘다, 참되다, 민첩하다. (2) 있음그림 씨: 있다, 없다, 계시다. (3) 견중그림씨: 같다, 다르다, 낫다, 비슷하다. (우리말본 482~487)

바탕매김씨 매김씨의 매김을 받는 입자씨의 바탈(성질), 모양들, 그 자체의 속성이 어떠함을 실질적으로 보이는 매김씨의 한 갈래. ‘풀매김씨’에 대립한다. (우리말본 578~581)

바탕입자씨 일정한 바탕이 있는 개념을 나타내는 입자씨. 일정한 말은 일정한 종류 의 사물에만 들어맞고, 다른 사물에는 들어맞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나무’란 말은 나무에만 들어맞고, 다른 갈래, 돌이나 흙에는 들어맞지 못함과 같다. 이것이 곧

- ‘이름씨’이다: ‘바다, 산, 집, 땅, 하늘, 바람, 눈, 코, 사람, 코끼리, 뱀’ 따위는 다 바탕
임자씨인 이름씨이다. (우리말본 158~160)
- 바탕풀이씨 풀이 힘과 함께 속성 관념을 들어내는, 곧 그 씨가 들어내는 실질의 바
탕이 있는 풀이씨. 바탕풀이씨는 그 뜻과 바탈(성질)과 끝바꿈으로 보아, ‘희다, 겁다,
좋다, 바쁘다, 따뜻하다, 그립다, 즐겁다, 무겁다, 밍다, 싫다, 차다’ 따위와 같은 그림
씨와, ‘가다, 오다, 걷다, 오르다, 내리다, 밀다, 당기다, 움직이다, 멈추다’ 따위와 같은
움직씨의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말본 182~187)
- 반순잇 잇의 한 갈래. 뒤집힘의 잇기. <주시경-용어>
- 반흡소리되기 변동규칙의 한 가지. 흡흡소리 둘이 이어날 적에 그 앞의 흡소리가 반
흡소리가 되어 두 소리마디가 한 소리마디로 줄어지는 변동이다. (지금말의 경우) /으
-이/→/의/ : 쓰이다→썩다. (국어음운학 278~279, 428~429)
- 반흡소리없애기 반흡소리 /l/[j]가 형태소의 경계에서 겹쳐질 적에 그 중의 하나가
줄어지는 변동규칙의 한 가지. (국어음운학 430~434)
- 밝은가지 밝은흡소리(ㅏ, ㅑ) 뒤에 쓰이는 도움줄기와 씨끝을 아울러 일컫는 말. 밝
은도움줄기: ‘-았, -았었-’, 밝은씨끝: ‘-아, -아서, -아라, -아도’. (우리말본 173)
- 밝은도움줄기 밝은흡소리(ㅏ, ㅑ) 뒤에 쓰이는 도움줄기. (우리말본 173)
- 밝은씨끝 밝은흡소리(ㅏ, ㅑ) 뒤에 쓰이는 씨끝. (우리말본 173)
- 밝은흡소리 지금말의 흡소리어울림에서는 ‘ㅏ, ㅑ’는 ‘ㅏ, ㅑ’끼리만 어울리고, 그밖
의 다른 흡소리는 또 그것들끼리만 어울리는데, ‘ㅏ, ㅑ’를 밝은흡소리라 한다. (우리
말본 112~115)
- 방편말 주로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문장성분으로 방편자리토씨로 표시된다: 香水로
싸해 썩료문(월석 13:14) 혼 소리로 偈를 슬보디(월석 13:64) 七寶로 꾸미고(월석 2:27)
(우리옛말본 44)
- 방편자리토씨 방편말을 표시하는 문법적 방법을 ‘방편법’이라 하고, 방편법을 표시해
주는 토씨를 ‘방편자리토씨’라 한다. ‘-으로’가 대표적인 토씨. (우리옛말본 352~353)
- 버금변이음 음소는 그 놓이는 자리에 따라 여러가지 소리로 바뀌는 것이 보통인데,
그 소리들을 그 음소의 ‘변이음’이라 한다. 그런데 음소를 적을 때에는 그 많은 변이
음을 다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표 하나를 가려서 그 음소를 적는 데
쓰도록 하고 있다. 이를테면 우리말의 /b/ 음소는 [p]와 [b]의 변이음을 가지고 있는
데, 그 중에서 [p]를 대표로 하여 이 음소를 적을 때에는 /p/와 같이 한다. 이 경우에
[p]를 ‘으뜸변이음’이라 하고, [b]를 ‘버금변이음’이라 한다. (국어음운학 159~160, 253)
- 버금본드 으뜸 바로 아래 딸린 보기월(본보기월). <주시경-용어>
- 버릇소리 습관으로 말미암아 내는 소리. 그러나 버릇소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변하여
익을 만한 까닭이 아주 없지 아니하니, 본소리와 사이에는 근사한 음리(音理)를 가진
것인데, 버릇으로 말미암아, 이리도 되고, 저리도 된 것이 많다. (우리말본 128~129)
- 번억 억의 한 갈래. 번(番), 회수(回數), 빈도의 뜻을 나타내는 억기. <주시경-용어>
- 벌린겹씨 두 씨가 각각 제 독립적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식상으로 서로 겹쳐서

- 한 씨처럼 되어 한 씨로 다름을 받는 겹씨. (우리말본 686~705)
- 별린월 뜻으로는 각각 독립하여 같은 값어치를 가진, 둘 이상의 마디(맞선마디)를, 다만 편의상 형식적으로 별리어서 한덩이로 만든 월을 말하는데, 그 앞 마디의 풀이 말은 이음법의 별림꼴을 가지고 뒤 마디에 잇는다. (우리말본 831~835)
- 별림꼴 풀이씨가 그 앞의 입자말의 풀이가 되어 끝맺지 아니하고, 다시 그 뒤에 다른 말을 잇게 하여, 생각의 별림을 나타내는 끝바꿈꼴의 한 가지. 이에는 ‘때별림꼴’과 ‘얼안별림꼴’의 두 가지가 있다. (우리말본 306~313, 509, 563)
- 별임법 위 아래 월의 행위나 일의 별임(나열)을 나타내는 것을 별임법이라 한다. 일이나 행위의 별임의 생각이 시간이나 공간이나에 따라 시간별임과 공간별임으로 나뉜다. (우리말형태론 430~424)
- 벗어난끝바꿈그림씨 그림씨 끝바꿈에 있어서, 줄기나 씨끝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꼴과 달리 쓰는 일이 있으니, 이것을 벗어난끝바꿈그림씨라 한다. (우리말본 515~516)
- 벗어난끝바꿈움직씨 움직씨 끝바꿈에 있어서, 줄기나 씨끝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꼴과 달리 쓰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난끝바꿈움직씨라 한다. (우리말본 330~331)
- 베품꼴 풀이말 마침법의 한 끝바꿈꼴. 자기의 생각을 베풀어 이르는 뜻으로 말을 끝맺는 꼴을 이룸인데, 사람이 자진하여 제 의견을 베풀거나, 또는 남의 물음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다만 제 홀로 느낌을 나타낼 적에 쓰인다. (우리말본 266~271, 497~499, 553~556)
- 베품월 바탈(성질)로 본 월의 한 갈래. 말하는이가 제 혼자 생각을 베풀어 말하는 월. (우리말본 854~855, 856~861)
- 변별바탕 한 소리는 나는 자리(여린입천장), 내는 힘(약함), 목청(안울림) 등의 여러가지 소리의 특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특질을 ‘소리바탕’이라 한다. 이 소리바탕들 가운데는 음소를 대립(분화)시켜 주는 것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것이 있다. 목청을 울리고 안 울리는 소리바탕은 우리말에 있어서는 음소를 분화하지 못한다. (국어음운학 209, 221)
- 변별자리 우리말의 /ㄱ/과 /ㄴ/과 /ㄷ/은 서로 대립되어서, 말의 뜻을 분화하는 힘이 있다. 그러나 이 소리들의 이러한 힘은 소리마디(음절)의 첫소리 자리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끝소리 자리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들이 분화되는 것은 그 터뜨림에 있는데, 끝소리 자리에는 그 터뜨림이 실현될 수 없어서 이 음소들이 대립을 이룰 수 없다. 이 현상을 ‘중화’라 한다. 그리고 둘 이상의 음소가 대립의 힘을 잃어버리는 자리(앞에 말한 끝소리 자리)를 ‘중화자리’라 하고, 그 대립의 힘을 발휘하는 자리(앞에서 말한 첫소리 자리)를 ‘변별자리’라 한다. (국어음운학 92)
- 변이음의 이웃돕기 ‘나, 너, 뇨, 뉴’의 /ㄴ/소리는 센입천장소리된 [n]소리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 반홀소리인 [j]는 /가, 겨/, /다, 더/, /바, 벼/, /랴, 려/ 따위의 반홀소리와 같은 분명한 반홀소리의 특질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입천장소리된 /ㄴ/소리는 본디 앞혀바닥이 센입천장에 닿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리와 그 뒤에 이어나는 홀소리와 사이에는 반홀소리의 [j]가 거치는 과도를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 너 ... /에 있어서 반홀소리의 존재를 분명히 해 주는 것은

/ㄴ/음소의 변이음 [n] 때문이다. 이것을 ‘변이음의 이웃돕기’라 하는데, /ㄴ/의 변이음이 그 이웃에 있는 반홀소리의 존재를 분명히 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어음운학 136~137, 176~177)

변이형태의 이웃돕기 앞 형태소의 변이형태가 그 이웃에 있는 형태소의 존재를 알려 주는 것을 ‘변이형태의 이웃돕기’라 한다. (국어음운학 433~434)

보람 직권표, 빗(表). <주시경-용어>

보임말 말거리를 보이는 홀로말의 한 가지: 돈, 돈이 무엇인가? 결혼, 아직 그것은 문제도 안된다. (우리말본 758~759, 784~785, 877)

보편적소리바탕 닿소리를 내는 방법(터뜨림-갈이-두들김-굴림-혀엮-코)과, 홀소리를 내는 혀의 높이를 ‘공깃길’이라는 하나의 원리로 풀이하고 보면, 홀소리나 닿소리나를 묻지 않고 모든 소리는 반드시 그 내는 자리가 결정되어야 하고, 그 공깃길이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소리바탕은 말소리에는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소리의 특질을 ‘보편적소리바탕’이라 한다. 모든 소리가 다 갖추고 있어야 할 소리의 특질이라는 뜻이다. (국어음운학 56~57)

복잡한겹월 ‘가진월’, ‘벌린월’, ‘이은월’과 같은 겹월이 다시 서로 얽히어서, 전체가 겹월이 된 것. 이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1) 복잡한 가진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날이 멀지 아니하다. (2) 복잡한 벌린월: 봄이 오면, 온갖 꽃이 붉고, 여름이 오면, 일만 나무가 푸르다. (3) 복잡한 이은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물은 졸졸 흘러도, 나의 가슴에는 봄이 아직 찾아오지 아니하였다. (우리말본 846~853)

본대도움움직씨 본래부터의 도움움직씨이니, 도움움직씨로만 쓰이고, 으뜸움직씨와 같이 따로 서 월의 풀이 노릇을 하는 일이 도무지 없는 것. (우리말본 399~400, 403~405, 407)

본대움직씨 하임움직씨나, 입음움직씨가 아닌 본래부터의 움직씨를 말한다. 이에는 제움직씨와 남움직씨가 있다. 이에 대해, 본대움직씨에서 파생된 입음움직씨와 하임움직씨를 ‘바꾸인움직씨’라 한다. (우리말본 409)

본드 보기월, 본보기월, 예문. <주시경-용어>

본디소리바탕 홀소리와 닿소리에는 각각 본디부터 갖추어져 있는 소리바탕이 있어서, 그 소리바탕의 있음-없음, 또는 다른 소리바탕으로의 갈음은 그 음소를 다른 음소로 만들어 준다. 이러한 소리바탕을 ‘본디소리바탕’, 또는 ‘본디바탕’이라 한다. (국어음운학, 57, 132~133)

부름만 것의 한 갈래. 임자씨 뒤에 붙어서 그것이 부름자리에 서는 것을 보이는 토. 부름자리토씨(호격조사). <주시경-용어>

부름말 월 가운데에서 다른 말들과 아무 형식상의 연락이 없이, 홀로서는 조각을 ‘홀로말’이라 하는데, 홀로말 가운데 사람을 부르는 데 쓰이는 조각을 부름말이라 한다. (우리말본 758~759, 783~784)

부름자리토 부름말을 표시해 주는 자리토씨: 彌勒아 아라라(석보 13:29), 도타 文殊師利여 네 大悲로 니르고라 (월석 9:9). (우리옛말본 356~360)

부림금 것의 한 갈래. 입자씨 뒤에 붙어서 그것이 움직임의 연장(도구)이 되는 것임을 보이는 토. <주시경-용어>

부림말 남움직씨가 월의 풀이말이 될 적에 그 움직임이 부리는(지배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월조각. 부림말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부림말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입자씨에 부림자리토씨를 더하는 일이다. 순남이가 글을 읽는다. (2) 풀이씨의 이름풀이 부림자리에 서는 일도 있다. 누가 웃음을 싫다 하리오? 그는 말하기를 좋아하오. (3) 입자마디도 부림자리에 선다. 나는 비가 오기를 바란다. (4) 아무 말이든지 부림자리에 설 수 있다. 오늘은 '오르다'를 문제 삼아서 토론합시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 보겠다. (5) 부림말이 들어 있는 일도 있다. 그가 책을 나를 주었다. (6) 부림자리토씨 '-을/를'을 붙이지 않고, 도움토씨만을 붙이는 일도 있다. 굶만 보고, 떡만 먹는다. 나는 춤은 추어도, 장단은 모른다. (7) 아무런 토씨를 붙이지 않고도 부림말이 되는 일이 있다. 비행기 타는 재미. (우리말본 750~751, 765~767)

부림자리토씨 부림말(목적어)을 표시해 주는 자리토씨. '-을/를'. (우리옛말본 339~342)

부분닿음 완전 닿음에 대립되는 닿음의 한 가지. 영향을 받는 소리가 영향을 주는 소리와 완전히 같아지는 현상은 '완전닿음'이고, 그와 비슷해짐에 그치는 현상은 '부분닿음'이다. 지금말의 '시골, (개가) 짓다, 법칙'의 옛말은 각각 '스굴, 짓다, 법칙'이었는데, /으/가 /스, 지/의 나는 앞자리를 닮아 앞홀소리인 /이/로 바뀐 것은 부분닿음의 한 예이다. 스굴 향=郷(훈몽자회 중:8) 즈즐 폐=吠(훈몽자회 하:8) '물, 불, 풀'의 옛말은 각각 '물, 불, 풀'인데 /으/가 /우/로 바뀐 것은, 그 앞에 있는 입술소리의 영향으로 입술등글음의 소리바탕을 더 가지게 된 것이다. '슴겁다'가 '싱겁다'로 바뀐 것은 /스/의 영향으로 /으/가 /이/로 바뀌고, /그/의 영향으로 /ㅁ/이 /ㅇ/로 바뀐 것이니, 이것은 모두 부분닿음이다. 슬거울 담=淡(훈몽자회 하:14). (국어음운학 515~525)

부정그림씨 이는 비존재성 부정판단이나 대비적 열등성(더 떨어짐)을 나타내는 그림씨이다. (1) 비존재성 그림씨: 이는 존재성을 부정하는 그림씨이며, 그 형식은 '없다'이다. 이는 항상 긍정판단의 그림씨 '있다'와 상대적 개념으로 쓰인다. (우리말형태론 720~721)

부정도움그림씨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도움그림씨. 부정도움그림씨는 '아니하다', '못하다'이다. (우리말형태론 724~725)

부정도움움직씨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도움움직씨. 부정도움움직씨는 입자말의 행위를 나타내는 으뜸움직씨의 행위성을 부정한다. 여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고 부정하는 도움움직씨 '아니하다'와, 할 수 없다고 부정하는 도움움직씨 '못하다'와,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도움움직씨 '말다'가 있다. 이들 부정 형식은 모두 '-지'를 필수적 공존 요소로 취한다. (우리말형태론 723~724)

부정앞가지 부정을 나타내는 앞가지. 이에는 '선-, 설-, 비-, 무-, 부-, 미-, 물-, 물-, 실-, 낙-' 따위가 있다. (우리말형태론 725~729)

부정어찌씨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어찌씨. 부정어찌씨에는 '아니'('안')과 '못'이 있다. '아니'('안')은 움직임의 행위를 하지 않음의 뜻으로 꾸며 주고, '못'은 움직임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의 뜻으로 꾸며 주는 부정어찌씨이다. (우리말형태론 722~723)

부정잡음씨 잡음씨는 논리적 판단의 말본적 표현이다. 잡음씨에는 긍정판단의 잡음씨와 부정판단의 잡음씨가 있다. 부정판단의 잡음씨가 부정잡음씨이다. 부정잡음씨의 형식은 ‘아니다’이며 이는 긍정잡음씨인 ‘이다’와 상대적으로 쓰인다: (1) 박쥐는 조류이다. (2) 박쥐는 조류가 아니다. (2)의 ‘아니다’가 부정잡음씨이다. (우리말형태론 719~720)

부지언 언의 한 갈래. 안잡힌가리킴그림씨의 매김꼴(관형사형). <주시경-용어>

부지엇 엇의 한 갈래. 안잡힌가리킴그림씨(형용사)의 어간. <주시경-용어>

불구뿌리 뿌리 자리에 나타난 형태소가 오직 하나의 가지에만 연결될 수 있고, 아직 하나의 뿌리로 성립될 것인지 의심스러운 것: ‘제여곰’의 ‘제여-’, ‘므리므리에’의 ‘므리므리-’. (우리옛말본 82)

불구적매인이름씨 전체구성을 임자씨처럼 기능하게 하는 매인이름씨의 하나. 그것이 이끄는 전체구성을 임자씨처럼 기능하게 하나, 앞뒤에 연결되는 말의 종류가 극히 국한되어 있는 매인이름씨이다. (우리옛말본 287~294)

불구적맺음씨끝 줄기와의 연결 방식에 의해 맺음씨끝을 분류하면, ‘정상적맺음씨끝’과 ‘불구적맺음씨끝’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맺음씨끝은 줄기에 바로 붙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어떤 특수한 씨끝은 그렇지 못하여, 반드시 그 앞에 특정한 안맺음씨끝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줄기에 바로 붙을 수 있는 씨끝을 ‘정상적맺음씨끝’이라 하고, 안맺음씨끝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줄기에 연결될 수 없는 것을 ‘불구적맺음씨끝’이라 한다. (우리옛말본 481)

불구풀이씨 풀이씨 줄기는 원칙적으로 모든 씨끝과 연결될 수 있어서 완전한 끝바꿈표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어떠한 풀이씨는 극히 국한된 씨끝(때로는 오직 하나의 씨끝)만을 취할 수 있어서, 이러한 끝바꿈표에 많은 빈칸을 남기는 일이 있으니, 이러한 풀이씨를 ‘불구풀이씨’라 한다. 이에 비해서, 모든 (거의 모든) 씨끝을 취할 수 있는 풀이씨를 ‘갓은풀이씨’라 한다. (우리옛말본 440)

불어닦음 닦음의 한 가지로서, 영향을 주고 받는 소리가 바로 앞뒤로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 두 소리가 다른 소리를 사이에 두고 있는 ‘떨어져닦음’과 대립한다. ‘스쿨’의 ‘시쿨’로 바뀐 것은 /으/가 바로 앞의 /스/의 나는 자리를 닦은 것이며, ‘물, 불, 풀’이 ‘물, 불, 풀’로 바뀐 것은 /으/가 바로 앞의 입술소리를 닦은 것이다. 그 밖에 ‘슴겁다’의 /으/가 바로 앞의 /스/을 닦아서 /이/가 되고 /ㅁ/이 바로 뒤의 /ㄱ/을 닦아서 /ㅇ/이 되어 ‘싱겁다’가 된 것도 불어닦음의 예이다. (국어음운학 516 -)

불음소리 닿소리, 자음(子音), <주시경-용어>

불음소리접변 음절의 끝닿소리가 뒤에 오는 닿소리와 만날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닦아서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닦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하는 닿소리 닦음현상. 자음동화. <주시경-용어>

불이 부(部), 속(屬). 말. 임이(임자말), 썸이(부림말), 남이(풀이말)에 빛과 금이가 붙어서 복잡하게 꾸며진 조각을 말한다. <주시경-용어>

비롯함도움토 비롯함을 나타내는 도움토의 한 가지: 몇 시부터 공부를 시작하오? 새벽 달 보려고 어스름부터 나앉는다. (우리말본 640~641)

비슷한가지 가지가 놓이는 자리에, 꼭 가지처럼 보이기는 하나, 아무런 뜻을 나타내지 않아서, 가지로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가지는 엄연히 하나의 형태소로서 반드시 어떠한 뜻을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비슷한 가지’라 한다: 長生의 不肖홀씨(월석 1:41) 安樂國이논(월석 8:87). (우리옛말본 40, 228)

뿌리 생각씨(관념사)의 중심되는 뜻을 짚어지고 있는, 더 쪼갤 수 없는 부분. 이를테면, ‘사람답다, 사랑스럽다, 가난하다’ 따위 말에 있어서, ‘사람, 사랑, 가난’이 뿌리인데, 뿌리는 ‘씨뿌리’라기도 한다. ‘노래’와 ‘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것 같으나, 이 말들은 다시 ‘놀-애, 꾸-ㅁ’으로 쪼갤 수 있으므로, ‘놀-’과 ‘꾸-’가 뿌리가 된다. (우리말본 164)

人

사람대이름씨 사람가리킴에만 쓰는 대이름씨. 사람대이름씨는 ‘가리킴’을 따라, 첫째(나, 우리), 둘째(너, 당신), 셋째(이분, 그분, 저분), 두루(저, 자기)의 네 가지로 나뉘고, 그 높임의 등분을 따라, 아주높임(어르신, 당신), 예사높임(그대, 이이, 그분), 예사낮춤(나, 자네, 누구), 아주낮춤(저, 너, 이애, 그애, 저애)로 나뉜다. (우리말본 227~240)

사람대표이름 임의 한 갈래. 사람대이름씨. <주시경-용어>

사이소리되기 |앞에 있는 홀소리가 그 |와 서로 닮아서, |앞에 있는 홀소리도 아니고, |도 아닌, 그 두 소리의 사이소리 하나로 되는 것을 사이소리되기라 한다. 이를테면 ㅏ와 ㅣ가 서로 닮아 ㅑ가 되며(보기: /사이/→[새]), ㅓ와 ㅣ가 서로 닮아 ㅕ가 되며(보기: /벼이다/→[베다]), ㅗ와 ㅣ가 서로 닮아 ㅛ가 되는 것(보기: /보이다/→[뵈다])들과 같다. (우리말본 108)

사잇글자 울림소리 사이의 소리가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앞에 ㄷ을 덧붙이는 것을 ‘사잇소리’라 하고, 그 사잇소리를 적는 글자를 ‘사잇글자’라 한다. 15세기 옛날 책에 쓰인 사잇글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ㄱ(/ㄱ/다음에): 讓兄 ㄱ뽏 (용가 99장), 兄 ㄱ쁘디 (용가 8장) ㄷ(/ㄷ/ 다음에): 몇間ㄷ지비 (용가 110장), 君ㄷ字 (훈민정음) ㅂ(/ㅂ/다음에): 사롭 ㅂ디리잇가 (용가 152장), 郡ㅂ자 (훈민정음), 하늬 ㅂ디시니 (용가 4장) △(울림소리 사이에): 나랏 일흠, 世子△位 (용가).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사잇글자는 용비어천가에서부터 이미 ㅅ으로 통일되려는 경향을 보이다가 그 뒷시기부터는 거의 완전히 ㅅ으로 통일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 이름도 ‘사이시옷’으로 불리게 되었다. (국어음운학 414-443)

상관뉘음 상관에 있어서 상관의 표지를 가진 계열을 ‘유표계열’이라 하고, 그것을 가지지 않은 계열은 ‘무표계열’이라 한다. 우리말의 ‘거센소리바탕의 상관’인 /ㄱ/ : /ㅋ/, /ㄷ/ : /ㅌ/ /ㅈ/ : /ㅊ/, /ㅂ/ : /ㅍ/에 있어서는 /ㄱ, ㄷ, ㅈ, ㅂ/은 무표계열이고, /ㅋ, ㅌ, ㅊ, ㅍ/은 유표계열이다. 그리고 된소리바탕의 상관에 있어서도 이 소리바탕을 가지지 않은 /ㄱ, ㄷ, ㅈ, ㅂ, ㅅ/은 무표계열이고, 그것을 가진 /ㄱ, ㅌ, ㅊ, ㅍ, ㅅ/은 유표계열이다. 그런데 이 두 상관에는 무표계열이 공통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두 상관은

그 무표계열을 고리로 하여 서로 묶이게 되어 있으니, 이렇게 하여 묶인 두 상관을 ‘상관묶음’이라 한다. (국어음운학 98~99, 223, 407)

생각씨 관념을 나타내는 낱말을, 그 낱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걸림씨’에 대해서 일컫는 말. 생각씨는 월의 중요한 거리가 되는 것이니, 이것은 다시 ‘으뜸씨’와, ‘꾸밈씨’로 나뉘고, 으뜸씨는 또 ‘임자씨’와 ‘풀이씨’로 나뉜다. (우리말본 156~157)

서로닮음 앞뒤로 이어나는 두 소리가 앞소리는 뒷소리를 닮고, 뒷소리는 앞소리를 닮아 두 소리가 서로 가까워지는 현상을 ‘서로닮음’(상호동화)이라 한다. 15세기 우리말의 ‘애, 에, 외, 위’는 글자 그대로 두겹홀소리였다. [aj, aj, oj, uj] 그러다가 ‘아, 어, 오, 우’는 각각 ‘이’의 나는 자리로 끌려가고, 또 ‘이’는 그 앞의 홀소리의 나는 자리로 끌려가서 그 중간 자리에서 만나서 홀홀소리인 지금의 [ɛ, e, ø, y]가 된 것이다. 이것은 서로닮음의 결과이다. (국어음운학 516, 524)

쉬임소리 혼합음, 접소리. <주시경-용어>

설비언 언의 한 갈래. 가리킴그림씨(지시형용사) 중에서 어떠한을 알고서 꼭 잡아서 가리키는 잡힘가리킴그림씨의 매김꼴. <주시경-용어>

설비엇 엇의 한 갈래. 가리킴그림씨(지시형용사) 중에서 어떠한을 알고서 꼭 잡아서 가리키는 잡힘가리킴그림씨의 줄기. <주시경-용어>

섬김도움움직씨 으뜸되는 풀이씨가 나타내는 일을 하여서 남을 섬기는 뜻을 나타내는 도움움직씨. 이 도움움직씨는 으뜸움직씨의 어찌꼴 ‘-어/아’ 뒤에 쓰인다: 어린 사람을 도와 준다. 아버지의 방에 불을 때어 드리다. 그애가 그 이야기를 죄 외어 바쳤 지요. (우리말본 402)

세겹홀소리 입안의 막음이 없어서 홀소리와 같이 내는 소리 셋이 한 소리마디 안에 이어져 나는 소리를 말함인데, 그 가운데에 있는 소리는 성절음이 되고, 다른 두 소리는 비성절음이 되어 이에 딸린다. 이러한 소리는 지금의 우리말에는 없으나, 15~18세기 우리 옛말에는 있었으니, 이 소리를 적는 데는 다음과 같은 글자가 쓰였다. ㅸ /jaj/, ㅹ /jaj/, ㅺ /joj/, ㅻ /juj/, ㅼ /waj/, ㅽ /waj/ 이 세 소리 중에서 그 가운데에 있는 /a/, /ə/, /o/, /u/, /a/, /ə/는 각각 그 소리마디의 성절음이 되고, 다른 두 소리는 이에 딸린 비성절음이 된다. (국어음운학 382, 392, 401)

세로관계 언어 단위의 서로의 관계 중의 하나로서, 고구마의 줄기처럼 된 관계다. 한 고구마를 끌어 올리면 다른 고구마도 따라 끌려 올라오듯이, 한 단위를 머리 속에 떠올리면, 다른 단위가 그에 따라 머리 속에서 연상되어 떠오르는 것과 같은 관계이다. 이것이 ‘연합관계’인데, 때로는 ‘대립관계’ 또는 ‘세로관계’라고도 한다. 우리가 ‘학생’이란 말을 머리 속에 떠올리게 되면, 이와 여러모로 관련이 있는 다른 말들이 머리 속에 연상된다. ‘학생, 생도, 아동’, ‘학교, 학문, 공부’ 등등. 그리고 또 그와 짝을 이루는 ‘교수, 교사’, 혹은 일 부분의 소리와 뜻이 비슷한 ‘학사, 학습, 학예’ 따위 말들도 떠오르게 될지 모른다. 음소를 보더라도, /ㄱ/ 소리를 머리속에 떠올리면, 나는 자리로 관련이 있는 /ㄴ/, /ㅋ/ 등이, 또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아니란 점으로, /ㄷ/, /ㅈ/, /ㅊ/, /ㅌ/, /ㅍ/ 따위도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말의 낱덩이들은 그것이 소리이든, 낱말이든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밀접하게 짜여진 구조를 만들고 있다. (국어음운학 86, 108)

센소리 우리말의 터짐소리와 같이소리는 소리를 내는 힘에 따라 세 계열로 분화된다. 곧 힘을 가장 덜 들이는 /ㄱ, ㄷ, ㅂ, ㅈ, ㅅ/과, 힘을 들이되 되게 하는 /ㄴ, ㄷ, ㅃ, ㅅ, ㅆ/과, 힘을 거세게 하여 내는 /ㅋ, ㅌ, ㅍ, ㅊ/이 그것인데, 첫째 소리들을 ‘약한소리’라 하고, 둘째 소리들을 ‘된소리’라 하고, 셋째 소리들을 ‘거센소리’라 한다. 그리고 거센소리와 된소리는 약한소리에 비하면 그 내는 힘이 세기 때문에 이 두 계열의 소리들을 약한소리와 대립시켜 ‘센소리’라 한다. (국어음운학 203~204)

셈술그림씨 일이나 몬의 셈(수)와 술(양)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그림씨의 한 가지. 셈: 적다, 수적다, 많다, 수많다 술: 적다, 크다, 많다 (우리말본 487, 482~483)

셈술매김씨 일이나 몬의 셈이나 술을 나타내는 매김씨의 한 가지. (1) 셈 (ㄱ) 으뜸셈
잡힘: 한 두, 세(서, 석), 네(너, 녀), 다섯(다섯), 여섯(여섯) ... 일, 이, 삼, 사, 오 ... 안잡힘: 한두, 두세, 두서너, 서너너댓, 댓, 대여섯 ... 일이, 이삼, 삼사, 사오 ... 몇, 두어, 여러, 모든, 반, 온, 전. (ㄴ) 차례셈 잡힘: 첫(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 제일, 제이, 제삼, 제사 ... (2) 술 잡힘: 온, 반. 안잡힘: (술한 사람, 허다한 물건, 약간의 비용, 소수의 사람 ...). (우리말본 581~584)

셈씨 셈을 나타내는 입자씨의 한 가지. 셈씨는 입자씨이므로 셈을 나타내는 말로서 입자씨의 특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입자씨의 특질이란, 첫째, 그 자체는 형태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 둘째, 토씨의 의지를 입을 수 있다는 것, 셋째, 그리하여, 여러가지 월조각(월성분)으로서의 구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셈씨의 하나인 ‘하나’는 그 자체로서는 끝바꿈이 일어나지 않으며, 토씨 ‘-가, -를, -도, -와, -로’ 등의 의지를 받아, 여러가지 월조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셈씨는 ‘으뜸셈씨’와 ‘차례셈씨’로 나뉜다. (우리말본 157~160, 245~252)

셋째가리킴대이름씨 대이름씨는 그 가리킴의 바탈을 따라 ‘가리킴’이 있으니, 셋째가리킴은 말 속에 들어오는 온갖 것 곧 사람이나 몬이나 곳이나 쪽이 나를 가리키는 대이름씨이다. ‘당신, 이분, 그분, 저분, 이이, 그이, 저이, 이, 그, 저, 이애, 그애, 저애’가 있고, 또한 ‘누구, 아무, 어떤이, 어느분, 어떤분’이 있다. (우리말본 229~233)

셋째가리킴월 말하는이도 아니오, 말듣는이도 아닌, 다른 사람이나 일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니, 곧 셋째가리킴의 대이름씨와 모든 이름씨와 셈씨가 입자말이 된 월을 이른다: 그도 공부를 썩 잘하오. 저것은 무엇인가? 새가 난다. 예순은 설흔의 두 갑절이다. (우리말본 855~856)

셋째어찌꼴 어찌꼴의 하나. 다음에 지움(부정)을 나타내는 ‘아니하다, 못하다, 말다’를 받는 ‘-지’ 끝바꿈꼴을 이른다: 그런 데에는 결코 가지 말아라. 그는 요즘 학교에 오지 아니한다. 나는 그런 일은 하지 못한다.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우리말본 285, 502)

셋째입음법 세 가지 입음법 가운데 하나. 모든 움직임씨의 어찌꼴 ‘-어/-아/-여’에 도움움직씨 ‘지다’를 더하여 만든다. ‘물을 막다-물이 막아 지다. 셋째입음법은 단순한 입음의 뜻보다 ‘할 수 있음’과 ‘절로됨’의 뜻만을 가지고 있음이 다른 입음법과 다른 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것을 순수한 입음, 곧 ‘이해입음’의 뜻으로 넓혀서 쓰는 일이 차차 많아지는 것 같다. (우리말본 431~434)

셋째하임법 모든 움직임의 감목법의 어찌꼴 ‘-게’에 도움움직씨 ‘하다’를 더하여 만드는 하임법의 한 가지: 가게 하다, 놀게 하다, 부르게 하다, 가르게 하다, 조직하게 하다, 복종하게 하다, 선동하게 하다. (우리말본 418~419)

소리가락 소리가락은 소리의 높이를 말한다. 이는 목청의 떠는 셈(진동수)를 따라 되는 것이니, 그 떠는 수가 같은 동안에 많으면 가락이 높고, 적으면 낮다. 소리가락에는 높낮이의 차이가 없어 평평하게 가는 것, 낮아 가는 것, 높아 가는 것, 낮다가 높아 가는 것, 높다가 낮아 가는 것 등이 있다. 소리가락이 말을 바로 알아듣는 데에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는 것을 우리들이 날마다 겪어 아는 바이다. 가락의 높낮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네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사람, 소리의 힘, 사람의 마음 가짐, 끝남법이다. (우리말본 99~104)

소리갈 말소리갈이라고도 하는 소리갈은 말소리를 닮는 것이니 말본갈의 가장 기초적인 조각이다. 소리갈은 말의 외형적 방면에 관한 학문인데 말본갈의 한 조각으로 삼은 것은 이론적으로는 덜 맞지마는 실제적으로는 매우 필요하다. 소리갈의 연구는 자연과학적 방법에 따라 연구하는 것이 많으므로 인문과학보다는 자연과학 영역의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말본 38~39)

소리내는틀 소리내는틀은 숨쉬는 데(호흡부), 소리내는 데(발음부), 소리고루는 데(조음부)의 세 조각으로 나눈다. 세 조각 가운데서도 소리내는 데가 중심이 되고, 다른 둘은 소리에 전속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이 둘이 아니고는 첫째로 소리의 원동력이 없으며, 다음에는 소리가 낮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말소리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둘도 또한 소리내는틀의 한 조각으로 봄이 마땅하다. (우리말본 38)

소리달라짐 낱낱의 소리는 일정한 바탈(성질)과 값을 가진 것이지만, 그것이 낱내를 이를 적에, 또는 낱내와 낱내가 서로 이를 적에, 다른 소리의 영향을 입어, 그 본래의 바탈을 잃어버리고, 얼마큼 달라지는데, 이를 소리달라짐이라 한다. 이 소리달라짐의 원인은 첫째, 말을 쓰는 사람들의 힘쓰기의 아낌(노력의 경제) 곧 게으름(태만)이니, 이를테면 ㅌ | 를 겹쳐서 [위]로 내는 것과 /넓/을 [넙] 혹 [널]이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둘째는, 소리를 이어내기 때문에, 제 바탈대로 내기가 어려움이다(/천리/의 /ㄴ/을 [리]로 내는 것 등). 소리달라짐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으나 자연법칙에 지배되는 이화학적 변화와는 다르다. 그중에도, 어떤 달라짐은 항상 그리 되는 것이 있으며(반드시 되는 달라짐(필연적 변화)), 어떠한 것은 사람과 정신 안차림을 따라서 그리 달라지기도 하고, 안 달라지기도 한다.(어찌다 되는 달라짐(우연적 변화)) 소리달라짐에는 소리닦음, 소리줄임, 닿소리의 나는힘의 세 가지가 있다. (우리말본 106~107)

소리닦음 소리닦음이란 것은, 소리와 소리가 서로 이어날 적에, 한 소리가 다른 소리를 닦아서, 그 본래의 바탈을 버리고, 그 다른 소리와 한 가지로 또는 가깝게 나는 것을 이른다. 소리닦음은, 앞 뒤의 소리 가운데 어느 쪽이 어느 쪽을 닦느냐에 따라, 뒤닦음(후퇴동화), 앞닦음(전진동화), 서로닦음(호상동화)이 있고, 그 내용으로 보아, 흘소리의 닦음과 닿소리의 닦음의 두 가지로 가른다. (우리말본 107~108)

소리마디 사람이 말을 할 때에는 말소리들이 이어나게 하는데, 이 경우에 소노리티의 같은 소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크고 작은 소리가 같음으로 이어나

게 된다. 입을 크게 열었을 때에는 큰 소리가 되고, 입을 작게 열었을 때에는 작은 소리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입의 여닫음의 같음은 규칙적으로 되는 것이므로, 여기에 입의 움직임과 소리의 크고 작음의 규칙적인 되풀이로 말미암아 일종의 울동이 생겨나는데, 이 울동의 날덩이가 ‘소리마디’이다. 소리마디는 소리의 날덩이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소리마디는, 여러 소리가 이어날 때에 그 둘레의 소리보다 크게 들리는 하나의 성절음을 중심으로 하여, 그보다 작게 들리는 소리가 그 성절음을 둘러싸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소리마디에는 경계가 있다. 우리말의 소리마디의 경계는 매우 간단한 편이며, 한글로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소리마디의 날덩이가 보이도록 되어 있다. 그 경계는 바로 모아쓰기에 반영되어 있다. (국어음운학 108, 110, 113, 224, 414)

소리바뀐글자 15세기 우리말에 쓰이던 글자로서 지금도 그 글자가 쓰이고 있기는 하되, 그 소리가 바뀐 글자를 ‘소리바뀐글자’(변음자)라 한다. 이를테면 ‘ㄱ, ㅋ, ㆁ’(홀홀소리 글자): ‘ㄱ, ㅋ’(두겹홀소리 글자)와 같은 홀소리글자는 지금은 홀홀소리나 두겹홀소리로 내지마는 15세기 옛말에 있어서는 ‘ㄱ, ㅋ, ㆁ’는 두겹홀소리로 발음되었으며, ‘ㄱ, ㅋ’는 세겹홀소리로 발음되었다. 이러한 글자가 ‘소리바뀐글자’이다. (국어음운학 309~310)

소리바탕 한 말소리는 여러가지의 특질로 만들어진다. 이를테면 ‘가다’의 ‘ㄱ’ 소리를 내려면, 뒤혀트바닥을 여린입천장에 갖다 대었다가, 거기를 폐에서 입안으로 내는 날숨으로 약하게 터뜨리되, 목청은 떨어 울리지 않는다. 이 ‘ㄱ’ 소리는, 입안-뒤혀트바닥-여린입천장-터뜨림-약함-안울림의 여러 특질의 어울림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소리를 만드는 여러 특질을 ‘소리바탕’(음성자질)이라 한다. (국어음운학 135)

소리이음 앞 형태소가 닿소리로 끝나고, 그 뒤에 이어나는 형태소가 홀소리로 시작되는 경우에, 앞 형태소의 끝닿소리가 뒤의 홀소리 소리마디의 첫소리가 되어 내려가는 변동규칙의 한 가지. ‘떡이→머기, 옷을→오슬’. 이 변동은, 이어나는 두 휴식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원칙이나, 말이 빨라지면 휴식의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의 범위는 유동적이다. 이를테면 ‘할# 일’ 사이에 휴식을 두면 이음이 적용되지 않아 [hal#il]로 발음되지마는, 두 말 사이의 휴식을 허물면 소리이음이 일어나서 [haril]로 발음된다. (국어음운학 265, 418)

소리잃은글자 15세기 우리말에 쓰이던 글자로서 지금은 쓰이지 않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를 소리잃은글자(실음자)라 한다. 이를테면 ‘△, ㄹ, ㅇ, ㅎ’나, 같은 글자 둘을 나란히 쓴 ‘ㄹㄹ, ㅁㅁ, ㄴ’이나, 다른 글자 둘 또는 셋을 나란히 쓴 ‘ㄱㄱ, ㄴㄴ, ㄷㄷ, ㅅㅅ, ㅈㅈ, ㅊㅊ, ㅌㅌ, ㅍㅍ, ㅎㅎ’과, ‘ㅁㅌ, ㅁㅍ’과 같은 글자는 모두 소리잃은글자들이다. (국어음운학 309~310)

소리줄임 말을 흘지게 또 빨리 할 양으로 소리를 줄이는 일이 있다. 소리의 줄임에는 첫째, 홀소리의 줄임, 둘째, 닿소리의 줄임, 셋째, 홀닿소리의 줄임이 있다. 홀소리의 줄임이라는 것은 홀소리가 서로 이어날 적에 혹은 빼어 버리고, 혹은 겹하여서, 소리의 날내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홀소리를 빼어 버려서 날내(음절)을 줄이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같은 홀소리를 이어낼 적에, 그 하나를 줄이는 것(/서어서/→[서서]), /—/와 /ㄱ/를 이어낼 때는 /—/를 줄이는 것(/뜨어돌고/→[떠돌고]), /—/는 /ㄹ/이나

다른 홀소리 아래서도 줄어진다. 닿소리의 줄임이라는 것은 말끝에 두 개의 닿소리가 오거나 홀소리와 홀소리 사이에 닿소리 세 개가 이어 올 때, 그것들을 다 들어내기가 어려워서 그 가운데서 어떤 소리를 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넓고/를 [널꼬] 또는 [넙꼬]라 하는 것과 같다. 홀닿소리의 줄임이라는 것은 말을 흘리게 하기 위하여, 홀닿소리를 한꺼번에 줄이는 것인데, /그러한/을 [그런]이라고 소리내는 것과 같다. (우리말본 119~122)

소리흥내말 자연계에서 나는 소리나 동물의 울음소리를 그대로 사람의 말소리로써 나타내려고 하는 상징어의 한 가지이다. 그 예는 매우 풍부하다: ‘꼬끼오, 꿀꿀, 짹짹, 땡땡, 하하, 허허, 아, 줄줄, 줄줄, 팔랑팔랑, 솔솔, 출렁출렁, 찰짝, 소곤소곤’. 이런 소리흥내말은 그대로 또는 다른 소리를 붙여서 그 소리를 내는 물건이나 동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한다: ‘뽕파리, 날나리, 북, 기러기, 개구리, 피꼬리, 귀뚜라미, 딱따구리, 매미, 빠꾸기’ 등. (국어음운학 583)

소리힘 소리힘 혹은 크기라 함은 소리를 낼 적에 들이는 날숨의 힘을 말한다. 이를 물리학적으로 바꿔 말하자면, 목청의 떨음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소리결(음파)의 떨폭이 크고 적음을 이른다. 그 떨폭이 크면, 소리의 힘이 크고, 그 떨폭이 작으면, 소리의 힘이 작다. 힘이 센 소리는 곧 큰 소리이고, 힘이 여린 소리는 곧 작은 소리이다. 예사로 올림(악센트, 억양)이라 하는 것은 이 소리힘을 가리킨다. 이러한 소리의 힘을 소리의 가락(가락올림, 음조)와 구별하기 위하여 힘올림(압력악센트)이라 한다. (우리말본 97~99)

속가지 속가지는, 두 씨의 사이에 들어가, 그 두 씨를 어울려서, 한 씨로 만드는 일을 하는 씨가지이다. 속가지에는 다만 ㅅ, ㅂ이 있을 뿐이다. ‘-ㅅ-’은 입자씨와 입자씨와의 사이에 쓰이고(‘나뭇꾼, 깃발, 뒷간, 낚싯대, 잇몸’), ‘-ㅂ-’은 입자씨 또는 매김씨와 입자씨와의 사이에(‘좁쌀, 입술, 찹쌀, 입쪽, 접쪽, 접때, 워씨’), 풀이씨 또는 다른 씨와 풀이씨와의 사이에(‘휩쓸다, 휩쓸다’) 쓰인다. (우리말본 681~685)

속결그림씨 일과 문의 바탈과 모양이 어떠함을 그리어 내는 그림씨로서, 그림씨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이다. 속결그림씨는 그 뜻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으나, 이 갈래는 말본에서는 그리 큰 중요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1) 감각적인 것: 겹다, 희다, 푸르다, 달다, 시끄럽다, 지리다, 미끄럽다, 어지럽다, 답답하다, 고프다, 빠르다, 크다, 높다, 낮다 (2) 정의적인 것: 기쁘다, 즐겁다, 참되다, 착하다, 슬기롭다, 민첩하다, 새롭다, 험다, 젊다 (우리말본 483~486)

속뜻 월 속에 그 사상이 다 표현되지 못하고, 표면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내부의 사실에 포함된 내용. ‘먹는다’란 말은 그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의 완성된 월(드)이 될 수 있다. 그 상황이란 말 밖에 있는 입자말과 부림말을 속으로 짐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이 말의 그림풀이에서 입자말과 부림말의 자리를 비워놓고 그 빈 자리에 ‘ㅅ’을 표하고서, 입자말이나 부림말 자리에 이러한 표를 한 것은, 그 자리에 ‘숨은 입이(입이빳, 씹이, 씹이빳) 곳 속뜻으로 잇는 입이(입이빳, 씹이, 씹이빳)를 그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숨은 말이 속뜻으로 있다는 표현은 속구조를 표현하는 말로는 매우 적당한 표현이다. 바로 속뜻으로 잇는 것이 겉으로는 숨어서 나타나지 않

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주시경-용어>

수단위매인이름씨 전체구성을 임자씨처럼 기능하게 하는 매인이름씨의 하나. 수를 나타내는, 매김말 노릇을 하는 임자씨 뒤에 연결되어서 수의 단위를 나타내는 매인이름씨이다. 이들 가운데는 자립적인 것도 있으나, 수의 단위를 나타낼 때는 매인이름씨로 다룬다. (우리옛말본 294~297)

수량언 언의 한 갈래. 수량을 나타내는 매김씨(관형사)와 양을 나타내는 그림씨의 매김꼴(관형사형)을 포함한다. <주시경-용어>

수량엇 엇의 한 갈래. 양을 나타내는 그림씨(형용사)의 줄기. <주시경-용어>

스스로움직씨 ‘어머니가 아이에게(아이를) 젓을 먹인다.’에서 월의 풀이말인 ‘떡이다’의 주체는 ‘어머니’이지마는, 젓을 먹는 주체는 ‘아이’이다. 이러한 움직임(떡이다)를 ‘하임움직씨’라 하고, 이에 대해 월의 주체가 바로 움직임으로 표현된 움직임을 하는 것을 ‘스스로움직씨’라 한다. ‘아이가 젓을 먹는다.’에서는 ‘먹는다’로 표현된 움직임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월의 임자말로 표현된 사람이다. (우리말본 409)

스침소리 우리말의 /ㅎ/ 소리는 여러가지 변이음으로 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 허’의 /ㅎ/소리는 같이소리로 나기는 하되, 그 같이가 어느 자리에서 나는지 확실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입안 전체의 면을 스치는 소리로 생각된다. 이러한 소리를 ‘스침소리’라 한다. (국어음운학 27~28, 32, 195)

시간언 언의 한 갈래. 때를 나타내는 매김씨(관형사)와 때를 나타내는 풀이씨의 매김꼴. <주시경-용어>

시간엇 엇의 한 갈래. 때를 나타내는 그림씨의 어간. <주시경-용어>

시김 움의 한 갈래. 월의 임자가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움직임을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그 움직임을 하게 하는 형식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하임움직씨(사동동사). <주시경-용어>

시김끗 꺾의 한 갈래. 의향법에 따른 꺾기의 하위 분류의 하나로 남을 시키는 뜻으로 월을 끝맺는 마침법의 시킴꼴(명령형). <주시경-용어>

시킴꼴 말드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는 뜻을 나타내는 움직임 마침법의 끝바꿈꼴. (우리말본 275~278, 370, 491, 568)

시킴법 맺음씨끝의 굴곡범주 중 마침법의 하위범주.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기를 요구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적 방법. (우리옛말본 516~518)

시킴월 바탈(성질)로 본 네 가지 월 갈래 중의 하나로서, 시킴이나 말림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풀이말은 마침법의 시킴꼴로 된다. 시킴월의 임자는 두째가리킴의 대이름씨로 되며, 그 풀이는 움직임으로 된다. 시킴월은 시킴이나 말림을 나타낼 적에 쓰이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그 밖에 또 시킴과 관련이 있는 주변적인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말본 861~864)

실 ‘다’와 같은 뜻. 꿈인말. <주시경-용어>

실질풀이씨 이는 실질성이 있는 풀이씨이며, 실질성이 없는 형식풀이씨와 구별된다. 실질풀이씨는 움직임의 속성이 있는 움직임과 움직임이 없이 다만 상태성을 가지는

그림씨로 나뉜다. (우리말형태론 303)

씀 움의 한 갈래. 단순히 부림말을 취하는 남움직씨. <주시경-용어>

씀다름만 것의 한 갈래. 다름만의 하위분류. <주시경-용어>

씀이 짬뚝같은 용어로, 부림말(목적어). <주시경-용어>

씀이금 부림말(씀이)을 꾸미는 말. (목적어 꾸밈말). <주시경-용어>

씀이듬 부림말(목적어)와 부림자리토씨(목적격조사, 씬이뵈)을 합한 것, 즉 토씨를 가진 부림말(목적어). <주시경-용어>

씀이붙이 부림말 줄기(목적어, 씬이)와 부림자리토씨(목적격조사, 씬이뵈)와 부림말의 꾸밈말(씀이금, 관형어)을 아루른 것. <주시경-용어>

씀이뵈 부림말을 표시해 주는 형태소, 즉 부림말토씨. <주시경-용어>

씀한만 것의 한 갈래. 한가지만의 하위분류. <주시경-용어>

씀훗만 것의 한 갈래. 단순히 부림말만을 표시하는 토씨. ‘-을, -를’. <주시경-용어>

씨가름 낱말을, 그 말본에서의 구실을 주장으로 삼고, 그에 따르는 꼴과 뜻을 딸림으로 삼아서, 이 세 가지가 서로 관계하는 상태를 대중으로 삼아서, 분류하는 일을 ‘씨가름’이라 하고, 그렇게 하여 갈라 놓은 동아리를 ‘씨가름’(품사)라 한다. 우리말의 낱말은 위에서 말한 원리에 따라, 먼저 ‘생각씨’와 ‘걸림씨’(토씨)로 나뉜다. 걸림씨는 실질적인 뜻을 가지지 아니하고, 생각씨에 붙어서 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말로서, 이것은 따로 떨어져, 월을 이루는 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생각씨’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서 제홀로 월을 이루는 감이 될 수 있다. 생각씨는 다시 으뜸씨와 꾸밈씨로, 이 중 으뜸씨는 임자씨와 풀이씨로 나뉘어지며, 임자씨에는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가 있다. 풀이씨에는 움직씨, 그림씨, 잡음씨가 있다. 생각씨 중 꾸밈씨는 매김씨, 어찌씨, 느낌씨가 있다. 이리하여 우리말의 씨갈래는 열 가지가 된다. (우리말본 141~211)

씨가지 씨의 으뜸조각이 되지 못하고, 그 가지 노릇을 한다는 뜻, 영어의 affix의 변짐이다. 씨가지는 임자씨, 풀이씨, 꾸밈씨의 이미 완성된 것에 붙기도 하며, 또 한씨가 되지 못한 씨뿌리에 붙기도 한다. 그리하여, 더러는 그 뜻이나 말가락(어조)을 바꾸게 하고, 더러는 그 감목(자격)을 바꾸게 한다. 씨가지는 다른 것의 앞에, 뒤에, 두씨의 사이에 붙는 위치에 따라 앞가지(전지), 뒷가지(후지), 속가지(중지)의 세 가지로 가른다. 씨가지는 그 구실(직책)을 따라 뜻더하는 것(가의적의 것), 말만드는 것(조어적의 것), 소리고루는 것(조음적의 것)의 세 가지로 가른다. 풀이씨의 씨뿌리(어근) 뒤에 붙는 씨가지 가운데에, 도움뿌리(보조어근)와 씨끝(어미)은 말만드는 것이고 도움줄기(보조어간)는 순연한 뜻 더하는 것이다. 씨끝은 말만드는 것인 동시에 또 말본스런 관계를 보이므로 우리말에서는 단순히 관계만 보이는 씨가지는 없다. (우리말본 657~661, 669~670)

씨갈 씨갈은 생각의 낱말의 조각들을 나타낸 낱말을 월의 구성재료로서 연구하는 분야이다. 여러 갈래의 낱말 곧 씨를 연구하는 씨갈은 곧 말본갈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조각이다. (우리말본 38~39)

씨끝 풀이씨 줄기의 뒤에 붙는 것을 ‘씨끝’이라 한다. 씨끝은 ‘맺음씨끝’과 ‘안맺음씨끝’으로 나뉘는데, 씨끝의 하위 분류는 다음과 같다. 맺음씨끝은 한기능법의 씨끝(마침법 씨끝, 이음법 씨끝)과 두기능법의 씨끝(이름법 씨끝, 매김법 씨끝)으로 나뉜다. 그리고 안맺음씨끝은 다섯 지로 나뉘는데, 높임법, 인칭법, 주체-대상법, 때매김법, 강조-영탄법이다. (우리옛말본 485)

씨끝 풀이씨의 끝이 그 쓰이는 본을 따라서 여러가지로 바꾸는 조각을 말한다. 씨끝은 그 씨의 말본스런 관계를 나타내는 형식적 의의를 대표하여, 동적 상태를 가지는 활용부분이다: 붉다, 붉게, 붉은, 붉음. (우리말본 163~164)

씨끝바꿈 풀이씨는 줄기와 씨끝으로 되는데, 한 줄기에 여러가지 씨끝이 붙어서 어형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씨끝바꿈(끝바꿈, 골곡, 활용)’이라 한다. (우리옛말본 410, 476)

씨몸바꿈 이미 다 이루어진 특수한 갈래의 씨가 다른 씨갈래(품사)로 그 몸을 바꾸는 것을 이른다. 몸바꿈의 법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1) 이미 이루어진 씨 또는 씨줄기(어간)가, 다른 아무것을 더하지 아니하고 그 본형 그대로, 그 쓰임의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씨로 몸바꿈하는 것. (2) 이미 이루어진 씨 또는 씨줄기에 씨가지를 더하여서 곧 꼴(형식)의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씨로 몸바꿈하는 것. (3) 이미 이루어진 씨 또는 씨줄기가 그 뜻의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씨로 몸바꿈하는 것. (우리말본 719~725)

씨바꿈 씨의 바꿈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씨가 그 몸을 바꾸어서 다른 갈래의 씨로 되는 것, 말의 씨가, 혹은 그 소리를 변함이 없이 으뜸꼴 그대로 혹은 그 소리를 변하여서 그 뜻을 여러가지로 바꾸는 씨의 뜻바꿈의 두 갈래로 나누어 풀이된다. (우리말본 719~737)

씨뿌리 어떤 낱말은 다시 쪼갤 수 있는 데 그 다시 쪼갠 조각 가운데 그 뿌리가 되는 으뜸·조각을 씨뿌리라 한다. 씨뿌리는 뜻과 구실을 가지기는 하지만 직접으로 월의 재료가 되지 못하고 다만 낱말의 만듬으로, 간접적으로 월의 재료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낱말의 한 조각일 뿐, 낱말로서 자격을 가지진 않는다. 씨뿌리는 ‘키다리, 한낫, 곧 얼음’의 ‘키, 낫, 얼음’은 제홀로 한 낱말로 될 만한 힘을 가진 것과 ‘날치, 대장, 한창’의 ‘치, 장, 창’처럼 제 홀로는 한 낱말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로써 씨뿌리의 두 가지로 가를 수 있다. (우리말본 148)

씨의 뜻바꿈 말의 씨가, 혹은 그 소리를 변함이 없이 으뜸꼴 그대로 혹은 그 소리를 변하여서, 그 뜻을 여러가지로 바꾸는 것을 씨의 뜻바꿈이라 한다. 씨의 뜻바꿈에는 그 법으로 보아 다음 네 가지의 다름이 있다. (1) 그대로 뜻바꿈, (2) 소리를 바꾼 뜻바꿈, (3) 씨가지를 더한 뜻바꿈, (4) 겹씨가 되어서 하는 뜻바꿈. (우리말본 725~732)

○

아마역 역의 한 갈래. 가상(假想)의 뜻을 나타내는 어찌씨(부사). <주시경-용어>

아주높임 (1) 대이름씨에 있어서는, 그 말로 가리키는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높임의 등분인데, ‘어르신,’ ‘당신’ 따위가 그것이다. (2) 풀이씨 마침법의 끝바꿈꼴에 있어서는, 말하는 사람을 아주(극히) 높여서 말하는, 다음과 같은 끝바꿈꼴을 말함이다. 배 품꼴: ‘갑니다, 비나이다, 붉습니다, 책입니다, (그것이) 아니옵니다’ 따위. 물음꼴: ‘갑니까?, 그러하옵니까?, (그런 것이) 아니옵니까?’ 따위. 시킴꼴: ‘가십시오, 받으십시오’ 따위. 꺾임꼴: ‘가십시다, 드십시다’ 따위. (우리말본 236, 262)

안가림만 겹의 한 갈래. 둘 또는 두 가지 넘어 되는 것 가운데서 가리지 않고 아무 것이나 취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토. 안가림임만과 안가림씀만이 있는데 안가림임만은 안가림만의 토(조사, 겹)가 임자말(주어)에 붙은 것이고, 안가림씀만은 안가림만의 토가 부림말(목적어)에 붙은 것이다. <주시경-용어>

안가림씀만 겹의 한 갈래. 안가림만의 하위분류. <주시경-용어>

안가림임만 겹의 한 갈래. 안가림만의 하위분류. <주시경-용어>

안긴마디 한 월이 마디가 되어 다른 월의 한 월성분으로 안긴 것을 ‘안긴마디’라 하는데, 안긴마디에는, 임자마디, 매김마디, 어찌마디, 풀이마디, 인용마디가 있다. (국어학 270)

안매는법 위 월이 아래 월에 이어지기는 하되, 위 월의 내용이 아래 월의 내용을 매거나 지배하지 않는다. 이를 매는법에 견주어 안매는법이라 한다. 이 월의 판단은 대체로 ‘긍정-부정’이 아니면, ‘부정-긍정’의 대립관계를 이룬다. 안매는 법은 씨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가정적 안매는법-씨끝: -더라도, -(으)르더라도, -어도, -(으)니들 양보적 안매는법-씨끝: -(으)르지만, -(으)르만. 사실적 안매는법-씨끝: -지마는, -어도, -(으)르만, -거니와, -건마는. 추정적 안매는법-씨끝: -(으)려니와, -(으)려만. (우리말형태론 416~420)

안맺음씨끝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움줄기’를 말함인데, 도움줄기는 씨끝의 한 가지로서 한 말도막(말마디, 어절)을 끝맺지 못하고 그 뒤에 씨끝(일반적으로 말하는 씨끝)이 와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안맺음씨끝이라 한다. 안맺음씨끝에는 주체높임의 ‘-으시-’, 때때김의 ‘-었-, -겠-, -더-, -으리-’와 들을이높임의 ‘-습-, -삼-’ 따위가 있다. (국어학 222, 239, 423)

안옹근이름씨 이름씨는 그 운용상 독립성의 있고 없음에 따라 ‘옹근이름씨’와 ‘안옹근이름씨’와의 두 가지로 나뉜다. 안옹근이름씨는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고, 항상 매김씨나, 풀이씨의 매김꼴이나, 또 매김씨 노릇을 하는 이름씨 뒤에 매이어 쓰이는 이름씨를 이름이니, 이를 또 ‘매인이름씨’라고 일컫는다. 안옹근이름씨는 그 뜻과 쓰임으로 보아 다음의 세 가지로 나뉜다. (1) 어찌씨 같은 안옹근이름씨: 앞의 말과 어울려 어찌씨 같이 쓰이는 것 (2) 여덟 안옹근이름씨: 이것은 그 쓰임이 옹근이름씨와 비슷하다. (3) 셈날덩이 안옹근이름씨: 셈을 나타내는 매김씨 뒤에 쓰이어서, 그 셈의 날덩이를 나타내는 안옹근이름씨이다. (우리말본 219~225)

안울림소리 허파의 공기가 울대를 지나 목안으로 나올 적에 목청이 좁혀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울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소리가 되지 아니하고 나오지만, 이것이 소리고루는 데의 고름을 받아 여러가지 소리가 되어 나온다. 이러한 소리를 안울림

소리(무성음, 청음) 또는 맑은소리라 한다. ‘ㄷ, ㄱ, ㅌ, ㅊ, ㅅ, ㅎ’ 같은 닿소리는 안울림소리 곧 맑은소리이다. ‘ㄱ, ㄷ, ㅂ, ㅈ’ 같은 소리들은 울림소리들 사이에 나타날 때를 제외하고는 안울림소리로 소리난다. ‘ㄱ, ㅌ, ㅊ, ㅈ’은 거센소리(격음)라 하여 보통의 맑은소리와 구별한다. 이는 중국에서는 옛적부터 차청이라 하며, 서양의 말소리 같에서는 이를 유기음(숨뚨소리)라 하여 예사의 맑은소리와 구별하고 있다. (우리말본 47~49)

안은겹월 안긴마디를 안은 겹월. 입자마디를 안음: [얼굴이 희기]가 눈과 같다. [그 꽃의 아름다움]이 미인의 얼굴과 같다. 매김마디를 안음: [보기 좋은] 떡은 먹기도 좋다. 어찌마디를 안음: [하느님이 온전하시듯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풀이마디를 안음: 코끼리는 [코가 길다.] 인용마디를 안음: 그는 [‘내가 가겠다.’] 하고 나섰다. (국어학 270)

안은마디 한 월이 마디가 되어 다른 월의 한 월성분으로 쓰여 한 겹월이 되는 현상을 ‘안음’이라 하고, 한 월성분으로 쓰인 마디를 ‘안긴마디’, 안긴마디를 월성분으로 가진 마디를 ‘안은마디’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겹월은 ‘안은겹월’이 된다: ‘나는 네가 나를 좋아함을 안다.’에 있어서, ‘네가 나를 좋아함’은 안긴마디인데 이 안긴마디를 부림말로 안고 있는 ‘나는 안다.’는 안은마디이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에 있어서는 ‘코가 길다’가 풀이마디인데, 이 마디를 풀이말로 안고 있는 마디는 바로 이 월 전체이다. (국어학 269~270)

안음 한 월이 마디가 되어 다른 월의 한 월성분으로 쓰여 한 겹월이 되는 현상을 ‘안음’이라 하는데, 한 월성분으로 쓰인 마디를 ‘안긴마디’라 하고, 안긴마디를 월성분으로 가지 마디를 ‘안은마디’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겹월은 ‘안은겹월’이 된다. (국어학 269~270)

앞가지 앞가지는, 이름씨, 움직씨, 그림씨, 어찌씨 앞에 붙어서 그 뜻을 더하는 씨가지이다. 앞가지는 다만 그 으뜸말에 어떠한 뜻을 더할 뿐, 그 말가락(어조)이나 그 감목(자격)을 바꾸는 것은 도무지 없다: <이름씨 앞에 붙는 앞가지> 한길, 대문, 한창, 한껏, 한데, 초하루, 갓마흔, 참말, 들국화, 맨손, 찰벼, 날고기, 푹곡식, 올벼, 군것, 햇것, 홀아비, 민머리, 맞담배질, 어명, 불리, 무정, 총과업, 몰락, 푹년, 달숙, 중무장, 허식, 반국가, 안열대 ... <풀이씨 앞에 붙는 앞가지> 애짱다, 올되다, 늦되다, 짓밟다, 천먹다, 돈보다, 알보다, 치받치다, 설쌌다, 엮든다, 알긋다, 새하얗다 <어찌씨 앞에 붙는 앞가지> 어찌씨 앞에 붙는 앞가지는 매우 드물다. (우리말본 661~670)

앞가지파생어 앞가지에 의한 파생어. 앞가지에는 입자씨에 붙어 입자씨를 만드는 것과 풀이씨에 붙어 풀이씨를 만드는 것이 있다: (1) 입자씨와 풀이씨에 덧붙는 것: 덧구두, 덧신다, 솟쳐녀, 솟되다, 헛간, 헛되다. (2) 입자씨에 붙는 것: 햇바지, 홀어미. (3) 풀이씨에 붙는 것: 짚긋기다, 신겨명다. (국어학 133~135)

약한소리 우리말의 터짐소리나 같이소리는 그 내는 힘에 따라 세 계열의 소리로 분화된다. /ㄱ, ㄷ, ㅂ, ㅈ, ㅅ/은 발음기관의 근육을 썩겨서 내는 소리이고, /ㅋ, ㅌ, ㅊ, ㅈ/은 그 내는 힘을 거세게 하여 내는 소리이나 이 두 계열의 소리를 ‘센소리’라 한다. 이에 비하면 /ㄱ, ㄷ, ㅂ, ㅈ, ㅅ/ 따위 소리는 그 근육을 썩기지 않고, 그 내는

- 힘을 거세게 하지도 않고, 근육이나 힘을 예사로 해서 내는 소리이다. 이러한 소리를 ‘약한소리’라 한다. (국어음운학 31)
- 어두운가지 어두운홀소리(ㄱ, ㄷ) 위에 쓰이는 도움줄기와 씨끝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어두운 도움줄기: ‘-었-, -였었-’, 어두운 씨끝: ‘-어, -어서, -어라, -어도’. (우리말본 173)
- 어두운도움줄기 앞 줄기의 끝날래가 어두운홀소리일 경우에 쓰이는 도움줄기로서, 밝은도움줄기와 짝을 이룬다. (우리말본 173)
- 어두운씨끝 앞 줄기의 끝날래가 어두운홀소리가 경우에 쓰이는 씨끝으로서, 밝은씨끝과 짝을 이룬다. (우리말본 173)
- 어두운홀소리 지금말의 홀소리어울림에서는 ‘ㄱ, ㄷ, 一, 丨’는 그것들끼리 잘 어울리는데, 이 홀소리들을 밝은홀소리 (ㅏ, ㅑ)에 대해 어두운홀소리라 한다: (1) 소리시늉말과 짓시늉말에서: 줄줄, 펄펄, 껌쩍껌쩍, 꿈쩍꿈쩍, 출렁출렁. (2) 도움줄기와 씨끝에서: 어두운도움줄기, 어두운씨끝). (우리말본 112~115, 173)
- 어림도움토 마음으로 어림함을 나타내는 도움토의 한 가지: 사람이 몇이나 왔습니까? 이 논 한 마지기에 몇 섬이나 나겠습니까? 돈을 얼마나 썼니? 아마 두 시나 되었겠다. (우리말본 644)
- 어찌꼴 풀이씨가, 그것이 놓여 있는 월의(임자말에 대한) 풀이말 노릇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오는 말에 대하여 어찌씨의 노릇을 하는 감목법의 한 끝바꿈꼴: ‘-어/아, -게, -지, -고’. (우리말본 281~285, 501~503, 568)
- 어찌마디 한 월이 어찌말의 자격을 가지고 다른 월 안에 안긴 것을 ‘어찌마디’라 한다. 어찌마디는 안긴마디의 한 가지이다. ‘옥과 같이 맑은 물’에 있어서 ‘옥과 같이’는 온전한 월인 ‘옥과 같다’가 그 끝의 씨끝을 바꾸어서 이 월 안에서 어찌말의 자격을 가지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 어찌마디이다. 어찌마디의 다른 예: 사람은 돈 없이도 살 수 있다.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진다. 풀잎은 먼지가 뽀얗게 나풀거린다. (국어학 274~275)
- 어찌말 풀이씨로 된 월조각의 뜻을 여러가지로 가늘게, 똑똑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앞에다가 어떠한 말을 더한 것을 어찌말이라고 한다. <어찌말의 갈래> 때곳어찌말, 모양어찌말, 정도어찌말, 말재어찌말, 연장어찌말, 견중어찌말, 함께어찌말, 바꾸임어찌말, 따옴어찌말, 셈술어찌말. 어찌말은 풀이씨로 된 월조각을 꾸미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매김말을 꾸미는 것도 있다: 매우 사나운 짐승이올시다. 단 한 푼도 없어. (우리말본 757~758, 774~783)
- 어찌법 속뜻으로는 앞의 말에 대하여 풀이말의 노릇을 하면서 겹구조로는 뒤에 오는 말에 대하여 어찌씨의 노릇을 하는 법을 어찌법이라 한다. 어찌법을 이루는 씨끝은 ‘-게, -듯이, -도록’ 따위이다. 어찌법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속뜻으로는 두 으뜸풀이씨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이중풀이씨 구조’(도움풀이씨 구조가 아닌)이다. ‘이중풀이씨 구조’에서 앞 풀이씨는 한편 월의 풀이말이 되면서 다른 한편 어찌꼴 씨끝으로 말미암아 겹구조로는 뒤풀이씨를 꾸미는 어찌씨 노릇을 하는 두기능법을 수행한다. (우리말형태론 463~474)

어찌씨 풀이씨 앞에서 그 뒤의 풀이씨가 어떠한(어찌) 드러남을 보이는 씨. ‘어떠하게(어찌) 하느냐(되느냐?)’하는 물음에 대해, 그 내용을 대답하는 말에 해당하는 씨이다: 그 사람이 매우 기뻐하네. 그 사람이 내일 오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자주 만나오. 그가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나날이 비가 와서 매우 귀찮다. 어찌씨는 그 뜻으로 보아, 때어찌씨, 곳어찌씨, 모양어찌씨, 정도어찌씨, 말재어찌씨, 이음어찌씨로 가른다. (우리말본 194, 587~604)

어찌씨같은 매인이름씨 전체구성을 한 가지 월성분으로만 가능하게 하는 매인이름씨는 어찌말매인이름씨와 위치말매인이름씨로 나뉜다: 물 톤 자히 건너시니이다(용가 34), 잇는듯 호더 아니흐며 다운듯 호더 다운디 아니흐 고디니(능엄 9:30), 文章이 짜홀 쓰룬드시 업도다(두언 24:58). (우리말본 296)

어찌씨스런이은말 여러 낱말이 모여서 한 겹진 뜻을 나타내되, 아직 온전한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되지 못한 것이 이은말인데, 그 가운데 어찌씨처럼 쓰이는 것: 나는 금강산에 가 보고서 천하의 기를 알았다. (우리말본 744~746)

어찌이은말 여러 낱말이 모여서 한 겹진 뜻을 나타내되, 아직 온전한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되지 못한 이은말 가운데, 어찌씨처럼 쓰이는 것: 나는 금강산에 가 보고서 천하의 기를 알았다. (우리말본 744~746)

어찌자리토 입자씨 뒤에 붙어서 그와 함께, 마치 어찌씨 모양으로, 풀이씨를 꾸미는 자리토의 한 갈래: 곳자리토, 연장자리토, 감목자리토, 견쭈자리토, 함께자리토, 바꾸 입자리토, 따옴자리토. (우리말본 619~632)

억 기의 하나. 풀이씨(용언)의 앞에서 그 뒤의 풀이씨가 어떠한(어찌) 들어남을 보이는 씨인 어찌씨(부사), 풀이씨의 어찌꼴(용언의 부사형), 입자씨에 어찌자리토가 붙은 말 등, 월에서 어찌말(부사어)로 쓰인 것 모두. <주시경-용어>

억드 듚난의 하나. 어찌월(부사절). <주시경-용어>

억본움 기(씨)몸박굼. 어찌씨(억)가 몸바꿈하여 움직씨(움)로 되는 방법이다. <주시경-용어>

언 기의 하나. 입자씨(체언)의 앞에서 그 입자씨가 어떠한 것이라고 매기는 매김씨(관형사, 풀이씨의 매김꼴(용언의 관형사형), ‘입자씨+의’를 비롯한, 월에서 매김말(관형어)로 쓰인 것 모두. <주시경-용어>

언드 듚난의 하나. 매김월(관형사절). <주시경-용어>

언붙이임 ‘붙이’는 입자말(임이), 부림말(씀이), 풀이말(남이)에 빛과 금이가 붙어서 복잡하게 꾸며진 조각을 말하는 것인데, ‘언붙이임’이란 항상 언기(매김씨) 뒤에 붙어 쓰이는 매인이름씨(의존명사)를 말한다. <주시경-용어>

없앰 한 형태소를 이루는 어느 한 소리가 그 놓이는 자리에 따라서 없어지는 변동 규칙의 한 가지로: /으/ 없애기, 고름소리 없애기, /어/ 없애기, /ㅣ/ (반홀소리) 없애기, /르/ 없애기, /스/ 없애기, /ㅎ/ 없애기, /(ㅎ)ㅏ/ 없애기, 짧은소리되기. (국어음운학 281~286)

엇 기의 하나. 일과 문의 성질과 모양과 존재의 어떠한(어찌)함을 그려내는 그림씨(형용사)의

즐기. <주시경-용어>

엇덤억 억의 한 갈래. 움직씨(움)과 그림씨(엇)의 모양이 어떠함을 말하는 어찌씨(억)의 한 갈래. <주시경-용어>

엇본억 기(씨)몸박굼. 그림씨(엇)가 몸바꿈하여 어찌씨(억)로 파생되는 방법. 그림씨의 어찌꼴을 어찌씨로 본 것이다. <주시경-용어>

엇본언 기(씨)몸박굼. 그림씨(엇)가 몸바꿈하여 매김씨(언)로 파생되는 방법. 그림씨의 매김꼴을 매김씨로 본 것이다. <주시경-용어>

엇억본움 기(씨)몸박굼. 그림씨(엇)가 몸바꿈하여 어찌씨(억)로 파생되었다가 다시 움직씨(움)로 파생되는 방법. <주시경-용어>

여늬안옹근이름씨 안옹근이름씨. (우리말본 219~225)

연결토씨 말과 말의 관계를 맺어 주기는 하나, 그 말의, 월성분으로서의 일정한 자리(격)를 표시해 주는 일이 없이, 단순히 같은 기능을 가진 두 말을 연결해 주기만 하는 토씨. 연결토씨에는, 낱말과 낱말을 연결해 주는 ‘낱말연결토씨’와, 월이나 마디를 서로 연결해 주는 ‘마디연결토씨’가 있다. (우리말본 360~366)

연유잇 잇의 한 갈래. 풀이씨가 풀이말이 되어서 그 말을 끝맺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을 잇게 하여 그 잇는 말의 까닭을 들어내는 잇. <주시경-용어>

연장어찌말 풀이말의 내용이 드러남에 있어서 ‘거리, 방편, 이유’ 따위를 나타내는 어찌말의 한 갈래인데, 임자씨에 연장(어찌)자리토를 더하여 만든다. <움직임의 거리> 책상은 나무로 만든다. <움직임의 수> 나무는 대패로 깎소. <움직임의 까닭> 이 선생은 오늘 병으로 결근했다. (우리말본 779~780)

연장자리토 임자씨 뒤에 붙어서, 그것이 움직임의 연장이 되는 것임을 보이는 ‘어찌자리토’의 한 갈래: 붓으로(씨) 글씨를 쓴다.(연장) 짚으로(씨) 지붕을 인다.(감) 병은 약으로(씨) 못 온답니다.(까닭) 도끼로(씨) 찍어 내어서, 칼로(씨) 다듬는다. 그애가 감기로(씨) 못 왔습니다.(까닭) (우리말본 625~626)

연행잇 잇의 한 갈래. 둘로 둘 더 되는 움직임을 차례로 이어서 행함을 나타내는 잇기로, 한 일과 다른 일으로 잇. <주시경-용어>

엇본임 기(씨)몸박굼. 그림씨(엇)가 몸바꿈하여 임자씨로 파생되는 방법. 풀이씨의 이름꼴을 임기 즉 임자씨가 된 것으로 본 것이다. <주시경-용어>

오름겹홀소리 한 소리마디(음절)는 성절음 하나를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비성절음이 모여 이루어지는 소리의 한 날덩이인데, 비성절음은 없을 수도 있다. 겹홀소리는, 막음이 없는 방법으로 내는 홀소리가 한 소리마디 안에 둘 이상이 있는 것을 말함인데, 그중의 하나는 성절음이 되고, 다른 소리(들)는 비성절음, 곧 반홀소리가 된다. 지금 우리말에는 한 소리마디 안에 반홀소리와, 성절음인 홀홀소리가 이어나는 두겹홀소리 뿐인데, 이것은 모두 비성절음인 반홀소리가 성절음에 앞선다. 이러한 겹홀소리를 ‘오름겹홀소리’라 한다. /야, 여, 요, 유, 애, 예/나 /와, 위, 왜, 웨, 위, 의/ 따위 겹홀소리들은 모두 오름두겹홀소리이다. (국어음운학 140, 221)

오므림상관 한 언어 안에, 한 가지의 소리바탕의 있음-없음으로 분화(대립)되는 두

음소의 대립을 ‘유무대립’이라 하고, 이러한 두 음소의 짝이 둘 이상 있을 때에, 이 두 음소의 대립을 ‘비례대립’이라 한다. 유무대립인 동시에 비례대립인 두 음소의 짝을 ‘상관쌍’이라 하고, 상관쌍의 두 음소를 분화하는 소리바탕을 ‘표지’라 한다. 한 가지 표지를 가진 상관쌍은 반드시 둘 이상 있는 법인데, 이 둘 이상의 상관쌍의 체계를 ‘상관’이라 한다. ‘훈민정음 해례’의, 15세기 우리말의 음소 체계를 풀이한 것을 보면, ‘/오/는 /으/와 같되 입을 오므리고, /우/는 /으/와 같되 입을 오므린다.’란 말이 있다. 곧 /오/는 /으/에 입 오므림을 더한 소리이고, /우/는 /으/에 입 오므림을 더한 소리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풀이대로라면, /으/와 /오/는 유무대립이고, 이와 똑같은 표지(입오므림)를 가진 유무대립이 /으/와 /우/ 사이에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소리들의 짝은 모두 ‘상관쌍’이 되고, 따라서 이 두 상관쌍의 체계는 ‘상관’이 되는데, 그 이름은 ‘오므림상관’이다. (국어음운학 407, 411)

올때 낫기와 잇기의 때, 미래. <주시경-용어>

옹근이름씨 이름씨는 그 운용상 독립성의 있고 없음에 따라 옹근이름씨와 안옹근이름씨로 나뉜다. 옹근이름씨는 완전한 독립성을 가져 제홀로 입자말이 될 수 있는 이름씨를 이름이니, 이름씨의 대부분은 여기에 속한다. (우리말본 219)

완전닿음 한 소리가 다른 소리를 닮되, 그 소리와 완전히 같아지는 닿음의 한 가지로서 ‘부분닿음’과 대립된다. 옛말의 ‘깃브-, 깃겨-, 곳고리, 덩갈나모’ 따위 말의 첫소리마디 끝의 /ㅅ, ㅂ/은 닿음소리로 내고, 둘째 소리마디의 첫 /ㅂ, ㄱ/은 터뜨림소리로 내는 것이 우리말의 버릇이다. 그런데 닿음소리는 터뜨림소리에 비해서 그 청각에 이르는 힘이 약하다. 그러므로 /ㅅ+ㅂ, ㅅ+ㄱ, ㅂ+ㄱ/과 같은 결합에 있어서는 앞 소리가 뒤 소리를 닮아서 ‘기쁘-, 기껴, 피꼬리, 떡갈나무’가 된 것이다. 이것은 앞 소리가 뒤 소리를 닮아 완전히 같아진 것이므로 ‘완전닿음’이다. (국어음운학 516, 524)

울림소리 허파의 공기가 울대를 지나 목 안으로 나올 적에 좁혀진 팽팽한 목청을 떨어 울려서 나는 소리가 울림(성)인데, 울림을 띤 소리를 울림소리(유성음, 탁음)이라 한다. 울림소리는 소리고루는 데의 고름을 받아서 다시 여러가지로 갈라진다. 보기를 들면, 모든 홀소리(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따위)와 ‘ㅇ, ㄴ, ㄹ, ㄷ’ 같은 닿소리(자음)는 울림소리, 곧 흐린소리이다. 또 ‘ㄱ, ㄷ, ㅂ, ㅈ’ 같은 닿소리는 앞에서 든 울림소리와 홀소리의 사이에 올 때는 울림소리로 되어 나온다. (우리말본 46~47)

울림소리되기 한 음소의 으뜸변이음이 안울림소리일 경우에 이것이 특별한 소리의 환경에서 울림소리로 규칙적으로 바뀔 때에 이 규칙을 ‘울림소리되기’라 하는데, 이것은 음운규칙의 한 가지이다. 우리말의 /ㄱ, ㄷ, ㅂ, ㅈ/ 음소는 몇 가지 변이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의 안울림소리인 [k], [t], [p], [tʃ]가 으뜸변이음이 된다. 그런데 이 음소들이 울림소리 사이에 놓이게 되면, 울림소리인 [g], [d], [b], [dʒ]로 바뀐다. 이것이 울림소리되기이다. 다음은 울림소리된 소리의 보기이다: ‘감기’의 둘째 소리마디의 /ㄱ/, ‘홍도’의 둘째 소리마디의 /ㄷ/, ‘뽕비다’의 둘째 소리마디의 /ㅂ/, ‘진지’의 둘째 소리마디의 /ㅈ/. (국어음운학 206)

움 기(씨)의 하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움직씨의 줄기. <주시경-용어>

움몬금 것의 한 갈래. 움직임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에 붙는 토로, 어찌자 리토씨(부사격조사)의 하위분류인 곳자리토씨(처소격조사)에 해당한다. <주시경-용어>

움본억 기(씨)몸바꿈. 움직씨(움)가 몸바꿈하여 어찌씨(억)로 파생되는 방법. 움직씨의 어찌꼴을 어찌씨(억)로 본 것이다. <주시경-용어>

움본언 기(씨)몸바꿈. 움직씨(움)가 몸바꿈하여 매김씨(언)로 파생되는 방법. 움직씨의 매김꼴을 매김씨로 본 것이다. <주시경-용어>

움본임 기(씨)몸바꿈. 움직씨(움)가 몸바꿈하여 입자씨(임)로 파생되는 방법. <주시경-용어>

움죽임언 언의 한 갈래. <주시경-용어>

움직씨 움직씨는 풀이씨의 한 갈래인데, 그 큰 특질은 다음 세 가지이다. (1) 우리 생각을 말로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 기본 골격이 되는 말의 짜임새는 다음 세 가지이다.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 이 짜임새에서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의 자리가 ‘풀이자리’이고, 이 풀이자리에 올 수 있는 말을 ‘풀이말’이라 하는데, 움직씨는 ‘어찌한다’의 자리를 차지하는 말이다. (2) 풀이씨(움직씨, 그림씨, 잡음씨)는 모두 ‘씨끝바꿈’을 하는데, 움직씨는 그림씨, 잡음씨와는 다른 독특한 방법으로 씨끝바꿈을 한다. (3) 움직씨는 어떤 일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움직씨는 풀이씨의 한 가지로서 풀이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같은 풀이씨의 한 가지인 그림씨나 잡음씨와는 다른 움직씨만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말본 182, 187, 253-)

월 월갈에서 말하는 ‘월’이란 것은 한 통일된 말로 드러낸 것이니, 뜻으로나 꼴로나 온전히 다른 것과 따로선 것이다. 곧 월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1) 적어도 한낱의 통일과 (2) 따로섬이다. (1) 통일: 월은 얼마간의 낱말이 모여서 된 것인데, 그 낱말들이 하나의 월이 되려면, 반드시 그 속에 통일된 생각이 들어 있어야 한다. 원래 생각함의 본질은 여러가지 낱말의 생각을 어떠한 한 점에다가 통일함에 있는 것이니, 한 생각에는 한 통일작용이 필요하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작용을 통각작용이라 한다. 이 통각작용으로 말미암아, 통일된 생각이 말이란 꼴을 빌어 나타난 것이 곧 월이다. (2) 월은 다른 것과는 따로 서어야 한다. 비록 생각의 하나됨은 있을지라도, 만약 이 따로섬이 없을 것 같으면, 그것은 완전한 월이 되지 못한다. 이 따로섬을 얻으려면, 그 말이 끝나야 하되 다만 한 번만 끝나야 한다. ‘네가 가면, / 나도 가겠다.’의 / 표 앞 쪽이 월이 되려면, ‘네가 간다.’와 같이 끝나야 한다. (우리말본 731~736)

월갈 월갈은 월에 관한 여러가지의 말본을 연구하는 부문이니, 낱말을 거리로 삼아서 생각으로 나타내는 법을 닦는 것이 그 주장되는 할 일이다. 월갈은 낱말(더 정확하개는 ‘월조각’)을 거리로 하여 그것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하나의 통일되고 따로선 월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우리말본 731~737)

월성분 통어적 구성에 있어서의 각 성분을, 월 안에서 차지하는 그 기능(구실)로 보았을 때, 이것을 ‘월성분’이라 한다. 월의 중심이 되는 성분은 풀이말인데, 주로 풀이씨(움직씨, 그림씨 따위)가 풀이말의 노릇을 한다: 널굽히 너무 오라다(월석 7:2) 너희 들히 ... 부텃 마를 바다 디니라(월석 13:62). 이 풀이말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성분이 이에 딸려서 월이나 마디를 만든다. 입자말(주어), 부림말(목적어), 위치말(위치어), 견중말(대비어), 방편말(방편어), 인용말(인용어). 그 밖의 매김말(관형어), 홀로말(독립어) (우리옛말본 42~44)

월조각 월은, 그 구실로 보아서, 몇 조각으로 나눌 수 있으니, 그 나뉜 조각을 ‘월의 짝 조각’ 혹은 ‘월의 조각’(월조각)이라 한다. 월조각은, 그 쓰임과 중요성의 다름을 따라, ‘으뜸조각’, ‘딸림조각’, ‘홀로조각’의 세 가지로 크게 가르고, 이것을 다시 세분하여, ‘입자말’, ‘풀이말’, ‘부림말’, ‘기움말’, ‘꾸밈말’, ‘홀로말’의 여섯 가지로 한다. 이 여섯 조각 가운데, 입자말, 풀이말, 부림말, 기움말의 네 가지는 으뜸조각이 되고, 꾸밈말은 딸림조각이 되고, 홀로말은 홀로조각이 된다. (우리말본 767~768)

위치말 월성분(월조각)의 한 가지. 시간이나 공간에 있어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원칙인데, 때로는 원인, 방향 따위를 나타내는 일도 있다. 위치자리토를 붙이는 것이 그 보람이다: 네 시에 우리 학교에 간다. 부산서 왔다. 그의 아우에게 주어라. 선생님께 올린다. 내년 이월까지에는 일을 다 마쳐야지. 피곤에 쓰러졌다. 그 집은 작년 폭풍에 무너졌다. (국어학 255)

위치말매인이름씨 전체구성을 한 가지 월성분으로만 기능하게 하는 매인이름씨의 하나. 전체구성을 위치말로만 기능하게 하는 매인이름씨이다: 이어기, 더에, 그에, 게. (우리옛말본 297~300)

위치자리토 ‘-(에)서, -에게, -한테, -께, -더러’ 따위 토씨는 모두 시간과 공간 상의 위치(곳, 쪽, 때, 행동의 상대 따위)를 나타내는 ‘위치말’을 만들기 때문에 ‘위치자리토’라 한다. (국어학 200~201)

위치자리토씨 위치말을 표시해 주는 토씨. (우리옛말본 343~348)

으뜸꼴 풀이씨의 여러 끝바꿈꼴 가운데 줄기에 씨끝 ‘-다’를 붙인 꼴을 으뜸꼴이라 한다. 으뜸꼴은 모든 끝바꿈꼴의 대표가 되어 사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으뜸꼴만이 실리게 된다: ‘가-다, 오-다, 주-다, 먹-다, 막-다, 받-다, 얻-다, 꽃-다, 쫓-다, 훔-다, 훔-다, 갚-다, 좋-다, 아름답-다, 따뜻하-다, 길-다, 짧-다, 있-다, 없-다, 많-다, 적-다, 크-다, 작-다, 아-다, 이-다’. (우리말본 165, 171, 516)

으뜸때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때를 가리키는 ‘이적(현재)’과, 말하고 있는 그때보다 앞선-지난 때를 가리키는 ‘지난적(과거)’과, 말하고 있는 때보다 뒤에 올 때를 가리키는 ‘울적(미래)’은, 때를 나타내는 말본의 방법인 때매김의 으뜸이 되는 것이므로, 이 세 가지 때매김 방법을 ‘으뜸때’라 한다. 이에는 바로때매김과 도로생각때매김이 겹쳐진다. (우리말본 457~458, 472, 542, 546, 570, 571~572)

으뜸마디 마디가 씨와 마찬가지로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월의 한 조각을 이룬 것을 그 속에 가진 월을 ‘가진월’이라 한다. 이때에, 그 씨처럼 쓰인 마디를 ‘딸림마디’라 하며, 그 딸림마디를 가진 마디를 ‘으뜸마디’라 한다: (1) 그 사람이, [낮이 뜨뜻하게] 그런 소리를 했어요. (2) [향기가 좋은] 꽃이 만발하였다. (3) [달이 밝기]가 낮과 같다. (4) 그 청년이 [마음이 착하다.] 위의 (1)은 어찌마디를 가진 가진월인데, [낮이 뜨뜻하게]는 어찌마디이고, ‘그 사람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는 으뜸마디이다. (2)의 [향기가 좋은]은 매김마디이고, ‘꽃이 만발하였다’는 으뜸마디이다. (3)의 [달이 밝기]는 이름마

디이고, 그것을 입자말로 한 ‘[입자말]가 낮과 같다’는 으뜸마디이다. (4)의 [마음이 착하다]는 풀이마디이고, 그것을 풀이말로 한 ‘그 청년이 [풀이말]’은 으뜸마디이다. 어찌마디, 매김마디, 이름마디, 풀이마디는 모두 딸린마디이다. (우리말본 829~832)

으뜸변이음 한 음소에는 몇 가지의 변이음이 있는데, 그중에 변이음이 대표로 뽑히게 된다. 그것은 한 형태소의 여러 변이형태들 중에서 한 기본형태(대표형태)를 뽑는 것과 같다. 이 대표로 뽑히게 된 변이음을 ‘으뜸변이음’이라 하는데, 으뜸변이음을 뽑는 방법은 반드시 일정해 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워 두는 것이 편리하다: (1) 배치의 제한을 되도록이면 적게 받은 소리일 것. (2) 음성적 환경의 영향을 안 입었거나, 되도록이면 적게 입은 편으로 정할 것. (3) 이러한 조건이 적용되기 어려울 때는 임의로 어느 한 편을 대표로 뽑아 두는 수 밖에 없다. 한 음소는 여러 변이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음소를 적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여러 변이음을 다 적기는 어려우므로, 이 으뜸변이음 하나만을 적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 있다. 한 음소의 으뜸변이음 밖의 다른 변이음은 ‘버금변이음’이라 한다. (국어음운학 159~160, 253, 383)

으뜸성분 월성분 중 필수적인 성분을 으뜸성분이라 하며 풀이말은 으뜸성분이 된다. 월성분은 월의 으뜸성분인 풀이말에 이끌리는 걸림관계로 파악된다. 월의 짜임에서 풀이말을 으뜸성분으로 보는 이유는, 풀이말은 다른 것에 비하여 여간해서 생략되는 일이 없고, 월이 짜여진 계층구조에서 풀이말은 거의 필수적 성분이기 때문이다. 이 풀이말은 구조에서 지배소로서의 상위적 으뜸소가 되면서 다른 딸림소를 버금소로 이끄는 자리에 있게 된다. 물론 버금소는 또한 다른 요소를 이끌 수도 있다. ‘나의 친구가 말한다.’에서 버금소 ‘친구가’는 ‘나의’를 이끌면서 또한 으뜸성분인 ‘말한다’에 이끌린다. 으뜸성분에 직접 이끌리는 버금소 ‘친구가’는 월성분 입자말이 된다. 월의 계층적 구조에서 풀이말은 ‘중심적 마디점’(절점)이 되며 이 중심적 마디점은 월의 으뜸지배성분임을 뜻한다. (우리말형태론 319~320)

으뜸셈씨 일문의 날의 셈을 나타내는 으뜸이 되는 셈씨. 이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1) 잡힌 셈: 얼마라고 그 셈을 꼭 박아 보이는 셈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 일, 이, 삼, 사, 오 (2) 안잡힌 셈: 얼마라고 꼭 박아 나타내지 아니하고, 대강을 아람하거나 모르는 것을 묻는 경우에 쓰는 셈씨. 한둘, 두셋, 서넛, 너덧, 너더댓, 예닐곱 : 여남은, 여럿, 다, 모두, 다수, 소수, 전수, 반수, 얼마, 몇. (우리말본 250~251)

으뜸씨 낱말을 그 꼴과 구실과 뜻으로 갈라놓은 것을 ‘씨갈래(품사)’라 하는데, 씨갈래는 크게 ‘생각씨’와 ‘걸림씨’로 나뉘고, 생각씨는 다시 ‘으뜸씨’와 그것을 꾸미는 ‘꾸밈씨’로 나뉜다. 으뜸씨는 말을 이루는 으뜸이 되는 낱말의 한 동아리를 이름이니, 이것은 다시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와 같은 ‘입자씨’와, 움직씨, 그림씨, 잡음씨와 같은 ‘풀이씨’로 나뉜다. (우리말본 155~157)

으뜸움직씨 도움움직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능히 제 홀로 월의 풀이말이 될 수 있는 움직씨: ‘새가 난다. 범을 잡는다. 흐르는 강물을 막는다. 비행기가 떴다.’에서 ‘난다, 잡는다, 막는다, 떴다’ 따위는 다른 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그 말만으로 이 월들의 풀이말의 구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씨를 으뜸움직씨라 한다. 이에 대

해서 그 홀로서는 풀이말이 될 수 없는 움직씨를 도움움직씨라 한다. (우리말본 391, 526)

으뜸조각 월을 이루는 조각(월조각)은, 그 쓰임과 중요성의 다름을 따라, ‘으뜸조각’, ‘딸림조각’, ‘홀로조각’으로 나뉘는데, 으뜸조각이란, 말을 이루는 가장 으뜸되는 조각이란 뜻이다. 으뜸조각은 다시 ‘임자말’, ‘풀이말’, ‘부림말’, ‘기움말’의 네 가지로 나뉜다. 딸림조각은 으뜸조각을 꾸미는 ‘꾸밈말’로 되는데, 이것은 다시 ‘어찌말’과 ‘매김말’로 나뉜다. 홀로조각은 ‘홀로말’로 되는데, 이것은 다시 나뉘지 않는다. (우리말본 747~748)

으뜸풀이씨 풀이씨는 그 움직임이나 모양이나 바뀌말함(환원)의 뜻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움직임: 아드를 나흐며(월석 2:33) 모야이 둑 비치 곱도다(두연 20:8) 바뀌말함: 幻은 꼭되라(능엄 2:7) 이와 같이, 움직임, 모양, 바뀌말함의 뜻이 뚜렷해서, 단독으로 풀이말이 될 수 있는 풀이씨를 ‘으뜸풀이씨’라 한다. (우리말본 417)

웃뜸몸 원체부, 줄기결. <주시경-용어>

웃뜸소리 홀소리, 모음(母音). <주시경-용어>

이 임이(주어), 씬이(목적어), 남이(서술어, 설명어) 등에 쓰이는 문장성분을 가리키는 어(語). <주시경-용어>

이때 낫기와 잇기의 현재시제. <주시경-용어>

이때맞음=맞아잇음 현재완료. <주시경-용어>

이름 낫기의 한 갈래. 배품꼴에 해당한다. <주시경-용어>

이름꼴 풀이씨의 감목법의 끝바꿈꼴의 한가지로서, 그 앞의 말에 대해서는 풀이말의 노릇을 하면서, 그 뒤의 말에 대해서는 이름씨 노릇을 한다. 이름꼴의 씨끝에는 ‘-음’과 ‘-기’가 있는데, ‘-음’의 ‘으’는 홀소리와 ㄹ 다음에서는 줄어진다: ‘-음’: (움직임 그것을 관념적으로 가리키는 이름꼴) <움직씨> 누워 잠은 좋지마는, 얕아 얕은 나쁘다. <그림씨> 그 아이 얼굴의 붉음이 앵두와 같다. <잡음씨> 나는 농부잇을 자랑한다. ‘-기’: (나아감 또는 그리되기를 보이거나 정도를 보임) <움직씨> 귀신의 귀에는 떡소리 하기가 무섭다.(나아감) <그림씨> 날씨가 따뜻하기를 기다려서 씨를 뿌린다.(그리되기) 희기가 눈과 같다.(정도) <잡음씨> 먹는 것마다 꿀맛이기를 바라느냐?(그리되기). (우리말본 287~290, 495, 559)

이름법 맺음씨끝의 굴곡범주 중 두기능법의 하나. 속구조에서는 앞의 월성분을 통솔하여 풀이말로 기능하면서, 겉구조에서는 임자씨처럼 여러가지 문장성분으로 기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우리말본 627~638)

이름씨 이름씨는 임자씨의 한 가지이므로 임자씨가 가지고 있는 특질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름씨 특유의 특질을 아울러 가진다: (1) 이름씨는 말본상의 뜻에 따라 그 자체의 꼴을 바꾸는 일이 없다. 이름씨는 그 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의 여러가지 성분이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꼴을 바꾸는 일이 있지만, 말본상의 뜻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은 다만 그 뒤에 따르는 말의 소리의 특질에 따라 자동적으로 바뀌는 형태소의 변동이다. (2) 이름씨(일반적으로 임자씨)가 여러가지 월

성분으로 기능하려면, 앞에 보인 바와 같이 단독으로도 가능한 일이지만, 원칙적으로는 토씨의 의지를 받아야 한다. (3) 이름씨는 그 뜻으로 보면, 일정한 바탕을 가진 것이 특색이니, 일정한 말은 일정한 종류의 사물에만 들어맞고, 다른 사물에는 들어맞지 못한다. 이것이 끝임자씨인 대이름씨나 셈씨와 다른 점이다. (우리말본 158, 212, 723)

이봉소리되기 이봉소리되기라는 것은 닿소리가 홀소리 ㄱ의 열(영향)을 입어, 그를 닮아서, 그 본디 나는 자리를 버리고, ㄱ의 나는 자리 곧 앞이봉(전구개)에서 나는 것을 일컫는다. 이를테면 /다, 더, 도, 듀, 디/가 /자, 저, 조, 주, 지/로 바뀌고, /타, 터, 토, 튜, 티/가 /차, 처, 초, 추, 치/로 바뀌며, /nja/(냐), /nja/(녀), /njo/(뇨), /nyu/(뉴), /ni/(니)가 [na], [no], [nu], [ni]로 바뀌는 것을 들 수 있다. 드물긴 하지만 /기/ /키/가 /이/를 닮아서 /지/, /치/로 바뀌는 것도 이봉소리되기엔 넣을 수 있다. /가룩하다/→[자룩하다], /결리다/→[절리다], /교군/→[조군], /길/→[질], /기름/→[지름], /키/→[치]. (우리말본 118~119)

이은말 여러 낱말이 모여서 한 겹진 뜻을 나타내되, 아직 온전한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되지 못한 것, 곧 월은 물론이요, 아직 마디도 되지 못한 것. 이은말은 둘 이상의 낱말이 모였으되 한 낱말로 굳어진 겹씨가 된 것은 아니다. 곧 이은말은 겹씨와 마디의 중간에 있는 낱말의 결합체이다. 이은말은 말본상의 성질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나뉜다: (1) 임자이은말(체언연어): 임자씨와 같이 쓰이는 것. 자유를 사랑함은 사람의 본질이다. (2) 풀이이은말(용언연어): 풀이씨처럼 쓰이는 것. 그가 그 일을 잊어 버렸다. (3) 매김이은말(관형연어): 매김씨처럼 쓰이는 것.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4) 어찌이은말(부사연어): 어찌씨처럼 쓰이는 것. 나는 금강산에 가 보고서 천하의 기를 알았다. (우리말본 744~746)

이은소리 낱말의 소리가 서로 이어져서 말을 이룬 것을 이은소리라 한다. 이은소리에는 특별한 네 가지 일함(작용)이 있으니, 곧 ‘동안, 힘, 가락, 달라짐’이 그것이다. (우리말본 94)

이은월 원래 뜻으로 보아 같은 값어치를 가진 두 마디가 형식으로 잇기어 한 덩이가 되어서 더 큰 덩이의 생각을 나타낸 월. 그런데 이은월의 앞마디 풀이말은 벌림꼴 외의, 이음법의 여러 활용꼴들로 된다. 앞마디의 꼴에 따라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놓는꼴> 봄은 되었으나, 꽃은 피지 아니하였다. <매는꼴> 봄이 오면, 꽃이 핀다. <풀이꼴> 비가 오는데, 당신은 어디로 가시오? <잇달음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견춤꼴> 새도 양육의 은혜를 알거든,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모를소냐? <더보탬꼴> 비가 올뿐더러, 바람조차 분다. <더해감꼴> 비가 올수록, 보리가 잘 자라오. <미침꼴> 밤이 새도록, 나는 공부를 했다. <그침꼴> 비가 오다가, 눈이 온다. (우리말본 835~846)

이음법 맺음씨끝의 굴곡범주 중 한 기능법의 하나. 월을 끝맺지 않고 뒤에 다시 다른말을 이어가는 활용형의 한 가지이다. 이음법은 이음법의 맺음씨끝으로써 표시된다. 마침법은 들을이에 대한 말할이의 의향을 나타내는데, 이음법은 주로 앞 뒤 말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그 관계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 씨끝들은

매우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고, 한 씨끝의 용법은 다의적이어서, 이것을 몇 가지의 한정된 범주로 제한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여러 활용법들 사이의 구별은 그리 엄격하지 않으며, 그리고 용법이 서로 겹쳐지는 일도 있다. (우리옛말본 521)

이음법 풀이씨의 끝바꿈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마침법, 감목법, 이음법이 그것인데, 이음법으로 된 마디에는 그 뒤에 다시 다른 마디가 이어 나오게 된다. 이것이 마침법, 감목법과 다른 특색이다. 이음법의 끝바꿈꼴은, 뒷마디와 이어지는 그 통어적 연결관계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뉜다. (우리말본 290~323, 504~513, 550~566)

이음새 우리말의 ‘예수가마귀를쫓는다’는 두 뜻으로 이해된다. 하나는 ‘예수가 마귀를 쫓는다’(1)이고, 하나는 ‘예수 가마귀를 쫓는다’(2)이다. 이 두 가지 말은, 글로 쓸 때에만 위와 같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할 때에도 역시 구별된다. 말을 떠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그 앞 소리를 약간 길게 끌게 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한 말의 여러 음소들은 어떤 때는 긴밀히 이어지고, 어떤 때는 약간 길게 끌어서 말을 띄는 데가 있어서, 그 이어짐의 긴밀도가 똑 같지 않은데, 이와 같은 음소의 이어지는 모습을 이음새라 한다. 이음새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예수’에서처럼, 각 음소가 사이를 띄지 않고 이어져 있는 것을 긴밀이음새라 하고, ‘예수가 마귀를’에서처럼, 사이가 띄어진 연결은 개방이음새라 한다. 말의 줄에서 개방이음새를 두는 자리는, 때로는 말의 뜻을 분화하는 중요한 구실을 하기 때문에, 음소의 자격을 주는 일도 있다. (국어음운학 118~119, 242~243)

이음씨 홀로씨의 하나. 말을 시작하거나, 앞의 말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뒤의 말을 비롯하는 구실을 하여, 홀로말이 되는 낱말을 이음씨라 한다: 聲聞이 히미 비록 몬 미츠나 그러나 信으로 드로플 許호실씨(법화 2:159). 이 數에 더으디 아니홀달 엇데 알리오 그러면 니르산 아롬 어려우미 佛智의 어려우미 아니라(법화 3:165). 信力 쓰르미라 호시나 그럴씨 모로매 信機를 굴히야(법화: 2:160). 惑障을 그쳐 다오샤샤 智 現前타 호시니 그런드로 大道入 機應호셔미 이 굴호시니(법화 3:92). 일로 現前에 나와 北丘僧과 供養호미 드와리니 이런드로 내닐오디(법화 5:202~203). (우리옛말본 983~984)

이음어찌씨 앞에 간 말(대개는 월)을 이어서 그 뒤에 오는 말을 꾸미는 어찌씨의 한 가지. 이음어찌씨는 그 쓰임을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1) 앞뒤 말을 이음: 밋, 또는, 곧 (2) 월의 첫머리에서 그 앞 월의 뜻을 이어서 다음 월을 일으키는 것: 그러나, 또, 그러니, 그뿐아니라, 더구나, 하물며(별립), 그러니, 그러매, 그러므로, 그런즉, 한즉, 그러니까, 하니까, 그런고로, 따라(이유, 원인), 그러면, 그렇거든, 그래야만(조건), 그렇지마는, 하지마는, 하나, 하나마, 그러나, 그러하되, 하되, 그러할지라도, 그럴지라도(안매임). (우리말본 601~604)

이음토씨 임자씨와 임자씨를 이어서, 그것이 한 덩이가 되어 한 낱의 월조각이 됨을 보이는 것과, 또 풀이씨 뒤에 쓰이어서, 월과 월을 이어, 한 겹월이 되게 하는 토씨를 ‘이음토씨’라 하는데, 앞의 것을 ‘낱말이음토씨’, 뒤의 것을 ‘월이음토씨’라 한다. (1) 낱말이음토씨: ‘-과/와, -이고/고, -이며/며, -(이)랑, -하고, -하며, -에’ (2) 월이음토씨 ‘-마는’: 배품꼴, 물음꼴, 시킴꼴, 꺾임꼴 뒤에 두루 쓰인다. (우리말본 647~650)

이중풀이씨구조 한 월에서 이어 나오는 두 개의 풀이씨가 각각 독립된 으뜸풀이로

된 이은말 구조로 인정될 때, 이 두 으뜸폴이씨를 가진 월을 이중폴이씨구조라 한다. 이중폴이씨구조는 합성폴이씨 구조 및 도움폴이씨 구조와 함께 걸구조로는 모두 같은 두 개의 폴이씨가 이어진 형식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의 변별 기준이 문제가 된다. 이중폴이씨구조의 식별: (1) 두 폴이씨 사이에 ‘늘리기’가 자유스러우며, 특히 두 폴이씨를 갈라놓는 ‘-서’ 늘리기도 가능하다. (2) 두 폴이씨가 각각 임자말을 이끈다. (3) 두 폴이씨는 각각 고유의 뜻을 가진다. (4) 두 폴이씨의 구조는 이은말을 이루는 통어 구조이다. 이중폴이씨구조에 견주어, 합성폴이씨 구조는 두 폴이씨를 갈라놓는 ‘-서’ 늘리기가 불가능하고, 두 폴이씨가 각각 독립하여 임자말을 이끌지 못하며, 다만 두 폴이씨가 합성된 한 날덩이의 폴이씨가 되어 임자말을 이끈다. 또한 두 폴이씨의 말의 차례를 바꿀 수 없다. 이러한 합성폴이씨구조는 형태적 구조이다. (우리말형태론 670~678)

인용마디 남의 말을 전달하는 데 쓰이는 안긴마디의 한 가지.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이 있다. 직접인용마디: 남이 말한 것을 그대로 옮겨 남에게 전달하는 안긴마디이다. ‘나는 모른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가겠소.’라고 분명히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내일은 반드시 떠나야 한다.’라고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간접인용마디: 남의 말을 말할이가 자기말로 다듬어서 전달하는 안긴마디이다. 그이가 오라고 하기에 왔습니다. 오라는(오라고 하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위의 보기 말에서 밑줄을 친 곳이 인용마디인데, 간접인용마디는 직접인용마디에서 바뀐 것이다. 그런데, 그 바뀐 과정에서 몇 가지 직접인용마디와는 다른 특색이 나타난다. 곧 위의 간접인용의 보기말의 ‘오라’는 직접인용말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말 가운데의 한 가지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오너라, 오오, 오시오, 오십시오’ 그리고 또 들을이에 대한 높임과 때때김도 간접인용에서는 달리 조정되는 일이 있다. (국어학 212, 276~277)

인용말 말이나 생각을 인용하여 오는 성분인데, 대개는 여러 어절로 된다. 그리고 인용말은 폴이말에 종속되는 일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 또 널오더 내 無上涅槃을 得호라 호고(능엄 9:91), 부테 니르샤디 올타 올타 네 말 ㄹ트니라(석보 9:22). (우리옛말본 44)

일건잇 잇의 한 갈래. 연행잇의 하위분류의 하나로서 한 임자가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 차례차례 하여감을 보이는 꼴인데, 앞뒤의 움직임이 한가지의 일이 되게 함을 보인다. <주시경-용어>

일금 겹의 한 갈래로 어찌자리토씨(부사격조사)의 하위분류인 곳자리토(처소격조사)에 해당하는 토다. <주시경-용어>

일대표이름 대임의 한 갈래. 일대표이름은 다시 ‘언잇, 험, 곳, 모름’으로 하위분류한다. <주시경-용어>

일억 억의 한 갈래. 일임자씨에 토씨가 결합되어 월에서 어찌말 구실을 하는 월성분이다. <주시경-용어>

일임 임의 한 갈래. 제임의 하위분류로 일의 이름을 나타내는, 두루이름씨(보통명사)이다. <주시경-용어>

임 기(씨)의 하나. 일반적으로 이름씨라고 하지만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를 합한 임

자씨와 풀이씨의 이름끝까지 모두 입이다. <주시경-용어>

입다른만 것의 한 갈래. 다른만의 하위분류. <주시경-용어>

입다른한만 것의 한 갈래. 다른한만의 하위분류. <주시경-용어>

입본언 기(씨)몸바꿈. 입자씨가 몸바꿈하여 매김씨로 파생되는 방법. <주시경-용어>

입본엇 기(씨)몸바꿈. 입자씨가 몸바꿈하여 그림씨로 파생되는 방법. <주시경-용어>

입본움 기(씨)몸바꿈. 입자씨가 몸바꿈하여 움직씨로 파생되는 방법. <주시경-용어>

입엇본입 기(씨)몸바꿈. 입자씨가 몸바꿈하여 그림씨로 바뀌었다가 다시 입자씨로 파생되는 방법. <주시경-용어>

입엇억본움 기(씨)몸바꿈. 입자씨에서 파생된 그림씨가 다시 어찌씨로 파생된 것을 또다시 몸바꿈하여 움직씨로 파생되는 방법. <주시경-용어>

입움본입 기(씨)몸바꿈. 입자씨가 몸바꿈하여 움직씨로 바뀌었다가 다시 입자씨로 파생되는 방법. <주시경-용어>

입움억본움 기(씨)몸바꿈. 입자씨가 몸바꿈하여 움직씨로 되었다가 다시 어찌씨로 파생된 것이 또다시 움직씨로 파생되는 방법, 즉 ‘입자씨→움직씨→어찌씨→움직씨’의 네 단계를 거친 파생어이다. <주시경-용어>

입이 입자말(주어). <주시경-용어>

입이금 ‘입이’는 입자말로 쓰인 입자씨이고, ‘금’은 ‘꾸밈’ 또는 ‘가르침’의 뜻으로 수식어에 해당하는 말이니, ‘입이금’은 입자말(입이)을 꾸미는 말로 매김말(관형어)에 해당한다. <주시경-용어>

입이듬 ‘입이’는 입자말이고 ‘듬’은 ‘성분’에 해당하는 말이고, 입이듬은 입자말의 줄기(입이)와 거기에 붙는 토씨(입이빚)를 아울러 말하는 것으로, 입자말에 해당한다. <주시경-용어>

입이붙이 입자말의 줄기(입이)와 그 토씨(입이빚)와 그 꾸밈말(입이금)을 아울러 말하는 것으로 입자조각(주어부)이다. <주시경-용어>

입이빚 ‘빚’이란 월의 성분을 표시해 주는 형태소이며, ‘입이빚’은 입자말의 토. <주시경-용어>

입자마디 입자씨처럼 쓰이는 마디. 풀이말인 풀이씨가 이름끝로 된다. 이것을 또 ‘이름마디’(명사절)라 하기도 한다: 무궁화를 좋아함은 그 꽃이 무궁무진으로 피는 때문이다. 그 맛이 달기가 꿀보다 더하다. 그런 말이 잘 단기를 어디 바랄 수 있느냐? 갓의 얼기를 기다려서 건너갑니다. 모든 국민이 다 잘 살게 되기를 우리는 바랄 뿐입니다. (우리말본 741~742)

입자말 월의 입자(주체, 주제)가 되는 월조각의 하나인데, 그 됃됨이는 다음과 같다: (1) 입자씨에 입자자리토씨가 붙어서 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입자말이다. 풀이 난다. 들이 넓다. 나비가 꽃을 찾는다. 다섯이 넷보다 하나 많다. (2) 도움토씨를 가지는 일도 있다. 저도 가렵니다. 나는 잘 모르오. (3) 입자씨가 단독으로. 나 모릅니다. 너 어디 가니? (4) 풀이씨의 이름끝이. 놀기가 일하기보다 되다. 말함이 귀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귀한 것이다. (5) 입자마디가. 비가 자주 옴이 농사에 좋다. 눈이 희기가

비단과 같다. (6) 어떤 말이라도 풀이의 제목을 삼을 때, ‘있다’는 그림씨에 든다. ‘있’은 줄기이오, ‘다’는 씨끝이다. (7) 딸림마디의 입자자리에서는 ‘-의’가 입자토씨를 대신하는 일이 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찾아 왔습니다. (우리말본 748~750, 760~763)

입자씨 낱말은 그 꼴과 구실과 뜻으로 보아 몇 가지의 갈래로 나뉘는데, 입자씨는 그 가운데의 큰 갈래의 하나. (1) 입자씨는, 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토씨에 대하여, 생각을 나타내는 생각씨의 한 가지이다. (2) 생각씨 가운데서도 다른 말을 꾸미는 일만을 하는 꾸밈씨에 대하여, 월의 뼈대 노릇을 하는 으뜸씨이다. (3) 으뜸씨 가운데서도 월의 풀이말의 노릇을 하는 풀이씨에 대하여, 풀이말에 이끌리는 입자말, 부림말 따위가 될 수 있다. (4) 입자씨는 그 자체의 꼴은 바뀌지 않고, 월 안에서 어떠한 구실(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구실을 표시하는 토씨(‘-이다’)를 덧붙인다. 때로는 그 구실을 나타내는 토를 더하지 않고 입자씨만으로도 여러가지 구실을 다할 수 있다. (5) 입자씨는 그 뜻으로 보아 이르씨, 대이름씨, 셈씨의 세 가지로 나뉜다. (우리말본 155~160)

입자이은말 입자씨와 같은 구실을 하는 이은말을 말한다: 자유를 사랑함은 사람의 본지이다. 하루 두번씩 먹기도 어렵다오. 좋은 것은 가지고, 나쁜 것은 버려라. 저기 보이는 허연 것이 무엇이오? 따뜻한 봄철이 돌아 왔도다. (우리말본 745)

입자자리 월의 판단 형식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1) 무엇이 어찌한다. (2) 무엇이 어떠하다. (3) 무엇이 무엇이다. 이 판단에 있어서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의 주체를 나타내는 ‘무엇이’가 월 안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가리켜 ‘입자자리’라 하고, 이 자리를 차지하는 말을 ‘입자말’이라 한다. 입자자리에는 다음의 여러가지 말이 올 수 있다. (1) 입자씨(+토씨): 나는 산수를 사랑한다. 저기 사람 간다. (2) 풀이씨의 이름꼴: 높기가 하늘 같다. (3) 입자마디: 돈이 많음은 걱정이 많음이다. (4) 어떠한 말이라도 풀이의 제목을 삼기 위해서: ‘있다’가 그림씨일까? (우리말본 761~762)

입자자리토 이 토가 의지하고 있는 말을 월의 입자자리에 놓이게 하는 자리토씨의 한 가지. ‘-가/이, -에서, -께서, -께서’. (우리말본 616~618)

입자자리토씨 입자말을 표시해 주는 토씨. (우리말본 335~339)

입자조각 월은 어떤 것이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그 월의 입자자리에서는 조각이고, 하나는 그것을 풀이하는 조각이다. 앞의 것을 ‘입자조각’이라 하고, 뒤의 것을 ‘풀이조각’이라 한다. 다음에서 「/」의 앞 부분은 입자조각이고, 그 뒤는 풀이 조각이다: 그 아이는 / 매우 착한 학생이다. 약한 사람이 / 무거운 짐을 멀리 지고 간다. 저 아름다운 꽃은 / 반드시 모란꽃일 것이다. (우리말본 760)

입자-풀이 짜임새 주어-서술어로 된 통어적 짜임새. (국어학 258)

입한만 것의 한 갈래. 한가지만의 하위분류. <주시경-용어>

입훗만 것의 한 갈래. 입자씨에 붙어서 그것이 월의 입자말이 되게 하는 토. ‘-이, -가’. <주시경-용어>

입술가벼운소리 ‘언해본 훈민정음’에 나타나는 닿소리의 한 종류인 ‘빙, 풍, 몽, 뽕’의 4 소리를 이른다. 이들은 ‘ㅂ, ㅍ, ㅁ, ㅃ’보다 가볍게 소리나는데 넷 중에서 ‘빙’은 지난날 일시적이거나 우리 사회에서 널리 쓰였으며, 다른 3 소리는 ‘훈민정음’의 <용자

례>에 보기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보아 우리말에서는 쓰이지 않은 것 같다. (국어음운학 311)

입음도움움직씨 입음을 보이는 도움움직씨의 한 가지. ‘지다’. 으뜸움직씨와 으뜸그림씨의 ‘-어/아’ 끝에 붙어 쓰인다: 이런 뒷에도 범이 잡아진다.(할 수 있음) 날씨가 따뜻하니 산의 눈이 녹아진다.(절로 됨) 신라가 고려한테 망해졌다.(이해입음) (우리말본 399~400)

입음도움줄기 움직씨 몸에 붙어서, 다른 것으로부터 그 움직임의 받음을 보이는 도움줄기의 한 가지“ 먹다-먹히다, 잡다-잡히다, 엮다-엮히다, 밟다-밟히다, 달다-달히다, 걷다-걸히다: 안다-안기다, 담다-담기다, 쫓다-쫓기다: 보다-보이다, 쓰다-쓰이다: 듣다-들리다, 갈다-갈리다. (우리말본 352~356)

입음법 제힘움직씨 가운데의 남움직씨를 입음 움직임으로 만드는 방법. 입음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1) 보통 남움직씨에 입음도움줄기를 붙이는 방법: 먹다-먹히다, 박다-박히다, 놓다-놓이다, 보다-보이다 (2) ‘하다 따위 움직임’의 ‘하다’ 대신에 ‘되다, 받다, 당하다’를 갈음하는 방법: 감금하다-감금되다-감금받다-감금당하다 주목하다-주목되다-주목받다-주목당하다 (3) 움직임의 ‘-어/아/여’ 활용끝에 ‘지다’를 붙여 만드는 방법: 막아 지다, 먹어 지다, 잡아 지다, 가아 지다. (우리말본 423~434)

입음움직씨 월의 입자가 스스로 제 힘으로 그 움직임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힘을 입어서, 그 움직임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움직임. 이를테면, ‘그 사람이 순경한테 잡히었다.’의 ‘잡히다’는 그 입자인 ‘그 사람’이 그 움직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하는 사람은 ‘순경’이다. 입자인 ‘그 사람’은 순경이 하는 움직임을 입고(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움직임을 남에게 당한다고 다 입음움직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곧 ‘아이가 매를 맞았다.’의 입자인 ‘아이’는 ‘맞-’는 움직임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맞았다’는 입음움직씨가 아니다. 입음움직씨는 입음의 말본상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말본 420~423)

입음움직임 입음법으로 만들어진 말들은 다음과 같은 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입음 움직임이라 한다. (1) 이해 입음: 그 말의 입자(이 입자는 반드시 사람이거나 또는 사람된 것이다)가 이해를 느끼는 입음법인데, 이것이 입음법의 중심되는 뜻이다. 그 사람이 도둑에게 잡혔다. 나는 그에게 협박당했다. (2) 할수있는 입음: 가능함을 나타냄 이런 뒷에도 범이 잡힐까? 이 정도의 홍수야 우리 힘으로 능히 막아진다. (3) 절로 되는 입음: 저절로 그 움직임을 하게 되는 것. 오늘은 평은 안 잡히고, 토끼만 잡힌다. 그런 자리에는 다시는 안 가려고 해도 자꾸 가아진다. (우리말본 422~423)

입천장소리되기 이 말은 여러가지 이질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데 쓰인다. (1) 변동규칙의 하나: 한 형태소의 끝소리가 /ㄷ, ㅌ/일 경우에, 그 다음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히)(-)’가 이어날 때에 /ㄷ, ㅌ/이 그 뒤의 홀소리의 나는 자리에 끌려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굳이→구지/, 땀받이→땀바지/, 미닫이→미다지/, 달히다→다치다/ (2) 역사적인 변화의 한 가지: /ㄷ, ㅌ/이, 그 뒤에 /이/나 반홀소리의 /ㅣ/가 이어나는 환경에서는 역사적으로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동다>중다>중다, 당마>장마>장마, 디

나다>지나다 (3) 으뜸변이음이 입천장소리가 아닌 음소 /ㄴ, ㄷ, ㄹ/이 위와 같은 환경에 놓이게 되면, 입천장소리의 변이음을 가지게 되는 음운규칙의 하나. 나[na], 노[no] → 니[ni], [nja] 사[sa], 소[so] → 시[ʃi], 샐[ʃja] 홀러[halla], 달라[talla] → 흘려[hilʌʃjə], 달력[talʌʃjək]. (국어음운학 205, 272, 491)

잇 기(씨)의 하나. 이음토씨 '-와, -과'와 풀이씨의 모든 이음씨끝과 잡음씨 '이다'의 이음꼴 모두를 말한다. <주시경-용어>

잇기의 때 잇기에 앞서서 안맺음씨끝(선어말어미)도 잇기의 한 부분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잇기에는 시제가 표시되는 것인데, 이것을 현재(이때), 과거(간때), 미래(올때)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주시경-용어>

잇기의 서분 높임을 나타내는 표지. <주시경-용어>

잇달음꼴 한 움직임이나 상태가 일어남에 잇달아 다른 움직임이나 상태가 바로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이음법의 활용꼴: 가마귀 날자, 배가 떨어지는 것 같다.(움직씨) 해가 떨어지자, 바람이 일어났다.(움직씨) 날이 따뜻하자, 비가 온다.(그림씨) 금년은 설이자, 입춘이다.(잡음씨) (우리말본 319~320, 511, 565)

잇이 연결어. '잇'은 잇기인데 잇기란 이름은 씨갈(기난갈)의 명칭이고, '이'는 '어(語)'란 뜻으로 쓰이는데, '잇이'는 월갈(짚듬갈)의 이름으로 쓰인다. 예를들면 '이 소는 누르고, 저 말은 검다'에서 '-고'는 씨난갈에서는 잇기이고, 월갈에서는 '잇이'이다. <주시경-용어>

있음그림씨 일이나 문의 있음을 그리는 그림씨의 한 가지인데, 이에 '있다, 없다, 계시다'의 세 낱말이 있다. 풀이씨를 움직임씨, 그림씨, 잡음씨의 세 가지로 가르는 것은, 그 뜻에 의지함도 크지마는 그 끝바꿈법에 의지함이 더 크다. 그런데 이 세 낱말은 그 끝바꿈꼴이 어떤 것은 움직임씨와 같은 것이 있어서, 그 갈래를 정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우리말본 185~187, 486)

ㅈ

자름법 말의 일부를 잘라서 말을 만들어 내는 방법. 이에 원말의 첫부분, 끝부분 등을 잘라서 만드는 '가위질말'을 만드는 법과 낱말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드는 '머리글자말'을 만드는 법이 있다. (우리말형태론 310)

자리 것의 한 갈래. 처소, 위치의 뜻으로 풀이씨의 내용이 드러나는 자리를 가리키는 토이다. <주시경-용어>

자리 말의 소리는 어떠한 능동부가 어떠한 고정부에 작용하여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능동부와 고정부를 '자리'라 한다. 이 자리는 대개 다섯으로 나눈다. (능동부 - 고정부) (1) 아랫입술 - 윗입술 (2) 혀끝 - 잇몸 (3) 앞혀바닥 - 센입천장 (4) 뒤혀바닥 - 여린입천장 (5) 혀뿌리 - 인두벽 (국어음운학 36~38)

자리 토씨가 월에 있어서의 일정한 기능(일정한 월성분이 될 수 있는 자격)만을 표시해 줄 뿐, 그 밖의 다른 개념은 나타내지 않을 때, 토씨의 이러한 용법을 '자리법'

이라 한다. 입자씨의, 그 월에 있어서의 일정한 ‘자리’를 나타낸다는 뜻이다. (우리옛 말본 330)

자리금 어찌자리토씨(부사격조사)의 하위분류인 곳자리토씨(처소격조사) 중에서 풀이 씨의 내용이 드러나는 것이 장소임을 나타내는 토. <주시경-용어>

자리닻음 한 소리가 다른 소리의 나는 자리에 가까워지거나 같아지는 닻음의 한 가지. 옛말의 ‘흔뻑’의 첫 소리마디의 /ㄴ/이 그 뒤의 /ㅂ/의 나는 자리를 닻아 /ㅍ/으로 바뀌어, 지금말의 ‘함께’가 생겨난 따위는 자리닻음이다. 지금말의 변동규칙의 하나인 ‘끝소리자리옮기기’도 자리닻음의 한 가지임은 물론이다. ‘듣보다→뚝보다, 신발→심발, 신문→심문, 밀거름→믹거름’. 혀끝, 입술, 뒤텔바닥의 세 자리 가운데, 이러한 자리옮기기에서, 가장 센소리(이끌기만 하고 이끌리지 않는 소리)는 뒤텔바닥소리(/ㄱ/)이고, 그 반대로 이끌리기만 하고 이끌지는 못하는 소리는 혀끝소리(/ㄷ/)이고, 입술소리(/ㅂ/)는 그 중간이다. (국어음운학 516, 525, 276~277)

자리만듬성 하임월되기에서 한자리월을 두자리월로 만들 수 있거나, 두자리월을 세 자리월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자리만듬성이 있다고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자리만듬성의 제약이 있다고 한다. (1) 한자리월에서: 연이 날다→(ㄴ) 연을 날리다. 위에서 제음직씨 ‘날다’는 남음직성과 자리만듬성을 가진다. (2) 두자리월에서: 아이가 밥을 먹다→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위에서 ‘먹다’는 하임월 과정에서 두자리월을 세 자리월로 만들어 낸 자리만듬성이 있다. <자리만듬성 제약> (1) 한자리월에서: 곡식이 잘 익다.→*(ㄴ) 곡식을 작 익히다. ‘익히다’는 하임월되기 과정에서 두 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따라서 여기 ‘익는다’는 하임월되기 과정에서 두 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제약을 받고 있다. (2) 두자리월에서: 바람이 길을 쓸다 →*(ㄴ) 바람에 길을 쓸리다. 위에서 남음직씨 ‘쓸다’는 자리만듬성의 제약을 받고 있다. (우리말형태론 497~498, 506~509)

자리바꿈 한 말 안의 두 소리의 나는 자리가 서로 바뀌는, 소리변화의 한 가지. ‘배꼽’의 옛말은 ‘빋복’인데, ‘복’안의 두 닿소리 /ㅂ/과 /ㄱ/이 그 나는 자리를 바꾸어 ‘빋솥’이 되고, 다시 /ㅅ/의 나는 자리가 /ㄱ/의 나는 자리로 바뀌어 ‘빅곱’>‘배꼽’이 된 것이다. 다음 예들도 다 그러한 말들이다: 하야로비>해야로비>해오라비, 아야로시>애야로시>애오라지, 시혹>혹시. (국어음운학 561~562)

자리억 억의 한 갈래. 위치를 나타내는 어찌씨(부사)와 위치를 나타내는 어찌말. <주시경-용어>

자리옮김 한 음소의 으뜸변이음이 그 나는 환경의 영향으로, 다른 소리바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나는 자리만 바뀌는 음운규칙의 하나. /ㅅ, ㄴ, ㄹ[ㄴ]/과 같은 혀끝소리가 그 다음에 /이/나 반홀소리의 /ㅣ/가 이어나게 되면, 이 혀끝소리들은 뒤의 소리의 나는 자리에 끌려 앞혓바닥소리의 [j, ɲ, ʃ]로 바뀐다. 본디 여린입천장소리인 /ㄱ, ㅋ, ㆁ, ㅇ/이 위와 같은 환경에 놓이게 되면, 그 나는 자리가 앞으로 이끌려 앞-여린입천장소리로 바뀐다. /ㅎ/소리는 입술등근 홀소리-반홀소리 앞에서는 그 자리를 입술로 옮겨 [h] 소리가 된다. (국어음운학 205)

자리토씨 입자씨 뒤에 붙어서, 그 입자씨가 월의 잔조각으로서의 일정한 자리를 얻

게 하는 토. 우리말 토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임자씨는 한번 어떠한 자리토씨를 가지고서 월의 한 조각이 되어 놓으면, 그 뜻과 구실은 일정하여, 다른 것으로 마음대로 바뀌지 아니한다. 이것이 다른 토씨와 구별되는 자리토씨의 한 큰 보람이다. 자리토씨는 그것이 의지하는 임자씨를 월의 어떠한 자리를 가지게 하느냐에 따라, (1) 임자자리토 (2) 매김자리토 (3) 어찌자리토 (4) 부림자리토 (5) 부름자리토 (6) 기움자리토의 여섯 갈래로 나뉜다. (우리말본 613~616)

자립이름씨 이름씨는 홀로 서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자립이름씨’와 ‘매인이름씨’로 나뉜다. 매인이름씨가 홀로 서는(자립하는) 힘이 없는 이름씨인데 비해, 자립이름씨는 홀로 서는 힘이 있는 이름씨이다. (우리옛말본 274)

잘못돌이킴 한 사회 안에서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끼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 한 지방의 말은 다른 지방의 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 교양 있는 사람의 말이 그렇고, 서울말이 그렇다. 그리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의 말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말과 같아지려하든지, 가까워지려 하는 자연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때로는 그 방향을 잘못 알고서 잘못 고치는 일이 있으니, 이 현상을 잘못돌이킴이라 한다. ‘짐승’의 옛말은 ‘증싱’이다. 그러므로 그 첫소리마디의 ‘증’은 /으/가 /ㅈ/의 나는 자리에 끌려 ‘짐’으로 내는 것이 바른 발음이다. 그런데 경상도에서는 ‘기’를 ‘지’로 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 말을 서울말로 고치려는 잘못된 판단으로 ‘김생’이란 발음을 하는 것을 가끔 듣게 되는데, 이것은 서울말에 잘못돌아간 것이다. (국어음운학 559~561)

잘못쫓갸 두 형태소로 된 말을 잘못 쫓개어서, 본디 그 중의 한 형태소에 딸린 소리를 다른 형태소로 옮겨, 다른 형태소의 소리를 바꾸기에 이르는 소리 바뀔의 방식을 잘못쫓갸이라 한다. ‘폴>파리, 낫>낫시, 굼병>굼병이’와 같이 우리말에는 /|/ 소리가 이름씨에 붙어서 말이 길어지는 일이 흔히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 ‘폴+이(임자토)’는 /포리/로 발음된다. 그런데 만일 ‘*포리’란 이름씨가 있다면, 이 말의 임자말의 ‘포리+이’도 /포리/가 된다. 여기에서 /포리/는 ‘포리+이’로 잘못 해석되기 쉽다. (2) ‘폴+이라(잡음씨)’는 /포리리/로 발음된다. 그리고 ‘*포리’란 이름씨가 있다면, 이 말의 잡음씨 연결형인 ‘*포리+이라’도 .포리라/가 된다. 여기에서도 /포리라/는 ‘포리+이라’로 잘못 해석되기 쉽다. 이리하여 ‘폴’은 뒤의 형태소의 소리를 덧붙여 ‘포리>파리’가 된 것이다. 두 형태소의 이음에서 두 형태소를 잘못 쫓갸 결과이다. (국어음운학 568~570)

잡음씨 ‘(저것은 우리 집이) 아니다, (저것은 우리 집)이다’의 ‘아니다, -이다’의 두 낱말을 잡음씨라 한다. 이 두 말은 말본 상 다음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 (1) 월의 임자말에 대한 풀이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곧 앞의 월에 있어서, ‘아니다’와 ‘-이다’는 이 월의 임자말이 ‘저것은’에 대한 풀이말의 자리에 놓여 있다. 이 점 움직씨나 그림씨와 같다. (2) 이 말들은 움직씨나 그림씨와 같이 (씨)끝바꿈을 한다. (3) 말의 기본적인 판단 형식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ㄱ. 무엇이 어찌한다. ㄴ. 무엇이 어떠한다. ㄷ. 무엇이 무엇이다. 여기의 ‘무엇이’는 임자말, 그것을 풀이하는 그 뒤의 말은 ‘풀이말’이 되는데, 움직씨는 ‘어찌한다’, 그림씨는 ‘어떠하다’, 잡음씨는 ‘무엇이다’의 자리

를 차지한다. (4) 잡음씨는 끝바꿈하는 점은 움직임씨, 그림씨와 같으나, 그 끝바꿈의 세부적인 특질에 있어서는, 움직임씨, 그림씨와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위의 (3), (4)의 특질은 잡음씨를 움직임씨, 그림씨와 다른 한 독립된 씨갈래로 보게 한다. (우리말본 182~191, 549-)

정도어찌말 월조각으로서의 어찌말의 한 가지로서, 어찌씨나 그림씨의 어찌꼴로 되기도 하고, 또 입자씨에 어찌자리토를 더한 것으로 되기도 한다. (1) 정도어찌씨로 된 것: 날씨가 매우 선선하구려! 몸이 심히 아프다. (2) 그림씨의 어찌꼴로 된 것: 무엇이든지 심하게 굴면 안 된다. (3) 입자씨에 토가 붙은 것: 그는 극도로 흥분되었소. 저이는 열심으로 글을 읽었다고요. (우리말본 778~779)

정도어찌씨 바탈(속성)의 드러나는 정도를 보이는 어찌씨이니, 이에는 그 정도의 높음을 보이는 것과 낮음을 보이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 (1) 높음을 보이는 것: 매우, 훨씬, 펴, 끔찍이, 단단히, 심히, 극히, 너무, 하도, 자못, 전혀, 꽤, 아주 (2) 낮음을 보이는 것: 조금, 좀, 약간, 거의. 이는 다 제스스로는 무슨 바탈(속성)을 바로 드러내는 일이 없고, 다른 바탈의 나타나는 정도의 어떻게 됨을 보이는 것이므로, 저 모양어찌씨에 견주면 제이차적이라 할 만하다. 정도어찌씨는 오로지 모양을 드러내는 말에 붙어서 그것을 금하는(한정하는) 것이니, 주장으로 그림씨 앞에 쓰이며, 또 특히 모양어찌씨 앞에도 쓰이고, 단순한 동작을 나타내는 움직임씨에는 관계가 없다. (1) 그림씨 앞에 쓰이는 일이 가장 많다. (2) 다음으로 모양어찌씨 앞에 쓰인다. (3) 상태적 동작의 움직임씨 앞에 쓰인다. (4) 잡음씨 앞에는 쓰이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주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말을 꾸밈 때에 쓰이기도 한다: 그놈이 아주 소이다. (우리말본 598)

정상적 맺음씨끝 줄기와의 연결 방식에 의해 맺음씨끝을 분류하면, 정상적 맺음씨끝과 불구적 맺음씨끝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맺음씨끝은 줄기에 바로 붙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어떤 특수한 씨끝은 그렇지 못하여, 반드시 그 앞에 특정한 안맺음씨끝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이름법의 ‘-ㅁ’ 씨끝은 반드시 그 앞에 ‘-오/우-’의 개입을 요구하게 되고, 제약법의 ‘-든/든’은 반드시 그 앞에 안맺음씨끝 ‘-거-, -더-, -아/어-’를 요구하게 된다. 줄기에 바로 붙을 수 있는 씨끝을 정상적 맺음씨끝이라 하고, 안맺음씨끝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줄기에 연결될 수 없는 것을 불구적 맺음씨끝이라 한다. (우리말본 481)

제몸 움의 한 갈래. ‘저의 몸’의 뜻. 움직임이 제몸에서 움직이는 제몸에 해당하는 말. <주시경-용어>

제움 움의 한 갈래. 움직임의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나눈 것으로 움직임의 대상이 없는 움직임씨로, 제움직씨(자동사)이다. <주시경-용어>

제움몸 제움직씨의 줄기(자동사 어간). <주시경-용어>

제움직씨 그 움직임의 부리는(지배하는) 대상이 없는 움직임씨를 이룸이니, 월조각으로서의 ‘부림말’을 가지지 아니하는 움직임씨이다. 이에 대해서 부림말을 가지는 움직임씨를 ‘남움직씨’라 한다: ‘새가 난다. 꽃이 핀다. 아이가 잘 걷는다.’의 ‘난다, 핀다, 걷는다’들은 제움직씨이다. 제움직씨와 남움직씨의 다름은, 그 움직임이 부리는 대상을

나타내는 부림말의 있고 없음에 있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제음직씨로 쓰이는 말도 부림말을 가지게 되면 남음직씨가 된다. ‘아이가 학교에 간다.’의 ‘가다’는 제음직씨이나, ‘아이가 학교를 간다.’의 ‘가다’는 남음직씨가 된다. (우리말본 255~257)

제이름씨 임의 한 갈래. 일이나 몬(物)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주시경-용어>

제침바탕 음소는 변별적 소리바탕의 묶음이다. 이를테면, 우리말의 /이/ 음소의 변별바탕의 묶음은, ‘앞(자리)-가운데(높이)-안동근(입술)’이다. 그런데 이런 변별바탕의 묶음 가운데 어떠한 것은 그것을 제쳐 놓더라도 한 언어의 음운조직으로 보아서 다른 음소와 구별되는 데 상관이 없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제침바탕’이라 한다. 우리말의 훌훌소리 열 개의 조직에서 낮은 훌소리인 /애/와 /아/는 입술동공의 짝이 없다. 그러므로 ‘앞-낮은’의 음소는 /애/만이고, ‘뒤-낮은’의 음소는 /아/만이다. 따라서 이 두 음소에 있어서는 입술의 바탕은 제쳐 놓더라도 이 두 음소들을 다른 음소와 구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러한 변별적 소리바탕을 ‘제침바탕’이라 한다. (국어음운학 81, 211, 224)

제힘움직씨 입음움직씨에 대립되는 개념을 나타내는 움직임이니, 다음 말들에서 오른쪽의 움직임이 제힘움직씨이다: 밥이 먹힌다-소가 죽을 먹는다. 산이 보인다-나는 산을 본다. 못이 박힌다-벽에 못을 박는다. 개에게 물렸다-개가 사람을 물었다. 종이 가 밟혔다-종이를 밟는다. (우리말본 409)

주체높임법 말의 주체를 높이는 문법적 방법을 주체높임법이라 하는데, 주체란 임자말로 지시되는 사람이나 일이나 물건이다. 풀이말에 안맺음씨끝 ‘-으시.’를 연결한다. (우리말본 673~690)

줄기 움직임, 그림씨, 잡음씨와 같은 풀이씨는 말본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꼴을 바꾸어야 한다. 이 경우에 그 풀이씨의 어휘적인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바뀌지 아니하는데, 이것을 ‘줄기’라 하고, 줄기 뒤에서 말본의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씨끝’이라 한다. 다음 말들에서 ‘.’의 앞 부분이 줄기이고 그 뒤 부분은 씨끝이다. ‘가다, 가-고, 가-니, 가-며: 막-다, 막-고, 막-으니, 막-으며’. 줄기는 풀이씨는 본뜻, 곧 움직임(움직씨의 경우), 상태(그림씨의 경우), 바뀌 말함(잡음씨의 경우)과 같은 뜻을 나타낸다. (우리말본 162~164)

줄기 월에서 으뜸이 되는 성분, 즉 주성분에 해당하는 말로 여기에는 임자말(주어), 부림말(목적어), 풀이말(서술어)이다. <주시경-용어>

줄기결 월은 크게 임이불이(임자조각), 씬이불이(부림조각), 남이불이(풀이조각)의 세 부분으로 나뉘고, 이 세 불이는 임이(임자말), 씬이(부림말), 남이(풀이말)와 그에 딸린 빗(토씨와 씨끝)과 또는 그것을 꾸미는 금이(꾸밈말)로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임이, 씬이, 남이의 세 부분은 월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기결 또는 으뜸결이라 하고 빗과 금은 이에 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지결 또는 불이결이라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복잡한 월일지라도 임이불이, 씬이불이, 남이불이의 세 부분으로 되고, 각 불이는 줄기결을 중심으로 하여 금이결과 만이결이 이에 따르고 있다. <주시경-용어>

줄임 두 음소가 한 음소로, 또는 두 소리마디가 한 소리마디로 줄어지는 변동규칙인

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포함된다. 반홀소리되기: 쓰이다→씨다, 그리어→그려, 누이다→늪다. 홀홀소리 되기: *자이다→재다, *서이다→세다, 보이다→뵈다 거센소리 되기: 먹히다→머키다, 입학→이팍, 좋다→조타 된소리 되기: 학교→하교, 갑부→가뿌. (국어음운학 280~281, 428~430)

중지잇 잇의 한 갈래. 지금까지 하던 움직임을 그치고 다른 움직임으로 나아가는 꼴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음법의 그침꼴이다. <주시경-용어>

지난적기회도움움직씨 이미 지난적에 그리될 만한 가능성의 기회가 있었으나, 사실은 그리되지 아니하였음을 보이는 도움움직씨의 한 가지. ‘번하다’가 있다. 반드시 지난적 꼴로만 쓰이며, 으뜸움직씨, 으뜸그림씨의 ‘-을’ 매김꼴 뒤에 쓰인다: 내가 꼭 죽을 번하였다. 그 일이 될 번하였다. (우리말본 405~406)

지님도움움직씨 풀이말의 실제적 결과를 지님을 나타내는 도움움직씨의 한 가지. 이에 ‘놓다, 두다, 가지다, 닦다’가 있는데, 이 말들은 모두 으뜸풀이씨의 ‘-어/아’ 끝바꿈꼴에 붙어 쓰인다: 문을 열어 놓았다. 그 사람에게 일러 놓아라. 자네도 이 말을 들어 두게. 이런 것도 보아 두면 좋다. 그것을 그리하여 가지고 어데 쓰나? 흙을 파아 닦아, 집터를 고른다. (우리말본 406)

지움꼴 지움(부정)을 나타내는 도움풀이씨 ‘아니하다, 못하다, 말다’는 으뜸풀이씨의 ‘-지’ 어찌꼴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지’ 어찌꼴을 지움꼴이라기도 한다: 옳은 일을 위해서는 죽음도 아깝지 아니하다. 그 사람이 별로 넉넉하지 못하다. 그런 곳에는 가지 말아라. (우리말본 531)

지움도움그림씨 으뜸그림씨 아래에 쓰이어서 그 뜻을 부정하는 일을 하는 도움그림씨의 한 가지인데, 이것은 으뜸그림씨의 지움꼴 ‘-지’에 붙는다. ‘아니하다’: 동해에 떠오르는 달, 거룩하지 아니한가? 옳음에서는 죽어도 아깝지 아니하다. ‘못하다’: 달이 별보다 크지 못하다. 그 사람이 별로 넉넉하지 못하다. (우리말본 531~532)

지움도움움직씨 으뜸움직씨가 보이는 뜻의 실현을 부정하는 도움움직씨의 한 가지인데, 이 말들은 모두 으뜸움직씨의 지움꼴 ‘-지’에 붙는다. ‘아니하다’: (하지 아니함을 보임) 흐르는 물은 한시도 쉬지 아니한다. 온 누리 사람들이 도무지 남의 형편은 돌아보지 아니한다. ‘못하다’: (할 수 없음을 보임) 나는 아직 백두산에 오르지 못하였다. 날개 없이는 날지 못한다. ‘말다’: (말림, 그만뒀음을 보임)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말라. 너는 한강에 가지 말고, 북악산을 가거라. (우리말본 397~398)

직접높임법 높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바로 높이는 방법을 직접높임법이라 한다. 이에 비해, 높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관한 일이나 물건이 주체나 객체로 등장될 때에, 표면 상으로는 그 일이나 물건을 높여 표현하는 높임을 간접높임법이라 한다. (우리옛말본 655)

작별린씨 별린겹씨 가운데 한 가지의 말을 들씩 포개어서 된 것: 집집, 사람사람, 나날, 다달, 더욱더욱, 자주자주, 가끔가끔. (우리말본 689, 701~702)

작소리 쌍합음(雙合音), 겹소리. <주시경-용어>

짤말 구성어. 낱말로 짜여진 말. 조직어. 꿈인말(꾸민말). <주시경-용어>

짬 ‘짜다’의 이름꼴로, 짜서 만든다는 뜻. 조직, 구성, 꾸밈. <주시경-용어>

짬뽀갈 짜서 만드는 것(짬)의 방법(듬)의 알아내기(갈)란 뜻이니 지금의 월갈(문장론, 통사론)에 해당하는 말. <주시경-용어>

ㄷ

차례셈씨 차례의 셈을 나타내는 셈씨이니, 이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1) 잡힌 셈: 몇째라고 그 차례를 꼭 잡아 들어내는 것. 첫째, 둘째, 셋째, 스무째, 설흔째, 마흔째, 쉰째, 백째, 제1, 제2, 제100 (2) 안잡힌 셈: 몇째라고 그 차례를 꼭 잡아 들어내지 아니하고, 그 대강을 보이거나 모르는 것을 묻거나 하는 경우에 쓰는 것. 한두째, 두세째, 서너째, 덧째, 여남은째, 여러째, 몇째. (우리말본 250~252)

첫소리 우리말의 소리마디(음절)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 ‘닿’은 닿소리, ‘홀’은 홀소리를 나타내는데, ‘홀’은 홀홀소리와 겹홀소리를 포함한다. 1. 홀, 2. 닿+홀, 3. 홀+닿, 4. 닿+홀+닿. 이 소리마디의 짜임새에 있어서 2와 4의 첫머리에 놓이는 닿소리를 ‘첫소리’(초성)라 한다. ‘첫소리’란 말은 세 소리마디로 되어 있는데, 각 소리마디의 첫머리에 놓인 /ㄷ, ㅌ, ㄴ/가 첫소리이다. 첫소리란 말은 소리 자체에 적용되는 용어인데, 때로는 이 첫소리를 적는 글자, 곧 ‘첫소리글자’를 줄여서 첫소리라 하는 일이 있다. (국어음운학 165)

첫째가리킴대이름씨 대이름씨는 그 가리킴의 바탈을 따라 ‘가리킴’이 있으니 첫째가리킴은 말하는이가 스스로를 가리키는 대이름씨이다. ‘나, 저, 우리, 우리들, 저희, 저희들’이 있다. (우리말본 229~231)

첫째가리킴월 월의 풀이가 말하는 사람을 주체로 하는 경우를 말함이다: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져 닥아 드리겠습니다. 나도 가겠네. 직가 좀 여쭙어 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말본 805~807)

첫째어찌꼴 첫째어찌꼴은 ‘-아/어’이니, 이는 홀소리어울림의 규칙을 따른다. 첫째어찌꼴은 그 뒤로 다른 풀이씨를 잇는 꼴인데, 그 뒤에 오는 풀이씨의 갈래에 따라 한덩이 되는 쓰임(합동적용법)과 다이루는 쓰임(완성적용법)으로 가를 수 있다. 1) 한덩이 되는 쓰임: 첫째어찌꼴의 움직씨가 뒤로 다른 으뜸움직씨하고 어울려서 한덩이가 되는 것으로 이것은 중간에 다른 말을 끼워 넣을 수 없다: 아이가 기어 간다. 2) 다이루는 쓰임: 첫째어찌꼴같이 움직씨가 제홀로는 풀이를 다 이루지 못하고 뒤로 다른 도움풀이씨를 얻어 풀이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좀 먹어 보아라. (우리말본 281~285, 501~503)

첫째입음법 보통의 남움직씨에 입음도움줄기 ‘히, 기’를 더하여 입음을 만드는 법이다. (1) 남움직씨 줄기의 끝소리가 ‘ㄱ, ㄴ, ㄷ, ㅂ, ㅅ, 홀소리’일 때 뒤에 입음도움줄기 ‘히’가 쓰인 것: 먹다-먹히다, 말다-말히다 (2) 남움직씨 줄기의 끝소리가 ‘ㄴ, ㄹ, ㅅ, ㅌ, ㅍ’일 때 뒤에 입음도움줄기 ‘기’가 쓰인 것: 안다-안기다, 꿩다-꿩기다. (3) 본래 움직씨 줄기의 끝소리가 ‘ㄷ, ㅌ’일 때 뒤에 입음도움줄기 ‘히, 기’가 쓰이는 것: 받다-받히다, 뜯다-뜯기다, 꽃다-꽃히다, 찢다-찢기다 (우리말본 423~434)

첫째하임법 예사 움직임에 하임도움줄기 ‘이, 리, 우, 기’를 더하여 하임움직임으로 만드는 법: 날다-날리다, 불다-불리다, 남다-남기다, 눅다-눅히다 (우리말본 410~420)

치닿음 소리닿음의 한 가지인데, 앞 소리가 뒤 소리를 닿는 현상. 그 예는 흔하다. ‘함께’의 옛말은 ‘흔뻬’인데, ‘흔’의 /ㄴ/이 입술소리인 /ㄱ/으로 바뀐 것은, 그 뒤의 입술소리인 /ㄷ/의 영향이며, 옛말의 ‘손뻬’가 지금말의 ‘숨씨’로 바뀐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숨겁다’>‘싱겁다’도 치닿음의 한 예이다. (국어음운학 516, 519)

ㄱ

켁김반홀소리 반홀소리의 /ㅣ/는 그 공깃길을 약간 좁히고 발음기관의 근육을, 된소리를 낼 때처럼 켁겨서 낼 수 있으니, 이러한 소리를 ‘켁김반홀소리’라 한다. 조선 초기 문헌에 나타나는 ‘여, 윸, 윸’의 반홀소리가 그것이다: 使는 ㅎ여 ㅎ는 마리라(훈민정음) 드트르 얽미윸미 아니 드윸씨라(석보상절 6:29) 네 물 메윸 寶車(월인석보 13:19). 드물기는 하나 반홀소리인 /ㅈ/에도 켁김이 있었던 모양이다: 뽀뽀 내야 싸호미 업스면(월인석보 14:14). (국어음운학 367~368)

켁김홀소리 높은 홀소리 가운데는 그 공깃길을 다소 좁히고, 된소리를 낼 경우처럼 발음기관의 근육을 켁겨서 내는 소리가 있으니 이것을 ‘켁김홀소리’라 한다. 조선 초기의 우리말에는 ‘여’로 표기된 소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ㅣ/의 켁김홀소리이다: 帝釋손디 미여느니라(석보상절 13:9) 사르미게 미엔 고돌 곳 아라(몽산 범어 19). (국어음운학 367~368)

콧소리 콧소리는 목에서 나오는 소리를 목젖 뒤로 말미암아 콧길로 나오게 하여 내는 소리인데, 입길을 막는 자리의 다름을 따라 ㅁ, ㄴ, ㅇ으로 나뉜다. 그 막는 자리가 두 입술이면, ㅁ이 되고, 혀끝과 잇몸이면 ㄴ이 되며, 혀뿌리와 목젖이면 ㅇ이 된다. 콧소리는 모두 흐린소리(탁음)이다. (우리말본 83~84)

ㅅ

토씨 이름씨나 어찌씨 따위의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뜻을 돕거나 하는 말이다. ‘사람의 범을 잡았다. 학생들이 학교에 모였다.’에 보이는 ‘-이, -을, -에’와 같이 임자씨(사람, 범, 학생, 학교)에 붙어서 그것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또는 ‘나는 밥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사람만다 비 오기만 기다린다.’의 ‘-도, -마다, -만’처럼 그 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그 자체로서는 자립할 수 없는 말을 이르는데, ‘걸림씨’라고도 한다. (우리말본 156, 194~205, 611-)

통어적 짜임새 두 월성분의 한 쪽이 다른 한쪽을, 역학적 관계로 이끌고 있는 언어형식을 ‘통어적 짜임새’라 하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임자-풀이 짜임새: 한 월의 풀이말이 그 임자말을 이끌고 있는 통어적 짜임새. (2) 부림 짜임새: 풀이말이 그 부림말을 이끌고 있는 통어적 짜임새. (3) 상황 짜임새 (4) 한정 짜임새 (5)

꾸밈 짜임새 (6) 인용 짜임새 (국어학 258)

특별한씀만 것의 한 갈래. 특별함만의 하위분류. 한 풀이말(남이)에 이것과 저것은 다 부림말(씀이)이 될 수가 없으나 그 하나만 특별히 될 수가 있음을 나타내는 토이다. <주시경-용어>

특별한임만 것의 한 갈래. 특별함만의 하위분류. 한 풀이말(남이)에 이것과 저것은 다 임자말(임이)이 될 수가 없으나 그 하나만 특별히 될 수가 있음을 나타내는 토이다. <주시경-용어>

특별함도움토 무엇을 특별히 들어 말하는 도움토의 한 가지: 임 향한 일편 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금강산이야말로 우리 나라의 자랑이다. 이거야말로 개 밭에 쥐 잡기다. (우리말본 641~642)

특별함만 것의 한 갈래. 무엇을 특별히 들어 말하는 특별함도움토로, 여기에 다시 특별한임만과 특별한씀만으로 나뉘어진다. 특별한임만은 어떤 풀이말 앞에 다른 것은 임자말이 될 수 없으나 특별히 그것만은 임자말(임이)이 될 수 있음을 표하는 토이고, 특별한씀만은 어떤 풀이말 앞에 다른 것은 부림말(씀이)이 될 수 없으나 특별히 그것만은 부림말이 됨을 표시하는 토를 말한다. <주시경-용어>

특수소리바탕 닿소리의 내는 방법과 나는 자리는 어느 닿소리에나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ㄱ]이든 [ㄴ]이든 [ㄷ]이든, [ㄷ]이든 모두 내는 방법과 자리가 일정해 있어야 한다. 홀소리의 경우에도 한 가지이다. 그 나는 자리(앞-가운데-뒤)가 일정해 있어야 하고, 공깃길의 크기가 일정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보편적 소리바탕'인데, 말소리에는 이 밖에도 다른 소리바탕이 있어 말소리를 분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홀소리의 입술 등굼은 그 바탕이 있는 소리도 있고([오, 우, 외, 위] 따위), 그 소리바탕이 없는 소리도 있다.([이, 으, 아, 어] 따위) 또 닿소리의 경우에도 목청의 울림은 어떤 소리에는 있고 어떤 소리에는 없다. 이러한 소리바탕을 '특수적 소리바탕'이라 한다. (국어음운학 57)

특수토씨 월의 끝에 붙는 토씨. 월의 끝에 오는 특수토씨는 더 이상 아무 이음이 없이 끝내는 것('비가 쏟아 집니다그려.')과 다음으로의 이음이 있는 것('지금 떠난다마는 제 시간에 닿을 지 모르겠다.')으로 나뉜다. (1) 이음 있음: 여김 뒤바꿈 '-마는/만'. 재확인 '-시피'. 따옴 '-(라)고, -고' (2) 이음 없음: 의향법 강조나 느낌 '-그려'. 높임성 의향 '-요'. (우리말형태론 397~387)

II

파생가지 파생어를 만드는 가지. 뿌리에 딸려 있는 형태소는 파생가지와 굴곡가지가 있는데, 문법적 관계 개념을 드러내는 것을 '굴곡가지'라 하고, 새로운 낱말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것을 '파생가지'라 한다. 파생가지는 뿌리에 대한 그 자리에 따라서, 앞가지(접두사)와 허릿가지(접요소)와 뒷가지(접미사)로 나뉘는데, 국어에는 앞가지보다 뒷가지의 수가 더 많고, 그 용법도 다양하다. 국어에 '허릿가지'는 없다. (우리말본

파생적 합성이름씨 ‘이름씨+이름씨’로 된 통어적 합성어의 하나. 한쪽 성분이 가지에 가까우나, 가지가 아니라 이름씨인 것을 말한다. 흥정-바지: 吠甞는 흥정바지오(월석 10:21) 못-아들: 내 부터 못아드리스오니(법화 1:169) 겹-옷: 겹오솔 니보니(두언 7:38). (우리옛말본 97~98)

표현적 소리바탕 우리말은 소리의 길이가 말의 뜻을 분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소리의 길이가 말의 뜻을 분화하는 데 이용되기보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이용되는 일이 있다. 이를테면, ‘면:나라’의 ‘면:’은 길게 내는 소리이나, 이 긴 소리를 예사로 길게 내지 않고, 예사 긴 소리보다 더 길게 하면 그 면 정도가 더함을 나타내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면::나라’ 또 ‘절대로’의 ‘대’는 된소리로 내는데, 이 된소리의 지님(혀끝을 잇몸에 붙여 있는 동안)을 더 길게 하면서 근육의 썩김을 더 세게 하면 그 뜻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말의 근본 뜻을 분화하지 아니하면서, 감정적인 표현을 돋구어 주는 데 이용되는 소리바탕을 표현적 소리바탕이라 한다. (국어음운학 121~122, 135~136)

풀이풀 풀이씨가 임자말의 풀이말이 되어 끝맺지 아니하고, 그 뒤에 다시 그 일을 계속해서 풀이하는 말이 오게 하는, 풀이씨의 이음법 끝바꿈풀의 하나: 비가 오는데, 어디 가시오? 작은데, 옷은 퍽도 크다. 비가 오되, 많이 온다. 키는 작되, 간은 크다.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눈이 온다. 오늘은 삼월 삼절이니,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다. 그밖에 ‘-는바, -은바, -노니, -나니, -을새, -거든’. (우리말본 313~318, 509~510, 563~565)

풀이마디 끝나기만 하면, 또는 따로서기만 하면, 월이 될 만한 짜임을 가진 말이, 완전히 끝나지 아니하고, 또는 따로서지 아니하고, 다만 월의 한 조각이 됨에 그치는 것을 마디라 하는데, 그 마디가 풀이씨 같이 쓰이는 것을 풀이마디라 한다: 한강은 물이 맑다. 토끼는 앞발이 짧다. 모란꽃은 향기가 없다. (우리말본 741~745)

풀이말 월은 그 구실로 보아서, 몇 조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나뉜 조각을 ‘월의 짤 조각’, 혹은 ‘월의 조각(월조각)’이라 한다. 풀이말은 이 월조각의 한 가지이다.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 이런 월 짜임새에 있어서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풀이자리’라 하고,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말을(예: 운다, 아름답다, 범이다) 풀이말이라 한다. (1) 풀이말이 되는 것은 주로 풀이씨(움직씨, 그림씨, 잡음씨)이다. (2) 풀이씨(으뜸풀이씨)는 도움풀이씨의 도움을 받아 그와 함께 풀이말이 되는 일이 있다. (3) 위의 말에서 으뜸풀이씨와 도움풀이씨 사이에 토씨가 들어가는 수가 있다. (4) 풀이씨가 홀로 풀이자리에 설 때에도, 토씨의 도움을 입는 일이 있다. (5) 풀이마디가 풀이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말본 747~750, 763~765)

풀이씨 끝바꿈(활용)을 하는 형태적 특질과, 월의 풀이말의 구실을 하는 통어적 특질을 가진, 큰 씨 갈래의 한 가지. 풀이씨는 다시 그 형태적 특질과, 통어적 특질과 뜻으로 움직씨, 그림씨, 잡음씨의 세 가지 씨갈래로 나뉜다. 형태적 특질로 풀이씨는 세 가지 작은 씨갈래로 나뉘는데, 이 작은 씨갈래는 통어적 특질로도 저마다 다른 점이

있다. 풀이말을 중심으로 한 월의 큰 갈래 중, ‘어찌한다’의 자리에 올 수 있는 풀이씨는 움직씨이고, ‘어떠하다’의 자리에 올 수 있는 풀이씨는 그림씨이고, ‘무엇이다’의 자리에 올 수 있는 풀이씨는 잡음씨이다. (우리말본 155, 157, 160, 174)

풀이씨 뿌리를 포함한 낱말 중 굴곡을 하는 것을 ‘풀이씨(용언)’라 한다. 풀이씨는 월성분으로서의 풀이말로 기능하는 말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으로서, 줄기와 씨끝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줄기에는 각각 여러가지 씨끝이 붙어서 여러가지의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을 ‘끝바꿈’(활용, 굴곡)이라 한다. 현대말에서는, 풀이씨는 세 가지로 나뉜다. 움직씨(동사), 그림씨(형용사), 잡음씨(지정사)가 그것인데, 이들은 그 뜻으로도 대강은 구분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그 끝바꿈(굴곡, 활용)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말본 409-416)

풀이조각 월을 크게 나누면 풀이의 주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한 풀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풀이를 하는 부분을 ‘풀이조각’이라 하고, 풀이의 주체가 되는 부분을 ‘임자조각’이라 한다. 풀이조각은 간단한 것은 풀이말 하나로만 되는 것이 있고, 복잡한 것은 여러가지 조각으로 되는 것도 있다.(빗줄의 오른쪽 부분이 풀이조각.) <풀이말 하나로 된 것> 시냇물이 / 맑다. 사람이 / 살아 간다. (‘살아 간다’는 한 풀이말이다.) <여러 부분으로 된 것> 나는 / 학교에 간다. 나는 / 매일 산에 오른다. 사람이 / 큰 범을 잡았다. 사람이 / 저 산 위에도 살고 있다. (우리말본 760)

품 엇의 한 갈래. 여러가지 일과 몬의 성질과 모양이 어떠함을 그리어내는 그림씨의 어간. <주시경-용어>

ㅎ

하임도움움직씨 남으로 하여금 어떤 움직임을 하도록 만드는 뜻을 가진 도움움직씨의 한 가지, ‘하다’: 하루에 두 시간을 공부하게 한다. 네 아버지께서 너도 가게 하시 더냐? ‘만들다’: 그 사람이 또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요. 그이가 그 일을 잘 도게 만들 었어요. 원래 하임의 실제적 뜻은 ‘구속, 허용, 운수’의 세 가지인데, 하임도움움직씨의 나타내는 뜻은 ‘구속, 허용’ 두 가지 뿐이다. (우리말본 398-399)

하임도움줄기 움직씨의 줄기에 붙어서 다른 것으로 하여금 그 움직임을 하게 하는 뜻을 가진 도움줄기의 한 가지. 이것이 제움직씨에 붙어서는 그것을 남움직씨로 되게 하고, 남움직씨에 붙어서는 그것을 접남움직씨(이중 타동사)로 되게 한다. ‘-이-’: <제움직씨→남움직씨> 죽다-죽이다, 썩다-썩이다 <남움직씨→접남움직씨> 먹다-먹이다, 건너다-건네다 <제움→남움> 살다-살리다, 건다-걸리다 <남움→접남움> 듣다-들리다 <제움→남움> 서다-세우다, 새다-새우다 <남움→접남움> 깨다-깨우다, 지다-지우다 ‘-기-’: <제움→남움> 웃다-웃기다, 남다-남기다 <남움→접남움> 안다-안기다 ‘-히-’: <제움→남움> 앓다-앓히다, <남움→접남움> 잡다-잡히다. (우리말본 350-352)

하임말 하임의 주체(시키는 사람)가 어떤 다른 사람을 시켜,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 따라서 하임말에 있어서는, 하임의 주체는 실지 행동은 하지 않고, 실지의 행

동을 하게 되는 사람은 시킴을 받는 사람이다. ‘아히로 흰히 등어리 글키고’(두언 15:4)에 있어서, ‘아히’는 시킴을 받는 사람인데, 이 행동을 사실상 하고 있는 사람은 ‘하히’이며, ‘글키-’의 주체는 시키기만 하고 실지 행동은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글자 그대로의 하임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임말이라 불러온 것은, 이러한 전형적인 예는 오히려 드물고, 하임말의 주체가 실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임말이란, 그림씨나 제움직씨에서 파생된 남움직씨, 또는 남움직씨에서 파생된 겹남움직씨를 가리키는 것, 더 줄여 말하면 하임말은 밑말에 타동성이 첨가된 말이라 정의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우리옛말본 168~170)

하임법 월의 입자가 남에게 그 움직임의 결과에 이르도록 하는 뜻을 나타내는 움직씨를 하임움직씨라 하고, 이 하임움직씨를 만드는 방법을 하임법이라 한다. (1) 첫째 하임법: 예사움직씨에 하임을 나타내는 도움줄기 ‘-이-, -리-, -우-, -기-’를 더하여 하임움직씨를 만든다. (2) 둘째하임법: ‘하다 따위 움직씨’를 하임으로 만들려면, ‘하다’의 자리에 ‘시키다’를 가름한다. ‘일하다-일시키다, 말하다-말시키다’ (3) 셋째하임법: 모든 움직씨의 ‘-게’ 끝바꿈꼴에 ‘하임도움움직씨’를 붙여 만든다. (우리말본 410~420)

한가지도움토 이것과 저것이 한 가지임을 보이는 도움토의 한 가지: 너도 가겠니? 그 사람은 제주도 있고, 몸도 튼튼하다. 죽도 밥도 안 되었다. (우리말본 639)

한가지만 것의 한 갈래. 이것과 저것이 한가지임을 나타내는 도움토씨. ‘-도’. <주시경-용어>

한결도움토 하나도 빠지 않고 다 한결로, 또는 하나도 차등없이 골고루 함의 뜻을 보이는 도움토의 한 가지: 날마다 오전 아홉 시에 학교에 갑니다. 사람마다 그런 소리를 하겠지요. 아이마다 한 썩을 주어라. 누구든지 똑 열 개씩이다. 비행기 네 대씩이 한 동아리가 되어서 날아갔습니다. (우리말본 640)

한기능법 맺음씨끝은 그 기능으로 보아 두기능법과 한기능법으로 크게 나뉜다. ‘도훈’의 ‘-은’, ‘닷컴’의 ‘ㅁ’, ‘몰ㅎ야’의 ‘-야’는 모두 맺음씨끝인데, 앞의 두 활용형은 이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법범주를 두기능법이라 하고, 끝의 한 활용형은 한 가지 기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주를 한기능법이라 한다. 두기능법은 속구조의 풀이말을 겹구조에서는 다른 성분으로 기능하게 하는 문법적 방법이고, 한기능법은 속구조의 풀이말을 겹구조에서도 그 기능을 바꾸지 않는 방법이다. 한기능법은 그 말할이의, 들을이에 대한 의향이 있고 없음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말할이의, 들을이에 대한 여러가지 의향을 나타내면서 월을 끝맺는 마침법(의향법)이요, 하나는 그러한 의향을 나타내지 않으며, 월을 끝맺지 않고, 앞뒤 말 사이의 관계만을 나타내는 이음법이다. (우리옛말본 477~478)

한자리월 자리토씨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입자자리 한자리 밖에 없는 월을 한자리월이라 한다. 따라서 한자리월은 풀이말이 제움직씨나 그림씨로 된 제움직씨월과 그림씨월이 된다. (우리말형태론 482)

할수도움줄기 움직씨의 몸에 붙어서 그 움직씨임을 할 수 있음을 보이는 도움줄기: 한 시간에 백리라도 달아나겠다. 내가 그 문제를 풀겠느냐? (우리말본 361)

함께금 것의 한 갈래. 입자씨 뒤에 붙어서 그것과 함께 무슨 일을 함을 이르는 함께

자리토. ‘-와, -과’. <주시경-용어>

함께어찌말 움직임을 함께 하는 뜻을 나타내는 어찌말의 한 가지이니, 임자씨에 함께 자리토를 더하여 만든다: 너는 누구하고 살 터이나? 나는 그 사람과 함께 가겠습니다. 사람이 자연과 싸운 결과가 문명이다. (우리말본 780)

함께자리토 임자씨 뒤에 붙어서, 그것과 함께 무슨 일을 함을 나타내는 자리토씨의 한 가지: 사나운 적과 싸우자. 수남이는 동무와 산에 놀러 갔다. 동무하고 놀러 가세. (우리말본 629~630)

합성풀이씨 한 월에서 형식상 이어나오는 두 개의 풀이씨가 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날덩이로서의 형태적 합성풀이씨를 이룰 때, 이 월을 합성풀이씨 구조라 한다. 합성풀이씨 구조는 이중풀이씨 구조 및 도움풀이씨 구조와 함께 겹구조로는 모두 같은 두 개의 풀이씨가 이어진 형식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의 변별 기준이 문제가 된다. <합성풀이씨 구조의 식별> (1) 두 풀이씨 사이에 ‘늘리기’가 부자유스러우며 특히 두 풀이씨를 갈라놓는 ‘-서’ 늘리기가 불가능하다. (물건값이) 내려가다→*내려[서]가다 (2) 두 풀이씨가 각각 임자말을 지배하지 못하며, 다만 두 풀이씨가 합성된 한 날덩이의 풀이씨가 되어 임자말을 이끈다. 물건값이 [내려+가다] (3) 두 풀이씨의 배합된 날덩이는 구성소의 각 뜻보다 제3의 뜻으로 바뀐다. (물건값이) 내려가다→*떨어지다 이러한 합성풀이씨 구조는 형태적 구조이다. (우리말형태론 670~678)

해보기도움움직씨 시험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해 본다는 뜻을 나타내는 도움움직씨의 한 가지. 으뜸움직씨의 ‘-어/아’ 끝에 붙어 쓰인다. ‘보다’: 좀 먹어 보아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별 수가 없네. 보아 보니, 그 사람이 신통하지 못하네. (우리말본 402)

행모언 여러가지 행위의 모양이 어떠함을 그리는 매김씨(관형사)로 이는 일과 몬의 성질과 모양이 어떠함을 그려 내는 속걸그림씨(성상형용사)의 매김꼴. <주시경-용어>

행모엇 엇의 한 갈래. 행위의 모양을 나타내는 그림씨의 줄기. <주시경-용어>

행품언 언의 한 갈래. 여러가지 행위의 품성, 성질, 상태가 어떠하다고 이르는 그림씨의 매김꼴. <주시경-용어>

행품엇 엇의 한 갈래. 행위의 품성, 성질, 상태가 어떠하다고 그리는 말로 속걸그림씨(성상형용사)의 줄기. <주시경-용어>

허용적 하임말 하임말의 하나. 하임의 주체가 시킴 받는 사람에게 대해서 강제성을 띠지 않고, 단지 행동을 허용하는 경우의 하임말이다. ‘지비 드려 재더니’(석보 6:16)에는 대개 시킴받는 사람 자신이 하고 싶은 의사를 가진 것으로서, 하임의 주체는 그것을 허용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살이다’ 따위도 그 예인데 이것을 ‘허용적 하임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구속적 하임말’과의 구별이 확고하지는 않다. ‘재다’도 강제성을 떨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본 170)

험 임기의 한 갈래. 셈씨(수사). <주시경-용어>

험금 것의 한 갈래.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서 그 수량을 나타낼 때 쓰이는 토. <주시경-용어>

험언 언기의 갈래. 일이나 몬의 수나 양을 나타내는 언기(매김씨)로 이는 단위성 매

인이름씨(의존명사)와 결합하여 사물의 수량을 표시하는, 셈술매김씨(수량관형사). <주시경-용어>

혀옆소리 ‘달#’, ‘홀러’의 ‘ㄹ’ 소리와 같이,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혀옆으로 공기가 홀러 나가도록 해서 내는 소리를 ‘혀옆소리’라 한다. IPA로는 [l̥]로 적는다. 이 소리는 울림을 띠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어서는 소리로서의 청취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울림소리로 난다. (국어음운학 33)

형식풀이씨 이는 실질성이 없는 풀이씨이니 잡음씨가 이에 해당한다. 잡음씨는 형식 논리상에서 판단작용(긍정/부정)을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실질풀이씨인 움직임씨와 그림씨와는 분명히 다르다. (우리말형태론 307)

홀로끗 꺾의 한 갈래. 배품꼴. <주시경-용어>

홀로도움토 다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데 오직 이것만이 홀로 그러함을 보이는 도움토: 애만 속절없이 타는구나! 그는 공부만 한다. 돈만 있으면 제일이나? 아홉 시 안으로 온 이는 나뿐이다. 그가 말뿐 아니라, 돈도 많이 내었어요. 그러나 풀이씨의 매김꼴 뒤에 쓰이는 ‘뿐’은 안응근이름씨이다: 나도 그저 한번 가 볼 뿐이다. (우리말본 639~640)

홀로만 꺾의 한 갈래. 다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데, 이것만이 홀로 그러함을 보이는 토씨. ‘-만’. <주시경-용어>

홀로말 월 가운데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고,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는 성분이다: 옛 올흐시이다(석보 13:47) 彌勒아 아라라(석보 13:29). (우리옛말본 44~45)

홀로말 홀로말은 월을 만드는 월조각의 한 가지로서, 월 가운데서 다른 말들과 긴밀한 연락이 없이, 홀로 서는 조각을 이룸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쓰인다. 1) 사람을 부를 때:(부름말) 할머니, 어데 가셔요? 차돌아, 이리 오너라. 2) 말거리를 보일 때:(보임말) 결혼, 그것은 아직 문제도 안된다. 3) 느낌:(느낌말) 아아! 아름답다. 4) 월을 이음: (이음말) 그러나, 그는 그 돈을 먹지 않았다. <홀로말의 되기> 1) 부름말의 되기: (1) 임자씨 홀로: 아버지, 손님이 오셨어요. (2) 임자씨+부름자리토: 쇠돌아, 학교에 가자. 2) 보임말의 되기: (1) 임자씨: 사람, 사람이 첫째이다. (2) 임자씨 다름을 받는 말: 노래하다, 이것은 제음직씨이다. 3) 느낌말은 느낌씨로 된다. 아아! 가엾은 일이로군! 4) 이음말은 이음 어찌씨로 된다. 하지마는, 돈보다도 사람이 문제이다. (우리말본 758~759, 783~785)

홀로쌈만 꺾의 한 갈래. 홀로만의 하위분류. <주시경-용어>

홀로씨 홀로말로 기능하는 낱말. ‘이음씨’와 ‘느낌씨’로 나뉜다. 1) 이음씨(접속사): 말을 시작하거나, 앞 말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뒤 말을 비롯하는 구실을 하여, 홀로 말이 되는 낱말을 ‘이음씨’라 한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씨, 그런드로, 이런드로 2) 느낌씨: 토씨의 의지 없이 홀로말로만 쓰이는, 느낌을 나타내는 말을 ‘느낌씨’라 한다. 예: 舍利弗이 솔보더 옛 올흐시이다 (석보 13:47) 인 男子아 엇던 이를 爲하야 이 길 혜 든다 (월석 21:118) (우리옛말본 984)

홀로이름씨 이름씨는 그 쓰이는 사물의 범위의 국한성의 다름을 따라, ‘두루이름씨’

와 ‘홀로이름씨’로 나뉘는데, 홀로이름씨란 다만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나 일과 문에만 홀로 쓰이는 이름씨를 말함이다. 곧 ‘단군, 세종대왕, 이순신’과 같은 사람 이름, ‘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와 같은 나라 이름, ‘서울, 평양’과 같은 땅 이름, ‘백두산, 한라산’과 같은 산 이름, ‘한강, 낙동강’과 같은 강 이름, ‘삼국유사, 논어, 살수대전’과 같은 특정한 일문의 이름 따위가 홀로이름씨이다. 홀로이름씨와 두루이름씨는 이론적으로 꼭 분명하게 나뉘는 것이 아니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구별은 꽤 명백하다. (우리말본 212~216)

홀로임만 것의 한 갈래. 홀로만의 하위분류. <주시경-용어>

홀로제임 입의 한 갈래. 홀로이름씨(고유명사). <주시경-용어>

홀로조각 월을 이루는 조각은 크게, ‘으뜸조각’, ‘딸림조각’, ‘홀로조각’으로 나뉘는데, 홀로조각은, 으뜸조각 모양으로 월을 이루는 데에 빠질 수 없는 것도 아니며, 또 딸림조각처럼 그 으뜸조각에 붙어서지도 아니하고, 따로서서 다른 조각과의 말본스런 걸림이 긴밀하지 못하고, 다만 넓은 의미에서 월의 한 조각이 되어서 그 다음에 오는 다른 조각에 여러가지의 영향을 주는 것이니, ‘홀로말’이 곧 그것이다. (우리말본 748)

홀소리 홀소리는 목청을 울려서 울림이 된 공기가 소리고루는 데(조음부)를 지나올 적에, 그 큰 막음(장애)을 입지 아니하여 끝내 규칙 바른 소릿결(음파)을 가지고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이다. 홀소리의 특징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홀소리는 반드시 목청을 떨어올리는 울림소리이다. 홀소리에든 맑은 홀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나라 말에서든지 대중소리(표준음)로 삼지 않는다. (2) 홀소리는 규칙 있는 결을 이루는 소리이다. 이는 공기의 흐름이 몸 밖으로 나오는 동안에 큰 막음(장애)을 입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3) 홀소리는 대개 입소리(구강음)이다. (4) 홀소리에는 혀바닥의 가운데 줄을 쓰는 소리이다. (5) 홀소리는 제홀로 날내(음절)를 이룬다. (6) 홀소리는 얼마 동안이든지 그대로 이어낼 수가 있다. (우리말본 48~50)

홀소리부딪음 두 홀소리가 바로 이어나되, 두 소리마디로 분리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인위적인 경계를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는 신경을 써서 주의 깊게 발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두 홀소리가 그 소리를 바꾸는 일이 있으니, 이 현상을 ‘홀소리부딪음’(모음충돌)이라 한다. 그 예는 흔히 볼 수 있다: 크+어→커, 쓰+어라→써라, 흐올로>홀로, 드외다>되다, 서+어서→서서, 가+았다→갔다. 한 홀소리가 반홀소리가 되어 두 홀소리가 한 소리마디로 줄어짐: 버리+어라→버려라, 보+아라→봐라. 두 홀소리 사이에 닿소리를 넣음: 사인교→사린교 나시>나이. (국어음운학 227, 282, 530, 579)

홀소리상대법칙 음운(음소와 운소)의 같음은 말의 뜻을 분화하여 뜻 다른 말을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인데, 때로는 분명히 대립되는 음소의 같음이 말의 근본적인 뜻을 바꾸지 않으면서 다만 그 말의 어감만을 달리하는 데 봉사하는 일이 우리말에는 흔히 있다. /아:/어/-가못가못:거못거못, 까맣다:꺼멧다, 팔팔:필필, 팔락팔락:필릭필릭 /애:/에/-대굴대굴:테굴테굴, 땡그랑:땡그랑 /야:/여/-야무지다:여무지다, 알다:열다, 암치:염치 /와:/위/-팡팡:핑핑, 환하다:훤하다, 활활:훤훤 /왜:/웨/-웁웁:웁웁 /오:/우/-꼬물꼬물:꾸물꾸물 /외:/위/-되롱되롱:뒤롱뒤롱 /요:/유/-뽀죽이:뽀죽이 /아:/으/-가득하다:그득하다 /애

/:/의/-해끄무래:희끄무래 /아:/이/-자글자글:지글지글 /야:/이/-가름하다:기름하다 /애:/이/-매끄럽다:미끄럽다. 이러한 현상을 ‘홀소리상대법칙’이라 한다. (국어음운학 589-591)

홀소리어울림 지금말의, 홀소리어울림으로 본 홀소리의 갈래는: 밝은홀소리: /아, 오/ 어두운홀소리: /어, 우, 으, 이, 애, 에, 외, 위/와 같은데, 이 소리들은 한 형태소 안이나, 두 형태소 사이에서 같은 갈래를 가려잡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말에 있어서는 홀소리어울림은 그 적용 범위가 그리 넓지 않으며, 그 적용의 규칙성도 그리 엄격하지 않다. 그러나 15세기에 있어서는 홀소리어울림의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넓으며, 그 규칙성도 더 엄격하였다. 그때의 홀소리어울림으로 본 홀소리의 갈래는; 밝은홀소리: ‘아 으 오’. 어두운홀소리: ‘어 으 우’. 이리하여 밝은홀소리는 밝은홀소리끼리, 어두운홀소리는 어두운홀소리끼리 어울리되, 가운데는 두 쪽에 두루 어울린다. 그 범위는 지금보다 매우 넓어서, 한 형태소 안의 홀소리는 모두 어울림의 규칙을 받으며, 두 형태소 사이에서는 뒤 형태소의 첫머리의 /어/ : /아/, /우/ : /오/, /으/ : /으/가 같음하여, 앞 형태소의 홀소리와 어울리게 된다. (국어음운학 272-273)

홀소리 겹소리에 맞서는, 홀홀소리(단모음), 홀닿소리(단자음). <주시경-용어>

홀씨 ‘씨의 짜임’(품사의 조직)으로 갈라 보면, (1) 아예부터 도무지 두 씨로 가를 수 없는, 곧 순전한 한 낱의 씨로만 된 홀씨와 (2) 둘 더 되는 씨로 가를 수 있는, 곧 둘 더 되는 씨와 씨가 겹쳐서 한 씨로 된 겹씨(복사)와의 두 가지로 가를 수 있다. 홀씨에는 두 조각으로 가를 수 없는 순전한 홀씨: ‘콩, 떡, 나무’ 따위가 있으며 두 씨는 아니지만은 두 조각으로 가를 수 있는 홀씨: ‘기력지, 맨손, 형님’ 따위도 있다. (우리말본 657-658, 688-690)

홀월 월은, 그 짜임으로 보아서, ‘홀월’, ‘가진월’, ‘벌린월’, ‘이은월’의 네 가지로 나뉘는데, 홀월은 임자말과 풀이말의 걸림이 단 한 번만 성립한 것을 말함이다. (1) 홀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임자조각과 풀이조각이 각각 하나씩인 것이다: (임자조각 / 풀이조각) 달이 / 밝다. (2) 임자말이 비록 여럿이라도, 풀이말과의 걸림의 성립이 단 한 번만인 것은 역시 홀월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 밥을 간다. (3) 풀이말이 여럿이라도 그 임자말과의 걸림의 되기가 단 한번만인 것은 또한 홀월이다: 그애가 /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4) 임자말과 풀이말이 다 여럿으로 되었더라도, 그 관계가 단 한번만인 것은 홀월이다: 꽃과 잎이 / 붉고 푸르다. (5) 그 밖에 꾸밈말, 기움말 따위의 있고 없음과 적고 많음은 홀월이 되고 안됨에 아무 상관이 없다. 홀월에서는 풀이말이 꼭 한 번만 끝나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홀월이 되지 못한다: ‘사랑이 어떻더냐, 둥굴더냐, 모나더냐?’는 홀월이 되지 못한다. (우리말본 817-823)

홀음소 우리말의 /ㅋ, ㅌ, ㅍ, ㅊ/은 각각 [kh, th, ph, tʃh]로 나는 것이니, 이것들은 모두 엄격하게 따지면 두 소리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말의 음소 분석에 있어서는, 이 소리들은 각각 한 음소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이 소리에 대한 반응은 한 소리로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콩, 통, 풀, 춤’ 따위 말은 모두 세 소리로 된 것을 인식하고 있다. 둘째, 이 소리들을 두 음소로 보게 되면, 말의 첫머리에 두 닿소리 음소가 오는 것이 되는데, 우리말에서는, 이러한 의심스런 말 말고는, 말의 첫머리에 둘 이상의 닿소리 음소가 올

수 없다. 이와 같이, 우리말의 음소 조직의 일반적인 특질로 보나,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음운 의식으로 보나, /ㄱ, ㄷ, ㅍ, ㅌ/은, 비록 객관적인 소리의 특질로는 두 소리이지마는, 한 음소로 분석하는 편이 좋다. 두 소리의 이음이, 한 음소로 분석될 때에, 이 소리들을 ‘홀음소의 가치’를 가졌다고 한다. (국어음운학 172, 179)

홀홀소리 우리말의 홀홀소리의 수는 /ㄱ, ㄷ, ㅍ, ㅌ, ㄴ, ㄹ, ㄷ, ㄹ, ㄷ, ㄹ/의 아홉이다. 목청을 떨어울린 소리가 입안을 지날 때 그리 심한 막음(장애)을 받지 아니하고 몸 밖으로 흘러 나가는 것이 홀소리이지만, 조금씩은 혀, 입술, 입천장 등의 막음 곧 고름을 받기 때문에, 홀소리에 여러가지의 다름이 생긴다. 그런데, 두 입술의 여는 분수, 그 등글어짐의 분수, 혀(앞바닥, 가운데바닥, 뒷바닥)를 입천장에 닿게하는 분수는 수없이 다름이 있는 까닭에, 홀소리의 수도 또한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말이든지 그 수없는 홀소리를 따로 갈라 쓰지 아니하고 다만 그 사이사이의 어떤 점을 가지고 그에 가까운 소리들을 대표시켜 쓰는 것이다. 이를테면 /ㄱ/ 소리도 여러가지가 있을 터이지만, 이를 낱낱이 가르치 아니하고 ㄱ 하나로써 모든 것을 대표 시킴과 같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 말이든지 그 홀홀소리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아니하며, 또 나라마다 그 수가 서로 같지 아니함이 예사이다. 우리말의 홀홀소리의 수가 아홉으로 된 것도 그 까닭은 이와 같다. (우리말본 58~60)

홀홀소리되기 형태소의 변동규칙의 한 가지. 뒤홀소리 가운데 /아, 어, 오/는 그 다음에 /이/가 이어나면 이 두 소리는 그 사잇소리로 바뀌는 일이 있다. /아+이→애/ *자이다→재다, *타이다→태다, *파이다→패다. /어+이→에/ *서이다→세다. /오+이→외/ 보이다→뵤다 (*표를 붙인 것은 필연적인 변동). (국어음운학 279)

흐름소리 혀옆소리, 두들김소리, 떨어음소리 모두를 가리킨다. (국어음운학 34)

힘줄끝 같은 말을 거듭하여 그 뜻을 세게 하는 그림씨 끝바꿈꼴의 한 가지: 높으나 높은 낱에, 기나 긴 가을 밤을 어이 새울고? 찬디 찬 가슴에 손을 얹었다. 물이 아직 뜨겁디 뜨겁다. 갈 길이 멀고 멀다. 이쁘고 이쁘다, 나의 동생. (우리말본 512~513)

힘줄도움줄기 움직씨의 씨몸에 붙어서 그 움직임의 뜻을 세게 하는 도움줄기. ‘-치-’: 날다-날치다, 넘다-넘치다, 떨어다-떨치다, 놓다-놓치다, 밀다-밀치다, 내다-내치다, 달다-달치다, 접다-접치다. ‘-뜨리-’: 깨다-깨뜨리다, 들이다-들이뜨리다. ‘-트리-’: 깨다-깨트리다. 이것은 다만 일정한 수의 말에만 쓰임으로 이것을 도움줄기로 보지 말고, 아예 말만드는 뒷가지로 보는 것이 옳다. (우리말본 362)

힘줄법 어떤 상태나 움직임의 뜻을 세게 나타내기 위하여 쓰이는 이음법. 힘줄법 씨 끝에는 ‘-(으)나, -디, -고’ 따위가 있다. 이 씨끝은 풀이씨에서 풀이씨에로 이어주는 특별한 이음법 씨끝이다. 이들 힘줄법 씨끝 ‘-(으)나, -디, -고’는 주로 그림씨에 붙으면서 필수적으로 같은 그림씨 줄기를 되풀이하여 이끄는 필수공존구조를 이룬다. 다만 ‘-고’의 경우는 움직씨 줄기에도 붙어 움직씨 줄기의 되풀이 현상과 필수공존구조를 이루기도 한다: 겁디 겁은 머리, 기나 긴 겨울밤, 높고 높은 부모님의 은혜, 울고 울다 지쳐 잠이 든 아이. (우리말형태론 447~451)

참고 문헌

- 권재선 (1988), 국어학 발전사, 우골담.
- 김계곤 (1996), 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김광해 (1993), 국어어휘론개설, 집문당.
- 김광해·권재일·임지룡·김무림·임철성 (1999), 국어지식탐구, 도서출판 박이정.
- 김두봉 (1922), 깃더조선말본.
- 김석득 (1994), 우리말 형태론 - 말본론, 정음문화사.
- 김승곤 (1991), 한국어 통어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 김승곤 (2003), 현대 표준말본 - 형태론, 한국문화사.
- 김윤경 (1948), 나라말본.
- 김차균 (1998), 음운론 강의, 태학사.
- 남영신 (1987), 우리말 분류 사전, 한강문화사.
- 남영신 (1989), 우리말 분류 사전 2: 풀이말 편, 한강문화사.
- 박용수 (1989), 우리말 갈래 사전, 한길사.
- 박용수 (1992), 거래말 갈래 큰사전, 한글문화연구회.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 교육인적자원부 (2002), 고등학교 문법: 교사용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2), 고등학교 문법, 교육인적자원부.
-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편 (1973), 국어국문학사전, 신구문화사.
- 역대한국문법대계 총색인 (1986), 탑출판사.
- 임지룡 (1989), 국어 분류 어휘집의 체제와 상관성, 국어학 19, 국어학회.
- 임홍빈·한재영 (1993), 국어 어휘의 분류 목록에 대한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임홍빈·한재영 (2003), 국어학 용어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정열모 (1946), 신편고등국어문법.
- 정인승 (1956), 표준고등말본.
- 주시경 (1910), 국어문법.
- 주시경 (1914), 말의 소리.

- 최낙복 (2003), 주시경 문법의 연구 (2), 도서출판 역락.
- 최현배 (1937/1971), 우리 말본, 정음사.
- 최현배 (1940/1976), 고친 한글갈, 정음사.
- 한글학회 (1995), 국어학사전, 한글학회.
- 한유석·설근수 (2004), 한국어 시소러스 연구, 한국문화사.
- 허 응 (1963), 언어학개론, 정음사.
- 허 응 (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 응 (1983), 국어학, 샘문화사.
- 허 응 (1985),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 허 응 (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허 응 (1999),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문화사.